제11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맹인과 등불



행정안전부

대상(대통령상) 단편소설
맹인과 등불 _ 서울 서대문구 김성기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시
화첩기행 _ 울산 범서초교 김종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시조
겨울담채 _ 경상북도 정영화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수필
비누거품 _ 인천광역시 김외순

최우수상(국무총리상) 동시
할아버지의 발톱 _ 전주 송북초교 정성수

최우수상(국무총리상) 동화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_ 광주 계수초교 서향숙

최우수상(국무총리상) 희곡.시나리오
열아홉의 꿈 _ 김해 삼문고 이춘영

2008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맹인과 등불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초판인쇄 | 2008년 7월
초판발행 | 2008년 8월
엮은이 |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
지은이 | 김성기 외 53명
펴낸곳 | 에스제이 070-7011-7364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08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공직사회를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

어느 해보다 많은 참여로 더욱 빛이 났던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서 탁월한 문학적 소질을 발휘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8년 공무원문예대전에서 뽑힌 수작(秀作)들을 엮어 「맹인과 등불」이라는 제목의 문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더욱 풍요롭고 창의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문학을 통해 갈고 닦여진 아름다운 심성으로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공무원 문학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100여 편의 많은 작품이 응모됐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문학등용문이라 불리는 신춘문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대회의 수준과 위상도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자 무한한 상상의 세계이며, 또한 감동과 변화의 심오한 에너지입니다. 공직자에게 문학은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더욱 값지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글이란 손끝의 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의 소리를 피와 땀으로 녹여낸 고난의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된 55편의 작품들은 공직자로서 바쁜 일상가운데도 문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삶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고 아름답게 풀어나간 이번 대회 최고의 수작들입니다.

아무쪼록 문학 활동을 통해 스며든 공직자 여러분의 내면적 향기와 삶의 지혜가 국민을 더 잘 섬기고 질 높은 행정으로 옮겨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정서와 사상을 오롯이 담고 있는 이 문집이 공직사회와 국민의 마음을 환히 밝혀 주는 등불 같은 존재로 자리잡아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문예대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08년 7월

행정안전부장관 

문학은 이상향으로 가는 디딤돌

‘문학을 알면 삶의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문학이 얼마나 가치있는 ‘예술’인가를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문학은 그 내용이 아무리 허구요 가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인물, 성격, 사유, 행동,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어 보지 못한 ‘살아 있는 경험’으로 환치시켜 삶의 길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의롭고 이상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문학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는 커녕 많은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서점에서도 문학책은 먼지 쌓인 구석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일찍이 문학이 사랑받은 나라는 대개가 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렇고, 이웃나라인 일본이 그렇습니다. 시집, 소설집이 나오면 적게는 수십만 부에서 수백만 부까지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를 두고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결코 예사로 흘려버릴 말이 아닙니다.

문학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 예술작업입니다. 작품 한 편을 ‘하나의 우주’에 견주는 이유도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곧 이상향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문학의 '고고한 가치'에 대한 마음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가다듬을 때가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공무원문예대전'을 개최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응모작 수가 5천 편에 육박한 것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의 밭에 뜻깊고 소중한 '씨앗'을 심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문학'이 중심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문예대전'이 이러한 문화운동을 주도하는 희망찬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2008년 7월

심사위원장 김 남 곤

(시인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2008
Contents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발간사 행정안전부장관 | 8

축사 심사위원장 | 10

심사평 495

시부문

최우수상  화첩기행 **김종훈** 울산 범서초교 | 19

우수상  낙원공원 **김동선** 안성시 | 21

 매미 **이순미** 서울 신현중 | 23

 비올리스트 용재오닐의 비올라섬 **박순덕** 부천 남초교 | 25

 산정 **정승윤** 광주고 | 27

 풀잎으로 **김지은** 부산 금정구보건소 | 29

장려상  교사의 자리 **김미화** 대구 공업고 | 31

 국회도서관 **설창훈** 서울 노량진초교 | 33

 덕유산 **서형택** 수원 팔달구보건소 | 35

 별과 그물 **강연복** 울산 무거중 | 37

 수업시간1 **유영길** 수원 고색초교 | 39

 숲 세탁소 **권기덕** 대구 서재초교 | 41

 출항일지 **이종만** 부산보호관찰소 | 43

시조부문

최우수상

 겨울담채 **정영화** 경상북도 | 47

우수상

 모둠발 서는 나무 **전세중** 서울소방재난본부 | 49

 태안반도에서 **노희석** 영등포구치소 | 51

장려상

 모과나무 **원정호** 포항 문충초교 | 53

 사유의 꽃 **김영기** 전)제주 남광초교 | 55

 삶의 수채화 **신기용** 제53보병사단 | 57

 서라벌 눈 오는날 **서관호** 경주 황남초교 | 59

수필부문

최우수상  비누거품 **김외순** 인천광역시 | 63

우수상  아버지의 지게 **정성수** 전주 송북초교 | 69

 작두와 할아버지 **강인복** 충청남도 | 75

장려상  반짇고리 **심금섭** 경주 용강초교 | 81

 봄기운 **김화숙** 서울 금천구 | 87

 아다지오 **최계순** 경북 고령군 | 93

 아차도 **김관철** 인천광역시 | 101

 이별 준비 **강기석** 군위 효령초교 | 109

 청소 **하상만** 의정부 효자고 | 115

단편소설부문

대상  맹인과 등불 **김성기** 서울 서대문구 | 125

우수상  미다시로 지은 집 **임문호** 부산 연제구 | 143

 보훈가족 **강동희** 전)시지고 | 161

장려상  가나안 **김승희** 용인경찰서 | 197

 다른 문(門)을 찾다 **김경수** 광명 남초교 | 219

 사진속에 비친 풍경 **김재헌** 고양 일산동구 | 251

 회춘 **이인호** 울산 울주군 | 279

동시부문

최우수상  할아버지의 발톱 **정성수** 전주 송북초교 | 305

우수상  도라지꽃 **임동학** 포항 유강초교 | 307

 신나는 통통배 **박영식** 남울산우체국 | 309

장려상  깜깜한 밤 **서동숙** 고령초교 | 311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심장근** 온양 권곡초교 | 313

 멸치의 꿈 **권지현** 서울 백산초교 | 315

 비 오는 날 **문현식** 고양 고봉초교 | 317

 시험지 **송명숙** 울산 동백초교 | 319

동화부문

최우수상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서향숙** 광주 계수초교 | 323

우수상  점박이 **최만호** 청주교도소 | 333

장려상  꼬마화분 **장흥진** 안양 삼봉초교 | 343

 새치 뽑던 날 **임동학** 포항 유강초교 | 353

 은빛 날개 비늘 **서동숙** 고령초교 | 363

 학교 종 **이종욱** 대전 도마초교 | 375

 할머니의 금메달 **이윤정** 성남 대원여중 | 385

희곡·시나리오부문

최우수상  열아홉의 꿈 **이춘영** 김해 삼문고 | 397

우수상  이방인 **선미애** 화성 동화초교 | 413

장려상  황톳길 **김성민** 경남 함안군 | 481

시 부문

최우수상

화첩기행 _ 김종훈

우수상

낙원공원 _ 김동선

매미 _ 이순미

비올리스트 용재오닐의 비올라섬 _ 박순덕

산정 _ 정승윤

풀잎으로 _ 김지은

장려상

교사의 자리 _ 김미화

국회 도서관 _ 설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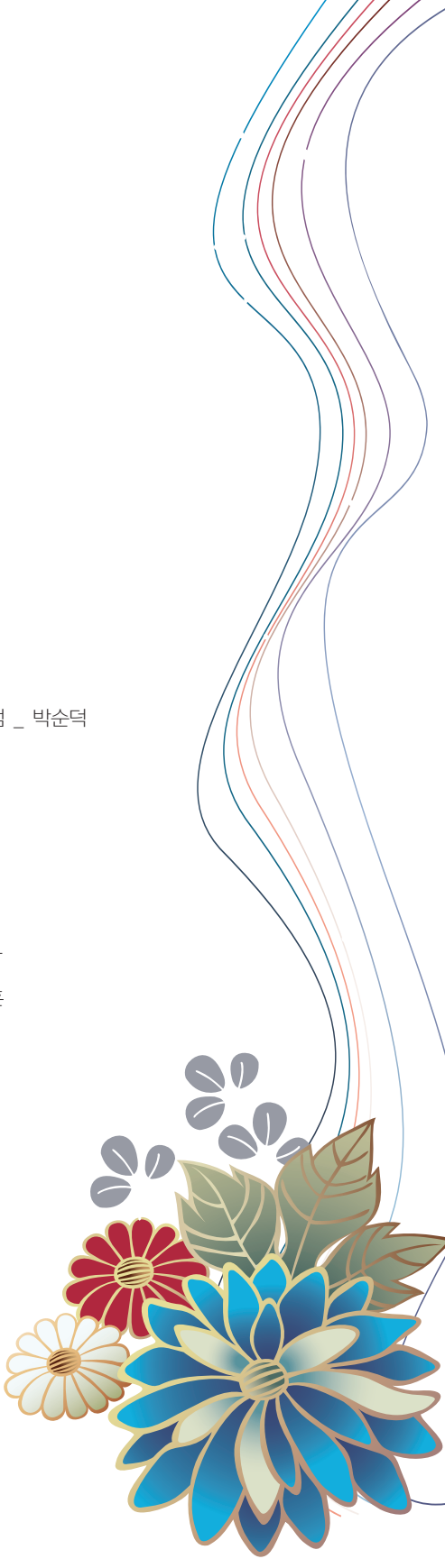
덕유산 _ 서형택

별과 그물 _ 강연복

수업시간! _ 유영길

숲 세탁소 _ 권기덕

출항일지 _ 이종만







울산 범서초교 _ 김종훈

화첩기행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흐린 화폭 한 가운데 오막 한 채 올려놓자
직립의 가파른 풍경들이 병풍처럼 둘러선다
갈기 세운 등마루 금방이라도 낚아챌 듯
잔뜩 웅크린 채 산부리를 내밀고 다급해진
늙고 수척한 길 너설을 빠져 산가로 들어선다
숫눈 위에 또 눈이 내려 수묵의 풍경들
하나 둘 지워지고 길이란 길 죄다 돌아눕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사내 하나 길에서 내려서서
키를 훌쩍 넘긴 나뭇짐을 눈발로 뒤집어 쓴 채
불어오는 칼바람과 맞서고 있다 맨발이다
울고 있는지 버티고 선 지겟작대기가 흔들린다
묵즙이 느릅나무 껍질의 발등을 적시고
소금절인 등태를 적시고 나뭇짐을 적시고
보리뜨물 빛깔로 남은 선지의 모서리마저
까맣게 적실 때까지 그 자리다 밤이다
이천댁이 머릴 풀고 뛰어들었다던
파래소보다 더 깊고 검푸른 밤이다
산꼬대로 화폭은 모조리 얼어붙고



눈보라에도 꼬장꼬장하던 소나무
소리 없이 쌓이는 적막을 견디지 못해
생허리를 꺾고 언 호수로 뛰어내린다
불현듯 귀청을 찢는 우레 같은 비명소리
어린 골짝이 울고 무게로 앉아 있던
속 깊은 골짝이 서럽게 운다 그 울음소리에
달포 넘게 포개던 눈도 어느새 잦아들고
산배에서 얼쩡대던 햇살이 고개를 내밀자
화폭은 시먹조차 보이지 않는 환한 눈밭천지
사내는 어디로 갔을까
얼음장 밑으로 옹알이며 흐르는
귓불 시린 물 길어 벼룻돌 사각거리는 아침
햇살은 자술서 쓰듯 눈밭이랑 타고 있다

핸들을 놓고 걷는 일이 많아졌다.
속도를 줄이자 풍경들이 다가왔다. 낯이 익자 방죽 너머 판잣집이, 길섶의 이름 한번 갖지 못한 풀꽃들이 말을 걸어왔다. 너무 빨리 걸어왔다고, 많은 걸 지나쳐 버렸다고, 이제 화장도 먹히지 않는다고, 더 몸을 낮추고 더욱 천천히 걸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는 속도가 지워버린 풍경들을 되살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옮겨 적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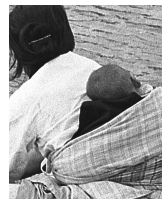


안성시 _ 김동선

낙원공원

가시에 긁힌 듯 실밥이 터진 하늘에는
상처의 붉은 기운이 미지근하게 남아있다.
구부정한 추억을 반추하던 탁한
언어의 껍질을 슬그머니 벗어 놓고
노인들은 하나 둘 자리를 뜬다.
지루한 독설에 살짝 그을린 듯 검게 변색된 손가락으로
다 타버린 재처럼 헐거운 시간을 뒤적이던 마지막 노인이
날갯죽지를 털고 일어선다.
헐렁한 허기가 벤치 아래 떨어진 담배꽁초처럼
딱딱하게 식어 간다.
공원에 벗어 놓은 그림자를 덥석 물고
새가 날아오른다. 새의 길을 따라 또다시
먹물처럼 풀어지는 지루한 밤.
가로등은 허리를 굽혀 노인이 흘린 잡담들을 주워담느라
낮과 밤의 경계에 불을 켠다.
얼어붙은 몇몇 기억을 지우며
밤새도록 부스럭거리는 공원에 또다시
식혜 알처럼 삭은 별들이
알알이 떨어진다.

붉게 상기된 꽃들이 일제히 꿈틀거린다. 차 앞 유리창엔 꽃들의 혈흔이 가득하다. 의사는 아스피린을 처방하였고 나는 노란 현기증 사이를 둥둥 떠다니며 세월의 속도를 조절한다.
글을 쓰려고 자신을 철장 속에 가둔 시인이 있다. 좋은 시는 좋은 시인에게서 만들어진다는 뜻일 터이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길이 끝나는 어디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사연들은 담담하게 풀어내고, 그 속에서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매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빼곡히 들어찬 벌집 같은 아파트를 보며 꼭대기 층에서부터 거꾸로 세어 내 집을 찾아보았다 구 층 맨 끝집, 제비처럼 이리저리 헌가구를 끌고와 한지를 붙이고 뚝딱뚝딱 못질해 경첩도 달아 놓은 뒤주도 있고 구유로 꾸민 탁자도 있고 그 탁자 속에 여름 내 오배자랑 홍화로 염색을 한 명주 한 필 꽉 들어차 있는 제법 그럴듯하게 들어서 있는 내 집, 풍경(風磬)이 바람 따라 울어주고 한지로 만든 등이 청사초롱처럼 불밝히고 있는 내 집, 거실 창을 열면 예배당 십자가가 한가득 들어오는 그래서 때론 등을 곱송그려 기도하게 하는 자그마한 집,

문득, 매미는 울고 나는 스파이더맨 처럼 기어 올라가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에 얼굴을 부비며 직립의 자세로 울고 싶어졌다

내 기억으로 제일 어린 시절, 서너 살 적 나는 직립으로 어머니의 등짝에 매미처럼 달라붙어 어디론가 다니고 있었다 그 때 자장가처럼 들려오던 어머니의 자작한 목소리, 춥지 두 손 꼭 넣어라 나는 불편한대로 두 손을 꼬옥 포대기 속으로 집어넣고 어설프고 어색한 자세로 어머니의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직도 그렇게라도 직립으로 붙어있고 싶은 어머니의 등짝
지금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 것 없는 굽은 등짝,

자정이 다 된 시각 저 높은 베란다 유리문에 붙어 나는
맴맴 찌르르르 울고 있었다



서울 신현중 _ 이순미

집 앞에 아담한 산이 있어 때때로 오르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굳이 산책(山, 册)이라 명명하며 그 산에서 조용히 삶을 읽고 내려옵니다.
올봄은 유난히 라일락 향기에 취해 있었고 훗날 라일락 향기처럼 어느 누구에겐가는 한번 쯤 고된 삶을 이겨낼 라일락 향기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수상이 그런 바람에 용기를 더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 남초교 _ 박순덕

비올리스트 용재오닐의 비올라섬

파도소리에 깊이 잠이 들어버린 섬,
그 잠속에 들어 있을
들끓는 플랫과 샾의 저 바다에
나는 정확하게 키를 넣지 못하고 있어요

겹겹으로 내려치고 올려쳐대던
반음의 파도소리, 햇살을 휘젓는 3옥타브의 물결소리로
바다가 재운 섬,
그 안에 뒤엉긴 소용돌이 잠 코드에
나는 키를 꽂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혼자 남아 집을 보고있는 섬,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정신지체1급
엄마의,
눈에 귀에 그 바다에
줄을 조이며 풀며 키를 맞춰봐도 지금
이 섬에 부딪는 파도에는 소리가 없어요
플랫과 샾의 설레임도 출렁임도 없어요

잠 속에 문신되어있는 엄마의
소리없는 배냇웃음에
나는 아직도 키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늘 안고 다니는 비올라섬
나를 안고 있는 바다에

한 청년이 비올라에 '섬집아기' 키를 맞추고 있어요
그의 엄마가 혼자 남아있는 섬에
아직도, 열리지 않는 겹겹의 파도소리
이 들끓는 플렛과 샾의 바다 한 귀퉁이쯤에
가끔은 우리도 머리를 기대고
까무룩이 잠에 빠져들곤 했을 거예요
그리곤 꿈인지 생시인지 이승인지 저승인지
까마득하고 아찔한 한 때가 지나는 듯 머무는 듯,
언제쯤 나도
내 안에 깊이 잠든 '섬집아기'의 잠을
깨울 수 있을까요

시조

광주고 _ 정승윤

선(線)도 없고 줄도 없었다
그것은 미묘하고 섬세하게 허공에 떠있었다
그것은 바람의 눈(眼)이었으며
허공의 혼(魂)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한없이 가벼워지며
오히려 추락하는
그것은
황혼으로 몰입(沒入)하는
한 마리 매였다.



산은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결코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몇 시간의 산행 끝에 홀로 오른 산정에서 산은 가끔 나에게 한 두 마디를 던져 줍니다.
그 한 두 마디가 내 내부에서 며칠씩 꿈틀대다가 시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얼뜨기이고 꼭두각시인 내가 한 편의 시라도 얻기 위해선 항상 그러한 외로움의 악전고투가 필요했습니다.



음모가 있고 칼부림이 있고 파괴로 덧칠한 신문을
거꾸로 들면 음흉한 낱말들이 쏟아져 내리는



부산 금정구보건소
김지은

풀잎으로

그래 가끔은
풀잎으로 돌아가 볼 일이다
먼동 트면 이는 바람에도
이슬방울 정갈한 푸른 마을로 돌아가 볼 일이다
파도소리 차곡차곡 어둠에 묻히는
한 송이 꽃처럼 집어등 밝히는 마을 지나
돌멩이에게도 정 느끼는 곳에 가볼 일이다

가슴에 가득 푸른 바람을 풀어 놓으며
연줄을 풀 듯 시린 하늘 날아오르며
그믐이면 귀신이 나온다던 담 모퉁이 돌아
도깨비불에게도 말 건네는 나팔꽃 가까이
나팔꽃 넝쿨손이 감나무 등줄기를 타듯
가뿐가뿐 아무 상처주지 말고
풀잎으로 돌아갈 일이다
고추를 내다널고 파씨를 말리며
나뭇가지 사이 거미줄에 대롱거리는
이슬방울 속 흘러 가는 흰 구름 보며
내 고운 슬픔 한 필 뚝 끊어서
칭칭 잃어버린 마음 감고 감아서
꽃잎 지우는 바람결에도 아득하게 현기를 느끼며

바쁜 일상은 언제나 월요일 오전만 같다.
아아, 나는 산소와 오래도록 격리 되어 있었나보다.
부는 바람을 손으로 톡 건드리면 바람의 알들이 촤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질 것 같다.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면서도, 출근길 달음질치는 지하철 안에서도 오래도록 어루만지다 잃어버린 시어들에게 오늘은 즐거운 편지를 써야겠다. 눈을 감고 그리운 것들을 떠올린다. 새벽녘,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풀잎들의 귀끝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걷는다. 복사뼈 부근에서 풀물들이 배어 올라온다.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귀청 파내던 일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귀가 간지러워진다.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부모님이 그립다. 시의 언저리로 데려다 준 잊지 못할 사람에게도 고맙다.
가슴이 시린 날에는 그리운 것들이 더 그립다.

교사의 자리



대구공업고 _ 김미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온통 설렘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큰 위력에 이끌려
빛나고 환한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부지런히 당신 곁을 맴돌며 서성거렸습니다.

당신이 내 안 가득 기쁨과 풍요로 오실 때
나의 삶은 푸름으로
그저 세차게 달려갈 끝없는 대지 앞만 펼쳐진 듯,
형극의 길은 나를 피해 가듯
영원한 미소만이 손짓할 것 같은
무사와 안일의 세계 앞에서 기뻐할 따름이었습니다.

당신을 따라
당신이 지시하신 땅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갈 때,
내게 내미신 당신의 손.
세상에 오직 한 길,
당신이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치밀하고도 거룩한 계획.

당신이 내게 흰 옷을 입혀 주시던 날
나는 차마 그 옷을 받을 수 없어
내 눈물은 고개를 적시고
목덜미를 타는 찢음과 상처로 화하여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나지막히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
온 몸을 흐르는 얼음의 전선 같은
애원과 탄식.
감람산 예수의 기도처럼
무릎 꿇고 이 잔을 돌릴 수만 있다면
거부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당신은 내게 그 자애의 미소로
닳고 얼룩진 흰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옷자락마다 가득
가냘프고 연한 새순을 끌어 안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울리게 될 복된 종소리.
그것만이 당신께서 바라시던 크고 넓음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끄덕도 않으며
험한 산줄기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바위로
서 계시는 당신의 그림자.

이제 내 옷은 점점 바래갑니다.
수없이 꿰맨 자국으로 해질 대로 해진,
온갖 때와 얼룩이 고스란히 담긴
당신의 소망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아쉬움만 가득한 그 자리에
조용히 다가가서
쉴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떠도는
유조(幼鳥)들을 가만히 손짓하여
당신의 아름다리 나무에 기대게 하렵니다.

시대적, 사회적 악조건 속에서도 어린 제자들의 손을 잡고 오롯이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셨던 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말없이 형극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사도(大師道)를 이루어 오신 그분의 자리. 이 어눌하고 투박한 글귀로 담아낸다는 것이 그분들께 누가 되진 않을지 또한 송구하올 따름입니다. 삶에 지치고 상심한 어린 새들을 더욱 감싸 안으라는 격려와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거기에는
인간 지성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해산의 고통을 누구나 가졌던 수많은 지식의 편린들이 쌓여있다.
책이 바다를 이룬다.
그 바다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책을 모아온다.

거기에는
종이의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
모니터와 키보드가 냄새를 대신한다.
모니터는 인간의 깊은 곳과 연결되어
서로 감응하고, 탐색하고, 대화하며 탐구자들에게 진리의 조각들을 보여준다.
산파의 역할도 한다.
혈맥 속에 들어와 한 몸처럼 된다.
예전의 그랬던 것처럼 세월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없다.

거기에는
인간 정신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
추적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지성을 탐색한다.
책들의 깊은 바다, 그 비밀의 동굴 속을 헤엄친다.
진리의 심연 속에서 인류의 진보를 향한 등불이 된다.
정보의 파도로 인하여 익사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운다.
인간 지성의 탑 앞에서 뜨거운 피를 용솟음치게 한다.

도서관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모아 놓는 곳

거기에는
인간 역사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서울 노량진초교 _ 설창훈

나이가 들면서 책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더 높아진다.
도서관의 가치와 그 고상한 기품에 매료된다.
사람들이 동물과 차별화되는 것은 영혼, 그리고 그 오묘한 인간 정신세계가 아니던가?
자료를 찾으러 국회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의 탑 앞에 감탄하며, 외치고 싶었다. 그것을 글로 쓰게 되었다.

졸작이나 선발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글의 세계에 정진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_ 서형택

덕유산

검푸른 등줄기가 말 깃털처럼
곤두섰다.
하늘과 맞닿은 정상 아래는
동양화 속 설경을 보듯
늦겨울 풍경이 익숙히 붓칠 되어있다.

골골마다 생명을 낳고
남은 물줄기가 넉넉히 모여
시내를 이루고
새싹과 꽃들로 지천을 이룬 들녘은
봄기운이 아지랑이 되어 취해 비틀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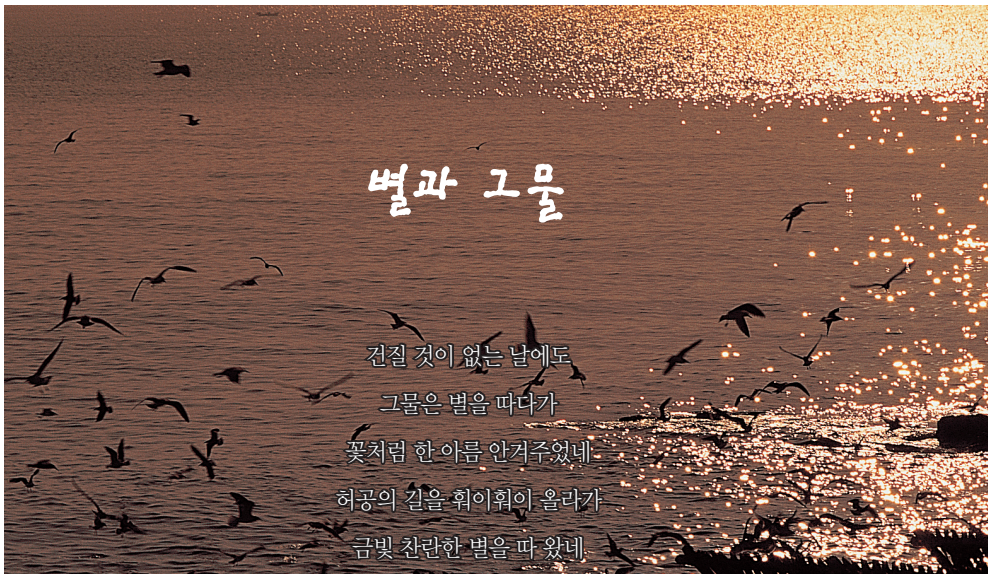
물오른 나뭇가지마다 찾아든
어머니 따스한 손길 같은 햇살
멀기만 해 보이는 산등성이도
세월을 못 이겨
아쉽게 자리를 내어 주고
녹아내린다.

가난한 백성들의 곳간이 되어 준 산
등성이를 일구던 민초에게
비바람 막을 거처를 내어준 이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을 내놓는
배려와 인품이 묻어나는 당신

한 귀퉁이에 내 영혼을 맡기고 싶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잃어가는 것들이 쌓인다.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꿈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
자연처럼 순박하면서도 정직한 민중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물기를 머금지 못하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상의 더 힘든 과제였었네
흔들리는 포구 한쪽 구석에서
온종일 엉킨 마음을 풀어낸 그물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서
이번에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네
아버지의 생도 떠오르지 않았네
젖어있는 것이 그리운
햇빛과 바람이 물 위를 어슬렁거리고
갈매기가 시린 기억을 소금처럼 뿌려대던 날
지상 위에서 펄럭이는 것들은
창자를 드러내놓고 말라 갔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도 말라 갔네
해가 지면 포구는 붉은 눈물을 매단 채 돌아눕고
갈매기는 끝없는 슬픔의 나라로 떠나갔지만
그때 그리움을 알아버린 바다는
온 생애를 출렁이며 사네
별이 꽃처럼 떠 있네



울산 무거중 _ 강연복



아직도 슬픈 건 내게 계신 아버지를 없다 하는 것이 옵니다.
나보다 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세상에서 가장 마음 따뜻한 언니에게
이 시를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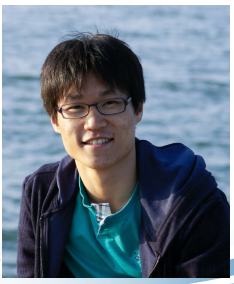
수업시간1

녀석은 이름을 부를 때 마다
깜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오곤 한다

자기 소개하던
3월의 첫 날
숨이 넘어갈 듯 긴장하면서도
끝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둥지로 날아가는
파랑새 한 마리

네 세상은 이 곳 보다 아름답고
자유로운 곳일까

지금 이곳은 너에게 어떤 꿈일까



수원 고색초교 _ 유영길



올해는 5학년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각양각색인 아이들은 모두가 순수합니다. 그 순수함이 연필과 공책으로 손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 만나는 사람들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어줍잖은 솜씨로나마 글을 쓸 기회를 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숲 세탁소

대구 서재초교 _ 권기덕

초록빛 속내 비치는 성암골 숲세탁소 그 앞 지날 때면 구겨진 하늘조차 다림질하는 굴참나무 있지요 산문(山門) 두드리면 바람이 온몸 갈무리해 세탁물 되어버립니다. 이곳에선 값비싼 것과 싸구려, 유행하든 때 절은 것이든 어울리는 코스 정해줍니다.

딱따구리 재봉사 해진 옷감 박음질하고 분주히 단추 찾는 다람쥐도 보이네요. 꼭 맞춘 생활에 잘라내거나 늘여야 할 것은 없나요?

무엇이든 자를 수 있다는 넓적사슴벌레에 상처 한 벌 수선하고픈 걸요 숲전류 돌리는 풀벌레들 음성신호에 계곡물 껴안고요, 숲등짝의 흥겨운 얼레임에 오솔길 들썩거려요 몸에는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구요 돌고 도는 길머리에선 산뽕나무 가지들이 뽀드득뽀드득 문질러대는데 햇살 버무리는 나뭇잎 사이사이 뻐꾹새의 시간 따라 산길이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것은 수증기처럼 둥글어졌다 매달리는 건가요?

쑥부쟁이가 밀어올린 어느 쉼터 지나 가벼워 푸르른 것 달라붙은 가는잎음나무 지나 세탁길이 가져간 팔과 다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닌걸요.

다른 세탁물과 엉키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바람이 가설해놓은 대화선따라 딱따구리마냥 소리치며 날아다녔으니까요.

생활 속 기억마저 이슬모양으로 빚어 데려가려는 풀잎들의 웅성거림에 숲정수리 하늘조각조차 알몸 되어요. 온몸에 달라붙은 섬유질 햇살이 얼룩진 일상(日常)을 빨아 먹습니다 묵은 상처마저 탈수되면 삶이라는 윗도리는 다가올 멍빛 구름조차 방수할 수 있을까요?

숲세탁기가 오름길 떠밀면 다림질하는 굴참나무들, 오그라들었던 마음 되돌아옵니다 곧바로 집에 달려갈 순 없지요 산문(山門)에 매달린 채 며칠만이라도 세탁된 몸 걸어두고 싶어져요

수상 소식을 전해 받은 곳도 다름 아닌 숲이었다. 숲이 주는 고마움들 속에 나에겐 최소한 한 가지 더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숲에선 승자도 패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다. 그 속에선 모두가 한 벌 몸뚱어리이기에 누구나 찌든 일상을 공평하게 세탁할 수 있다. 내가 세탁물이 되었을 때 온갖 벌레들과 나무들, 풀잎들, 계곡물이 안겨와 비벼주고 씻겨주었다. 참 개운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얼레며 키워준 숲의 언어를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 기뻤다. 더불어 내 마음의 숲을 시로 더 열심히 가꾸겠다는 다짐도 해보았다.

사물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대구시인학교 서지월 선생님과 문우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부모님, 소중한 아내 미연이, 아들 석민이를 비롯한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달빛이 하얗게 부서지는 선창으로
까만 파도가 달려와 쓰러지고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선들은 몸을 뒤척이고
얕은 잠에서 깨어난 바람이
불빛 흐린 주점의 문을 두드린다.
세월의 아픈 기억이
무수히 상처로 새겨진 도마 위에선
빛바랜 꿈이 선어와 함께 잘려 나간다.
한때는 억센 팔뚝으로
고기떼와 선박들을 안고 있던 바다,
그 무한한 폐활량의 바다가
비좁은 수족관에 갇혀 몸부림 치고 있다.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행렬을 보며
승선이 임박한 사내들은 술잔을 마저 비우고
썰물처럼 쓸쓸하게 떠나간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어둠의 커튼을 걷으며
불현듯이 일어서는 뱃고동 소리.
이윽고 마스트의 젖은 이마 위로
신새벽의 여명은 서서히 떠오르고
팽팽하게 긴장하는 열망의 밧줄은
오랜 기다림의 닻을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종만

출항일지

한 점 부끄럼없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는 좋은 詩를 쓰기도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詩는 삶을 바라보는 작은 창(窓)이다. 詩를 통해서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응모작 '출항일지'는 좁고 타성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험난하지만 더 넓은 세계로의 출발을 모색하는 의지와 열정을 표현해 본 작품이다.

시조 부문

최우수상

겨울담채 _ 정영화

우수상

모둠발 서는 나무 _ 전세중

태안반도에서 _ 노희석

장려상

모과나무 _ 원정호

사유의 꽃 _ 김영기

삶의 수채화 _ 신기용

서라벌 눈 오는 날 _ 서관호







경상북도 _ 정영화

겨울 담채

선잠 깬 샛강이 홀로
눈꽃 같은 먹을 간다
청둥오리 날개 앉은
저 들녘 끝 화선지위
지필묵 꿈으로 묻힌
겨울잠이 누워있고

한번쯤 뒤돌아보는
키 작은 갈대숲에
살아온 날 웅크려진
恨이라는 이야기가
저마다 바람의 얼굴로
그려놓는 삶의 색깔

산이 못된 내 나이의
흐릿한 밑그림에
구름이 저 먼저와
걸림 없는 빛이 되면
못 그린 당신의 체온이
하늘 위를 날고 있다



인생을 한 장 화선지라 한다면 내 인생의 밑그림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이 나이에 이르도록 대책 없는 조바심에 신열을 앓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보는 색깔보다, 흐린 색일 수밖에 없는
다가올 내 영혼의 빈 들녘에 서서, 구름처럼 먼저 오는 恨이라는 이야기에
나는 어떤 濃淡의 먹을 찍어야 하나?

모둠발 서는 나무



서울 소방재난본부 _ 전세중

아지랑이 일렁일렁 푸른 옷깃 감싼다
감았던 가지마다 툭 툭 건네는 눈인사
잔잔히 깔리는 음계, 이팝나무 꿈틀댄다

뿌연 그 황사 입고 몸서리치는 나뭇잎
움츠린 이슬 한 줌 팔 벌려 받아내어
형형한 눈망울 밝혀 수액을 건져 올린다

초록 물빛 오르면 모둠발 서는 저 나무
손과 손 마주잡게 가까스로 이어주며
한 소절 박자 맞춰서 동심원을 예비한다



나무도 아름드리쯤 되면 사람이다.
거느리고 있는 그늘이며 우아한 품격,
반짝이는 이파리 근엄한 자태가 그렇다.
나무는 가지를 함부로 뻗지 않으며
깜깜한 벼랑, 짐승 울음소리에도 흔들림이 없다.
가만히 서있다 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푸르른 광장의 어느 지점에
화려한 희망의 길이 멀수록
등 굽히고 낮게 쉬어가고자 함이다.
나무는 흙먼지 빗물을 털어내지 않는다.
책을 읽듯 조용히 젖어든다.
여분의 빗물마저 허락하지 않는
나뭇잎 아래로 빗물만 부끄럽게 흘러내린다.
비 그치면 나무의 몸 마르는 소리
밤늦게 책장 넘기는 소리 사각거린다.
바람이 나무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햇살은 나무의 수액으로 쓴 책을 읽는다.
잎새 무성한 팔을 쳐들어 기도드리는
진실로 조선의 선비정신을 닮은 나무
아름드리나무는 고결한 사람이다.

오직 하나의 스승이 존재한다.
그 스승은 노력이다.
우리들 삶은 그 노력의 표현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



태안반도에서



영등포구치소 _ 노희석

검붉은 타르 빛에 묻혀버린 태안반도

뱉고 또 배앝아도 그 상흔은 깊어간다.

먼 하늘 바라보다가 눈빛 흐린 아낙네여

개펄의 꼬막조개 입 벌리고 나뒹구네

바위를 기어오르던 어린 게들 어디 갔나

흡착포 감아쥔 손에 노을빛만 젖는다.

사람의 가슴에도 번져나는 기름띠들

몇 번을 닦아내야 이 어둠 걷혀질까

절망을 뒤집어 쓴 새들 넋을 잃은 해안선



처음으로 돌의 죽음을 보았다. 속죄하듯 해안가에 주저앉아 죽은 돌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닦고 또 닦았다. 그러고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돌의 영혼들 앞에 나는 무릎을 꿇었다. 서산에 노을이 지는 줄도 모르고.



모과나무



포항 문충초교 _ 원정호

새들마저 떠나간 종갓집 빈 울타리
뎅그렁 모과 두 알 그립던 고향 냄새
완자창 고옥을 따라 감아 도는 그 향기.

지독한 외로움에 까만 밤을 새우더니
가슴 저린 눈물을 바람결에 날리더니
쓸쓸한 그리움으로 영글어진 노란 영혼.

차가운 나목으로 선 여정의 뒤안길에서
내혼에 어둠을 밝힐 환한 등불 켜들고
가슴 속 못다 한 말을 뿜어내고 있는데.

사랑의 기쁨도 사라지면 그만인 것을
그렇게 뜨겁던 온기가 다 빠져 나가도
이 겨울 두 팔 벌리고 꿈을 캐는 나무여.



초겨울로 접어든 어느 날 고향마을을 찾아갔다. 늘 그랬듯이 나대로의 일상 탈출인 셈이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그런지 변해버린 마을 풍경들이 낯설기는 하지만 발길 스치는 곳마다 옛날의 추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그 옛날 그리운 얼굴들은 모두 떠나고 없지만 그래도 내가 위안을 얻어 가는 것은 흑백사진 속 그 푸르름이었다.

언제라도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반갑게 맞아 주던 종갓집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황량한 그 빈집을 지키고 있는 모과나무에 뎅그렁 달려 있는 모과 두 알!

코끝에 감도는 안쓰러운 그 모과 향기가 바로 고향 냄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모과나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모과나무는 모과향기가 다 빠져 나간 다음에도 눈감으면 떠오르는 고향 실루엣이 되어 내 주위를 맴돌고 떠나지 않는다.

사유의 꽃

–반가사유상을 보며–



전)제주 남광초교
김영기

어둠의 깊은 골로 불두화 뿌리깊고
구름 층층 높은 길로 햇살 저리 밝으니
어디서 울대를 씻었는가, 목어의 맑은 울림

천년을 생각하고 다시 천년 그 자세로
쓰려져 짓밟혀도 직립의 꿈 생각하라
망각의 미립자까지 빛 발하는 그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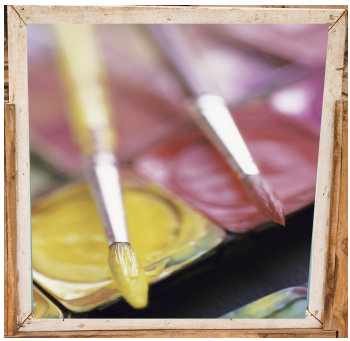
세속에 오래 묻힌 무심한 시간사이
청동 거울 닦노라면 사유의 꽃 핀다던가
턱 괴고 두 눈 감으니 더 환한 만다라 꽃

은은한 미소 앞에 내 얼룩은 선명하다
그 허물 지우려고 치성하는 보살님은
잡힐 듯 그림자로 오는 어머니의 실루엣.





반가사유상에 피워보는 만다라의 꽃잎 위로 '쓰러져도 일어설 채비하라'시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맑은 울림으로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청동 제기를 닦으시던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리운 얼굴은 실루엣처럼 스칠 뿐이었다.



삶의 수채화



제53보병사단 _ 신기용

별빛이 어둠을 가린 복사꽃 칠 번지 달동네
등이 휜 고단함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
가난이 시렁 위에서 허기진 밤을 지킨다

촘촘히 짜 내려간 별빛을 끌어안고
밤새껏 자맥질하는 꿈길을 더듬어도
곰팡내 풀풀 풍기며 엉겨 붙는 저 가난

아니야 이건 아냐 밑그림을 다시 그려
삶의 화판(畵板) 위에 백지 한 장 걸어 놓고
환하게 꽃등을 밝힐 그런 세상 그릴 거야



아침이슬을 벗 삼아 동산에 올랐습니다. 탐스러운 산딸기 군락지를 그냥 지나치기엔 많은 미련이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입안 가득히 군침이 맴돌았거든요. 기어이 동산에 올라 산딸기를 한입 가득 먹어보았습니다. 단번에 온몸이 어릴 적 깊숙이 숨겨놓은 맛을 알아차리더군요. 새콤달콤한 맛, 그 맛을 갈망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수채화를 그리며 살고 싶습니다.

서라벌 눈 오는 날

오늘은 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서라벌이 회귀하여 옛 모습을 보여준다
세월도 많이 겹치면 반사되고 마는가?

가만히 눈을 감고 신라인이 되어본다
*웃는 기와 지붕 밑에 웃음꽃 피우며 살던
오늘은 그 모습들이 이글루로 잠들었다.

천마총 길 가로수도 소복차림 도열이다
대왕님 승하하시던 그날처럼 숙연하다
인심도 한결같으면 흰빛임을 말하는가?

*웃는 기와 : 웃는 얼굴을 새긴 신라시대의 기와



경주 황남초교 _ 서관호





경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세계 유일의 천년 도읍지이다. 그러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만 해도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경주역사유적지구 등이 있고, 국보, 보물 등 지정, 비 지정 문화재의 숫자를 셀 수조차 없으며,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혼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를 시로 빚는데 있어서 문재가 빈약하매 겨레 앞에 죄송할 뿐이다.

수필 부문

최우수상

비누거품 _ 김외순

우수상

아버지의 지게 _ 정성수

작두와 할아버지 _ 강인복

장려상

반짇고리 _ 심금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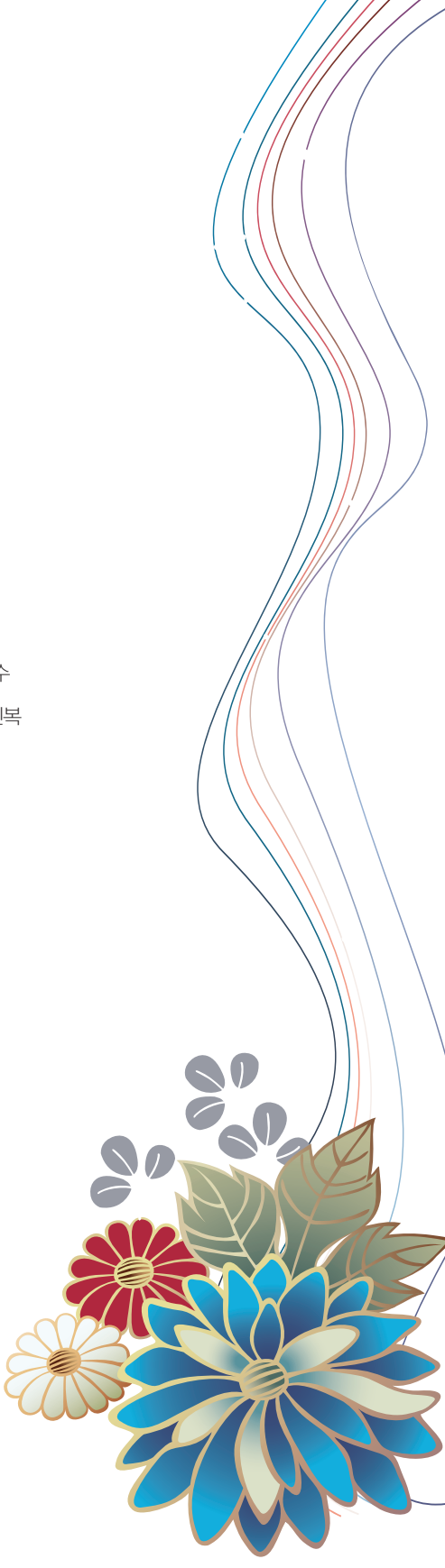
봄 기운 _ 김화숙

아다지오 _ 최계순

아차도 _ 김관철

이별 준비 _ 강기석

청소 _ 하상만



비누거품

인천광역시 _ 김외순





힘찬 물줄기가 내
손의 거품을 씻어 내린다.
손에 묻었던 더러움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
도 모르게 고여
있던 갈등과 미
움, 아픔도 거품과 함
께 씻겨나가는 것 같다.

비누 거품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십여 년이 넘도록 우리 집은 서점을 했었다. 가게는 살림집과 바로 붙어 있었는데, 온통 책으로 둘러싸인 그 곳의 풍경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나는 늘 책이 익숙했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서른을 훌쩍 넘어선 지금도 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하였는지 도서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매일 책 주위를 맴돌고 있다. 덕분에 필요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책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맘에 드는 책이 있으면 미리 대출해놓았다가 지하철이나 집에서 틈틈이 읽기도 한다.

이처럼 늘 함께 해 온 책이건만, 책을 만진 후 손을 씻다가 가끔 깜짝 놀란다. 마치 묵은 때가 녹아나는 양 비누거품이 탁하게 보글보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래된 책이야 당연하다 하지만,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새 책들마저 그럴 땐 내가 읽던 책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 언젠가 TV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지폐나 동전 같은 화폐가 사실은 엄청난 세균에 오염되어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세속적인 물욕 추구의 대표적인 수단인 돈과는 달리 교육이나 교양 있는 삶을 위한 책도 그렇다 생각하니 사람의 손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다루고 거쳐 보내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손을 씻을 때 거품의 색을 관찰하는 편이다. 거품으로 내 손에 묻어있던 더러움이나 음식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인데,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별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나 나에겐 때때로 소소한 즐거움이 된다. 손이 지저분하면 거품이 탁하고 손이 깨끗하면 거품도 뽀얗다. 포도나 수박 같은 색색의 과일을 먹고 난 후 손을 씻으면 거품이 울긋불긋해서 솜사탕 같다. 이러한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씻겨나가는 거품으로 내 손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기분도 따라 상쾌해진다. 서가의 책을 선별해서 서고로 옮기거나 서가 간의 재정리를 하는, 소위 힘쓰는 일을 하고 난 후 지친 몸을 추스르며 손을 씻을 땐 거품에 묻어나는 먼지와 더러움을 보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라며 자족감에 혼자 웃기도 한다.

이처럼 비누거품으로 남다른 즐거움을 누리는 터라 손을 씻을 때도 정성을 들인다. 괜스레 거품을 많이 내야 더 깨끗해질 것 같아, 비누를 묻힌 손을 열심히 문질러 거품이 충분히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물로 헹궈낸다. 여름엔 차가운 물로 더위를 식히는 상쾌함을, 겨울엔 따뜻한 물로 시리던 손을 녹이는 안락감을 선사한다. 쉴 틈 없이 수고스러운 두 손이 평화로움을 맛보는 짧은 순간이다. 힘찬 물줄기가 내 손의 거품을 씻어 내린다. 손에 묻었던 더러움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고여 있던 갈등과 미움, 아픔도 거품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다. 때문에 30초간의 짧은 의식을 방금 마친 내 손은 상기된 표정으로 반짝이고 마음은 한층 더 개운하다.

사람은 아픔이 있기에 성숙하고 좌절이 있기에 더욱 강해지고 발전한

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픔과 좌절을 쉽게 견뎌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때때로 너무나 나약해서 갈대를 흔드는 약한 바람에도 금방 쓰러지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이겨내지만 때론 그 미미한 바람조차 힘겹게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내게도 어두운 심연으로만 한없이 파고들던 힘든 때가 있었다.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에 개인적인 좌절이 겹쳐 내 소중한 젊은 날은 상처받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나를 피해가는 것만 같고, 무거운 근심과 아픔은 갈수록 그 무게를 더해가 견뎌내기가 힘들었었다. 그땐 주위의 어떠한 말들도 내겐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하여 책장에 쌓여있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거나, 무작정 집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동네를 휘적휘적 걸어 다니다 날이 어두워질 즈음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거리에서,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리도 즐거운 걸까? 저들에게도 고민이 있을까? 저 많은 사람들은 어딜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 날도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며 공상에 잠겨 있다가 그것도 지겨워져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러곤 버릇처럼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몽글몽글 일어나는 거품을 무심하게 한참 내려다보는데 뭔가가 눈에 띄었다. 보일 듯 말 듯한 얼룩들. 이게 뭐지? 웬 얼룩이.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비누거품은 무조건 흰색일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얼룩덜룩한 것이 실은 내 손에서 묻어난 것이라는 걸 곧 알아채고는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갑작스런 호기심이 인

나는 그 얼룩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별다른 게 있을 리 만무한 그 얼룩을 살피던 나는 문득 '아! 거품에 내 마음이 묻어났구나' 라는 깨달음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다른 이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얼룩들.

찬찬히 거품을 물에 씻어 내렸다. 또 한 번 정성스럽게 거품을 만들며, 내 마음에게 부탁하듯 모든 아픔과 실망은 거품에 안겨 나오라고 중얼거렸다. 좌절도 내보내 달라고 주문했다. 몽글몽글 손에 가득한 거품을 잠깐 바라보다 물에 흘려보냈다. 차갑게 쏟아지는 물을 두 손으로 받아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자니 마음이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지난 시간들은 좋은 경험이 되었으니 가슴 한 켠에 작은 추억으로만 간직하자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손이 시리다고 느낄 때쯤 거울속의 나를 마주보며 씨익 웃어주었다. 시원한 선들바람이 가슴을 꿰뚫고 지나간 듯 상쾌했다. 짧지 않은 시간을 방황한 끝에 결국 흔하디흔한 비누거품으로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준 셈이었다.

내가 비누거품으로 마음을 달랜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일상의 상처들을 다독이기엔 비누거품만으로는 역부족일 테니 말이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 씻어내면 그만인 거품으로 생채기를 다스려 큰 병을 미리 걸러주니 이만하면 제 능력을 십분 발휘한 치유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비누거품처럼, 스스로를 다독거려줄 무언가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게 꼭 비누거품일 필

요는 없을 것이다. 눈물이 찔끔 나는 멜로 영화나 새벽의 힘찬 조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콤한 떡볶이일 수도 있고 혹은 맘에 드는 구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손쉽게 큰 고민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마음을 달래줄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또 다른 고민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테니 말이다. 그 거품으로 누군가 조금 덜 아파하고 웃을 수 있다면, 나도 그만큼 더 행복할 것이다.

문득,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말들을 종이 위로 쏟아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뒤엉켜 흐르는 그것들을 꺼내놓고 제가 진정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 형상을 미처 갖추지 못한 많은 말들 중 하나를 어렵게 꺼냈을 뿐이지만 앞으론 더 신중히, 섬세하게 꺼내보고자 합니다. 그리 세련되지도 못하고 그리 아름답지도 못한 저의 졸작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과한 이름표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게



아버지의 지게는
우리 집 호구를
책임지기도 했고
자식 육 남매를 가르치는
"돈 나와라, 뚝딱"
이라는 도깨비 방망이
이기도 했다.



전주 송북초교 _ 정성수

아버지의 지게

나팔꽃, 논냉이, 개별꽃, 자운영, 벚꽃 등 사월의 꽃들이 져 가면서 오월의 꽃들이 핀다. 영산홍, 클로버, 씀바귀, 탱자나무꽃, 아카시아, 이팝나무꽃, 꽃과 꽃들이 앞을 다투어 오월이 왔다고 아우성이다. 오월의 하늘은 맑고 사람들은 산뜻하다, 무논에는 개구리 가족이 네 활개를 저으며 꽈리를 불어대는 것을 보니 이래서 오월은 가정의 달인가 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시골집을 찾아가는 걸음이 뜸해졌다. 그것은 어머니가 없는 집은 이미 집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집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통로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조차 계시지 않는 집은 더욱 썰렁하다. 헛청에 무릎을 꿇고 있고 있는 저 지게. 주인 잃은 지게가 봄이 온 지가 벌써 언제인데 나를 여기에 처박아 두기만 할 것이냐고 입이 한 자나 나와 있다. 어서 논밭에 나가 봐야 한다고 아버지는 어디 출타라도 하신 것이냐며 불만스럽다.

전라도 함열 땅에서 대대로 살아온 아버지의 지게는 동발과 동발 사이가 넓고 지게 자체를 지는 사람 쪽으로 구부려 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평야 지대의 지게와 구분이 된다. 가지가 조금 위로 뻗은 자연목 두 개를 위는 좁고 아래는 벌어지도록 세우고 사이사이에 세장을 끼웠다. 그리고는 탕개로 죄어서 고정시키고 아래로 멜빵을 걸어 어깨에 멘다. 등

이 닿는 부분에는 짚으로 두툼하게 짠 등태를 달아놓았다. 이 지게를 세울 때에는 끝이 가위다리처럼 벌어진 작대기를 세장에 걸어 땅바닥을 버틴다. 지게는 두 개의 목발과 작대기의 삼각 구조로써 짐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지게가 운반에 편리한 이유는 온 몸으로 짐의 하중을 분산하기 때문이다. 짚으로 된 탕개는 등을 편하게 해준다.

지게의 백미는 역시 작대기에 있다. 작대기는 지게를 받쳐 놓은 역할과 동시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작대기에 힘을 주고 딛고 일어서는 지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작대기는 부피가 큰 짐을 지고 갈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뿐이 아니다. 고된 하룻길을 돌아오는 지게가 빈 지게일 때 지팡이는 지겟다리를 두드리며 콧노래를 불러내기도 한다. 그 콧노래는 때로는 한이었다가 즐거움이었다가 눈물이 되기도 한다. 그런 지게는 자기 몸에 맞아야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던 아버지. 이런 지게의 주인인 아버지는 치매 병원에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 굵은 다리와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지셨던 아버지. 가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징역살이 아닌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인의 처지를 모르는 지게는 겨울을 견디어 냈으니 어김없이 아버지의 등에 업혀 논밭으로 종횡무진 일거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가 되어 일을 한다는 것은 지게에게는 즐거움이었고 보람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인가 밭에 나가 장다리를 한 바지게 지고 오는 아버지의 지게 뒤를 배추흰나비가 따라오고 있었다. 배추흰나비는 아버

지가 발자국을 띨 때마다 출렁이는 장다리꽃을 따라 나풀나풀 춤을 추며 우리 집 안마당까지 따라오는 것이었다. 지게가 정미소에서 쌀가마니를 지고 오는 햇볕 따가한 가을날에는 이밥을 배부르게 먹기도 했고 어머니가 긁어주는 누룽지를 한 볼탱이 물고 골목길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나무가 없으면 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려 가시고는 했는데 어느 때는 청솔가지 한 바지게를 지고 와서는 추우면 안 된다고 우리 형제들이 기거하는 방에 매운 연기에 눈을 비비며 군불을 때주시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지게는 우리 집 호구를 책임지기도 했고 자식 육 남매를 가르치는 "돈 나와라, 뚝딱"이라는 도깨비 방망이이기도 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지게 뒤에 태워 주시곤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지게 위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오는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좋아라고 하던 그 때를 생각하니 아버지의 어깨가 그립다.

지금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생각하니 그 때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것 같다. 그런 아버지의 지게가 이 봄, 헛청에서 주인을 잃은 채 논밭으로 나가자고, 나가게 해달라고 보채는 것을 본다. 아버지의 삶을 짓눌렀을 멜빵에 아버지의 등을 휘게 했을 지게의 등태에 내 손을 얹혀 본다. 아버지의 힘들었을 시간들과 보람들이 한꺼번에 전해오기도 한다. 오랜 시간 주인을 기다리던 작대기는 지쳐 어디론가 사라졌다. 장다리꽃을 얹혀 오던 바지게도 다 헤졌다. 멜빵도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이 낡아 있다. 이 지게는 아버지의 굴레이자 멍에이기도 하였다. 몸으로 때워야 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 지게에 등을 대는 시간이 더 많았다.

지게는 아버지의 분신이었다. 아버지의 지게는 늘 어깨와 등에 걸쳐 전신의 힘으로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도록 허리에 무게 중심을 잡고 있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몸무게 두 배 이상까지도 너끈했다. 그래서 왼쪽 지겟다리는 무게 중심을 잡느라 유난히도 까맣고 번들거렸다. 그것은 짐을 지고 일어설 때 왼손으로 지겟다리를 잡고 균형을 잡으며 작대기를 오른손에 잡고 순간 힘을 주면 지게는 일어서기 때문이다. 등태 역시 늘 반들거렸다.

오늘 날, 아버지가 치매 병원에 있는 것도 다 젊은 나이부터 이골이 난 지게질 때문에 몸의 진기가 빠진 탓이다 아버지의 지게는 나뭇단을 지고 산비탈을 뒤뚱뒤뚱 내려오기도 했고 지겟발이 볏단에 걸려 논바닥에 나뒹굴기도 했다. 아버지는 동산이 밝아지기도 전에 바쁘게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야산이나 논둑에 나가 풀을 한 짐 해가지고 안개 낀 식전 길을 돌아오는 것이었다. 풀단이 퇴비가 되면 맨 손으로 논에 뿌리거나 밭둑에 쌓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그리고 너희만은 애비를 닮지 말고 공부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말을 하곤 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사방팔방 헤집고 다녔던 아버지의 지게. 이제 진액까지 다 빠진 채 헛청에 쓰러져 썩어간다. 누가 저 자욱한 먼지를 털어 일으켜 줄 것인가!

오늘, 나는 아버지의 지게를 보면서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지게는 다 같다고 생각한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헛청에 지게를 내려놓고 왜 내게 등물을 시켰는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나이 사십이 넘어서 알게 되었다.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멜빵 자국이며 등짝의 시커먼 굳은살을 본 것은 아버지를 치매병원에서

목욕을 시켜 드릴 때 처음이었다. 그 자국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농사꾼은 죽으면 어깨와 등부터 썩는다.”는 말이 콧등에 걸려 시큰했다. 짐을 지고 길을 가면 장딴지에 푸른 핏줄이 꿈틀거리는 농사꾼, 그게 우리 아버지였다. 늦게라도 철들은 사람들은 허전하고 할일 없는 날은 아버지의 지게를 져 볼 일이다. 늙고 병든 우리들의 아버지가 이제 고려장을 시켜달라고 지게처럼 보챌 것이다.

나는 아버지처럼 땅을 파지 않고 똥장군 같은 것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르지 일류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한다고 수 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선생이 되었다. 오늘 같은 일요일은 늦잠도 잔다. 아내의 외출쪽지를 보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전기밥통을 열면서 푸르고 살이 찐 아버지의 땅이 거기 있음을 보고
‘앗차’ 싶었다. 아버지의 땅을 퍼먹는 한심한 아들이 나였기 때문이다.

작두와 할아버지

한참을 썰다가 그만 딴 생각을 했는지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의 살이 약간 베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하여 샘에 가서 손을 씻고
움켜쥐었지만 피는 좀처럼 멈출 줄 몰랐다.





충청남도 _ 강인복

작두와 할아버지

작두는 짚이나 풀, 콩깍지, 고구마덩굴 등을 썰 때 사용된다. 작두날에 의해 짚이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릴 적 또 다른 즐거움의 하나였다. 당시 집에서는 황소 두 마리를 키웠다. 아버지는 소 두 마리를 끔찍이 위했다.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한 번씩 여물을 먹이는 것 외에 간간이 풀을 베어 먹였다. 물론 동네 야산에 소를 매어두고 풀을 뜯게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외양간에 매두었다.

세 끼의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늘 짚이나 풀 등을 준비해야만 했다. 짚은 한 해 전에 추수하여 말린 다음에 짚가리를 쌓아둔다. 짚가리 쌓는 데 들이는 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짚을 쌓으면 강한 바람이나 비에 무너지기 십상이다. 차곡차곡 발로 밟아가며 아귀를 맞춰 쌓는다. 짚가리 꼭대기에는 지붕처럼 빗물이 사방으로 잘 흘러내리도록 짚단으로 처마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새끼줄로 두르고 무거운 돌멩이를 매단다. 볏짚이 썩지 않고 오래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짚가리 위에 비닐을 씌우기도 한다. 짚가리에는 늘 쥐가 보금자리를 틀기 마련이다. 그래서 수시로 짚가리를 점검해야 한다. 짚가리에 쥐약을 놓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였다.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가 한참이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짚을 썰려면 꼭 두 사람이 필요했다. 한 사람은 짚을 고정된 작두날에 대어 줘야 하고(이를 짚을 매긴다고 한다), 한 사람은 작두대를 발로 누르고 양팔로 작두날을 위에서 내려 눌러야 했다. 할아버지가 짚을 매기고 아버지가 작두날을 누르던가, 아버지가 짚을 매기고 내가 작두날을 누르기도 하였다. 힘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언제나 작두날을 누르는 쪽이었다. 대개 5일 정도의 여물용 짚을 썰었다. 그러자면 시간이 2, 30분 정도가 걸린다. 한겨울에도 짚을 썰다보면 얼굴에 땀이 맺히기 마련이다.

짚을 썰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짚을 매기는 사람과 작두를 누르는 사람 간에 호흡이 맞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짚을 써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간혹 작두날이 무뎌져 짚이 잘 썰어지지 않고 작두날에 끼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작두날을 풀어 숯 돌에 갈아야 한다. 숯 돌에 작두날을 갈 때는 때때로 손을 대어 날이 섰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너무 날카롭게 갈아서도 안 되고 무뎌지게 갈아서도 안 되었다.

지금부터 24년 전이다. 아버지가 논에 일하러 나가신 틈에 할아버지와 나는 그 날도 여물용 짚을 썰고 있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잠깐 내가 딴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얏'하는 단 발음을 내셨다. 순간 사고가 났음을 직감했다. 할아버지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작두질은 중단되었고 할아버지는 오른손으로 왼손의 집게손가락을 감싸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다. 마침 집에 들어오던 큰 형이 이 광경을 발견하고 자전거에 할아버지를 태우고 읍내 병원으로 갔다. 다행히도 집게손가락 끝부분이 4분의 1정도만 잘려

나갔다. 병원에서는 잘린 손가락을 찾아 이내 봉합수술을 하면 소생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으로만 모시고 가야한다는 마음에 손가락을 찾는 일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바람에 한 가닥의 희망을 놓친 셈이었다. 아버지와 형이 잘린 손가락을 썰어진 짚 속에서 몇 번이고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다. 지금도 그 일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잘린 손끝이 시려 자주 호호 입김을 부셨다. 밖에 나가실 때는 털장갑을 꼭 끼셨다. 그 사건으로 부모님께 심한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 늘 죄송스러울 뿐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내게 뭐라 꾸지람을 하지 않으셨다. 손자를 탓하기 싫으셨던 게다. 하기 싫은 일을 시킨 당신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에서.

그게 업보(業報)였는지, 몇 년 후에 이번에는 내가 작두날에 손가락을 다쳐 고생한 적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공교롭게도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출상(出喪)을 하루 앞두고 나는 외양간에서 1인용 작두로 소에게 먹일 풀을 썰게 되었다. 굳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었다. 내가 왜 작두를 잡았는지 모른다. 한참을 썰다가 그만 딴 생각을 했는지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의 살이 약간 베었다. 비가 흐르기 시작하여 샘에 가서 손을 씻고 움켜쥐었지만 피는 좀처럼 멈출 줄 몰랐다. 나를 발견한 큰 형이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읍내 병원에 갔다. 치료하고, 엄지손가락에 붕대를 매고, 상처에 바를 약을 받아왔다. 내가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자른 업보가 고스란히 내게 전해진 것만 같다.

지금도 엄지손가락을 볼 때마다 난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할아버지, 지금은 손이 시리지 않으신지요? 할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 작품은 24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서 쓰게 되었다. 철없는 나로 인해 손가락을 작두에 잘리신 할아버지가 늘 맘에 걸렸다. 사랑하는 손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추운 겨울을 장갑에 의지한 채 지내시던 할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작품 속에 많이 담으려 노력했다. 이 상을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반짇고리

천년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많지만 의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반짇고리는 제자리를 잃어버렸다.



경주 용강초교 _ 심금섭

반짇고리

잡동사니들을 보관하는 방에 들어갔다가 벽장 구석에 놓인 반짇고리를 보았다. 어렸을 때는 안방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윗목에 놓여 가난을 치료 하고 있던 것이 뒷방으로 밀려나 있다. 아무리 먼지를 털어내도 손때가 지워지지 않는 반짇고리를 앞에 놓고 아끼던 장난감을 만난 아이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다. 만화경을 들여다보듯이 실패, 바늘꽂이, 골무, 가위, 실첩, 단추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썰렁한 침묵을 털고 있는 지난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갖가지 용품들이 끊어진 시간을 잡고 애틋하게 쳐다보며 나태해진 나를 타이르고 있는 것 같다.

이 반짇고리는 대나무로 엮어 창호지를 바르고, 찧은 콩으로 칠을 해서 별로 볼품이 없고 투박하다. 그러나 내겐 아주 소중하다. 근면을 생활의 으뜸이라 여기는 어머니의 곤궁한 삶과 어린 시절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몇 십 년 묵은 자취 더듬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묵직한 소리를 내는 반짇고리, 녹 쓴 바늘이 여태 매듭짓지 못한 실을 매달고 바늘꽂이에 굽은 등을 숨기고 있다.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는 단추가 놀란 눈으로 집요하게 세상을 내다본다. 반신불수가 된 가위는 어머니처럼 굳은 관절을 움직이며 뻑뻑하고 고된 시간을 자르고 있다. 피돌기가 멎은 물건들 틈에서 뒤채는 골무는 두꺼운 천을 뚫는 바늘 소리를 가두고 있다. 입성

이 먹성보다 남의 눈에 많이 띄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굳게 믿으시는 어머니 낡은 세월을 깁고 계신다.

온 종일 햇살을 따라다니며 한가롭게 노닐던 어린 시절로 뒷걸음질해 본다. 언제나 실을 물고 있는 어머니의 바늘같이 반짇고리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보인다. 눈이 침침한 어머니 대신 실을 꿰고, 반짇고리에 담긴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나는 그걸 뒤적이며 놀기를 좋아했다. 그때 나는 단추에 굵은 무명실을 꿰어 빙빙 돌리다 잡아당겨서 매미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실에 물감을 묻혀 도화지에 찍거나 실 끝을 당겨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나는 공기돌과 함께 유일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던 이 반짇고리에서 휘어진 허리를 곧추세우신 어머니가 종종걸음으로 나오신다.

언제나 바늘구멍 언저리를 맴도는 실 같은 삶 속에서도 어머니가 가족들의 입성을 손질할 때는 항상 행복해 보였다. 고단한 일과를 마친 늦은 밤에도 살아가는 이치를 한 땀 한 땀 뜨실 때에는 피곤해 하시지 않으셨다.

나는 특히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들일을 나가시고 밤에만 바느질을 하시지만, 비 오는 날엔 낮에도 반짇고리를 들고 이 집, 저 집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같이 군것질거리도 만들어 먹곤 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잡다한 일이 많아진 요즘 사람들은 모두 바쁜 생활을 해야 하므로 이웃과 어울릴 시간조차 없다. 그러다 보니 인정이 메마르고 나누어야 할 정도 우러나지 않는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조용히 걸어 다녀야 한다. 큰소리로 말을 하지도 못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이웃 간의 이해심도 부족해졌다. 그래서 서로 정겨운 눈짓을 보내지 않고, 따스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된 것 같다. 이웃 간의 사랑 부재 현상과 그 냉랭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반짇고리를 들여다보면서 자문해본다.

천년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많지만 의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반짇고리는 제자리를 잃어버렸다. 세상과 어물쩍 융화되는가 하면, 버림받거나 소통이 안 돼 잊혀져 가는 것들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우리와 희로애락을 같이 해 온 반짇고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다는 생각하니 가슴 한 곳이 허전해진다. 지금의 내 굴레를 부정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간 일이 역사처럼 엮인 소품들을 만지면서 어머니의 검소를 다시 익혀본다.

한때는 반짇고리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회한을 안은 채 거의 잊혀져 가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더는 쓰이지 않을 이 반짇고리가 추억 속으로 나를 끌고 가서 놓아주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무엇이든지 낡아간다는 것의 슬픔과 잊히어 간다는 것의 두려움이 나를 감싼다. 돌이켜 보면 나도 쉰을 훌쩍 넘겨 버렸다. 그렇게 나이를 먹었으나 아무 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만 보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저항할 수 없는 세월의 변화 속에서 끊어진 시간을 이어주는 이 반짇고리를 앞에 놓고 옛 추억들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노후의 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지난날의 어려움들마저 쉽게 잊어버린다. '낡지 않아도 싫증이 나서', '디자인이 구식이라서' 라면서 물건 버리기가 다반사인 요즘 반짇고리의 역할은 손바느질에서 재봉틀, 다시 수선 집에 맡기는 시대로 변화해가서 이제는 실과시간이나 가정시간에만 쓰이는 용구가 돼버렸다. 쓸 만한 물건도 마구 버리고 마는 낭비 생활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터진 옷가지를 보거나 구멍

난 양말을 골라 버려야 할 때는 어김없이 반짇고리와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자그마한 몸집에 머리에 쪽을 지우고 정갈하게 앉아서 바느질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던 반짇고리가 잊혀져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 저 밑바닥이 저며 오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내 몸도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겠지. 그런 생각이 눈물샘을 찌르는지, 눈시울에 맺혀 있던 물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반짇고리를 만지고 있으면 질화로 속의 불씨같이 은근한 정이 손끝에 베어 나온다.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근면 정신이 다시 느껴지기도 한다.

더구나 지난날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듯이 반짇고리를 보면서 어린 날을 되새김질 해본다. 무딘 손끝에 눈을 달고 익숙하게 터진 솔기를 꿰매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린다. 세월의 닳은 틈서리에서 밤 지새우며 어긋난 삶을 한 땀 한 땀 잇고 계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위축되어 가다가도 위안을 얻게 된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잊혀져가는 반짇고리이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한 이 물건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서려 있다. 아마도 나는 언제까지나 반짇고리를 통해 소용가치와는 무관하게 어머니의 따뜻한 체취와 사랑을 더듬으며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뽑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년여 동안 병원을 들락거리느라 지친 몸 생기를 얻습니다.
반짇고리를 보며 신경성 천식을 앓으시면서 문중의 맏며느리 역할에 소홀하지 않았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강요당하셨던 고달픈 세월……. 참고 지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게 남아있는 반짇고리…….
지금까지 힘든 나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봄의 마음만 같다면 다들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봄 기운

시작은 마무리 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봄은 사계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은 약간의 들뜬 기분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금천구 _ 김화숙

봄기운

봄에는 봄 나름대로의 기운이 있다. 봄의 독특한 기운은 3월이 되면 날씨가 흐리거나 따뜻하거나 관계없이 우리들 가슴속으로 바로 들어온다. 올해도 3월이 되자 아직 새싹이 돋지도 않았는데 그 부드럽게 설레는 기운을 느낄 수 가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이 봄만 같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봄은 우리 가슴속에 희망을 불어 넣는다. 그 희망이 막연하거나 이유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미풍처럼 가슴속에 스며들어온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청춘남녀든지 아니면 그 누구라도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은 봄 일 때가 가장 많다. 아니면 봄바람처럼 따스한 바람이 가슴속에 불어오는 순간이던지. 봄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싹을 틔우는 그 보드라운 기운 탓인 것 같다.

나는 거의 매일 새벽 6시 경에 이어폰을 꽂고 개울가로 산책을 하러 간다. 3월의 새벽에 개울가로 나서면 아직 바람이 차고 기운은 냉하다. 개울에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돌다리 사이로 많지는 않지만 물이 흐르고 그 물속에는 피라미가 줄지어 헤엄쳐 다닌다. 좀더 깊은 물 속에는 잉어들도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겨우내 얼어있던 물고기들이 기지개를 켜고 봄맞이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조금 더 가면 들풀들이 여기 저기 빠끔하게 고개를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작년에 한해살이를 마치고 이제 검불이 되어 버린 억새가 들판을 온통 메우고 있는데 그 사이로 쑥이나 냉이가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다. 참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들판의 유구한 세월이 느껴진다. 이 개울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런 작은 들풀들은 존재했을 것이다. 한낱 들풀도 죽고 날 때를 알아차리고 자기의 계절이 왔음에 이렇게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들도 이 계절에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봄의 마음만 같다면 다들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작은 마무리 보다는 더 좋은 것 같다. 봄은 사계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은 약간의 들뜬 기분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시작하는 사람은 간혹 시작이라는 의미만으로도 한껏 들뜨는 것 같다.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봄에는 사업의 시작이나 사람들의 만남이 많고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둔다. 봄의 그 들뜬 기분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봄은 청춘이 짧은 만큼이나 빠르게 우리 사이를 지나간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한 해의 기초를 닦아 놓는다. 봄의 나른하고 포근한 기운이 다하여 여름이 시작되면 여름은 그야 말로 더위의 극한을 보여 주는데 봄에 시작된 기운은 여름에 이르러 열매를 잉태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막 결혼하는 남녀를 계절에 비유한다면 봄기운이 넘치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봄에 결혼한 신혼부부는 살림을 차려 알콩 달콩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계획을 빽빽하게 세워 놓는데 시간이 더 흘러 여름이 오면 그 달콤함이 현실적인 문제로 바뀌어 간다. 여름은 덥다. 숨

을 쉬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덥고 매사 짜증이 난다. 누군가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공기 속에는 습도가 높고 머리도 다소 흐리멍덩해 진다. 봄의 상큼하고 훈훈한 기운은 간 데가 없고 뜨거운 계절의 강력한 힘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계절에는 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봄의 기운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일년 사계절을 계속해서 우리 집 뒤에 있는 개울가를 걷는데 계절마다 그 느낌이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가 있다. 봄은 항상 뭔가 기다림이 있다. 설렘이 있으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작은 흥분이 따라 다닌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새싹이 조금씩 부드럽게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만지면 그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 그것을 만질 때와 같은 느낌이 온다. 신록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 나무에 솟아나는 이파리도 그때만큼은 한 움큼 잘라서 입안에 넣어도 씹어 질 것만 같다. 온통 연둣빛으로 세상이 물들고 거기서 여신 아프로디테가 걸어 나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서 신의 메시지를 읽는다. 신의 위대한 섭리가 나무 하나 하나에 내려와 있음을 느끼고 매우 경건해 지기도 한다. 이제 고사리 같던 새싹은 생명의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점점 강해져 갈 것이다.

봄은 제 할 일을 다 마치고 여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기운과 함께 물러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름 속에 내재한 봄의 기운을 느끼기는 하나 더 거대한 계절의 힘에 눌려서 봄을 잊어 간다. 봄은 세월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신록을 뒤로 하고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내고 천천히 세월의 뒤 안으로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다.

사계절 중에서 봄의 기운이 가장 밝은 기운인 것 같다. 느끼기에 여름은 거세면서도 강렬하고 가을은 왠지 마무리를 하는 결단력 때문인지 냉혹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마땅히 살고 싶은 곳을 고를 기회가 있다면 봄의 설렘이 충분한 그런 땅을 고르지 않겠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안개처럼 스며드는 봄에 나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이어폰을 꽂고 개울가를 거닐면서 봄의 독특한 기운을 느껴본다.

약간의 설렘과 청아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 안는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뿌연 빛에 기운이 조금씩 솟아나고 약간 쌀쌀한 바람이 머리를 명쾌하게 한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사계를 여는 봄에는 이런 설렘과 흥분을 느껴보고 싶다. 신선한 바람과 상큼한 기운 속에서 봄을 맞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공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점에 대해 늘 행복을 느낍니다.
부엌에서 바라보면 공원과 개울이 뻔히 보이거든요.
봄에는 아기 피부 같은 연푸른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나무가 온통 푸르른 옷을 입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지요. 가을이면 따로 단풍구경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단풍구경이 다 되니까요. 겨울에 눈이라도 올라치면 마치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에서 자연과 계절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작을 뽑아주신 심사위원과 이런 마당을 만들어 주신 행정안전부에 감사드립니다.

아다지오

'오십' 이라는 나이의 강물이 내게로 왔을때
나는 아다지오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려 한다.
느리게 흐늘흐늘하게 그리고 쉬어 가면서
승무같은 춤사위 동작과도 같은
느림의 여유들을 잔뜩 끌어 안고서



경북 고령군 _ 최계순

아다지오

‘오십’ 이라는 나이의 강물이 내게로 왔을 때 나는 이 시간들이 아주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지나가서 자근자근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삶이 아주 더디게 지나가는 그래서 내게 아주 느리고 느린 아다지오이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젖망울이 쬐끄만 했던 소녀 시절에는 얼른 어른이 되는 게 희망이었다. 얇은 스웨터 사이로 들어오는 추위가 싫어서, 가난이 싫어서 돈이 얼른 많아지는 사람이 되길 바랐었다. 구차하고 남루했던 그 시절에는 전쟁의 상흔이 겨우 가신 채로 다들 힘든 삶을 영위하던 시절들이었다. 그런 부모님 세대들의 고생을 딛고서 우리는 마냥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만 배를 불리면서 그래도 다들 잘 견디고 이겨 나온 세월인지도 모른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슬픔 같은 것, 그리고 미진하기만 한 것들, 아쉬운 것들…… 많은 것들이 맞물려서 다가오고 지나가고 또 오려고 한다. 가 닿을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그림자들을 거머쥔 채로 늘 기다리면서 산 삶이었다.

꿈을 꾸는 몽환자처럼 사랑에의 갈구로 평생을 보내면서 늘 잡을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았다. 가슴에 담긴 화롯불 하나가 너무 뜨거워서 그것을 주체하느라 이리저리 뒤척이며 살았었다. 어릴 때는 현해탄에서 몸을 던졌던 가수 윤심덕의 비극적인 인생에 놀라워 했고, 세

계를 놀라게 했던 천재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정열적인 삶과, 김일엽 스님이 선택한 구도자로서의 길 등을 동경하면서 소녀 시절을 보냈었다. 어머니와 같이 읽던 이광수의 소설에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라는 이름을 처음 대했을 때의 감동도 또한 훗날 생각해보면 가슴 뛰는 감동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제 '지천명'이라는 글귀를 새겨서 보낸 어느 친구의 정성처럼 이만한 나이쯤 되면 인생의 쓴맛과 단맛 그리고 희노애락의 틈바구니를 지나 하늘의 뜻까지를 헤아릴 수 있다는 뜻으로써 바로 성숙해가는 인간사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나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이 가리키는 숫자는 내게 정말 아주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지나가서 내게 못다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해야만 한다고 자꾸 재촉하고 있었다.

언제 이만큼의 나이를 먹은 것일까. 또 무엇을 위하여 발을 동동거리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세월들 속에서 거울에 비추이는 모습에는 주름살이 새겨져 있다. 근육의 뭉침이 더해지고 피부의 노화가 나이를 재촉해 가면서 삶의 시간들에 목을 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탄력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오늘과 내일 사이 그리고 너와 나의 사이, 택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지나온 길 들 중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꿈꾸었었다. 발레리나도, 화가도, 여성 정치가도, 유명한 작가도, 대부호도 다 되어 보고 싶다는 상상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이룬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동경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그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하면서 살았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 호기심으로 가득찬 내 성격 탓인지는 몰라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들로 가득 메워져서 살았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는 살지만 감정은 들쭉날쭉 지 멋대로 고집불통이었고 다듬어지지 않는 모양새로 그리움을 한평생 끌어안고 살면서 내 심장은 수시로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고나 할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꿈인 양, 기대인 양, 미래인 양 잡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집착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본질적인 그래서 근원적인 그런 마음의 외로움 한 자락을 늘 등에 짊어진 채로 철없는 시간들을 두서없이 건너온 탓이리라.

어릴 적에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 드리는 것도 내 작은 꿈의 전부였었다. 남편 덕 없이 생활해 오면서 가녀린 생존의 길 위에서 보낸 어머니의 삶은 참으로 고달 펐었다. 굽이굽이 돌아 나온 길, 서로 의지하며 눈물겹게도 견뎌온 인내의 시간들은 잊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었다. 어머니 혼자 몸조차 지탱하기 어려웠겠지만 어머니이기에 견딜 수 있는 강한 모성애로 살아온 그녀의 삶은 마치 한 권의 소설책처럼 너덜너덜하게 기워져 있다.

'빨치산 이야기, 피란 이야기, 귀신 이야기, 육십령 고개를 넘는 이야기' 밖에 안 듣고 자랐지만 계집아이로 자라서 한 여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길, 그리고 어른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지구라는 땅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많은 이해와 사랑을 배우게 된다.

끊임없이 알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면서 탄생과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자연의 이치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 사는 이치를 터득할 때쯤 되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탄생했던 별로 돌아가야 한다.

목숨이 있는 한 누구나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일의 태양에 거

는 우리들의 기도와 염원 탓이다. 돌아가는 우주의 사이클 어느 한 시점에 머물면서 우리들 영혼들은 생존이라는 명제 앞에서 늘 고뇌하며 싸우면서 나름대로의 목숨들을 이어왔다. 서로 간에 맺어진 인연이라는 끈에 묶여서 애착과 소유와 욕심들을 있는 대로 다 부리면서 그렇게들 살아왔다. 욕망은 살아있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 본능이다. 인연이라는 끈에 묶여 있을 때 어쩌면 다들 그것들이 주는 구속과 침해와 관심들을 바탕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들에 충실하려 애썼는지도 모른다.

인연의 이치들……. 관계되어진 모든 이들과의 만남과 이별들 속에서 이미 버려진 것과 앞으로도 버려야 할 것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체념해야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더 담대해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함도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리라.

어머니를 의지하여 많은 외로움을 타면서 희망 없었던 캄캄한 터널을 지나오면서 뼛속 깊이 파고드는 한기를 들이 마시면서 상상으로 배를 채우는 데 익숙한 습관을 나도 모르게 지니게 되었다. 집 한 칸에 걸었던 목마름, 따뜻한 가정, 정 깊은 친척간의 교류 등이 그 시절에는 제일 부러운 관심사였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거창에서 혼자 살면서 아무런 희망 없어 보였던 막연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그냥 지탱하고 견뎌야 하는, 누구 하나 손잡아 주는 이 없이 나는 내 의지대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자랐다. 사춘기 시절은 회색빛이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힘에 눌려서 숨을 쉬지도 못하는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해서 지금을 견디고 견디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토록 선망했던 서울에서의 공부는 아예 생각도 못한 채로 자존심 구겨가며 살 수 밖에 없었던 대학시절.

유쾌한 로맨스 보따리 하나 건지지 못한 학창시절을 건너 세상에 대

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그냥 그냥 철없는 선택으로 오늘까지 떠밀려 오면서 연약한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왔었기에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것들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다.

외로웠던 성장기를 지나서 사그러지고 녹아지는 듯한 시간들의 재촉에도 주눅 들지 않는 의연함과 변함없는 의지 같은 것들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고개 고개를 넘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벅찬 시련들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한갈피 한갈피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통과된 시간들은 이제는 낡은 사진첩처럼 박혀있고, '오십'이라는 숫자는 바늘 같은 통증을 일으키는 습관성 질환이다.

어영버영하며 살아온 세월들에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살아갈 것에 대하여, 시들어가는 인생에 대하여 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들은 커다란 청년으로 자라서 참으로 신기한 요술쟁이처럼 언제 저렇게 자라서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다. 아름다움에 대하여, 젊음에 대하여 왠지 자신을 잃을까 봐 두려움도 든다. 외면적인 것도 내면을 가꾸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세가 곧게 나이를 먹어가고 깔끔한 외양을 유지하는 것도 자기 관리 측면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쁘게 늙어감도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건강을 유지하며 스마트한 모습으로서 현 시대에 맞는 사고와 지식을 갖춘다는 것이야 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노력의 일부분일 것이다.

'오십'이라는 나이의 강물이 내게로 왔을 때 나는 아다지오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려 한다. 느리게 흐늘흐늘하게 그리고 쉬어 가면서 승무 같

은 춤사위 동작과도 같은 느림의 여유들을 잔뜩 끌어안고서 내 노래가 침몰하는 황혼의 저녁처럼 쓸쓸하지 않기를 그저 기도 할 뿐이다.

제 나이가 오십을 넘어서고 보니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한 개인의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고단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들을 지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들 다 그렇겠지만……. 그런 심정들을 잔잔히 정리해 보면서 제 나이의 "오십대"가 아주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지나가서 오래 오래 제 곁에 머물기를 그래서 아직도 예쁜 여자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을 생생히 묘사하였습니다. 아다지오란 뜻은 음악에서 천천히 느리게 부르는 곡을 이야기 합니다. 그처럼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싶은 나의 애달픈 소망을 글로 형상화했습니다. 오십대의 씁쓸하고도 애달픈 심정이 글 속에 잘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6월의 푸른 신록을 보며 열다섯 살의 소녀이고 싶은 나의 희망을 띄워 보면서 언제나 열정적인 나의 삶을 가꾸어 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고즈넉하게 여유로움에 푹 빠져

아

"아차! 세상은 지금은 멈시더라" 하듯

차

몽환적 톡백이 튀어

도

나올 수 있는 한적한 곳이다.





인천광역시 _ 김관철

아차도

섬 이름이 낯설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섬에 대한 궁금증은 부풀어 오른다. 게다가 황사 때문인지 물안개 때문인지 시야가 아물거리면서 섬을 향한 여정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자아낸다. 아차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문도와 볼음도 사이에 옹이처럼 박혀있는 섬이다.

외포리 포구를 떠난 삼보 11호 여객선은 스크루 소리만 컸지 속도는 영 시원찮다. 이른 봄, 그 바다에는 교통체증이 없다.

강화도 앞바다를 1시간 30분 남짓 한가롭게 헤쳐 나간 완행여객선은 주문도에 먼저 닿고 뱃머리를 바로 아차도로 향한다.

그 섬은 마치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듯 잔뜩 움츠려 있었다. 멀리뛰기라도 하면 뛰어넘을 만큼 주문도와는 가깝게 있는 섬이지만 "격강이천리"라고 두 섬을 살 빠른 물길이 갈라 놓고 있다.

"아차도"라는 이름은 뭍에서 천년, 바다에서 천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도중에 임신한 여인을 보고 "아차"하는 순간에 바다로 떨어져 그대로 섬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붙여졌다. 소박한 전설을 품은 섬답게 그 섬은 으레 선착장에 있을 법한 시끌 벅적한 난장 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맞이한다.

23가구 3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차도는 지금은 바람에 노인네들 잔기침만 묻어 나오지만 분단이 되기 전까지는 강화군에서 가장 부유한

섬으로 꼽혔다.

파시 때는 황해도와 충청도에서 몰려 든 300~400여척의 배가 선창에 빼곡히 정박하곤 했다. 면사무소, 학교도, 이 섬에 있었다. "왕년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만한 섬이지만 북쪽이 막히면서 앞 바다는 졸지에 "단절의 바다"가 되었다.

아차도는 어엿한 해수욕장이나 탄성 나올만한 기암절벽이 있는 섬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이 섬의 매력이다. 손 타지 않은 원초적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섬 고유의 순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해안선 길이가 고작 5km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빙둘러 한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면 족하다. 명승지는 없지만 구석구석에 사람을 끄는 포인트는 있다. 마을에서 북쪽 해안으로 가려면 빼물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오솔길 마루턱에 서면 바다 여백에 세워져 있는 빨간 등대가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낸다. 북쪽 해안에는 한여름에도 손 시린 물이 샘솟는 얼음낭이라는 샘터가 있다. 옛날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에 이 물로 목욕재개하고 안전을 기원했다고 한다. 서검도, 미법도 등 낯선 섬들이 손에 닿을 듯 있다. 동쪽으로 돌면 마치 고래 한 마리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30m 높이의 꼿치산이 솟아 있다. 멀리서 보면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지만 모래톱으로 아차도와 이어져 있다.

꼿치해안에는 촉감 좋은 갯벌이 펼쳐져 있다. 초록 빛깔을 띠는 이곳의 갯벌은 자세히 보면 금가루를 뿌린 듯 사금파리가 박혀 있다. 잔파도가 새겨놓은 물결무늬 갯벌이 깨진 거울처럼 봄 햇살을 난반사 시키며 몸을 나른하게 만든다. 고즈넉하게 여유로움에 푹 빠져 "아차! 세상은 지금 몇 시더라?"하는 몽환적 독백이 튀어 나올 수 있는 한적한 곳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살펴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없이 오직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 파묻혀 지내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은 서로 인사 나눌 겨를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정신없이 컴퓨터를 켜고 일에 몰두하기 바쁘다.

예전에는 직원들과 어울려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서로간의 인간의 정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그립기만 하다.

사무실에서 오직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얘기를 나눌 뿐 서로 아무 말 없이 컴퓨터와 오직 대화하기에 바쁘다. 점심시간도 아까워 정신없이 식사하자마자 뛰어 올라와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런 컴퓨터는 언제든지 반갑게 대해주고 고민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옆에 직원한테 물어볼 수 있는 정겨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대답해준다.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다 보면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 저녁식사 할 때쯤 주위를 둘러볼 뿐이다. 직원들과 저녁식사 하면서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끝마치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 대화하다가 심신이 고단할 때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선다.

그때서야 남아있는 직원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아무 말 없이 인사도 나누지 않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곤 하는 일상생활이 이젠 낯설지 않게 되었다. 천근만근 되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은 벌써 기다리다가 지쳐 잠자리에 들어선지 오래된 후다.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얘들을 쳐다보면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가슴을 저민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는 얘들이 가고 싶어 하는 놀이터나 공원에 데려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빠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기

로 마음먹은 나의 생각은 주말이 다가올 때쯤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그렇게 하루종일 일상생활 속에 파묻혀 컴퓨터와 씨름하면서 정신없이 일을 하여 왔지만 주말에 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 예전에는 직원간의 인간의 정을 나누고 휴일에는 아빠의 도리를 다하면서도 생활하여 왔는데,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은 갈수록 각박해져만 가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나의 마음을 어딘가에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주변 상황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 발걸음을 옮겨 찾아온 섬 아차도는 이런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무조건 받아주었다. 각박하고 찌들린 듯한 일상 생활 속의 모든 짐을 아차도는 만병통치약처럼 치료해 주었다. 아차도 섬 이름처럼 그 동안 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아차"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이런 즐거움의 비명을 나 혼자 즐기기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만간 5월중에 실시하는 체육의 날 행사를 아차도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우리 직원들이 아차도라는 섬에서 그 동안 컴퓨터로부터 빼앗긴 마음의 여유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보니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컴퓨터로부터 빼앗긴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면 직장내에서는 인간미가 물씬 풍겨 사무실 분위기가 새롭게 변모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다정다감한 화목한 집안분위기로 바뀔 것이란 성급한 기대심리를 아차도는 뿌리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아차"를 되뇌이면 나의 마음은 항상 풍족하고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정을 물씬 느낄 수 있게 해줄 것 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왠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 일상생활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경쟁 속에 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며 정신없이 일상생활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저마다 자기 적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몫이 있다. 그 그릇에 그 몫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안으로 살펴야 한다.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고 있는 이 일이 인간의 삶인가? 지금 나 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독한 존재이다. 저마다 자기 그림자를 거느리고 휘적휘적 저 지평선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퉁이에서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나의 존재를 뜨겁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차"하면 언제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나의 스승의 섬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마음의 그늘 속에서 추워질 때마다 내 영혼의 마음을 감싸는 것은 바람 속에 흩날리는 아차도의 사랑 나의 둘도 없는 벗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그 머나먼 거리에서 세월을 잃으며, 마음의 여유를 잃으며, 살아 있음을 온몸으로 증언하고자 할 때마다 세상은 언제나 비웃음의 표정이었다.

내가 마음의 여유라는 벗을 뜨겁게 깨달았을 때 나마저 나를 부정하던 그 숱한 날의 뜨거운 생존 연습은 마침내 아픈 노래를 세상 밖으로

떠돌게 하며 그 낙서장 같은 내 생애에서 아픈 사연을 덮으며 마음의 여유 또한 나의 둘도 없는 벗이 되었다.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는 참으로 반갑고 그리운 벗 이었다. 내가 살아 있다고 온몸으로 몸부림 칠 때마다 그 얼마나 세상의 진실을 갈구 했는가?

우리들은 그렇게 인간미가 각박한 길을 가며 자신을 거짓 없이 돌아보게 되나 보다. 그렇게 슬픈 영혼의 눈동자를 재우기 위해 많은 날의 세월이 마음의 여유 속에서 뜨겁게 불새의 날개 짓을 듣게 하는 것이었나 보다. 이제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 만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하도록 해야겠다.

강화도에 위치한 아차도라는 섬은 요즘 각박한 생활속에서 자신을 잃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참으로 반갑고 그리운 벗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직장인들이 컴퓨터와 함께 생활하면서 빼앗긴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별준비

생기 넘치는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를 사로잡았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느껴 보지 못한 황홀감이 거기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거기 머물고 있는 것 같았다. 매일 호피석 곁에 있으면서 처음 본 것처럼 즐거웠다.



군위 효령초교 _ 강기석

이별 준비

우리 집 거실에 돌 세 덩어리가 있다. 모두 호피석이다. 호랑이 털색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화 고선계곡에서 일년을 살면서 제법 많이 모았는데 이래저래 없어지고 세 덩어리만 남았다.

호피석에는 검은 색, 흰색, 누런색 그리고 보라색 등이 적당하게 모이고 흩어져서 만든 소박한 무늬가 있다. 단단한 곳은 불거져 나오고 무른 곳은 패어서 생긴 음영이 투박하다. 물에 씻기고 돌에 닳은 표면은 달빛처럼 은은한 윤이 난다. 그것뿐이다. 강이나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처음 보는 사람이 심드렁해 하기 십상이다.

호피석은 물을 만나면 달라진다. 투명한 물 속에 담그면 숨어있던 온갖 색상이 발현되고 명도와 채도가 고양되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던 돌이 아름답게 변한다. 주변의 물빛도 돌 빛깔을 닮아 칠보의 향연이 된다. 호피석의 매력은 바로 물빛이다.

좁은 아파트 거실에서 돌을 물에 담아 두기는 어렵다. 궁여지책으로 수반에 앉혀 놓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감상한다. 물기가 마르면서 만들어내는 얼룩의 조화가 또한 볼만하다.

비스듬히 누워 호피석을 바라보면 고선계곡이 거기 있다. 높은 산 푸른 바람과 낮은 하늘이 보인다. 느티나무 집 정도사의 텁수룩한 수염 사

이로 터져 나오는 컹컹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짠돌이 애숙이 아버지가 건네주는 옥수수 술은 마시기 전에 벌써 취한다. 수정처럼 맑은 물속에는 피리 떼가 발등을 간질이며 지나가고, 점박이 산천어가 제 잘난 맛에 거드름을 피며 느릿느릿 시간을 즐긴다.

한 걸음 다가가 보면 사계절이 거기 있다. 겨울에는 검은 바위벽에 대항하는 눈보라의 차디찬 이성을 볼 수 있다. 봄에는 연보라색 산등성이를 따라 흐드러지게 피는 산 복사꽃을 만날 수 있다. 여름에는 청록색 계곡을 잠행하는 투명한 물줄기가 싱그럽다. 그리고 가을에는 낡은 사랑 타령으로 목이 쉬어버린 억새꽃의 난무가 있다.

더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삶의 온갖 메타포가 거기 있다. 무늬 하나하나와 색깔 하나하나에 이 생각 저 생각을 매고 풀다 보면 삼라만상의 생멸과 천지만물의 근원이 거기 있다. 괘사와 효사가 되기도 하고, 상형문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화가 된다. 혹은 컴퓨터 아이콘이 되고, 혹은 절제된 추상화가 된다.

어떤 날은 호피석을 베고 누워 머리 속으로 스며드는 돌의 느낌을 즐긴다. 적막을 앓고 난 선승의 장삼자락 같은 허허로움이 찾아들기도 한다. 오래 된 대청마루에 다소곳이 들어선 아침 햇살 같은 소박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지난 일요일에는 십여 년 만에 고선계곡에 갔다. 아내에게는 살던 곳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속셈은 호피석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호피석을 줍는 기쁨을 맛보고 싶었다. 거실에 멋진 호피석 한 개쯤 더 갖다 놓고 싶었다.

내가 살던 집은 허물어지고, 돌 징검다리가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다. 느티나무 집 정도사의 너털웃음은 녹이 슬고, 짠돌이 애숙이 아버지

의 눈빛에는 그늘이 생겼다. 아내가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동안 나는 슬그머니 계곡으로 들어갔다.

계곡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흐르는 물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다. 물고기는 여유롭고 바람은 향기로웠다. 물을 밟고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에 계곡을 지키던 고요가 부서졌다. 나는 물 속과 돌 틈을 샅샅이 살폈다.

한 참을 올라가니 깊은 물속에서 어른 머리 크기보다 조금 작은 호피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숱한 사람과 눈 맞추기를 거부하면서 온전히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빛에 놀란 가슴은 사정없이 방망이질을 했다. 나는 흥분을 억누르면서 천천히 아주 담담하게 호피석을 향해 다가갔다.

생기 넘치는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를 사로잡았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느껴 보지 못한 황홀감이 거기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거기 머물고 있는 것 같았다. 매일 호피석 곁에 있으면서 처음 본 것처럼 즐거웠다. 거실에 있는 호피석을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거실에 있는 호피석도 처음에는 이 호피석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낯선 거실에서 호피석의 영혼은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호피석에는 내 생각의 편린들만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낡은 의미의 부스러기만 쓰레기 더미처럼 수북이 쌓였다. 호피석은 죽고 나만 살아있었다.

나는 감히 물 속의 호피석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살아 숨쉬는 호피석을 거실에 옮겨 놓고 생명을 앗아가는 고문은 하고 싶지 않았다. 호피석의 고향은 고선계곡이며, 호피석이 편히 쉴 곳도 고선계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피석은 지금 이 자리, 고선계곡에서 호피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돌이 될 거라는 생각

이 들었다.

호피석을 집으로 가져가겠다는 내 소유욕은 차츰 죄의식으로 바뀌었다. 지나간 세월 동안 거실에 있는 호피석에게 내가 지은 죄가 무척 무겁게 느껴졌다. 더 이상 죄를 짓기 전에 고선계곡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호피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인 것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호피석과의 이별을 준비했다.

호피석에 덕지덕지 붙은 기호와 언어 그리고 역사와 신앙을 하나씩 벗겨냈다. 내가 불렀던 노래, 내가 보냈던 눈길 그리고 내가 내밀었던 손길을 하나씩 거두었다. 호피석에서 나를 지워내고, 나에게서 호피석을 지워냈다.

멀지 않아 호피석은 호피석이 되고 나는 내가 될 것이다. 고선계곡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호피석에는 더 이상 세상의 메타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호피석은 고선계곡으로 가고, 거실에는 나 혼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본래 그냥 거기 있었을 뿐 누구의 누구, 누구의 무엇, 무엇의 무엇이 아니었다. 그냥 거기 그렇게 있어 존재가 되고 삶이 될 뿐이다.

내가 살아온 흔적 하나를 지우기 위해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흔적도 이렇게 지워갈 것이다. 지우다가 더 지울 것이 없으면 지우는 나마저 지울 것이다. 나를 지운 그 자리에 그냥 맑은 바람 한 줄기 지나갔으면 좋겠다. 밝은 햇살 한 자락 지나갔으면 좋겠다.



청 소

형은 깊은 잠에 들면서도 내가 부르면 들을 수 있는 귀와 위로의 말을 간직한 입술을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의정부 효자고 _ 하상만

청소

집이 깨끗하다. 형은 청소를 해놓고 떠났다. 내가 사는 집에 형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며칠 전 내가 이사를 하자 형이 전화를 했다.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필요한 거 없다고 대답했다.

이사를 가기 얼마 전부터 사람들은 집 청소에 손을 놓는다. 나도 그랬다. 틈틈이 짐을 싸 두면서 나는 짐 옆에서 잠을 잤고 겨우 누울 공간이나 비질을 했다. 이 집에 살던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짐을 들여 놓고 대강 청소를 했지만 퇴근 후 문을 열면 매캐한 냄새가 코를 건드렸다. 청소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된 집처럼 느껴졌다. 창틀에 수북이 먼지가 눌러 붙어 있었지만 나는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형이 왔다. 차를 오래 탈 때 멀미약을 먹어야 하는 형이 싫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갈 때 넘어지는 형이 싫었다. 그래서 형의 방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늦은 밤에 도착한 형은 삶아 놓은 고구마 몇 개를 먹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퇴근을 하니 형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목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칫솔을 쥐고 있었다. 칫솔을 쥔 손으로 창틀에 묵어 있는 때를 솔질하며 다른 손에 들고 있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먼지가 오래 쌓여 있어서 집안에 냄새가 좀 나. 나를 본 형이 웃었다. 베란다에 일단 쌓아둔 짐들도 정리되어 있

었다. 그 짐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말없이 살펴보았다.

저녁이 되어 형은 욕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아까 욕실 청소를 하다 보니 욕조 주변에 발라놓은 실리콘이 벗겨졌더라.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가봐. 실리콘이 벗겨지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오래되면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져. 그러면 윗집에서 바닥을 뜯어야 해. 미리미리 실리콘을 발라두면 좋은데. 여기 어디 큰 마트 같은 거 없나.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롯데마트가 있었다.

롯데마트에 가기 전 우리는 세차장에 들렀다. 나는 차를 거의 버려두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차로 출퇴근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세차할 시간이 없었다. 차 문을 열자마자 형이 세차부터 하러 가자고 했다. 텁텁한 냄새가 코를 막았다. 내가 동전을 집어넣자 형이 흡입기를 이용해 차 내부를 청소했다. 형은 꼼꼼했다. 형의 손길을 탄 차는 문을 닫자 코에 걸리는 것 없이 숨쉬기 편했다.

실리콘을 사오고 밥을 먹고 형은 곧 잠이 들었다. 나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여기저기 돌려보다가 잠이 들었다.

남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피곤한 날엔 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난다. 가위에 눌리는 것은 아닌데 몸이 너무 무겁다. 종종 그런 날에 나는 아무도 내 옆에 없다는 것을 핑계로 큰 고함을 질러보곤 했다.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몸이 무거웠다. 힘들다고. 젠장. 힘들어 못살겠다고. 일종의 구조요청인 셈인데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다. 그게 편했다. 그러고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잤다. 잠이 깼을 때 나는 형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이 코를 골고 있었다. 코를 골다가 잠깐씩 칵칵 숨을 못 뱉어 내고 있었다. 나는 형도 나만큼 몸이

무거우리라 생각했다. 하루 종일 청소를 했지만 나는 형에게 미소 한 번 띄우지 않고 특유의 무덤덤함으로 대했다. 형이 학교를 그만 둔지는 벌써 13년이 흘렀다. 그동안 형은 막노동도 하고 제빵기사가 되기 위해 학원도 다녔다. 형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형이 부끄러웠다. 사범대학을 무사히 졸업만 했다면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해가 지고 공사장의 흙들을 잔뜩 묻힌 옷을 입고 형이 돌아오던 골목 어귀에서 형을 만나면 나는 모르는 체 했다. 새 옷을 입고 아침에 멋지게 출근하는 형이 아니라 늘 집에서 가장 험한 옷 내일 당장 버릴 옷만을 찾아 입고 출근하는 형이 부끄러웠다. 어느 날 어머니가 형이 만들어 온 빵이라며 내게 먹어 보기를 권했다. 내 원에는 차지 않았지만 이제 형이 제대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좋아했다. 그러나 형은 갑자기 빵 냄새가 맡기 싫어졌다며 제빵학원을 그만 두었다. 형은 대체 무슨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냐고 울면서 형에게 제발 그만 둔 이유라도 납득할 수 있게 말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형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어렸을 때 형이 방패연을 만들어 준 적이 있다. 형은 나보다 네 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보기에 못하는 것이 없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동생을 데리고 방패연을 날리기 위해 달렸다. 바람이 제법 찼다. 방패연은 내 키보다 약간 낮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날아오르지 않았다. 기대감을 갖고 실을 더 길게 늘일수록 나는 더 힘차게 뛰어야 했다. 숨이 가빴지만 나는 날아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릴 수 없었다. 형이 만들어준 방패연이었기에.

스무 살 때부터 밖에 나와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두 배나 더 열심히 살아야한다고 생각했다. 형은 언제나 한

사람의 몫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생각으로 가족들을 대하다 보니 가족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다. 가끔 보고 싶긴 했지만 날 보러 오라고 부르진 않았다.

몸이 무거웠다. 아주 무거워 잠에서 나는 밀려났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남들처럼 눈앞에 날 쳐다보고 있는 귀신이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내 몸이 무겁다는 것. 그래서 잠든 내 영혼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뿐이다. 나는 눈을 감고 어떻게든 무거운 내 몸을 버티어 내고 있었다. 형은 그 사이 또 숨이 막히는지 칵칵 나오지 않는 숨을 억지로 뱉어 내려고 하고 있었다. 아마도 나이 들면서 목젖이 늘어나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나는 불현듯 형에게 조용히 물었다. 형,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형이 골던 코를 멈추고 대답했다. 힘들지, 그러나 잘 할 거야, 넌. 잠든 줄 알았던 형이 내게 대답을 했다. 그러나 아침이면 형은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옆에서 재우던 아이를 처음으로 건넛방에 재우게 되었을 때 아이가 낯설어서인지 악몽을 꾸어서인지 자다가 엄마를 불렀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엄마는 아이의 부름에 답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고 아이는 안심한 듯 다시 잠이 들었다. 이 장면을 아이의 외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외할머니가 재생하자 아이의 어머니는 그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떨어져 있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 형이 내게 대답을 한 것은 형이 잠을 자지 않아서 내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다. 형은 깊은 잠에 들면서도 내가 부르면 들을 수 있는 귀와 위로의 말을 간직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형과 내가 아주 각별한 사이

처럼 느껴졌다. 형은 사실 코를 골 것 같다며 출근해야하는 내게 방해가 될까봐 방에서 자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괜히 형을 밀어 내는 것 같아서 내가 늘 자는 텔레비전이 놓인 마루에 같이 눕자고 제의했다.

누가 욕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형이었다. 형밖에 없었다.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가 잠에서 깰까봐 그러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잠에서 살짝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나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눈을 감고 흐릿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르릉. 자명종이 울렸다. 여섯 시였다. 내가 일어났고 형이 욕실에서 나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음악을 튼다. 밥을 안치고 샤워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는 것이 내 패턴이다. 그러나 형이 있었기에 나는 음악을 틀지도 밥을 안치지도 않았다. 일상적인 내 패턴이 깨어진 것에 나는 잠시 짜증이 났다.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가려고 하니 형이 가로막았다. 오늘 하루만 샤워 안 하면 안 되나. 싱크대에서 세수하고 출근했으면 하는데. 욕실 문을 열어 보니 욕조 주변에 벗겨져 있던 실리콘이 하얗게 메워져 있다. 실리콘이 마르려면 24시간 정도 걸려 그 전에 물이 닿으면 곰팡이가 피거든. 그러면 보기 흉하고. 나는 실리콘을 끼워 쏘는 총을 떠올렸다. 실리콘 총은 그냥 당겨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센 힘이 필요하다. 몇 시간 동안 총을 쏜 형의 손은 힘이 다 빠져 밥숟갈 들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형이 욕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환풍기 스위치를 켰다. 스러러러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몇 시간 동안 작업하면서 형은 환풍기도 돌리지 않았다. 내가 깰까봐서. 무엇보다 나는 밀폐된 공간에서 실리콘 향에 갇혀 있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안다. 코는 예민해서 곧 향기를 잊을 테지만 실리콘 향은 차곡차곡 머릿

속에 쌓인다. 형은 머리가 무거웠을 것이다. 싱크대에서 세수를 막 마쳤을 때 형이 말했다. 나, 너 출근하고 나면 집에 내려가야겠다. 멀미약 먹어야겠는데 여기 가게가 어디 있나?

형이 사라진 깨끗한 집에 돌아 왔다. 짐이 정리되고 나니 집은 좀 더 넓어 보인다. 공기가 맑다. 실리콘이 잘 발라진 욕실은 새 것 같다. 넓고 맑은 곳에 혼자 서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형이 내게 물었다. 넌 내가 오는 게 반갑지 않지? 나는 그냥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욕실 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잘 살아라. 화장실 환풍기 틀기, 창문 열어 환기 시켜라. 책상에는 형이 올 때 타고 온 고속버스의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라는 메시지였다. 언제보아도 형의 글씨는 독특했다. 언젠가 독특한 형의 글씨에 대해 사람들이 놀렸을 때 형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도 처음엔 욕 듣던 글씨였다고 응수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형은 그 글씨로 수많은 시도 써내려갔지만 시인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형의 시 몇 편을 외우고 다녔다.

나는 형이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형이 내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필요한 것 없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한 것은 형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내 입에서 형이라는 말이 굴러 나왔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 지난밤처럼 내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 줄 것 같다. 궁금해 하지 않던 형의 삶이 궁금하다. 멀미약은 잘 샀을까? 형은 오늘 청소를 마치고 떠났다.

중학교 때 오른발이 부러졌다. 그러자 내 몸의 지축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다. 오래 걷고 나면 왼발이 불편했다. 어느 날 오른발이 왼발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냐고. 왼발이 대답했다. 괜찮다고. 20년 동안 오른발은 왼발에 의지해서 걸어왔다. 생각하니 가슴이 싸하다. 한 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야 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단편소설 부문

대 상

맹인과 등불 _ 김성기

우수상

미다시로 지은 집 _ 임문호

보훈가족 _ 강동희

장려상

가나안 _ 김승희

다른 문을 찾다 _ 김경수

사진속에 비친 세상풍경 _ 김재헌

회춘 _ 이인호



불통과 팽인

서울 서대문구 김성기

앞서 내달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뒤처져 보고

혼 안감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그 시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과질환에 걸렸다.

치료를 받느라 이틀을 꼬박

홀대를 받고 누워있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세상이 조금 온순해 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만 감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저 혼자 온순해지는 것은 아닌 듯 했다.

맹인과 등불

"손가락이 몇 개죠?"

의사가 눈에 감았던 붕대를 풀어내고 물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은 열개라고 대답 할 뻔 했다.

"정말 안보여?"

그녀가 '농담이지?' 하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덜 풀어낸 붕대는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눈에는 남태평양의 푸른 파도만이 너울댔다. 신혼 여행지였던 발리 섬의 깊고 푸른 바다. 그는 포도당 주사바늘이 꽂혀있는 왼팔 대신 오른팔을 한 번 더 들어 얼굴을 더듬었다. 여전히 그의 눈에는 푸른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수술은 반복되었다.

"영구 실명입니다."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으니 목탁이나 두드리고 있으라는 소리 같았다. 스트레스와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김치의 무심함 같은 의사의 목소리는 띄어쓰기가 불분명한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았다. 그는 눈 속에서 출렁이는 바다보다 그 목소리가 더욱 망막하게 느껴졌다.

"왜, 불이나 켜고 앉아있지 않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가 거실스위치를 올리는 소리가 '똑' 하고 났다. 순간 그의 가슴에도 '똑'하고 불이 들어왔다. '돌아 왔구나.' 하루 종

일 맹인견에 이끌려 다니는 꿈을 꾸다가 막 깨어난 그는 독 오른 코브라처럼 머리를 세운 채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나 그의 꿈은 어두웠고, 깨어 봐도 세상은 여전히 붕대에 감겨 있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밤길에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군.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녀? 맹인이 대답했대. 당신이 저에게 부딪힐까봐 그래요. 제발 불 좀 켜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부딪치지 않게."+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그는 그녀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불을 켰다. 그를 위한 것이 라기 보다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거실 가운데 매달려 파리똥에 절어가는 형광등은 울컥, 울컥, 토악질을 하다가 주르르 맑은 빛을 쏟아냈다. 그것만이 하루 중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오직 불을 켜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한번이라도 놓칠세라 괘종시계 울리는 소리를 꼬박 꼬박 헤아리며,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좁고 어두운 전세방에 포획된 야수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만 빼고 나면 세상은 침몰하는 폐선처럼 조용하고 아늑했다.

오년이 지났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그는 후각과 청각이 매우 발달했다.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보통사람의 열배 이상으로 발달되었다. 청각은 백배로 예민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도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스쳐가는 미세한 떨림까지 솜털을 세워 감지해 냈다. 세상의 모든 소리라는 소리

+ 바바하리다스의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중에서

는 그의 열려있는 피부조직을 통해서 뇌로 모아졌다.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하듯이. 하루 종일 그의 두뇌는 그 소리들을 분리하고 감식하느라 바빴다. 그 때문에 그는 마치 지상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듯, 단호하게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가급적 세상을 향해 열린 몸의 안테나를 축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느라 그의 두뇌가 폭발해버릴 것 같았다.

그가 세상의 소리를 감지해 내기 시작한 첫 단초는 남세스럽게도 위층소녀의 오줌 누는 소리였다. 그 다음은 그 집 아들, 그 다음은 그 집 남자, 그 다음은 그녀가 떠나는 발자국소리, 그 다음은 그녀의 노랫소리, 그 다음은 그녀의 교성소리 순이었다. 그렇게 발달을 계속한 그의 청각은 마침내 개미가 싸우거나 바퀴벌레가 성교를 하는 소리까지 감지해 내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바퀴벌레가 그렇게 자주 교미를 하는 줄 몰랐다. 그것들은 하루 종일 교미하고 먹고, 교미하고 먹고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야말로 오직 번식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4억년을 버텼을 것이다. 그러니 고작 3백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하고 비할 바는 아니었다. 하기야 인류라고 해서 3백만 년 동안 교미하고 번식하는 것 말고 특별히 이 작고 푸른 지구를 위해 무엇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퀴벌레들도 이른바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들도 일부종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끝없이 생육하고 번식하지만 오직 한 상대하고만 교미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세계에도 아주 드물게 변종이 나타나 다른 상대하고 교미를 하는 것이었다. 그 숫자가 통계적 가치로 무의미했던 시대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21세기, 그러니까 뉴-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

면서 급격히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바퀴사회에 커다란 문젯거리도 대두되게 되었다. 바람피운 바퀴의 배우자는 복수의 일환으로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하고, 그 다른 배우자는 또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하고, 관계를 하고, 관계를 하고, 고, 고, 고…… 바퀴들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져가기 시작했다. 그 무렵 그녀의 귀가도 늦어지기 시작했다. 늦게 돌아온 날의 그녀에게서는 비누향이 진하게 났다.

"먼저 자지 않고……."

그런 날의 그녀는 쉽게 짜증을 냈다. 그녀가 짜증은 내는 날은 바퀴벌레들의 관계소리가 조용해 졌다. 그가 바퀴들의 관계에 귀를 기울였듯이, 바퀴들이 그들의 관계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이었다.

"당신 지금 몇 시야, 야, 야, , ,"

이렇게 첫마디를 시작해야겠지만, 그는 그런 승산 없는 싸움을 걸만큼 어리석지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가 바퀴 득실거리는 허름한 집으로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했다.

"늦었네!"

아침의 비누냄새와 다른 냄새를 달고 들어오는 그녀에게 그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그 냄새는 여름날 흩어지게 핀 밤나무 꽃 아래를 지나갈 때 맡았던 냄새와 흡사했다.

"나는 밤꽃 냄새가 싫어!"

밤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그녀가 했던 말이다. 밤꽃 냄새를 지독하게 싫어하던 그녀, 그런 그녀의 생리적 거부반응과는 관계없이 그녀는 지금 밤의 꽃이 되어가는 것일까?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 않듯이, 그녀도 그에게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시력을 잃고 처음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일년간 그녀는 매일 역겨울 정도로 불고기 냄

새를 달고 들어왔다. 더러는 반쯤 탄 불고기를 가지고 와서 탄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며 먹여주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그녀에게 불고기 값을 대신해서 안마를 해주었다. 시력과 함께 성력도 잃어버린 그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안마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관계였다.

그녀의 팔과 다리와 어깨를 주무르면서 그는 그녀가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밤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의 야윈 몸을 정성껏 주물렀다. 그러나 맹인이라 하여 아무나 다 안마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안마는 서툴렀고, 주물러야 할 곳과 주무르지 말아야 할 곳을 분간하지 못했다. 더듬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이 오래 머무를수록 그녀는 힘들어했다. 꼭 그 때문이라기보다, 그는 안마시술을 배우고 싶었다. 그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시술 교습을 받으면서 안마시술소가 오로지 안마만 시술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를 가까이에다 두고 벌이는 남녀의 행위는 차마 민망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침을 삼키거나 뛰쳐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쨌거나 그런 곤혹스러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맹인안마사 자격증을 습득했다.

"아유 시원해, 안마솜씨가 하루가 다르네!"

밤꽃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는 그는 이제 공식적인 맹인안마사였다. 그러나 그는 맹인안마사 자격증을 땄다는 말을 그녀에게 하지 않았다. 맹인안마사라는 어휘가 어쩐지 그녀를 더욱 슬프게 할 것 같았다. 서른다섯 살의 그녀,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도, 포기해 버릴 수도 없는 금요일의 오후 네 시 같은 그녀가 불구의 남편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몇 가지나 되었을까. 그는 가랑잎 같은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울었다.

"앗 차가."

눈물방울이 그녀의 등에 떨어졌다. 그녀가 깜짝 놀라며 돌아누웠다. 한밤중 텅 빈 골목 같은 맹인의 눈에서 떨어지는 물이라니. 얼마나 몰골사납겠는가. 그는 서둘러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어머! 당신 울고 있잖아."

그녀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그날 밤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세시간만에 돌아왔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덜 익은 술 냄새가 아직도 붙어있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가 묻지 않는 것처럼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일상에도 변화가 없었다. 아침 열시쯤 나가고, 저녁 9시쯤 돌아오고, 퇴근 후에도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갈 때가 있고, 나가면 두세 시간 후에 돌아오고…… 그 뿐이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턴가 바퀴벌레들의 싸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가 해결되었는지 세상이 다 조용해 졌다. 그 무렵 그녀가 커다란 거울을 하나 사다 거실에 걸었다. 아무래도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은 그녀에게 당연히 필요한 물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없는 빈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거울 앞에 섰다. 무엇이 보이는가? 그는 그의 눈이 볼품없이 일그러진 모습을 본적이 없었다. 상상속의 그는 항상 실명 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젊고 멋있을 때에 머물고 있었다. 그것은 축복이자 형벌이었다. 그는 거울을 향해 악수할 것처럼 오른손을 내밀었다. 매끄럽게 잡히는 거울의 표면, 그 속에서 또 다른 남자는 아마 왼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웃어봤다. 거울 속에 남자도 웃었다. 한쪽이 허물어진 미소, 텅 빈 웃음. 거울 가까이, 아주 가까이, 코가 닿을 때까지 얼굴을 대고 들여다봤다.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보였다. 희

미하던 윤곽이 점점 또렷해졌다. 누굴까? 화장이 짙은 아내다. '이러고 놀라고 거울 사다 걸었나!' 그는 거울을 향해 힘껏 주먹을 내질렀다. 헛손질이었다. 거울은 그를 조롱하듯이 저만큼에 말갛게 서있었다. 그는 한 번 더 주먹을 날렸다. 이번에는 거울에서 짝 소리가 났다. 보기 좋게 거울이 갈라진 것이었다. '자 봤지!'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당신 왜 그래?"

그날따라 일찍 돌아온 그녀는 그의 손에 붕대를 감아주며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늘 거기쯤에서 끝났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붕대감기를 마친 그녀가 붕대를 감지 않은 그의 다른 손을 잡고 계속 주물럭거렸다.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오른손으로 그의 왼손을 악수하듯이 잡고, 흔들고, 비틀고, 손바닥을 긁고, 부비고, 별 해괴한 동작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가 그냥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 안 되겠다 싶은지 볼따구니를 꼬집어 비트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뭐 못 먹을 것을 먹었나 하는 표정으로 볼따구니를 꼬집힌 채로 고개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녀가 그의 귀에다 대고 "못 알아듣겠어?" 하고 물었다.

"뭔 소린데?" 그가 되물었다.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의 일이란다. 그때 교대로 시어머니의 병실을 한 삼개월간 지킨 적이 있었다. 그 병실은 노인성 중풍 환자만 있는 병실이었는데 시어머니 옆에도 어떤 할머니가 중풍으로 몇 년째 누워 있었다. 그 할머니는 유복했던지-다른 시각으로 보면 박복한 것도 되지만- 간병인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는 매일 한 번씩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녀가 보니까, 그 할머니는 오른팔과 왼쪽다리가 마비되고 말도 못하는데, 할아버지가 오면, 왼손으로 할아버지의 오른

손을 잡고, 비비고, 긁고, 꽉꽉 쥐고 그러더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알아듣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고, 같이 손을 비비고, 긁고, 꽉꽉 쥐더라는 것이었다. '그래, 젊어서는 눈으로 말하다가도 늙으면 손으로 말을 하나 보다! 도무지 서로의 의견이 일치될 것 같지 않던 관계, 그렇게 쉽게 손으로 말하는 사이가 될 줄은 몰랐다.'

그 무렵 그녀는 퇴근 때 마다 약을 사들고 들어왔다.

"이거 어렵게 구한 건데 엄청 비싼 약이야. 이것 먹고 눈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 많대."

그녀는 그 이상한 약을 매일 그에게 먹였다. 그는 생각했다. '아! 이제야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보약 속에는 미세한 양의 독이 들어 있겠지.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검출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양의 독약, 그리고 보험도 들어놨겠지. 나는 이렇게 서서히 보약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얼마간의 보험금을 남기고…… 고맙다.' 그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약을 먹었다. 약을 먹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모습은 써 보였다. 아니 그녀는 언제나 쓴 표정을 잘 지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 하나는 쓴 표정을 잘 짓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손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불만인지 늘 쓴 표정을 짓고 있다가 장난으로 툭 치기라도 할라치면 흡사 고양이처럼 몸을 움츠리며 날을 세웠다. 몸을 사리는 그녀의 모습은 몹시 앙칼지고 자극적이었다. 그는 그러는 그녀에게서 또 다른 성적매력을 느끼곤 했다. 그 때문에 신혼 때부터 심심하거나 좀더 색다른 분위기가 필요할 때면 의례히 그녀를 툭툭 쳤다. 그때마다 그녀는 공벌레처럼 몸을 말았고, 그는 그것을 교태라고 생각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자꾸만 발전하여

결국에는 폭력이 되어버렸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그의 의식에 있었다.

그도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잘살아 보자는 것이 화근이었다. 주식시장이 전에 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을 때였다. 설마, 설마 하던 장이 천 포인트를 넘어서자 그는 세상이 저 혼자만 따돌려놓고 정신없이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집을 저당 잡혔다. 지금은 KT&G가 된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사들였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부터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금연운동이 일어났다. 연일 폐암에 걸린 코미디언의 하소연이 텔레비전화면을 채웠다. 그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다. 손절매를 하라는 점잖은 투자 상담이 들어왔다. 그는 손절매를 하는 대신 공금을 잠시 이용하여 떨어질 대로 떨어진 주식을 더 사 모았다. 이른바 물타기였다. 정말 '잠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가 바닥은 아니었다. 주식은 폭락을 거듭했고, 주식 시장이 폭락 할수록 그는 더 난폭해졌다.

"난 가시달린 나무가 좋아."

폭력이 있는 다음날 그녀는 어김없이 가시달린 나무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가 맨 처음 들고 들어온 가시나무 화분은 사랑을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엄나무였다. 그녀의 그런 취양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어머니는 텃밭의 울타리에다가 탱자나무를 심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 울타리 안에서 채소를 가꾸며 살고 싶어 했다. 잡귀의 침범을 막아준다는 엄나무가지를 문설주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어머니는 순하기만 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몹쓸 잡귀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텃밭을 성벽처럼 둘러쳤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죽었다.

그녀의 가시나무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야생 엄나무를 비롯한 가시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랐다. 그녀는 무성하게 자라나는 가시나무의 잎사귀를 모두 따 버리고 가시만 남겨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온 몸에서 탱자나무 가시 같은 가시가 솟아나기를 바랐다. 그녀의 소망대로 너무나 웃자란 가시나무들은 작은 화분에서 자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녀는 말라죽은 가시나무 화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말라죽은 가시나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 표시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시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죽어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은 날카로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그를 그녀는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난폭해 졌다. 급기야는 그 자신도 그를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칠어졌다.

가시나무 화분이 베란다를 채우고 거실까지 차지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 날도 그는 가위눌림에 잠이 깼다. 냉장고에서 엄나무 달인 물 한 컵을 따라 마신 다음 다시 한 컵을 따라들고 불 꺼진 거실을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사금파리에 베인 것 같은 날카로움이 따끔하게 옆구리를 핥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 공금을 막느라 여기저기서 빌린 빚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끊임없이 그를 찔러대고 있을 때였다. 화들짝 놀란 그는 돌아다보았다. 가시나무였다. 그는 가시나무 화분을 머리끝까지 들어올렸다가 거실 바닥에 처박아버렸다. 놀란 그녀가 달려 나와 불을 켰다. 형광등이 할딱할딱 빛을 토해냈다. 깨진 화분조각이 도굴된 유적처럼 뒹굴고 있었다. 하얗게 알몸 뿌리를 드러낸 가시나무를 차갑게 내려다보던 그녀가 화살을 빗맞은 짐승처럼 올려다보았다. 그도 돌발적인 자신의 행동에 너무 놀라 어리둥절하게 서있었다. 그는 놀라 떨고 있는 그녀를 보며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전혀 다른 행동으로 터져 나가고 말았다. 그는 또 다른 화분 하나를 역기처럼 번쩍 들어올려 보기 좋게 박살을 내버렸다. 그녀보다 그가 더 놀랐다.

다음날 그가 늦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정오의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던 아내의 가출, 아내가 가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그는 처음 알았다. 주변 사람들은 아닌 밤중에 유턴하는 오토바이소리를 듣는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던졌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 보라고 경험 많은 선배처럼 충고했다. 콩나물이라도 사가지고 곧 돌아올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가지 않은 그녀는 두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멍석딸기 줄기가 스티로폼 상자에서 기어 나와 베란다 바닥을 기어 다녔다. 그는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 대신 목구멍에 더욱 많은 술을 부어 넣었다. 멍석딸기가 맨 먼저 말라비틀어졌다. 그 다음 엉겅퀴, 탱자나무, 해당화, 들장미, 가시오가피, 엄나무 순으로 말라죽었다. 말라죽은 가시나무들은 살아있을 때 보다 더욱 날카롭게 가시를 세웠다. 그는 여섯 달 동안 주말마다 장모가 혼자 살고 있는 남촌을 찾아갔다.

"이 사람아, 그 힘없는 것을 …… "

장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쩌다가 그랬는가?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지. 그것이 못 참고 살 짓을 했네. 자네 장인이 술을 마시면 손찌검을 하곤 했다네. 그 때마다 그것이 어찌나 울고불고 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그것이 제 애빌 미워했는지 죽었을 때도 동네 애들하고 줄넘기를 하고 놀았다네."

가출은 환불이 매우 까다로운 인터넷쇼핑 같았다. 그는 늘 빈손으로

처갓집을 나섰다. 얼마 후에는 직장에서도 빈손으로 나섰다. 빈손이 아니라 빈손에 쇠고랑이 걸려있었다. 공금횡령, 복역 중 당뇨악화로 가석방, 빈손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도 잃었다. 생계자체가 숙제일 뿐 치료는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당뇨의 악화는 급기야 시력을 빼앗아 갔다. 맹인으로 가는 길, 그거 참 우연하고 쉬운 길이었다. 그 무렵 그녀가 거짓말처럼 돌아왔다.

"차라리 꺼꾸러져 죽지."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던 날 그녀는 의사 앞에서 악을 썼다. '그래 이제 내가 거꾸러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내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것, 그것뿐이야!' 그는 열심히 보약을 먹었다. 그런데 정말 독기가 퍼지는지 눈에 핏발이 서는 것처럼 간질간질하고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그를 보고 그녀가 말했다.

"어머, 몰라보게 화색이 좋아지네."

'그래 몰라보게 좋아졌을 거야!' 그는 매일매일 보이지도 않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 보고 더듬어 보고 만져 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깜짝 놀랐다. 거울 속에, 조금은 낯설지만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이게 누구야?' 감격보다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는 한참 연설을 잘하다가 원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거울속의 자신을 응시했다. 아내가 사다준 약 때문인지, 예수의 기적인지, 맹인으로써의 한살이가 그렇게 장난처럼 끝나버렸다. 눈을 뜨자 세상은 몹시도 어수선하고 분주했다. 도무지 바퀴벌레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일이 두려워졌다.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무리 두 눈을 꼭 감아도 다시는 바퀴벌레들의 교성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 밤이 되고 그녀가 돌아왔다. 그는 선글라스

를 쓴 채 소파에 고집스런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거실 벽을 똑바로 바라본 채 인사를 했다.

"이제 완?"

목소리가 기타의 육 번 선처럼 떨고 있었다. 그의 떨림을 감지하지 못한 그녀의 행동은 거리낌 하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거울을 통해서만 지켜보았다. 그녀가 돌아 올 때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보지 않는 것은, 형광등불 아래 선글라스를 쓰고 쓸쓸한 새벽길을 바라보듯 돌아보는 그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오래된 습관이었다. 길게 대각선으로 금이 간 거울은 그녀의 모습을 약간 비스듬하게 비추었다. 아득한 과거에서 돌아온 것 같은 그녀의 모습은 오래된 유적지처럼 낯설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짙은 화장과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었으리라는 그의 상상을 많이 비껴간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디 병문안이라도 다녀온 것 같은 정갈하고 단정한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사립탐정처럼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짙고 검은 안경 속에서 눈동자를 굴렸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머리가 젖어있었다.

"저녁 챙겨 먹었어?"

그녀는 처다 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물었다. 그리고는 대답도 하기 전에 또 물었다.

"약은?"

'무엇보다도 약이 중요하겠지. 그래, 먹었다, 먹었어.' 그러나 사실 그는 오늘밤 약을 먹지 않았다. 살아야겠다는 더러운 욕구, 그녀를 잃고, 배신만 남아도, 목숨만은 살아야겠다는 서럽고 구차한 생에 대한 애착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알고 싶었다. 그의 부재 속에 살아온 그녀의

인생에 대하여. 비열하다, 비열해, 하면서도 그것은 익숙한 남자의 본능 같은 것이었다. 그는 거실의 거대한 거울을 통하여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 선글라스는 그의 표정과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까지 위장해 주었다. 그의 그런 엿봄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그녀의 행동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것처럼 유연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신발을 벗고는 청바지를 거꾸로 벗어 발로 툭 차 그가 앉아있는 거실 쪽으로 밀어놓았다. 팬티차림으로 화장실을 다녀왔고, 팬티차림으로 설거지를 했다. 자신의 삶을 설거지하듯 달가닥 달가닥 그릇을 닦는 그녀의 등은 작은 새가 앉은 가지처럼 완만하게 휘어있었다. 야윈 허리와 매끈한 다리가 만나는 분기점 같은 히프는, 왼발에서 오른발, 오른발에서 왼발로 힘의 균형이 바뀔 때마다 근육이 육감적으로 삐뚤거렸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말고 핸드폰을 받았다. 전에 없이 허리를 깊게 숙이고 그를 흘긋거리며 -정확하게 말하면 거울속의 그를 흘긋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녀의 통화내용을 그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전에 없이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눈이 보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은 탓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는 휴지통에서 약이 들어있었던 팩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형광등에 약봉지를 비춰보며 '다 먹었나? 먹지 않았나?' 확인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미 그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싱크대에 쏟아 부어버렸었다. 그녀는 한모금도 남기지 않고 빨아먹은 약봉지를 확인하면서 그를 흘긋 흘긋 훔쳐보았다. 그는 이유 없이 몸을 말았다. 그러나 여전히 거울을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눈이 마주칠 일은 없었다. 그녀의 모습에는 출전하는 용사같은 비장함과 인당수를 바라보는 심청의 비련함이 동시에 잡혔다.

"나, 좀 나갔다 올께."

그녀는 파마기가 다 풀어진 머리를 질끈 동여매며 집을 나갔다. 그는 불이 나게 그녀를 따라나섰다. 그러나 오랜만에 너무나 오랜만에 지팡이 없이 걷는 길이라 불편했다. 손등의 핏줄처럼 어지러운 골목에서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눈을 감고도 친숙했던 골목들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결국 허둥대다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화장대를 뒤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대충 방치한 듯한 그녀의 핸드백에는 그 흔한 립스틱 하나 없었다.

두 시간 만에 그녀는 돌아왔다. 그는 얼른 자는 척하며 빨랫감처럼 늘어졌다. 여전히 그녀에게서는 진한 밤꽃 냄새가 났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다 깊게 덮어준 다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보약을 사오던 날부터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 컴퓨터를 켰다. 바퀴벌레의 정사를 엿들을 정도로 예민해진 그의 청력은 자판기 소리만 듣고도 그것이 'ㄱ'을 치는지 'ㄴ'을 쓰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심지어 그는 그녀가 먼 곳에서 외간 남자의 화대를 세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오늘도 남편은 약을 잘 먹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사랑하는 이와 언제나…… 새로운 삶을…….'

그가 소머즈 같은 청력을 가지고도 그녀의 타이핑 내용을 다 해독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타이핑 솜씨가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새로운 무슨 삶'이라는 대목을 치면서 감격에 받쳐 그녀의 인생을 지우고 다시 쓰듯이 딜레트 키로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타이핑하는 바람에 심기가 어지러워진 청력이 추적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었다.

다음날 그녀가 나가자마자 그는 그녀의 컴퓨터를 켰다. 아니 켤 필요

는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컴퓨터를 치다가 그대로 들어가 자버렸기 때문이었다. 마우스 위에 손을 대자 LCD화면은 자동으로 아는 체를 했다. 아는 체 하는 모니터는 낯설었다. 사실 눈을 뜨자 모든 것이 다 낯설었다. 낯설은 얼굴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낯설은 그녀의 일기를 점자를 더듬듯 읽어가기 시작했다.

**일, 오늘 나는 퇴근 후 한탕을 더 뛰었다. 도합 세 탕…… 모든 것이 너무 힘들다. 이 산동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빛 같다. 하지만 별은 올려다 볼 때 아름다운 것, 발아래에 별이 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다.

**일, 낮에는 때밀이……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 오늘은 남편의 생일이니 노래방만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역시나 너무 힘들게 했다. 도대체 남자들이란 하나같이 왜 그럴까. 거기다가 스커트를 입고 나오라는 노래방 주인의 성화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청바지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일, 어제는 손님을 여섯 명이나 받았더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졌다. 때밀이가 있어서 때를 미는 여자가 있을까. 때를 미는 여자가 있어서 때밀이가 있을까. 다행히 오늘은 도우미를 찾는 노래방손님이 없어 퇴근했다가 또 불려 나가는 일은 없었다. 그나저나 남편의 약값이 걱정이다. 반년을 먹고도 차도가 없으니 더 먹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포기는 곧 벼랑이다. 그 벼랑 끝이 언제일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오늘도 벽만 바라보고 있다.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저 낯설음, 나는 언제부턴가 저 남자가 타인처럼 낯설다. 마주보기가 민망하여 오늘 큰 거울을 하나 사다 걸었다.

**일, 오늘은 손님이 너무 많아 일을 마치고나니 파김치가 되었다.

배추 사들고 집에 오니 남편은 여전히 고물차처럼 웅크리고 있다. 그래도 한때는 내 인생의 네비게이션이었던 저 고물차를 밀고 산마루를 올라간다. 잠시라도 힘을 빼면 뒤로 물러나는 저 고물차의 무게에 깔려 쥐포가 될 것이다.

**일, 한때 다른 남자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혹은 다른 삶, 동반자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배반이다. 서럽고 억울하지만 맞닥뜨린 것들에게 항거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일도 청바지를 입고 씩씩하게 집을 나설 것이다.

그는 일기장을 닫았다. 컴퓨터의 배경 화면에 신혼 여행지였던 발리 섬의 바다가 깊고 푸르게 흘렀다. 목구멍이 뜨겁다.

장미가 곱게 피었다. 모든 꽃 귀를 도로 쪽으로 활짝 열고 있는 것 같다. 장미꽃을 훈장처럼 매달고 있는 담장은 서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려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것 같기도 하다. 이순(耳順)이 가까이 왔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견딜만하다고 생각할 무렵 수상소식을 들었다. 오래 기다렸다.
지상의 모든 것들이 나만 따돌려 놓고 앞서 내달리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그 시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과질환에 걸렸다. 치료를 받느라 이틀쯤 눈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세상이 조금 온순해 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만 감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저 혼자 온순해지는 것은 아닌 듯 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다.
창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하게 살자.' 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빛을 보게 되었다. 부족한 글에 이름표를 달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애기아빠요? 공무원이에요.' 언제나 속내를 감추는 아내에게 기쁨 모두를 주어도 미안하다. 연금개정, 구조조정 등 어두운 소식 중에도 정년평등 같은 무궁화 꽃이 피기도 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민원전화를 처리하는 우리부서 직원들에게 '힘내자!' 하고 싶다.



미다시로 지은 집

미국으로 간 뒤 한 달 쯤 후에 걸려온
전화에서 형이 한 말은 초등학생 수준이었다.

"여기는 주변에 잔디밭이 천지야.

한국처럼 줄이 쳐져 있지도 않고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도 없어,
아무나 들어가서 놀면 돼"



부산 연제구 _ 임문호

미다시로 지은 집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영입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에게 등재번호를 적어 주고 있던 내게 누군가 손을 내밀며 말을 붙였다. 얼굴을 들 사이도 없이 무심결에 내민 손을 꽉 잡았다. 손에서 힘이 느껴졌다. 눈으로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귀는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야 업무처리가 되는 민원 창구에 근무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버릇이 되었다.

나의 무표정을 읽었던지 약간은 겸연쩍어 하던 그는 내가 내민 등재번호가 적힌 쪽지를 들고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직원 쪽으로 걸어갔다. 미안한 생각에 얼굴을 들어서 옆모습을 보았다. 약간은 안면이 있는 사람 같기도 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번에 출마한 사람이잖아. 김현영이라고. 여당 공천에서 탈락되고 무소속으로 출마 했다지"

"그래, 아버지는 진산그룹 회장이고. 자기는 그 회사 이사라잖아. 형들도 다 잘 풀렸다는군……. 누군 아버지 잘 만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나 같은 놈은 선거날 까지 일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니, 세상 참 불공평 하네"

"자네나 나나 오줌 누고 좆 털 시간도 없는 팔자라고. 빨리 찍고 출근

이나 하세"

중년을 넘어 선 사내 둘은 친한 사이인지 투표를 하러 와서 신세타령만 늘어놓았다.

듣고 보니 두 사람의 이야기는 내 처지와 비슷했다. 요즘은 민간인들도 선거종사원으로 많이 참여해서 나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종사원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가까운 공원에라도 가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 할당된 인원을 채우려다 보니 별수 없이 나도 차출된 것이다.

점점 커가는 아이들의 학원비 때문에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간 뒤로,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내가 아이들을 돌본다. 매일 알림장을 보고 학급 홈페이지에서 준비물도 확인하고 학원 선생들과 상담도 하는 피곤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 사람 아버지처럼 재벌이 아닌 이상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표소를 나와서 주위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투표소를 나가는 김현영이란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이 지역 선거구에서 두 번째로 투표권자 수가 많은 투표소에 아침 일찍 투표를 하러 온 그는 여당의 아성인 이곳에서 젊은 나이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패기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시험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쉽게 나오거나 비슷한 평균성적을 낸다. 반면에 반대의 부류는 시험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점수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저런 사람들은 경기에 관계없는 재력가이고, 나는 때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나뉘어졌다.

선거인명부의 등재번호를 적은 쪽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

서 출마자들의 근황과 약력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당후보가 압승을 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 간간이 김현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 도시에서 건설회사로 성장해서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진산그룹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진산그룹이라. 진산건설이라면…….'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사람들이 뜸한 틈을 타서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린 후보자들의 선거홍보용 책자를 뒤져내서 김현영의 것을 보았다. 그때서야 김현영이란 사람이 또렷이 기억났다. 나타날 현(現)자에 영화 영(榮)자의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이 칭찬했던 아이. 운명은 이름대로 된다고 나름대로 성명철학에 소신을 가졌던 그 선생의 예견대로 된 것일까.

아무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무원 구조조정을 습관적으로 발표해서 민심을 얻는 세상에 살고 있고, 군대처럼 살벌하게 군기가 잡혀서 정신이 없는 말단 공무원이라 해도 그렇지 유명인사가 된 초등학교 동창생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세상일에 쫓기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날아든 선거홍보용 책자를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휴지통에 버릴 정도로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무관심한 나이지만 현영(現榮)이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인생이 성공하기 까지 주변에서 상처 받아야 했던 우리 가족의 슬픈 가족사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인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

새벽 5시인가 어김없이 쓰레기를 싣고 가는 청소차에서 들리던 노래소리를 잊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쓰레

기를 수거해 갔다. 겨울이면 연탄재 때문에 여름이면 부패한 음식물 때문에 아버지 몸에서도 계절마다 나는 냄새가 달랐다. 청소차에 매달려 가는 아버지를 먼발치에서 몇 번 본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청소차의 인부가 된 것은 모두 현영이네 그러니까 현영이의 아버지 때문이다. 청소차의 인부가 되기 전까지 아버지는 현영이 아버지의 자가용 운전기사였고 현영이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 새벽에 회사일로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공항에 가기도 하는 회사 사장의 운전기사로서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아예 같은 집에서 가족까지 데리고 살았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았던 현영이네 집을 미다시로 지은 집이라고 했다. 운전을 배우기 전까지 노가다 판을 전전했던 아버지는 노가다 판에서 붉은 벽돌을 미다시라고 부른다고 했다. 시멘트로 만든 벽돌은 질통에 메고 있다가 아무데나 부리면 되는데 미다시는 질통을 벗고 벽돌에 충격이 가지 않게끔 조심해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처음 미다시를 등에 지고 보통벽돌처럼 바닥에 부리다 벽돌 몇 장에 금이 가고 깨어진 것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쓰미(벽돌쌓기) 오야지가 심한 욕설을 하고 벽돌 값을 일당에서 제한 뒤로 아버지는 붉은 벽돌에 주눅이 들었던 것 같다.

비탈진 언덕에 축대를 높이 쌓아올린 2층 양옥집인 현영이네 집은 아버지 말대로 붉은 벽돌로 지은 집이었다. 축대로 돋우어진 부분을 제외한 담장과 건물 벽도 모두 붉은 벽돌이었다. 벽돌 몇 장 때문에 심한 욕설과 일당까지 제해지고 보니 수천 장도 넘는 붉은 벽돌로 지은 그 집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고 고급스러움 자체였다.

축대의 한 쪽 담벼락 밑에는 차고가 있었다. 차고 안쪽 문을 열면 정원으로 통하는 나선형 계단이 나오고 계단을 다 오르면 잔디가 펼쳐진

넓은 마당이 나온다. 여기에서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가면 현영이네 집 현관문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커다란 사철나무 뒤로 숨어있는 듯한 우리 집이 있었다. 형과 나에게 현영이네 집은 유리 속의 궁전과 같은 곳이었다. 항상 볼 수 있지만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현영이 가족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외식을 나간 일요일이면 나는 형과 함께 그 집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보송보송한 솜털 같은 잔디 위를 뛰어다니며 정원수 뒤에 숨어서 술래잡기를 했다. 술래잡기도 재미있었지만 숨이 턱밑까지 차올랐을 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히는 것도 좋았다. 온 동네가 훤히 내다뵈는 마당에서 보는 풍경은 눈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영이 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나서

"이런 건방지게 머슴 새끼들이. 잔디 다 밟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하는 욕을 들었다.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 쫓고 쫓겨 다니는 통에, 차고를 거쳐 올라오는 계단으로 오지 않고 대문을 통해 조용히 올라온 현영이 어머니를 형과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다.

가까운 친척들이나 다른 회사 사장가족들을 불러 가든파티를 즐겨하는 현영이네 어머니에게 운전기사의 자식들이 잔디를 밟고 노는 것이 불쾌했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지 않을 때면 정원을 손질하고 시장을 봐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영이네 집의 가정 대소사에 불려 다니기도 했으니까 그 집 주인에게는 머슴 같은 존재일 수 있었다. 형과 나는 어렸지만 얼얼한 뺨을 문지르며 부모님께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어린 내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주던 형은 2년 전에 미국으로

갔다. 형수와 조카들만 데리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 형은 우리 같은 어린 시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형수는 간호원으로 병원에서 밤샘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들과는 출신성분부터 다른 집안의 아이들과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서울에서의 고달픈 삶을 접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낯선 땅을 찾아 떠난 것이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형은 오랜 타지 생활에서 얻은 가장의 고단함과 그 옛날 뺨을 맞는 어린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던 형으로서의 미안함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느끼게 했다.

미국으로 간 뒤 한 달 쯤 후에 걸려온 전화에서 형이 한 말은 초등학생 수준이었다.

"여기는 주변에 잔디밭이 천지야. 한국처럼 줄이 쳐져 있지도 않고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도 없어, 아무나 들어가서 놀면 돼"

아버지에게 붉은 벽돌이 상처였다면 형에게는 어린 시절의 잔디밭이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형이 한국에 남겨두고 간 것은 늙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졌던 질통만큼이나 무거운 장남이라는 무게다. 평상시에는 안부전화 한 통 안하다가 나는 선거종사원으로, 아내는 자기일터로 가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을 때에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형이 남기고 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아버지는 오랜만에 손자를 봐서 인지 싫은 내색이 없었다. 평생 운전기사의 아내로 나중에는 쓰레기차 청소부의 아내로 마지막에 청소차 운전수의 아내로 살았던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큰 아들마저 외국으로 떠난 뒤 남은 유일한 낙이라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기 까

지 했다.

내가 공무원이 된 것은 순전히 이런 아버지의 권유에서 였다. 청소차 운전수로 있으면서 구청의 조직에 대해 알기 시작한 아버지는 내가 대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줄곧 이런 말을 했다.

"공무원이 최고다. 너도 알잖아. 공무원은 서열은 정해져 있지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누구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다. 작긴 하지만 월급이 밀리는 적은 없다. 제 날짜에 꼭꼭 나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장이 없다는 것이다. 사장이 없으니까 머슴 같은 대접을 받지도 않는다."

아버지는 성명철학에 관심이 있던 초등학교 담임선생처럼 공무원조직 철학에 관심이 있었다. 생각해 보니 아버지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남의 밑에서 일했으니 사장이 없는 회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붉은 벽돌을 마음대로 바닥에 부려도 되는 노가다 판 같은 곳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힘겹다. 아이들 학원비도 모자라 아내는 피부마사지 샵에서 늦게까지 일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세무공무원 노릇은 철책선을 지키던 초병시절의 군대 생활과 비슷할 만큼 고단하다. 체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면 의례히 이런 전화를 받는다.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한 마당에 너 같은 말단 공무원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수백억씩 세금 포탈한 놈은 그대로 방치하고 나같이 만만한 서민에게 이 따위 협박이나 하고……"

반말은 당연하고 상전이 머슴 훈계하듯 한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이다. 몇 달째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있다. 고

액 체납자들의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다. 나이 지긋한 양반이 정기예금으로 들었던 천만원을 추심당하고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정조 였다. 단칸방에 혼자 사는 자기의 전재산을 몰수하면 어떻게 하냐고, 세금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울면서 사정을 했다. 몇 차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정이 하도 딱해서 혼자 고민도 하고 계장님과도 상의를 해 보았다. 일단 절반의 돈은 돌려주고 돈이 생길 때마다 할부식으로 나머지 체납금을 갚기로 합의를 했다. 돈을 돌려주던 날 몇 번씩이나 내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다음번 감사에 걸려서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 해도 후회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체납자는 술만 먹으면 전화를 걸어 나를 찾아서 욕설을 하면서 나머지 돈도 돌려달라고 떼를 쓰더니 이젠 아예 협박까지 한다.

"나머지 돈 안돌려 주면 니 새끼들 다 찾아내 죽인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 괴롭히는 게 공무원이야. 내 돈 내 놔. 씨팔놈아"

협박의 강도가 점점 수위를 넘어서자 나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킬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통장을 압류했을 때 처음 걸려 온 전화에서 암으로 몇 년간 투병을 하다 죽은 아내의 병원비를 작년에서야 다 갚고 이제 겨우 천만원을 모았다는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비슷하게 죽은 어머니가 생각나서였고 그 사람의 처지가 아버지와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현영이 아버지가 고의로 부도를 내고 우리 가족도 모르게 가족 전부가 야반도주를 한 뒤 아버지마저 한통속으로 몰려 경찰에 끌려 다닌 후로 어머니는 화병을 얻었다. 아버지가 혐의를 벗고 지역 상이군경회 회장이라는 친척의 도움으로 청소차 인부를 거쳐 청소차 운전을 할 때 까

지 살아계시긴 했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따뜻한 가슴 속을 암덩어리가 채워지는 것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손 쓸 수도 없는 말기가 되어서야 아시고 돌아가셨다.

"이봐 박주사,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나. 종이에 구멍 나겠네"

선거 홍보물을 보고 있던 내게 말은 건넨 것은 황사무장 이었다.

군대에서 상사 계급까지 달고 제대를 해서 군인정신이 아직 남아있는 황사무장은 늦게 공무원이 된 바람에 나이에 비해 진급이 늦고 나와는 같은 동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다. 군대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인 그는 바른 말을 잘해서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싫은 소리로 들렸는지 황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등재번호 쓰는 일은 옆자리 직원에게 맡기고 황사무장과 함께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황사무장은 이런 저런 말을 계속 했다.

"씨팔, 이봐 박주사 사람이 그렇잖아. 아무리 내가 때려죽이고 싶은 놈이 있다 해도 내가 때려죽이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단 말야. 그 사람도 집에 가면 귀한 아들이고 좋은 아빠나 훌륭한 남편일 수 있거든. 다만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관계가 불편한 거잖아."

황사무장이 한 말은 적의가 있는 상대방이라도 혼자 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개 석상에서 개망신을 주며 욕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들렸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다.

"그런데 씨팔, 대통령이 나서서 공무원이 머슴이라고 떠들고 다니니 세상에…… 군대로 치면 소대장이 자기 소대원더러 총기 반납하고 나무 총이나 잡고 빵빵이나 돌라는 말이잖아"

입대 년도가 많이 차이 나긴 해도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만만함 때문

인지 황사무장은 밥 먹는 동안에도 열을 올려 욕을 섞어가며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할 때에야 먼저 한 말뜻을 알아 차렸다.

"전쟁이 나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는 줄 아나? 전방에 있는 군인 가족들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일을 해. 왜냐하면 군인들이 자기들은 죽어도 후방에 있는 가족들은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싸우거든. 우리에게는 공무원연금이나 신분보장이 후방에 있는 가족이잖아. 민간기업 같이 실적이 부실한 부서나 직원 퇴출도 좋다 이거야 …… 박주사, 요즘 창구에서 완납증명서 발급한 댔지. 그럼 증명서 한 통 당 수수료가 얼마지?"

"팔 백원요"

"그럼 한통에 팔 백원씩 하는 증명서 발급해주고 받는 한달치 수수료가 자네 월급보다 적다면 자네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원리잖아. 퇴출 순서는 어떻게 정할 건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빨리 떼는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속도가 늦은 사람들은 잘라야 하겠군."

구조조정 이야기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도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열이 올라 소주를 시켜려던 황사무장을 겨우 말리면서 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동사무소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그를 보면 전방의 초병이었던 시절, 아주 무더웠다고 기억되는 어느 복날에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몽둥이를 맞아가며 울부짖는 누런색 개가 연상되곤 했는데 황개라는 별명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황사무장은 제대하기 얼마 전에 옆 중대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씨팔, 옆 중대 일병 한 놈이 소대원들이 자는 내무반에다 수류탄을 터뜨렸어. 살아서 나오는 병사들에게 기관총을 쏘고 북한으로 도망을 갔

지. 그때는 그 총 쏜 놈이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들이라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전우잖아. 근데 말야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해. 내 신세도 다르지 않아서겠지만 말이야. 퇴직이 내일 모레인데 애들 등록금 낸다고 빚은 잔뜩 불어있지, 아파트 할부금도 아직 다 못 갚았고, 연금까지 까버리면 당장 쪽박차게 생겼잖아. 노후는 청산가리와 농약으로 해결하면 된다 쳐도 말이야 …… 박주사, 자네는 주변사람들 때문에 수류탄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난 적이 있나?"

황사무장의 눈을 피하고 대답도 얼버무렸지만 얼마 전 비슷한 분노를 느낀 일은 있다.

몇 주일 전 오후에 피아노 학원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막내인 준서가 학원에 오지 않았는데 혹시 몸이 아픈 것이냐는 안부 전화였다.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핸드폰을 사주지 않은 준서가 걱정되면서 몇 달째 나를 괴롭히던 체납자가 떠올랐다.

"너는 편하게 살 줄 알아. 니 새끼를 잡아 죽일 거다"

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늙은 체납자의 협박이 생각나서다. 설마 정말로 나에게 했던 말대로 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외근부에 기재도 하지 못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민원인들의 눈총을 받으며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맡기고 무조건 아이를 찾으러 학교 근처를 뒤졌다.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교 부속건물과 학교 앞의 학원 몇 군데에 가 보았고 같은 반 아이들의 엄마한테 일일이 다 전화했지만 준서의 행방은 묘연했다. 납치된 아이들의 기사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때로는 그 아이들이 시체가 되어서 토막 난 채로 발견되기도 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준서가 잘못 되기라도 한다면,

그런 생각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다. 체납자들에게 강자일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체납자들에게 온갖 욕을 듣고 수모까지 당하는 나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학교 운동장 주변을 찾아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할 쯤 나무들이 우거져서 한쪽 방향에서는 잘 보이는 않는 공터 옆 벤치에 준서가 힘없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달려가서 준서를 껴안았다.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교실이 바뀐 것을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준서는 원래 교실에 갔고 교실 문이 잠겨 있어서 피아노 학원시간까지 잠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햇볕도 너무 따뜻해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고 했다.

사소한 나의 잘못이 어이없는 의혹으로 증폭된 날이었지만 황사무장의 말대로 후방에 안전하게 가족들을 맡겨 둘 수 없는 게 공무원이란 사실은 알게 되었다.

아침밥을 먹고 온 이후로 투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끊이질 않았다. 4천 8백 명이 조금 넘는다는 이 투표소에 할당된 투표권자들 중 채 절반이 투표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맞지만 워낙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많다보니 사람들이 줄지 않았다. 현영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면 당연히 자기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서로를 피했으므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나 얼굴을 붉힌 일은 없었다. 다만 학예발표회 때 연극을 했는데 요리사가 왕자를 위해 요리한 거위의 한쪽 다리를 잘라먹는 '외다리 거위'의 연극에서 현영이는 파란색 옷을 입은 왕자로 나왔고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관객이었다는 사실은 기억난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주인

집 아들과 한 반이 된 어색함과 혹시라도 함께 등하교를 하게 될 까봐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지만 현영이네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 번도 현영이 보다 좋은 성적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의 학예발표회를 생각하니 작년에 있었던 큰 아들 영서의 학예발표회가 떠올랐다. 해마다 주제가 달랐는데 작년에는 반 아이들이 조를 나누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복장을 하고 간단하게 그 나라 복장에 대한 설명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영서는 자기 조인 나머지 세 명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복장을 입기로 했다. 우리나라 전통 복장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 각 한명씩 그리고 장군과 대감부인으로 정해졌다. 요즘은 이런 학교 행사에 사용하는 옷을 빌려 주는 회사가 따로 생겨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화려한 옷들을 골라야 하는데 내성적인 영서는 남들이 다 뽑고 남은 장군 옷을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장군 옷을 입은 영서가 이순신 장군역할이었다. 영서는 평소 만화로 된 3권짜리 '칼의 노래'를 읽고 감동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외로 찾아온 행운에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각 조에서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말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게 되었다고 했다.

"적들을 섬멸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붉은 갑옷을 입고 칼까지 들고 반 아이들 앞에서 호령까지 한 영서는 너무나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리허설이 끝나고 왕 역할을 한 엄마의 불평으로 영서는 그만 장군역할 대신 대감 옷을 입고 가만히 있는 역할로 바뀌었다. 학년 대표로 재력이 있는 그 아이의 엄마가 왕옷을 입은 자기 아들보다 우리 영서가 더 돋보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기 예보대로 아침부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더니 오후까지 계속되

었다. 현영이네 집을 떠나던 날도 비가 많이 내렸다.

'악덕 사장새끼, 머슴처럼 부려먹고 월급도 안주는 놈, 지어미와 붙어먹을 놈'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하늘색으로 칠해진 주차장 문에 이런 글씨가 씌어있는 걸 본 것으로 기억된다. 현영이네는 집 내부수리를 한다고 짐을 다 빼내고 밥하는 식모 아줌마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가족들은 집수리를 하는 동안 외국여행을 간다고 아버지가 공항 근처의 호텔에 현영이네 가족을 내려주고 현영이 아버지의 지시대로 차는 회사 주차장에 넣었다.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학교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깐 그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에 빚쟁이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고 문을 발로 차고 한 때는 대문을 마구 흔들어 대었다. 놀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자 사람들은 다짜고짜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야이 이 새끼. 네가 사장 행방을 몰라. 너도 한패지. 운전기사면서 니가 사장 도망간 곳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빚쟁이들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다. 말리던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다.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형과 나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매달렸다.

"지독한 건 새끼들도 마찬가지네"

빚쟁이들의 발길질에 나가떨어지면서 형과 나는 아버지의 코피 나는 얼굴에서 절망을 읽었다. 눈 주위가 퍼렇다 못해 검게 변했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 동네 파출소에게 순경들이 와서야 빚쟁이들의 발길질이 멈췄다.

잠적한 현영이네 가족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다만 그 시절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을 집어 삼키면서 수많

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목을 매달았다는 기사가 신문에 날 때나 악덕 업주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을 떼어먹고 몇 달 잠적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세우거나 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손 못 대도록 만든 다음 버젓이 다른 회사를 만들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현영이가 생각나곤 했다. 현영이와 같은 반이 된 어느 날 자기가 커서 되고 싶은 일을 발표하는 시간에 현영이는 커서 진산이라는 회사를 만들 거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진짜 산같이 큰 회사의 사장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름도 벌써 '진샨'이라고 지어 놓았다고 했다.

궂은 날씨와 절반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사한 투표소에는 끝나는 시간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별 무리 없이 무사히 투표는 끝났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향하는 차에 인계하고 황사무장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하자 황사무장은, 제법 경력이 있는데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창구로 밀려난 나를 위로한다는 투로

"박주사, 나도 젊었을 때 자네처럼 세무과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지. 높은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걷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자네가 더 잘 알잖나.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대로 신고하고 부동산투기 안 하고 재산을 수십억씩 모은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수십억씩 되는데 누가 공무원을 신뢰하고 세금 내려고 하겠나. 자네나 나 같은 사람이야 그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지만 말이야. 왜 우리도 전두환 군대니, 노태우 군대니 하면서 욕을 먹지 않았나. 낮에 한 얘기는 답답해서 해 본 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말고 열심히 근무하게"

라고 말하며 작별인사를 대신했다.

아이들을 데리러 아버지 댁에 들렸다. 가는 길에 차에서 들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구 조사에 의하면 예상과 달리 여당 후보와 현영이가 박빙의 차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오차범위 내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현영이네 집에서 나와 처음으로 샀던 산복도로 근처의 낡은 집에서 그대로 살고 계신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다른 집으로 가는 것이 싫다고 아내에게 둘러댔다고 한다.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다. 연탄가루에 밥 비벼 먹으며 마련했다는 집도 아버지처럼 찬바람에 꺼져가는 기침소리 같은 낡은 문소리를 내고 있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피곤한지 잠이 들었다. 출근하기 전에 집에 간과 쓸개를 빼놓고 일한다는 아내는 젊은 아가씨들에게도 깍듯하게 높임말을 쓰며 상전처럼 대해야 한다고 한다. 피부과 의사들이 반대를 해서 인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제도 시행이 계속해서 연기되어 진다고 걱정을 자주 한다. 요즘은 자는 아내의 브라자 끈을 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도 아내는 피곤한지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잔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현영이의 당선소식을 들었다. 몇 군데 투표소를 개표했을 때 여당후보에게 상당히 밀리고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사는 동네의 제2투표소를 기점으로 해서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여당실세를 침몰시키고 새로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지역방송 기자의 들뜬 멘트가 귀에 아른거렸다. 현영이의 당선소식을 들었을 때 벌써 몇 십 년 전 떠나온 그 집에서 머슴처럼 일했던 아버지와 함께 곁방살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다면 형의 선택이

옳았는지 모른다.

봄비 같지 않은 굵은 비가 내리는 밤이다. 아버지의 눈물처럼 굵은 비다.

24시간 대기조 같은 아버지의 삶 속에서 딱 한번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 있었던 걸 나는 기억한다. 본채와는 달리 허술하게 지어진 가건물로 옆방의 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은 날이었다. 현영이 아버지의 지시대로 하청업체의 사장에게 몇 차례 빚 독촉을 하러 갔는데 그 회사 사장이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해 버린 일 때문이다. 그리고 10년 전 IMF시절, 숫자로만 생색을 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고용직과 기능직을 퇴출 시켰을 때 아버지는 동료들과 함께 구청 주차장에 천막 농성장을 만들어 한달을 넘게 버티다 결국 강제 해산 당했던 날에도 못 견디게 힘들었을 것이다. 그날도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영서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처럼 부하들이 들을까봐 함부로 울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소금창고에 들어가서 엎드려 울었다는 울음소리 같았다.

15여년 전 저는 동해 바다를 지키는 군함의 승조원이었습니다. 북방한계선에서 태풍소식을 듣고 울릉도 앞바다로 이동해서 육지로 들어오라는 무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동적인 태풍의 진로 때문에 남쪽으로 피항하다 태풍과 정면으로 맞부딪치게 됩니다. 침몰직전까지 가는 위기상황에서 이 고비만 넘긴다면 남은 일생동안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라고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열심히 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산다는 것, 그리고 소설을 쓴다는 것이 그날의 일처럼 태풍 너머에 고요하고 평안한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의 고통으로 좌절하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열악한 상태의 원고를 읽으셨을 심사위원님들, 언제나 따뜻한 눈으로 저를 응원했던 가족들, 타구에서 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분에 넘치는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세무과 직원들에게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훗날 넓은 지면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태풍 속을 뚫고 이중 방파제로 된 포항항에 입항에서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그날 밤, 저는 산티아고 노인처럼 사자 꿈을 꾸었답니다.



보·훈·가·족

어쨌거나 친자가 아니라니? 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니? ***다시 확인을 해도***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지 않는가? *현기증이 들더란다. 정체*

성에 대한 의문이 설움과 함께 가슴으로 소용돌이쳐 오더란다.



전)시지고 _ 강동희

보훈가족

생각이 많아 잠을 설쳤나 보다. 머리가 띵하다. 밤새 한 시간 단위로 자다가 깼다가를 반복했다. 시간이 벌써 5시다. 이제 그만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더 이상 잠을 청해 보았자 새삼스럽게 잠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조금 더 눈을 붙인다고 해서 아픈 눈이 시원히 낫지도 않을 것이다. 조금은 눈을 붙여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고 이부자리를 차고 일어나 버렸다. 이불 속에서 더 버틴다고 달아나는 잠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여러 상황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나이가 들어서인가? 생각이 많아 선가? 나이가 들면 쓸 데 없는 생각도 많아지나 보다. 서둘러 세수를 마치고 길 떠날 채비를 한다.

밖으로 나서자 예상했던 대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다. 진눈깨비가 바람을 타고 사선을 긋고 있다. 아직은 어둠이 깔린 새벽이고 바람은 칼바람이다. 희끗희끗 제법 눈발이 굵다. 길이 미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조심해서 차를 몰아야겠다. 아침 요기는 목적지로 내려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가락국수로 해결할 생각을 한다. 1차 목적지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사무소다. 중간에 산청에 계시는 사돈을 모신다고 해도 부지런히

달리면 점심 전에 면사무소에서의 볼 일은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면사무소에서 판결문에 쓰인 대로 호적부를 제대로 잘 정리해 주면 진주보훈지청에 도착하기 전에 어쩌면 시원하고 따뜻한 섬진강 재첩 국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판결문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문' 한 통을 받기까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온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다 패소한 것을 승소했다고 하는 성취감보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사돈을 생각해서다. 나라에서 아직도 다 거두어주지 못한 6.25 전쟁의 피해자, 전쟁으로 인해 전혀 본의 아니게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아온 가여운 사돈어른.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한은 남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 남긴 상처, 마치 유령의 그림자처럼 전쟁의 후유증을 앓으면서도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착하게만 살아온 사돈. 사돈을 생각하면 마음부터 아파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관심의 중심이었던 새 대통령의 시끌벅적한 취임식이 끝난 다음 날 새벽이다. 2008년 2월 26일 화요일, 아이나비의 DMB 화면 속에서도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리고 있다. 새벽뉴스에서는 아직도 새 내각이 다 구성되지 못한 어정쩡한 정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날씨 또한 며칠 째 어수선하다. 그러나 그 어수선한 날씨 속에서도 단상을 낮춘 새 대통령의 힘 있는 목소리는 자신이 있어 보인다. 원고를 보지 않고도 조리 있게 연설하는 그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성실해 보인다고 할까. 그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도 더하는 듯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식장에 모인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 가득하다. 기상청에선 여전히 강원도 산간에 5~6㎝의 눈이 쌓인다고 하고 남부 지방에도 1㎝ 이상

의 눈이 내린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오랜 겨울 가뭄으로 인해 전국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리라. 아침 뉴스 때마다 거의 매일 화재 소식이 빠지지 않았었다. 그만큼 전국적인 눈비 소식은 국토가 젖는 해갈의 반가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눈비는 한 겨울의 끝에서 내리는 관계로 어떤 의미로는 또 다른 겨울의 시작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 만큼 이 날의 눈비는 남부 지방에서는 겨울 내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것이었고, 탐스러울 만큼 나무 가지마다 제법 눈까지 쌓여 눈꽃의, 제대로 된 겨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갈 즈음에 보여주는 눈꽃은 겨울이 끝나는 때여서 기대하지 않았었던 만큼, 더 아름다운 설경으로 비추어지나 보다.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환호성이 터진다. 어쨌거나 겨울이 끝나갈 즈음인 이 날의 눈비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추어 내리고 있다. 눈꽃으로 새 대통령의 새로운 해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 눈비가 내리면 잘 산다니 앞으로 나라도 잘 살게 되겠지. 동행해 가는 딸아이 부부의 목소리도 눈비 날리는 궂은 차창 밖과는 달리 쾌청, 쾌청이다.

일의 발단은 육군 본부에서 비롯되었다. 봄 농사로 한 창 일손이 바쁜 2007년 4월 어느 날 사돈에게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된 선고의 사망 확인서 한 통이 전달되었다. 뜬금없이 날아든 선고의 사망 통지서의 내용인 즉 사돈의 선고께서 군복무중 경주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통지한다는 것과 유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인사말과 함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유가족으로 등록하라는 것 등이었다. 가난하지만 그럭저럭 그런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돈에게 느닷없이 날아든 한 통의 사망 확인서는 이를

테면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거국적인 보훈의 일환으로 6.25 때 전사한 유공자의 가족을 찾아 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사돈도 어릴 때 어렴풋이 들은 바로 선고께서 6.25전투를 치루고 그 때문에 곧장 돌아가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돈이 유공자의 유일한 유가족이 된다는 것, 때문에 보훈처에 등록하면 어떤 혜택(?)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육군본부에서 보낸 선고의 사망 확인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셈이다. 부모 없이 자라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온 사돈은 자연스럽게 유공 가족에게 보상되는 금액에 대한 기대와 나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더란다. 유공 가족이면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신분이지 않던가. 앞으로 가문에 자랑스러울 일이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가난에서 오는 냉대, 그리고 설움에서도 다소 비켜 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 그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각별한 애정 같은 것까지도 막 생겨나더란다. 그동안 성실과 노동력 하나로 세월을 버텨온 지난날에 대한 보람이 이제야 나에게도 나타나는구나. 설움과 기쁨이 함께 회오리쳐 교차하는 것이 가슴에 북받쳐 오더란다.

사돈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단다. 느닷없이 사돈 앞으로 징집 통지서 한 통이 날아들면서 신체검사에 응하라는 통지문을 전달해 주더란다. 이제 겨우 13살. 아직 어린 아이인 자신에게 징집 통지서라니. 징집 통지서는 군에 나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아닌가. 군에 입대할 수도 있겠구나. 어린 사돈은 그렇지 않아도 부모 없는 설움과 시골 농사일에 주눅이 들 데로 든 터라 이것저것 생각을 가리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군에 가라는 말이 그저 반갑고 좋기까지 하더란다. 말이 좋아 공부지 이건

숫제 머슴보다 더한 상일꾼 노릇을 해 오던 터다. 돌도 체 지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 있는 어머니까지 없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어린 사돈은 학교에서의 수업이 땡하고 파하면 작은 할배 집으로 뛰어서 돌아와야 했단다. 책보자기를 풀어 던지자마자 소를 먹이고 쇠꼴을 뜯고 나무를 하고 들일을 하느라, 그러고 나면 뱃가죽이 등에 붙더란다. 군에라도 가면 농사에서 놓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만 들더란다. 저녁 별빛이 스멀스멀 침범해 들어오는 어둠이 들어서야 겨우 얻어먹는, 체 반 그릇을 겨우 넘기는 눈칫밥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어린 배에도 너무나 적은 양이더란다. 얼마나 많은 물로 나머지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했던가? 바가지 밑바닥에 겨우 조금 깔려 있는 보리 누룽지를 먹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다 마셨으나 물은 마셔도, 마셔도 어린 사돈의 허기를 달래주지 못하더란다.

차라리 군에 가면 먹는 것이나마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신명까지 나서 신체검사에 응했으나 징집관은 오히려 호되게 꾸지람만 하더란다. 어린 아이가 장난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신체검사에 응한 줄로 생각하더란다. 사돈 안 윤생은 분명 1946년 04월 05일 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대로라면 군에 징집될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옳다. 또 징집되어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무슨 까닭으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추측으로 어떤 욕심이 개입된 음모가 끼어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돈은 1952년 05월 16일 생인데 1946년 04월 05일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6년이나 앞당겨져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호적의 출생 등재는 대체로 실제보다 늦게 기록되는 경우는 많으나 그 만큼이

나 많이 앞당겨져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순 착오에 의한 호적 등재로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 비록 당시의 지리산 일대 전역이 공비 출현으로 인해 어수선한 때였다 할지라도 같은 또래의 다른 집안 사촌들은 다 제대로 호적 등재가 되어 있는데 유독 자신만이 실수에 의한 호적 등재일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부모를 일찍 여의었어도 출생이 앞당겨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무슨 꿍꿍이가 들어 있을 것이다. 집히는 바가 있으나 입 밖으로 낼 말이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돈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신체검사에 응했다가 다시 쫓겨 오고, 다시 쫓겨 오기를 4년도 더했단다.

눈치 밥을 먹으며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돈은 다른 사촌 또는 5촌 당숙들의 중학교 진학이 부러웠으나 자신은 언감생심 진학의 말은 꺼내어 보지도 못한 체 작은 할배 집 농사일에만 매달려야 했단다. 자신에게는 부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냥 먹여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작은 할배에게 중학교까지 보내달랄 수는 없겠기 때문이었단다.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끝도 없는 지긋지긋하고 힘에 부치는 농사일에 하루 종일 매달려야 했단다. 시달리다, 시달리다 견딜 수 없어 결국 집을 뛰쳐나와 버렸단다. 뛰쳐나왔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쫓겨나온 것이나 진배가 없단다. 그 만큼 의도적이고 혹독한 냉대와 모욕, 어미애비 없이 자라는 후레자식이라는 무시를 견뎌내기가 어렵더란다. 그래 더 견딜 수 없어 집을 뛰쳐나와 버렸단다. 집을 뛰쳐나온 이후부터의 생활은 불문가지다. 배운 것 없고 기술 하나 없는, 아직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집 농사일 거드는 것과 이것저것 허더랫 노동일에 심부름이나 해

주고 그저 밥이나 얻어먹는 것뿐이더란다. 의지할 데 한 곳 없는 어린 사돈은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으나 그래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더란다.

집을 뛰쳐나온 이후의 노동일은 같은 일인데도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할배 집에서의 생활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더란다. 남의 집 농사일을 해도 그저 자신의 천직이거니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더란다. 그만큼 땅에 대한 노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돈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정직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생각되더란다. 적어도 사돈에게 있어서 땅은 세상에 태어나 근면과 성실이 통하는 오직 하나의 대상,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노동을 기울인 만큼 땅은 얼마나 잘 보답해 주던가. 그만큼 세상은 각박하기만 하더란다.

그렇게, 그렇게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정을 꾸렸단다. 아내도 자신처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처지였으나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잘 위로해 주더란다.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사는 만큼 어느 정도 가정의 틀도 잡혀 가더란다. 한참 살기 위해 허덕이며 남의 땅을 일굴 때 느닷없이 군 기피자로 오인되어 얼마동안 쫓겨 다니는 신세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으나 그것도 그리 오래 별 문제가 되지는 않더란다. 남의 땅을 붙여 짓는 농사라 여전히 가난이 집안을 짓눌렀으나 자신이 전혀 배움이 없는 것이 한이 된 사돈은 아이들만큼은 빚을 내어서라도 공부를 시켰단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여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었단다. 없는 형편

에 빚까지 얻어 계집아이까지 대학 공부시킨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까짓 것은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었단다. 공부를 시켜 놓아야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밥벌이라도 겨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동안의 못 배운 이로서 겪은 서러움을 통하여 깨달은 경험이 그렇게 시키더란다. 그렇게 어렵게나마 아들 공부를 시킨 까닭에 이렇게 사돈 같은 사람과도 인연을 맺게 되지 않았느냐며 웃는다. 웃는 얼굴이 나이보다 주름이 더 깊다.

어찌어찌 수소문 끝에 자신을 낳고 시집에서 쫓겨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살림을 차린 어머니를 찾았단다. 그 어머니로부터 단편적이지만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 간의 사정도 들었단다.

나라 전체가 쑥밭이 된 난리가 터지던 해 겨울, 어머니는 같은 하동이지만 산 둘 쯤 너머에 있는 축지 마을로 시집을 갔단다. 그러니까 그것이 1950년 12월 말 겨울이었고, 자신을 가진 것은 시집간 이듬해 7월이었단다. 그런데 그 해부터 지리산 전체에 난리로 법석이 나더란다. 낮이면 전투복을 입고 총을 울러 멘 순사들이 떼를 지어 마을 여기저기를 들쑤셨고 밤이면 산등성이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요란했었단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마을 사람들은 마을 전체가 겁을 먹고 불안한 마음에다 주눅까지 들어 쉬쉬 숨을 죽였단다. 낯 선 사람이 들어서면 몸부터 숨기는 형편이었단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징집영장이 나왔단다. 징집되어 나간 남편은 제주도에서 총 쏘는 것만 겨우 배운 채 경주 어딘가로 배치되었고 거기에서 부상을 입었단다. 그런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 1953년 봄, 마을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었단다. 이제 겨우 돌도 지나지 않은 당신의 아이가 아버지라며 품속으로 기어들었지만 극도로 몸을 상

한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힘에 부쳐 좀 떼어내 달라고 아내에게 사정을 하는 판국이었단다. 그렇게 앓다가 귀가한지 8일 만인 4월 13일 남편은 그만 숨을 놓아 버리더란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었으나 그러고도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눈총을 말없이 받아가며 1년여를 더 살았단다. 남편 잃은 설움을 참아가며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단다. 시어머니 박대로 서러워 밤에 소리소리 죽여 울어도 설움은 조금도 가셔지지 않더란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자신들의 씨는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친정으로 돌아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라며 내쫓더란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바라며 계속 더 살고 싶어 했지만 하도 완강하게 말하며 성화를 내어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더란다. 몇 년을 더 그렇게 혼자 살았을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월의 앙금도 덧쌓여 아픔도 잊을만해지자 친정 식구들이 다 나서서 이제는 다 소용 없는 기다림이라며 억지 무가내로 개가하기를 권하더란다. 그래서 지금의 순천 집으로 개가를 해 지금까지 살아 왔단다.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하느라 연방 코를 풀어대는 어머니의 설움은 바로 자신의 것이기도 하더란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부터 막혀 온단다. 돌덩어리 같은 것이 명치에 얹혀 숨도 크게 들이 쉴 수가 없더란다. 아무리 한껏 숨을 들이켜 크게 내품어도 도무지 시원스럽지가 않더란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까짓 것 몸 고생이야 할 수 있다고 셈 쳐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란다. 6.25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동안 자신이 겪은 시련들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영 인정하고 싶지 않더란다.

지나온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부터 턱턱 막혀 오는 것이 자신도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란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 한스럽더란다. 그리고 작은 할배 할매가 너무나, 정말이지 너무나 원망스럽더란다. 까짓 것 재산이 무어 그리 대단하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땅덩어리에 욕심을 부려 그래도 장손자인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그냥 죽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란다. 평생에 한이 되어버린, 누구 앞에 드러내 놓을 수 도 없는 기구한 운명, 철저하게 유린당한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터놓고 호소할 데도 없더란다.

이런 와중에 날아든 선고의 사망 통지서 한 통, 혹 보훈 유가족이 되면 지금의 가슴 막힘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가족에겐 얼마간의 보상금도 준다는데. 아무려면 내 유년과 젊은 날의 모든 것을 보상 받을 수야 있으랴만 그러나 아무려면 어떠랴? 늦었으나마 육군본부에서 유가족으로 등록하라니 그렇게 등록이라도 해볼 밖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도 되더란다. 또 아버지 유택을 국가 유공묘역인 현충원에 모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손 된 도리에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와락 새로운 운이 트일 것 같은 예감까지 들더란다.

그래 우선은 육군본부에서 하라는 대로 보훈처에 유가족 등록을 하러 갔단다. 진주보훈지청에 가니 호적등본을 요구해 하루의 생업을 포기했단다. 산청에서 진주, 진주에서 하동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가 없으면 돈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거금의 교통비를 들여

일삼아 본적지 악양면사무소까지 가서 제적 호적등본과 현 호적등본을 떼어 유가족 등록 서류를 갖추었단다. 하동 악양에서 다시 진주보훈지청로, 점심도 그른 채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도 금방 하루해가 꼬빡 넘어가더라나.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나 그래도 이제 다 되었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빠진 기운을 추스렸단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당자 앞에 서류를 넘겨주었단다. 그런데, 담당자는 호적등본을 한참이나 유심히 살피더니 사돈에게 유가족인 아들이 되느냐고 묻더란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서류상 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더란다. 그러면서 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새로 구비해 와야 한다고 말하더란다. 유가족인 아들이 되느냐고 물으며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니? 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서류는 또 어떤 것인가? 자신의 무식함이 그토록 절실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란다. 그러나 담당자는 아주 태연하게 웃는 얼굴로 옛날의 낡은 제적 호적부를 짚어 보이며, 부란에 선고의 성명이 있고, 모란에 어머니의 성명이 있으나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아들의 출생 신고 날짜도 전사자의 사망 이후로 기록되어 있어 전사자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란다. 무슨 개 뚱딴지같은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거절의 이유더란다. 몇 해 전까지는 아버지가 친자로 인지하지 않았어도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새롭게 특별법이 제정된 후로 특별법에 의해 유공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주는데 점점 더 모르겠더란다. 아버지가 자신을 인지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니?

참으로 청천에 날벼락이라더니. 이럴 수도 있는가? 아무리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지만 이럴 수는 없는 일이지. 명색이 국가보훈처니 만큼 이런 저런 규칙으로 유가족 자격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아무리 무식하지만 사돈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유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면 까짓 것 없었던 일로 하면 그 또한 그뿐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참을 수가 없다. 그 동안 유가족이 아니었을 때도 가난하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부지런히 잘 살아 왔는데 까짓 유가족이란 이름을 달지 않는다고 못 살까. 유가족이 아니고도 여태껏 잘 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얄궂은 큰일이 생길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무슨 삶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도 아니니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의 근본, 나의 삶의 뿌리로 여기고 해마다 명절 때마다 제사지내며 모셔온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훈처의 말머리는 괘씸하다. 괘씸하다 못해 엄청 화가 치솟는다. 그렇지 않아도 얄궂고 기구한 자신의 운명 아니던가? 부글부글 끓는 속을 주체하기가 힘들더란다. 까짓 보훈의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보상 없이도 잘만 살아 왔는데 그것을 빌미로 국가보훈처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니 말이나 되는 말인가? 육군본부와 보훈처는 꼭 같은 국가기관이 아니더란 말인가? 육군본부 다르고 보훈처 다르다니 도대체 나라에서는 무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약한 백성에게 약 주고 병 주는 처사를 나라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가? 몇날 며칠 잠도 안 올뿐더러 오만가지 생각으로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란다. 돌덩어리 같은 것이 가슴에 얹혀 답답한 것이 어이가 없더란다. 유공자 가족이었

다는 사실도 처음 안 일이지만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부란에 선고가, 모란에 어머니가, 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데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니? 무슨 이런 말이 있는가? 도대체 자신을 아버지의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이던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풀리지가 않아 영문을 알 수가 없더란다. 다시 보훈처에 들러 물어 보았더니 이번엔,

"가족 연금도 얼마동안 지급되었다가 도로 환수조치 되었구만. 여기, 여기 기록도 되어 있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니. 점점 더 알 수 없는 말만 하더란다. 언제 한 번 연금을 주기라도 했더란 말인가? 손가락으로 호적부 상단을 일일이 짚어가며 말하는 담당자의 상급자인 듯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마치 유가족 연금을 타먹기 위해 술수라도 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의 강하고 자신 있는 말투로 호적을 흔들어 보이며 친자가 아니라고, 유공자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등본을 요구하더란다. 호적 등본이라면? 면에서 떼 주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디에서 뗄 수 있다는 말인가?

어쨌거나 친자가 아니라니? 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니? 다시 확인을 해도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지 않는가? 현기증이 들더란다. 그러면서 사돈은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의문이 들더란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설움과 함께 가슴으로 소용돌이쳐 오더란다. 현재까지 산소 소분하며 제사 지내온 아버지를 두고, 나라에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지 않는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육군본부에서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 놓고, 이제 새삼 보훈처에서 자신이 아들임을

부정하다니? 자신을 아들이라며 아버지의 산소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시키라 말하지 않는가? 그래놓고, 이제 보훈처에선 또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니,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해괴한 일이 있는가? 선고의 호적 란에 기록된 엄연한 부 안 우영, 모 서 정순의 자 안 윤생을 나라에서 부정하다니? 지금까지 조상을 모시고 살아온 자신의 근본을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송두리째 부정해도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유전자 검산가 뭔가가 있다니 그것이라도 한 번 해보고 싶은 심정이 들더란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보훈처의 처사에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물어물어 변호사를 찾았단다. 유공자 가족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없이 자라난 설움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도저히 견딜 수 없더란다.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에 기가 막혀, 어떻게 자식들과 의논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 모아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거금 400만원의 빚을 얻었단다. 그 돈으로 어찌 어찌 같은 마을 사람과 알음알음이 있다는 변호사를 소개 받아 도움까지 받았단다.

기껏 거금을 들인, 변호사가 새롭게 고쳐 주었다는 새 호적등본의 기록은 그러나 내가 보기엔 생모의 이름만 바로 잡은 것일 뿐이었다. 그동안 호적상 생모의 이름도 사실상 사용하는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달랐던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호적 이름 따로, 주민등록상의 이름 따로. 따라서 여전히 호적부의 내용은 모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과 다름이 없었고, 전사자 중심의 구 호적에 근거를 두고 유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보훈처에서는 당연히 유가족 등록을 거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 얼마나 용을 썼던지 사돈은 이미 떡심이 풀릴 대로 풀어져 있었다. 바쁜 농사일까지 접고 그 동안의 동분서주한 시간과 교통비도 부담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막 신혼살림을 차려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에게도 이미 얼마간이나마 그간의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았던가.

이야기를 하는 사돈은 한숨만 내리쉴 뿐 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사돈인 나에게 얼마나 하기 힘든 말이었겠는가? 술잔을 들 생각도 잊은 채 자포자기하고 앉은 모양새였다. 안타까워하며 같이 걱정을 하던 끝에 나는, 내가 나서서 사돈의 한을 풀어 보기로 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증명하는 것이야 될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물어물어 풀어 보면 아니 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 교통편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는 되지 않는가?

법과 가까운 사람을 찾아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마침 이제 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법원 과장인가의 자리에 있다는 테니스 동호인이 생각났다. 안성맞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다.

"이봐, 송 사무관 좋은 일 한 번 해 볼래? 나 좀 도와줘. 나의 사돈 일인데……."

나의 설명을 들은 이튿날, 송사무관은 대법원 판례라며 두툼한 서류봉투에 담은 자료를 내게 건네주었다. 자세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란다. 얼마나 고마운지. 복사를 해온 관련 자료는 50여 건이나 되었다. 밤

새껏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 빨갛게 밑줄을 쳐가며 읽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자료엔 승소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까지 올라가 모두 패소한 것뿐이었다. 단 한 건도 승소한 것이 없는 것이었다. 밤을 새우다시피 하여 꼬박 24시간여 동안 쉬지 않고 일일이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것이 모두 다 허사가 아닌가? 승소한 판례는 없느냐고 다시 도움을 청했으나 같거나 비슷한 사건으로 승소한 판례는 없다는 대답이었다. 전적으로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해주는 조합원 증명서를 갖추면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귀띔이 유일한 정보소득이었다. 아니, 아니다. 모두 패소한 판례가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렴풋이나마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으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99%의 실패가 내 1%의 성공을 뒷받침하였다고나 할까?

해결의 실마리, 내가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보훈처에서 부정한 호적의 내용이었다. 사돈을 전사자의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바로 그 내용이 내가 해결할 실마리로 삼은 바탕이 되어준 것이다. 호적의 내용은 분명 부란에 사돈의 선고되시는 전사자의 성명이 있고, 모란에 생모의 성명이 있으며 자란에 사돈 안 윤생의 함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는가? 사실을 사실로 기록한 엄연한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출근해야 하는 사위를 불러 태워 대구에서 한달음에 진주로 달려갔다. 성급한 마음에 천리 길이 지루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보훈처로 가는 길을 보훈처에 물었을 때부

터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전화로 찾아가는 길을 물었더니 전화선 저쪽에서 무슨 의료원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초행이라 잘 모른다고 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물어서 알아 찾아오란다. 이런 괘씸하고 무성의한 대답일 수 있나? 모르면 물어서 찾아오라니? 그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기 짝이 없는 대답을 듣는 순간, 진주에서 진주보훈지청을 찾아가는 길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다. 새삼스럽게 무척이나 힘이 들겠다는 생각까지 밀려든 것이다. 갑자기 온 몸으로 피로까지 엄습해 왔다. 그러나 나는 정말 보훈처에서 안내한 대로 물어 물어서 알아 보훈처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차를 타고도 40여 분을 더 빙빙 돌고 또 돌아야 했다. 그러고서야 한적한 곳에 자리한 진주보훈지청에 겨우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수모를 겪은 이후 그렇게 값이 비싸다는 네비게이션인가 뭔가 하는 요상한 물건을 새로 하나 사게 되었음도 밝혀 둔다.

그리고 나는 치오르는 화를 누르며 애써 피곤한 얼굴을 가리고 웃으면서 담당자 앞에 서야 했다.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 화를 참으며 애써 웃는 얼굴을 하고 음성을 착 가라앉혀서 유공자 가족이 아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어째서 친자가 되지 않는지 그 근거를 따진 것이다. 담당자가 나서고, 그 윗선의 담당자가 나서고, 그, 그 윗선의 담당자가 또 나서서 번갈아가며 대답하는 말이 전부 같은 말의 조금씩 다른 표현이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아예 담당자와 의견을 같이하는 해석만을 작정해서 되풀이할 뿐 도무지 인식 자체의 변화를 보이거나 민원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는 고집불통, 오히려 나를 설득시키는 데만 열을 올리지 않는가? 드디어 그 중 제일 윗선의 상급자로 보이는 목이 굵은 남

자는 예의 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서류 하나를 들고 계속해서 해온 말을 다시 되풀이하였다. 또다시 특별법 운운이었다. 나를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으나 나 또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쉬이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천리 길을 한 달음에 달려오지 않았던가? 또 그렇게 어렵사리 돌고 돌아 진주보훈지청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담당자, 담당자의 위, 다시 또 그 위의 분은 합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 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이며 '관련 판례' 하나를 보여 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판례의 내용은, 이미 내가 지난 하루 내내 밤새워 밑줄을 그어가며 숙독 또 숙독했던 여러 판례 중 겨우 한 건에 속하는 것일 뿐이었다. 담당자도 나도 같은 말의 되풀이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작정하고 나선 몸이다. 맥을 놓고 쳐져 있을 사돈을 생각하면 여기 이 정도로 물러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이젠 나도 따져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 관련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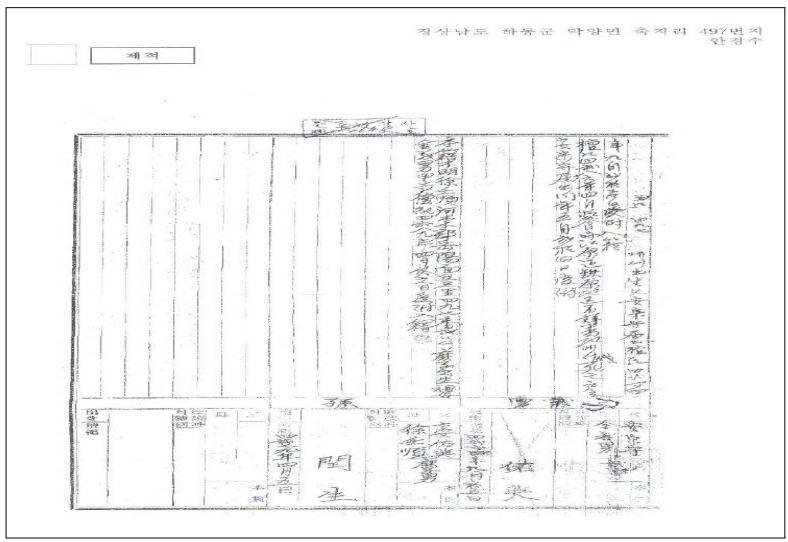
○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048

父 사망 후에 제출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으로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 관계를 가질 수 없다.

※ 1985년 이전에는 특별법인 군사원호보상법에 사실상유족 인정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동 판례는 영향이 없었으나, 1985.1.1 개정법률 시행 이후가 문제임.

나는 입이 말랐다. 벌써 몇 잔째의 물을 들이키는가. 그러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또 마셔도 입은 여전히 마르기만 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특별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법인 호적법은 특별법 이전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효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요? 일반법으로 인정이 되는 사실을 굳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유공자의 친자임을 부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법이란 것은 일반법을 적용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엄연히 부란에 전사자의 성명이 있고 모란에 생모의 성함이 있으며, 자란에 성명이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자는 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결과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였다. 끝없이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한 없이 달리다가, 달리다가, 다람쥐가 힘이 빠져야 비로소 멈출 수 있는 다람쥐 쳇바퀴. 아니, 다람쥐가 달리기를 포기하면 쳇바퀴도 멈출 수는 있다.

결국 나는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보훈처가 요구하는, 친생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대법원 승소 판결의 예가 없어 이기기 어렵다는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 보기로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사돈이 전사자의 친생자로 인정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아 오기로 생각을 늦잡게 된 것이다. 귀찮고 번거롭기는 하지만 사실을 사실로 증명 받아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보훈처 직원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아 주리라는 오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그저 단순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 때는 사돈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까맣게,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같은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법에 의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유공자 자녀이면서도 유공자 자녀로 대우받지 못해 모임까지 만들어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대법원에서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패소 판결한 것이 아무리 수십 건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로 증명하면 뒤집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의 맹목적인 도전, 무식하면 용감하다든가? 참으로 무모할 수

도 있는 일이었으나 나는 자신 없어 할 일이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존해 있다지 않은가. 생모를 비롯한 그 친정 쪽 사람들과 사돈의 5촌 당숙이나 고모 되시는 분들, 또는 어른 되는 동네 분들이 어딘가에 생존해 있다지 않던가. 찾아보면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소송을 해 봐야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뻔히 하면서 친절을 가장하여 마치 도움이라도 주는 듯 말하는, 그러나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저 상급자의 두꺼운, 유공가족을 우롱하는 듯한 얼굴이 참으로 가증스럽다. 그러나 속으론 다음을 기약하면서 쳇바퀴 돌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젠 기력이 다하여 더 이상 쳇바퀴를 돌릴 힘이 남아 있지 않기도 했다. 도무지 입술이 말라 말이 되어 나오지도 않거니와 말을 해 봐야 여전히 같은 내용일 뿐이기도 했다.

진주에 소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상담자는 고개부터 흔들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은 채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질문하며 턱밑을 파고드는 나의 태도에 질겁부터 하는 것이었다.

"어른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생각할 여유도 좀 주셔야지요."

상담자는 다급하게 몰아치는 나를 아예 외면하면서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0.00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지면 해보겠다는 말이 너무나 살갑게 들리는 것은 그 동안 보훈처에서 너무 많이 입이 말라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동안 생각을 굴리며 법전을 뒤적거리던 상담자는 몇 가지 메모를 하더니 변호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우선은 돌아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란다. 그 서류라는 것이 나로선 또 아주 생소한 것이어서 법의 행정을 잘 아는 이에게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다. 우선 급한 마음에 행정대서소를 찾아 서류 작성을 시도하다가 처음 한 장,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여 아까운 헛돈으로 만원씩이나 날렸다. 사실 확인서, 갖출 서류의 내용을 말하는 제목만 안 것이 일금 만 원이었던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까짓 사실을 사실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확인서라면 굳이 못 쓸 것도 없지 않은가? 한 장에 몇 만원씩이나 들여 굳이 행정대서사의 손을 빌릴 까닭이 없다. 생모와 생모의 친가 쪽으로 몇 사람, 사돈의 일가 쪽으로 몇 사람, 당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네 어른 몇 분, 사실 확인의 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야 할 사람은 여럿이나 기실 사실 확인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이지 않겠는가?

사돈의 생모께서는 우리의 길품을 줄여 주시겠다면서 거주하고 있는 순천에서 이미 친정 곳인 하동에 와 계셨다. 벌써 며칠째 동생 집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딸아이를 데리고 신행을 갔을 때다. 철없는 것을 시집보내 어쩌나 싶은 우려 반, 섭섭한 마음 반을 섞어 사돈과 대작하여 마신 술이 반말의 막걸리는 더 넘어섰나 보다. 하마나, 하마나, 술자리 끝나기를 기다리시던 사장 어른은 좀처럼 쉽게 술자리를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는, 명색이 그날의 최고 손인 나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싫

은 내색을 보이시던 어른이시다. 그런 어른이 일삼아 길품을 줄여주며 반겨 맞는다.

"아이구, 어서 오시기요. 사돈이 나서서 우리 아들 평생 한을 풀어 주시는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당신 한 몸도 무거울 노인네가 나에게 선물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일삼아 그 높은 여러 감나무를 쳐다보면서 돌고 돌아, 굵은 놈으로만 골라 땄다면서, 가실 때 가져가라시며 묶어 놓은 감상자 하나가 배가 불룩하니 윗부분이 터져 나올 듯 부풀어 있다. 홍시를 만들어 두었다가 겨울에 먹으면 그렇게 달고 시원할 수가 없는 이 지방 특산물인 대봉이라는 감이다. 감 하나의 크기가 장정이 불끈 쥔 주먹보다 훨씬 더 크다.

"지난번엔 술 많이 마신다고 그렇게 싫어하셔 놓고서는……."

웃으며 농담을 건네니,

"아닌디, 아닌디. 이젠 실컷 묵어도 되는디. 안 머러칼낀디."

개가하여 사시는 곳이 지금도 순천이라고 하셨지 아마? 아들을 두었지만 혼자 독립하여 사신다고 들었는데……. 솔직하면서도 소박 단순한 시골 인심이 말 속에 담겨 훈훈한 인정이 정겹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나 거기서 두어 동네를 건너 시집을 살았다는 하동 시댁의 태도는 엄청 달랐다. 전화로 가르쳐주는 길 안내부터가 시큰둥하더니 물어물어 찾아간 집에서는 마당까지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방문만 빼꼼히 열고 손을 맞는다. 바깥어른은 마실 가셨다면서 안어른 혼자만이 방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명색이 사돈되는 신분 아닌가? 냉랭한 분위기가 손을 맞는 접대가 아니다. 동네 전체가 감 밭으로 주먹보다 큰 대봉이 탐스럽게 많이도 달렸는데 이 집 넓은 마당에도 몇 그루 감나무가 높다

랗다. 집도 좀 허술하기는 했으나 제법 툇마루 턱이 높은 한옥 기와집이다. 그런데 어쩌나? 벽에 붙여 깎아 매달아 놓은 곶감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곶감이 식초가 되려는지? 물기까지 베어 나온다. 감이 썩어가고 있는 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미리 전화로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해 두었던 집이다. 인사를 끝내고 찾아온 까닭을 말했다. 5촌 당숙이라니 쉽게 동의해 주리라. 조상의 유택을 현충원에 모시겠다는데 협조하지 않을 이유까지야 없지 않겠는가?

"저,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 윤생 씨 사돈되는 사람입니다. 사실확인서 한 통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붙어야 하구요. 확인해 줄 내용은 사돈인 안 윤생씨 선고께서 안 윤생의 모친과 혼인한 사실과 그 사이에 아들 안 윤생이 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선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안 윤생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요? 이 일이 확인되는 대로 선고 안 우영씨의 유택을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할까 합니다. 좀 도와주시지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보다. 한 숨에 말을 이어 냈으나 듣기 좋은 거절이었다. 들은 체도 않고 시큰둥 딴전을 피우더니 자신들은 나이 들어 잘 모르는 일이란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과 의논하라며 아들에게 미루어 버린다. 아들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지금 부산에 있단다. 지금 부산으로 찾아가 이야기 해 보란다. 부산이 하동의 어디 바로 이웃에라도 있어, 금방 갔다가 금방 올 수 있는 곳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다.

늦가을의 짧은 해는 이미 기울어 가고 있는데.

나이 들어 잘 모르겠다는 사람을 붙들고 실랑이를 할 수도 없어 부산에 있다는 아들과 전화로 오래 동안 이런 저런 말로 도움을 요청하다가 이 소홀하기 짝이 없는 푸대접은 이미 준비된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모의되고 지시되어 이미 각본으로 짜여진 응대였던 것이다. 마주치지 않으려는 바깥어른의 일없는 마실 출타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니 부산의 아들에게 가서 부탁해 보라는 것 등의 일련의 수작들이 다 미리 영악하게 지시되고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문득 우리 일행에게 말하듯 혼자 소리로 불쑥, 내 뱉듯 한마디 말을 던졌다.

"그라만 안 되재. 윤생이 그라만 안 되재. 지가 우리에게 그라만 되는가? 이거 해주고 나서 우리가 또 우째 당할라꼬? 무슨 일을 꾸밀지 우째 아노? 우리가 연금 타 묵은 거, 그것또오, 윤생이 땅 팔아 가지고 다 갚았다 아이가? 그 영수증,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대이. 무슨 일 생길까봐 아직까지도 안 버리고 딱 가지고 있다 카이."

그랬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이 바로 사돈이 그렇게 한을 품게 된, 가슴 속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 무겁게 묻어 놓고, 숨도 한 번 크게 내쉬지 못하여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살게 된, 천대와 멸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순간 생각하면 설움과 고통이 샘솟는, 바로 그 집일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가 어쩌면 바로 그 호랑이 아가리, 고된 농사일을 못 이겨 뛰쳐나간 집일 수 있겠구나. 무심코 내 뱉은 그 혼자 말은 그야말로 자식이 연출한 각본에는 없는, 노인이라 나이 들어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속내를 드러낸 순수한 에드립이었던 것이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는 조상의 유택을 이장하는데 협조하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느낌이 든 이상 이 집에서 내가 더 사정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받을 것은 없다. 늦가을 짧은 해에 시간을 아껴주어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다. 이미 다른 곳에서 받아 놓은 사실 확인서만으로도 사실 확인의 효력은 충분하게 나타날 것이다.

뒤에 들은 바로 나의 느낌은 맞았다. 그러나 부산인가에서 개인운전으로 생업을 삼는다는(남의 재산을 가로 챈 집안이라면 좀더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그 아들은 사돈이라는 작자가 부탁하러 와서 사정은 안 하고 협박 공갈만 치고 갔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거품 물고 사돈에게 퍼붓더란다. 그의 말대로라면 나는 일삼아 부산까지 물어물어 그의 일터로 찾아가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몇 번씩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올려야 했다. 혹 그랬다면 영악하게 모든 각본을 짜고 연출까지 맡아 한 어림없는 그가 협조를 해 주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실의 상담자는 우선 행정 심판의 절차를 거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행정심판은 안 될 것이 뻔하나 절차상 거쳐야 하는 것이고, 민사나 행정소송 쪽에 무게를 두어 보잔다. 기대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최선이란다. 아무려면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그러나 말과는 달리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은 이미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들게 했다. 그 방면의 전문가들 아니신가?

아무리 가난한 농어민을 위한 법률구조공단이라지만 설마 기대할 수 없는 일에 이토록 시간을 낭비해 가며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준비하게까지는 않으리라.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고 보니 세 가지 송사를 한꺼번에 하는 까닭으로 서류 뭉텅이만 해도 두께가 전화번호부 책보다 더 두껍다. 그럼에도 이렇게 확실히 일말의 안도감이 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틀림없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송이라는 것이 참으로 까다롭다. 원고가 고소인이 되고 국가가 피고인이 되어 피고를 검사가 대신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자간에는 소송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변호사의 지나가는 설명으로 처음 알았다. 사실을 사실로 밝히는 일에도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가 다 따로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에선 사부인이 고소인인 원고가 되고 사돈이 피고가 되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당연히 사부인은 남편을 고소하는 고소인이 되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시부의 며느리임을 재판하여 판결해 달라는 요지다. 그리하여야만 그 과정에서 남편이 돌아가신 시부의 친자임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도 한참을 돌아야 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절차다. 진주보훈지청을 물어물어 돌아가는 길은 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비로소 알겠다.

판 결

사 건 2007드단41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주 문

1. 피고와 소외 망 안우영(安佑英, 1931.9.15생)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인정사실

생략

인정근거

생략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망 안우영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피고의 처인 원고로서는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꼬박 석 달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의 요지다. 드디어 받아낸 것이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은 것이다. 아니, 나의 진실 밝혀내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사돈의 무거운 돌덩이는 작은 미풍에도 바람개비처럼 날 수 있을 것이다. 진주보훈지청의 관계자 얼굴이 커다랗게, 커다랗게 떠오르는데도 표정이 잡히지 않는다. 얼마나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가? 대구에서 경남 하동까지 달려가는 먼 길이 나들이 가는 것처럼

정겹기까지 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비가 사선을 그으며 휘몰아치고 있지만 눈꽃을 보고 환성을 지르는 딸아이 부부의 목소리가 쾌청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하기야 저희 시어른이 그렇게 오래 동안 가슴앓이 하던 친자여부를 이제 법이 인정해 준 마당이니 목소리가 밝을 수밖에. 또 이렇게 소복하게 탐스러운 눈꽃을 만드는 눈비의 축복이라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도 나라 살림을 틀림없이 잘 꾸려갈 것이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사무소 호적기록 담당 계장은 지긋한 나이에도 겸손했다. 판결문을 받아들더니 흔치않은 일이라 자신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면서 친절하게도 미리 전화를 넣어 두겠으니 진주지원 호적 정정기록 담당자를 찾아보란다. 자신은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겠단다. 나이도 지긋하게 보이는 경험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이라고 말하는 겸손과 커피라도 한 잔 하시라는 말이 따뜻하다. 일단은 절차상 신고는 해야 한다기에

"친자임을 확인하여 판결문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 주시지요."

"친자임은 바로잡지 않아도 이미 호적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는 말이신지 통……?"

여전히 모르겠다는 얼굴이다.

"……?"

모르겠다는 데야 어쩌는가? 우선 신고만 해 두고, 가보라는 알만한 곳으로 찾아 가야지 않겠는가.

한 달음에 진주지원으로 달려갔다. 강 언덕 여기저기엔 이미 매화가 꽃망울을 물고 있었다. 깨닫지 않고 있어도 봄은 오고 있었던 것이다. 섬진강 물줄기가 도도하게 출렁거리며 넘치듯 흐르고 있었다. 멀기만 느껴지던 진주지원이 그렇게 가깝게 다가온다.

진주지원 호적 정정기록 담당자는 판결문을 들고 읽더니 잠시만 앉아 기다리라면서 한참 동안 상급자와 무엇인가를 의논한다. 기다리라니 기다릴 수밖에. 그 동안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이쯤이야.

"저, 무엇을 정정해 달라는 것인지요?"

담당자의 상급자인 듯한 사람이 의아한 얼굴로 다가와 묻는 말이다. 악양면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 서도 꼭 같은 내용의 말과 의아함이다.

"아,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문을 받아 왔으니 그 내용으로 정정해 주십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이 호적부에 이미 친생자 관계가 드러나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 판결을 받으신 것이니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대로 두다니, 그대로 두고 진주보훈지청에 가면 또 특별법을 들이대며 친자임을 부정할 것 아닌가? 다급해졌다.

"아니, 아니, 아저씨. 이 호적을 보고 보훈처에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여 이렇게 어렵사리 판결문까지 받아 왔는데 고칠 것이 없다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한참동안이나 뜨아한 얼굴을 짓던 상급자인 듯한 사람은 오히려 나를 더 이상한 눈으로 한 동안 바라보더니 보훈처 담당직원과 직접 통화해 보겠다며 잠시만 통화하게 해 달란다.

"저, 여보세요. 여기는 진주지원 호적 정정기록 담당 팀장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요?"

맥을 짚어 묻는 말의 요령부터가 직접적이고도 정확하다. 이래서 전문직업인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

전화선 저 쪽에서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까진 들리지 않는다. 그저 짐작될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 이 호적부에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의 사실을 판결 받아 왔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정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 호적부만으로도 친생자 관계는 이미 충분히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 말의 뜻은?

그렇게 물을 마셨는데도 여전히 마르기만 하던 내 입으로 보훈처 직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힘들여 호소하듯 역설한 지난날의 나의 주장과 너무나 꼭 같은 내용의 말이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같은 내용의 통화는 한동안이나 계속된다. 저 쪽에선 여전히 특별법을 말하고 있는가? 이러다가 여기서 또 다른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나 그 통화는 걱정한 대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보훈처로 가 보십시오. 여기선 더 해드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말로 돌리는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혹시 실제로 발로 숨차게 뛰어 달려갔다가 다시 숨차게 뛰어 달려와야 하는 다람쥐 쳇바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숨차게 달려간 그 끝자락에 커다랗게 떠오르기만 하고 선명하게 잡히지는 않던 냉랭한 표정의 얼굴이 창구 뒷열에 배치되어 있는, 간격을 제법 띠운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동안 승진이라도 했었나? 그러나 여전한 사무적인 태도는 오히려 더 성숙해 있었다.

이번엔 가는 길을 묻지 않았다. 또 둘러 가지도 않았다. 그냥 곧바로 보훈처까지 갈 수 있었다. 아니, 이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겠다. 나는 우선 전처럼 웃어 주었다. 속으론 호통을 벼르고 왔지만 그래지지가 않았다. 참으로 하찮은, 사람 좋은 얼굴을 한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일 뿐이었다.

"이 보세요, 담당자님. 안녕하셨던가요? 우리 조금 오랜 만이죠? 그런데 나 지금,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 있는데 참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번에 참으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평생 몰랐을 법 공부까지요."

"예,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낭창한 목소리다. 목소리의 톤이 귀에 익다.

어? 그렇다? 이 목소리를 말의 기복을 죽여 까칠한 전화선의 소리로 바꾸면 행여? 툭, 던지는 듯한 퉁명스러운, 혹시 그 물어서 알아 찾아오라던? 그래, 그러고 보니 짐작이 가는 목소리다. 그러나 어쩌랴.

"정말 담당자님만큼 그렇게 완강하게 규정에 충실한 분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꼬는데 칭찬으로 듣는가? 웃는 얼굴이다.

"……."

슬그머니 약이 오른다.

"그런데, 담당자님. 이거 하나는 알아두십시오. 담당자님 말 한마디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늙은이들이 힘들게 수 천리도 더 왔다 갔다 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힘들게 돈다는 사실을요. 담당자님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에겐 정말 계산 안 되는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불신의 감정을 수 천리에 뿌리게 되거든요? 보세요. 우린 지금 다시 원점에 와 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한 마디씩만 던지는 짧은 언어구사다. 단답형 삶을 사는가?

글쎄, 정말 속으로도 죄송한 마음일까? 내가 보기엔 규정에 충실한 자신에 대한 당연한 긍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 까짓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유가

족 등록서류를 간추리는 그의 손끝이 날렵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나는 속으로 부글거리며 솟아오르는 화를 호통으로 바꿀 수가 없다. 진이 다 빠졌나? 그 동안의 모든 수고가 너무 싱겁기만 하다. 있는 힘을 다하여 애써 싸웠고 드디어 승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끝이 이렇게 허무하고 싱겁다니. 이제 비로소 쳇바퀴 돌리기가 끝나는가? 그러나, 그렇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면서도 담당자는 당연한 듯 그 판결문을 보훈 유가족 신청서류에 챙겨 넣는다. 자기 나름대로의 대비책일 터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판결문은 없어도 되는 일 아닌가? 그러면서 2,3개월 정도만 더 기다리란다. 곧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면서.

판결문을 도로 확 뺏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럴 수가 없다. 또 다른 갈등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상한 것은 나도 이번엔 전처럼 전혀 입이 마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드디어 사돈을 보훈가족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담당자에 대한 미움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을까?

넘실거리는 섬진강, 갓 피어나는 매화송이가 유난히 곱던 지난 2월.
차기만 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돈을 드디어 보훈가족으로 모셨습니다.
아직도 고생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경험을 재구성한 것이 '보훈가족'입니다.
이 땅에 사돈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훈가족들이 아직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인경찰서 _ 김승희

가나안

난 뭔가로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나에게

의로운 오른손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창규는 …….

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가나안

그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남쪽지방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J시. 그 J시의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길을 먼저 찾아야 한다. J시로 들어오는 북쪽의 첫 관문인 등정역에서부터 J시의 상수원인 극락강을 타고 신안교를 거쳐 남쪽의 첫 관문인 진양역으로 빠져 나갈 때까지 그 기찻길은 도심을 완전히 가로지른다. 철로가 지나가는 도심의 중심부 그러니까 극락강과 신안교 사이의 반경 5km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 낡은 목조 간이역과 불과 300m를 사이에 두고 잇대어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 그래서 근처에 가정집보다 모텔과 술집 같은 유흥시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곳. 그곳에 그 교회는 있다. 그 교회는 멀리서 보면 근처를 가득 메운 모텔과 술집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을뿐더러 우연찮게 그 건물이 한 눈에 잡혔더라도 수성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초라한 외관 벽의 이층건물을 어느 누구도 교회라고 생각할 순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 옆을 지나치면서도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면 '어, 교회가 여기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있어야 할 그 흔한 십자가 하나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화장실이 급하거나 커피 생각이 간절해 자판기를 찾다가 우연찮게 바로 앞까지 와서 '성스러운 교회'라는 간판을 유심히 보고나서야 비로소 '야, 이런 곳에 교회가 다 있었

네.' 라고 교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그 비밀스러운 교회를 찾아간 것은 순전히 집에서 굉장히 멀다는 것과 근처를 배회하다 화장실이 급해 뛰어 들어갔던 곳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버지가 느닷없이 반야심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 좋아하던 낚시에 흥미를 잃은 채 며칠동안 두문불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한 달 전부터 굽은 등과 목을 한껏 아래로 늘어뜨린 낙타 같은 모습으로 반야심경을 읽기 시작했다. 난 아버지가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던 날 예상컨대 아버지를 잡범들이 우글거리는 지구대의 철창 안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잡범들이 아닌 반야심경을 만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반야심경을 외우는게 아버지의 두 번째 취미가 되었던 것이다. 난 아버지를 철창 안에서 보지 못한 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적의를 품기 시작했다.

전 오늘부터 교회에 나갈 생각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반야심경의 절반쯤을 독파하고 있던 중이었다. 내가 현관문 앞에서 막 신발을 구겨 넣고 있을 때 쯤 흰색 러닝과 꽃무늬 파자마를 입은 아버지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난 숙였던 허리를 곧게 폈고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아버진 뭔가 이야길 할 듯이 입을 오물거리셨지만 내가 소리 나게 성경책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묵묵히 떨어진 성경책만 내려다 볼 뿐이었다. 발아래 떨어진 가죽 케이스의 성경책은 노란색 표지로 코팅된 반야심경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다. 아버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만 어정쩡한 표정으로 씁쓸한 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고 성경책을 떨어뜨릴 때처럼 소리 나게 문을 여닫았다. 하지만 막상 집에서 나와 버스정류장에 서자 느닷없이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았다. 원래부터 아무 곳에나 잘 나대는 성격이 아닌 탓인데다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커다란 부담감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고 낙타 같은 아버지의 굽은 등과 늘어진 목을 떠올릴 때마다 반드시 교회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버스에 오를 때부터 내려야 할 정류장까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다. 난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는 유아처럼 반야심경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던 것이다.

내가 이교회에 처음으로 왔던 날은 새벽이었던 데다가 화장실이 급했기 때문에 교회의 내부를 주의 깊게 보진 못했지만 막상 성스러운 교회라고 적힌 앞 유리를 밀고 들어서자 생각했던 것보다 내부는 더 협소했다. 그리고 주변에 늘어선 고층 모텔들 때문에 볕이 들지 않아서인지 아침부터 켜져 있는 형광등은 복도를 따라 천장에 길게 이어져 있었지만 불이 들어오는 게 몇 개 되지 않아 안은 굉장히 어두웠다. 나는 그 길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복도 양 옆 벽엔 세 걸음 정도를 사이에 두고 새소식과 교회소식란 예배시간 따위를 적어놓은 게시판과 유성펜으로 직접 써놓은 듯한 성경구절들이 무질서하게 붙어 있었다. 예배는 벌써 시작됐는지 걸어 들어갈수록 예배당으로부터 울려오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울렸다. 예배당 문은 어른 키의 두 배 정도였고 니스 칠을 새로 한 때문인지 냄새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채

이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난 미시오란 글자를 봤지만 내 앞으로 조심스럽게 잡아끌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배당 내부가 한눈에 들어차 왔으므로 잠깐 마음속으로 그 낯선 세계를 받아들이는 게 벅찼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문에서부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단상까지는 불과 삼십여 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마주 보이는 목사와 앞뒤로 나란히 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심장이 턱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배당 안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출현을 눈치 챈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심지어 유일하게 나와 마주보고 서있는 목사조차도 갑작스런 나의 출현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단상 아래로 시선을 고정한 채 설교를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왼쪽 제일 뒷줄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막 앉았을 때 오른쪽 맨 뒷줄에 앉아 있던 삼십대 초반의 남자가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말없이 웃음을 지으며 목례를 했다. 나는 약간 얼굴을 붉히고 목례에 대답을 했고 이내 그 세계는 나에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주변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무엇이든 이렇게 처음이 어렵다는 걸 나는 안다. 그걸 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빠르게 낯설다 에서 반비례해 낯익다로 이름을 갈아타게 되고 갈아타는 순간 오래전부터 해오던 버릇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목사가 서있는 단상 뒤는 검은 색 커튼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커튼 정중앙에 커다란 목조 십자가가 하나 매달려 있었는데 상당히 입체감이 있어 보였다. 그 때문인지 바라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묵중한 느낌이 들었다. 목사는 감색 양복에 요즘 유행하는 흰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마흔 네댓 쯤 되 보였지만 권위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았다. 목사 오른쪽 옆으로는 풍금같이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며 피아노 옆에는 피아노와 같이 제조된 것 같이 느껴지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졸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긴 의자가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정확히 양쪽으로 세 개씩 길게 늘어져 있었다. 긴 의자에 앉아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십 여명이 채 안되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막상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작거나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리고 양쪽 벽면을 하나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조잡한 샷시로 마감이 되어있는 창이었고 창문의 벽은 사분의 삼을 차지 할 정도로 크고 시원하게 빠져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창밖 옆 건물인 모텔의 벽면이 또렷이 보였다. 모텔 벽면을 보며 난 잠깐 지난 생각에 사로잡혔다.

화장실이 급해 이 교회로 뛰어들던 날 나는 창규, 남선이라는 친구와 함께 주먹구이집에서 만났었다. 연탄불에 주먹구이를 올려놓고 잔에 소주를 채우자마자 창규는 단숨에 잔을 비워냈다. 그리고는 고추 한 조각을 집어 우걱 씹어대며 내게 두 번째 잔을 내밀었었다. 난 말없이 창규의 잔에 소주를 따르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나도 한잔을 깨끗이 비워냈다. 창규는 거푸 잔을 비웠고 남은 고추를 우걱우걱 씹기 시작했다.

"야, 천천히 마셔"

남선이는 창규의 잔에 술을 채우기 위해 내 앞에 놓여있던 술병을 집어 들며 말했다.

"미친년, 죽여 버리고 싶다"

창규는 남선이가 따라주는 술잔을 비우며 거친 말마디와는 다르게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나는 창규의 넋두리가 벌써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창규는 벌써 같은 이야기를 남선이와 나에게 열 번도 넘게 되풀이하는 중이었다. 애선이와 헤어진 뒤로 우리

는 창규를 위해 이렇게 날마다 폭음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조금씩 지쳐가는 중이었다.

"그래 그 미친년 이제 그만 좀 잊어라. 네 마음 이제 좀 그만 후벼 파고 응?"

남선이는 술잔을 매캐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연탄불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다시 뭔가에 이끌리듯이 잔을 들고 한잔 더 마셨다. 창규는 술잔 대신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집어 올리더니 먹음직스러운 주먹구이 한쪽을 오물오물 씹어댔다. 속이 어지간히 쓰리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창규의 위장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그래 잊어버려 애선이가 너한테 했던 걸 생각해봐 분하지도 않아"

난 창규의 위장을 계속 떠올리며 건성으로 말했고 아마 그것은 이제 곧 구멍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규는 말없이 다시 술잔을 비워냈다. 아마 몇 병 더 먹지 못하고 우리는 자리를 옮길 것이다. 애선이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만났던 첫째날을 빼고 우리는 같은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일차로 삼겹살집 아니면 주먹구이집 같은 곳에서 소주를 세병정도 마시고 이차로 노래방으로 가서 생맥주를 시켜놓고는 슬픈 노래를 한 열곡쯤 부르다가 도우미를 불러 세상이 끝나 버린 것처럼 놀아 대고 나면 우리의 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그 후로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가 다음날 다시 헤쳐 모인다. 어느덧 우리 셋은 이 시간표에 익숙해져 있었다.

가끔 난 애선이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실은 술을 마시며 미쳐버리고 싶은 것은 나였기 때문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산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난 그걸 이제야 깨닫고 있는 중이었다.

"애선이가 임신을 했어. 애를 낳고 싶다고 바득바득 우겨대드라고……. 그런데 난 두려웠거든 난 두려웠어. 그래서 가차 없이 지우자고 말했는데……."

창규는 술잔을 힘없이 내려놓으며 촉촉이 젖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마무리에 오고 있었다. 오늘은 창규가 빨리 취했거나 연일 이어지는 녹녹치 않은 일정 때문에 힘들어서인지 이야기가 많이 건너뛰는 중이었다. 술자리가 빨리 끝나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난 좀 빠르게 술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려움……. 좃 같은 두려움……."

창규는 내려놓던 술잔을 다시 들고는 연극배우 같은 대사를 읊조리더니 눈물과 술을 함께 태워 입안에 털어 넣었다.

이제 '내가 연락했더니 이 미친새끼야 연락 좀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대목만 나오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창규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대략 이렇다. 한 달 전 애선이가 – 애선이는 창규와 이 년째 동거 중이었다 – 창원에 있는 언니집에 한 삼일 갔다 온다고 하더니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는 거였다. 그런데 갔던 날로부터 전화도 되지 않고 삼일이 훌쩍 지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열흘간을 끙끙 앓던 창규가 결국 창원으로 찾으러 갈 수 밖에 없었다. 간신히 예전에 한번 갔었던 기억을 더듬어 창원에 있다는 언니집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앞에서 애선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연락은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 언니집 앞에서 하룻밤을 샐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날 점심 무렵이 되서야 애선이가 나타나더란 것이다. 보름 사이에 애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변해버린 모습에 놀랄 사이도 없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창규에게 들려주었다. 지금 다른 사람과 교재중이고 곧 결혼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이야기에 창규는 정말 그 자리에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다. 그 후로 창규는 틈나는 대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애원도 했지만 늘 되돌아오는 이야기에 얼음같이 얼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보름 전에 미친새끼 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 후로 우리는 그의 이 난해한 연애사를 들으며 술을 먹는 중이었다. 난 술 한 병을 더 시켰다. 늘 그랬듯이 세 병정도는 채우고 싶었다. 세병을 채우지 않으면 왠지 오늘은 그냥 헤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조바심이 났다.

"내가 연락했더니 이 미친 새끼야 연락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창규는 마지막 술잔을 들었다. 그는 곧 가자고 할 것이다. 나는 빠르게 거푸 두 잔을 따라 마셨다. 남선이는 이런 나를 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난 남선이에게 씁쓸한 웃음을 흘려보내고 나서 방금 전에 들어와 앉은 옆 테이블을 넘겨다보았다. 사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서른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마주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남자는 황토색과 남색이 적당히 섞여 있는 남방에 곤색 기지바지를 입고 있었고 목과 팔목에 두른 체인모양의 굵은 금목걸이와 팔찌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는 시원스러운 물방울무늬의 원피스 차림이었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말려 올라갔다. 술잔을 들 때 보니 엄지손가락만 한 비취색 반지를 가운데 손가락에 끼고 있는게 보였다. 난 잠깐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디선가 어머니는 저 비취색 반지를 끼고 저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손으로 맞은 편 남자의 손목을 더듬을 지도 모른다. 난 적의에 찬 눈으로 사십대 남자를 노려보기 시작했고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걸 느꼈다. 아마 그때 창규가 가자라고 말

하며 일어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옆 테이블로 돌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진하기 전에 상황은 쉽게 끝이 나고 말았다.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사라지자 온몸에 힘이 터무니없이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난 맥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우리가 주섬주섬 일어나자 건너편에 앉아 있던 여자가 잠깐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난 약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어디로 가지?"

남선이는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멍하니 도로를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남선이가 응시하고 있는 도로를 보며

"오늘은 그냥 가자" 라고 말했다. 애초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빨리 마신 술 탓에 관자놀이가 심하게 뛰기 시작했고 방금 전에 쏟아냈던 알 수 없는 분노로 인해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쉬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창규는 쭈그리고 앉아 피우던 담배를 도로 쪽으로 튕겨내고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야, 가자"

창규의 모습은 밤거리의 음산한 정물처럼 흉물스러웠다. 우리는 말없이 창규가 잡은 택시를 탔다. '아저씨, 신안교로 가주세요'라고 창규는 우리의 두 번째 시간표를 시작했고, 남선이는 미친놈이라고 낮게 읊조리더니 고개를 창밖으로 돌려 버렸다. 난 아까 보았던 비취색 반지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비취색 반지는 어머니와 인생을 같이 한 장신구이지만 난 그걸 일년 전에야 알았다.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거실에 앉아 철지난 신문을 바닥에 펼쳐놓고 읽고 있을 때였다. 얼굴에 난 커다란 여드름을 손으로 살짝 쥐어가며 철지난 소식을 건성으로 읽어 내려가고 있을 때 내 눈을 사로잡는 기사가 있었다. 아마 해태 타이거즈가 연승중이라

는 기사였을 것이다. 이강철의 역투라는 소 타이틀을 속으로 읽어 내려가며 삼진쇼를 펼쳤다는 대목에서 잠깐 흥분을 했었던 것 같다. 손으로 만지고 있던 여드름이 톡 하고 터져버렸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에 선홍빛 피가 차올랐다. 나는 손가락에 묻은 피를 잠깐 동안 유심히 보다가 휴지를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어머니는 통화중이었다. 배를 깔고 누워 전화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옆얼굴은 늦은 햇살에 반사되어 낯설게 느껴졌고 뭔가를 긁적이느라 쥐고 있던 볼펜의 손가락 사이로 엄지손가락만한 비취색 반지가 위 아래로 흔들리는 게 보였다. 어머니는 느닷없는 나의 출현에 약간 놀란 얼굴이었지만 내가 화장지를 뽑고 돌아서자 다시 전화통화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 안 만난데, 오늘은 좀 그렇다는 거지"

문을 닫기 위해 돌아섰을 때 볼펜으로 뭔가를 긁적이고 있던 어머니의 손가락에 비취색 반지가 밑으로 길게 미끄러지는 게 눈에 들어왔고 난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같이 동고동락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그동안 난 잊고 있었지. 어머니의 유일한 장식품인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컸던 비취색 반지를. 휴지로 여드름을 짜내며 어머니의 낯선 얼굴과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믿기지 않던 통화음을 잠깐 떠올렸다.

어머니는 누굴 만나시려는 건가?

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로즈 노래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로즈 노래방은 우리의 두 번째 시간표가 시작되는 장소다. 벌써 보름째 하루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우릴 보자마자 좀 드러나게 아는 체를 하고 반가워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규는 박혜경의 '하루'로부터 시작해서 015B의 '그녀에게 전화 오게 하는 방법', 페이지의 '이별이 오지 못하게'를 차례대로 불러 대기 시작했다. 남선이는 마이크를 잡고 가끔 고음이 나올 때마다 따라 불러 주거나 애절한 코러스를 덧 넣어주고 있었고, 나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러대는 창규와 창규 너머로 보이는 화면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두운 실내였지만 창규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술은 그만 마시고 싶었지만 창규와 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맥주를 조용히 따라 한 모음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게 다 귀찮았을 뿐 아니라 모두 다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 밖에는 머릿속에 들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맥주를 두잔 쯤 마셨을 때, 창규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 여자 도우미들이 들어왔다. 보름동안 우리들 사이에 달라진 게 있다면 도우미들뿐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도우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까? 문득 의아해졌다. 내가 이런 상념에 젖어 있을 때 여자들은 능숙한 모습으로 각각의 옆에 앉아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다.

"오빠, 술 한 잔 따라줘"

내 옆에 앉은 여자는 짧은 반바지에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고동색 립스틱을 바른 삼십대 중반 가량의 여자였고,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지만, 스스럼없이 오빠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쳐다보며 술을 따랐다. 늘어진 가슴은 애를 댓명은 나았을 훈장처럼 보였고 아이들이 노곤한 모습으로 엄마를 기다리다 잠들지는 않았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건 그뿐이었다. 더 이상 변화하는 것도 변할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을 땐, 새벽 세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창규는 여

느 날과 다르게 우리와 같이 집에 가길 원했다. 다소 의아했지만 그건 우리의 시간표에서 벗어난 행위였기 때문에 남선이와 나는 한사코 동행하기를 거부했다. 창규는 말없이 하늘을 한번 치어보더니 곧장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남선이는 나에게 한잔 더 할까라고 건성으로 물었고 우리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나는 나중에 라고 짧게 대답했다. 남선이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는 간다라고 얘기하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렸다. 나는 좀 걷고 싶었다. 주변은 기차역과 시외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이라 대부분이 모텔 아니면 노래방과 술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그렇게 을씨년스러운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다. 한 참을 걷다보니 어느새 그 중심부까지 들어와 있었다.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머리가 계속 울렸고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커피 한잔을 먹고 싶었지만 그 흔한 자판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커피를 떠올리자 습관처럼 갑자기 요의가 찾아왔다. 그러나 근처엔 술집과 모텔들뿐이라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웠고 적당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네온으로 가득 찬 불빛들 때문에 적당한 어둠이 있는 장소를 찾기 조차 쉽지 않았다. 한참을 두리번대다 결국 모텔과 모텔들 사이에 있는 교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스러운 교회' 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어둠 속에 있는 세계였다. 난 어두운 복도가 시작되는 유리문옆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은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났고 그 때문에 먹었던 술이 다시 올라오는 것 만 같았다. 일을 보고 난 후 밖으로 나와 몇 번 헛구역질을 했으며 이런 곳에 교회가 있었나? 라고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런 곳에 교회라는게 있었을까 기묘한 느낌이 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치어다보았다. 하늘은 네온 빛 때문인지 그다지 어두워 보이지 않았고 달이 휘덩그렇게 빛나고 있는게 보였다. 창규는

아마 저 달을 아까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창규와 어머니와 달을 수평에 매달아 놓자 갑자기 네온 빛을 뚫고 흐르는 달빛 같은 외로움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외로움은 어깨에 늘러 붙어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털어지지가 않았다. 창규 때문인지 어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달 때문이었는지 까닭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멈출 수가 없었다. 난 낙타 같은 모습으로 고개를 늘어뜨리고 울기 시작했다.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이를 닦고 있을 때였다. 남선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난 의례껏 우리의 시간표를 떠올렸고 잠시 귀찮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야, 어떡하냐 어떡해 창규가 창규가 죽었어. 죽어버렸다고 미친놈이 죽었어."

창규의 음울한 부음소식을 전하는 남선이의 목소리는 촉촉이 젖어있었다. 난 눈물이 나지 않았다. 창규는 그 날 새벽 동맥을 끊었고 유언의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던 것이다. 그의 시신은 화장을 했다. 우리는 시신이 뿌려지는 관산 앞 바다에 당도하고 나서야 그 지루하고 끝없을 것 같던 시간표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남선이는 그날 밤 일을 떠올리며 자책했지만 그건 남선이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그렇다고 애선이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남선이도 나도 알고 있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을 내가 믿사오며……. 갑자기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읊어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경건한 울림이 되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주기 시작했고 잡스런 상념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팔십

삼페이지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겠습니다. 한 폭의 정물 같아서 울리지 않을 것 같던 풍금같이 낡아 보이는 피아노 반주가 울려 퍼지고 모두들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도 덩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 하늘의 별 …….. 이번엔 낮은 바리톤음의 목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했고 난 까닭모를 엄숙함에 두 어깨를 짓눌린 채 조금은 암울한 눈으로 목사를 쳐다보았다. 목사는 나와 눈이 잠깐 마주치자 늘 나를 봐왔던 사람처럼 잔잔한 미소를 내게 띄어 보냈다. 그 미소를 보자 갑자기 동네에 잘 아는 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터무니없는 친근감을 느끼며 조용히 따라 웃어 보였다. 마음속에 오랜만에 웃음이란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한 것처럼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찬송이 아직 채 끝나지 않았지만 헌금함이 돌았고 난 기꺼이 만원짜리 지폐를 꺼내 헌금함에 넣었으며, 곧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 오셨나 보죠?"

아까 봤던 삼십대 초반의 남자가 내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네"

난 짧게 대답하며 그 남자의 넥타이를 보았다. 목울대를 심하게 조이고 있는 넥타이는 유행을 한참 지난 갈색 풍이었고 어제 혹은 며칠 전에 먹었던 국물이 떨어져 얼룩져 있는 게 보였다. 난 그 얼룩이 어떤 재료의 것이었는지 궁금했다.

"반갑습니다. 전 이 교회 전도사인 최광수라고 합니다."

그가 느닷없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나도 얼떨결에 엉거주춤 일어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보다 차가운 손이었다.

"목사님을 한번 뵙고 가시죠.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건데……."

난 말없이 성경책을 챙겨들고 단상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목사님실은 이층입니다"

전도사는 빠르게 말했고 나는 돌아서 전도사를 보았다. 그는 얼굴가득 웃음을 띄웠지만 목사가 보여줬던 미소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다.

나는 전도사의 뒤를 따라 예배당을 나왔다. 예배당 바로 옆으로 이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있었고 꺾어지는 층계참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로마서 8:6)' 라는 구절이 적혀 있는 붓글씨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난 평안이란 글자가 마음에 들었다. 평안이라 평안 이라며 속으로 읊고 있을 때 전도사가 말했다.

"이 교회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도수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누가 전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로 오셨겠지 만요"

난 집과 멀기 때문에 왔다고 말하려다가 말았다.

"도시 사람들은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걸 잘 모르지요. 그리고 이런 말 하기는 좀 뭣하지만, 여기 나오시는 신도 분들께서도 누굴 전도하는데 그렇게 열성적이지 못한 분들이라 늘 그만그만하답니다."

"한적해서 전 좋던데요."

성경책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꾸어 들며 내가 말했다. 전도사는 약간 시니컬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여깁니다."

전도사는 걸음을 멈춘 채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네 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은 낯익은 목소리였다. 전도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난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정확히 보조를

맞추며 안으로 스며들었다. 목사실은 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창문이 하나 나 있었고 그 바로 밑으로 사무용 철제 책상과 일단으로 놓인 책꽂이가 있었으며 책상 바로 앞으로 각진 사각형 테이블과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도록 놓인 소파가 있었다. 나는 전도사가 손짓하는 대로 소파에 가 앉았다. 소파는 인조비닐 같았고 오래되었는지 군데군데 상처가 나있어 조금은 흉물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목사는 내 앞 자리에 앉아 얼굴에 잔뜩 잡히는 주름으로 웃음을 흘렸다. 아까 봤던 미소였고 마음 안에 훈훈한 봄바람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전 나가서 이부예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도사는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하고는 나가 버렸다. 가까이서 보니 목사는 생각보다 더 늙어 보였다. 웃을 때마다 얼굴 가득 잡히는 주름은 그가 많이 웃는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층계참에 써있던 글귀처럼 평안해 보였고 아까 느꼈던 훈훈함은 바로 평안 때문인 것 같았다.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목사는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말했다. 난 네라고 짧게 말했고 목사는 자리에 일어나 내 뒤편으로 걸어갔다. 뒤편엔 조그만 커피포트와 종이컵과 일회용 녹차와 커피가 담겨있는 분홍색 통이 있었다.

"일회용 밖에 없어서 …….. 녹차와 커피가 있는데 형제님께서는 뭘 좋아하실지"

난 번거롭게 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럼, 녹차로……."

목사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는 티백을 찢어 종이컵에 담았다. 목사실도 예배당처럼 건물 벽에 둘러싸여 어두웠고 아까부터 받았던 그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나는 목사가

내 앞으로 종이컵을 받치고 앉았을 때, '수도원'이라는 단어를 가까스로 생각해 냈다. '이곳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수도원 같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나자 이제까지 이곳에서 받았던 모든 인상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누구 아시는 분의 전도로 오셨나요?"

난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은 별로 느낄 수가 없었다.

"아뇨, 그냥 며칠 전 근처를 지나가다가 알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허, 이 도시사람들은 이 교회를 잘 모르지요"

목사는 전도사와 같은 말을 되 뇌였다.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형제님처럼 우연찮게 오신 분들 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녹차를 먹었기 때문인지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듣느라 담배를 피우지 못했기 때문인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었으나, 차마 담배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 보진 못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이신가요?"

난 담배 생각으로 조금 흐리멍덩해져 있었다.

"네, 교회는 처음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외람된 질문이지만 어떻게 교회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보통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거나 지치거나 힘들 때만 신을 찾는 오만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곤란하시면 말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난 담배 하나 피워도 되겠냐고 말했다. 목사는 잠깐 당혹스러워 했지만 다시 얼굴 주름을 잡아냈다.

"허, 물론 성경에서는 절대 금지지만 여긴 가나안이니까요 허허"

목사는 유독 절대란 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난 개의치 않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목사 말대로 가나안이 뭔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긴 가나안이 아닌가? 그리고 담배를 꺼내 물자 교회가 아니라 왠지 심리 치료실에 상담을 받으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나안 심리 치료실.

"실은 아버님께서 불교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좀 엉뚱하다고 생각됐는지 목사는 고개를 잠깐 왼쪽으로 돌려 문 쪽을 쳐다보더니 말했다.

"불교를 찾기 시작했다는 건 아버님께서 어렵거나 곤란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집에 문제가 있으세요? 이런, 제가 주제넘게 질문을 했군요"

목사는 무릎을 소리 나게 쳤다. 난 별로 곤란하진 않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외출이 잦아 진건 삼년 전부터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의 외출이 잦아 졌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정년을 하고 나서는 낚시로 소일거리를 하고 계셨다. 몇 번 낚시터를 따라 갔다 온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이 낚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로는 아버지 혼자 낚시를 다니셨다. 난 군대를 갔다 온 뒤로 구멍 난 학점을 메우기 위해 굉장히 바빴었다. 방학 때도 계절 학기를 듣느라 학교에서 방학 대부분을 보냈다. 그리고 올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새벽까지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던 어머니를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와 나는 각기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지만 아버지는 낚싯대를 마른 수건으로 닦던 중이었고 난 그 옆에 길게 누워 코미디 프로를 보던 중이었다. 한 참을 웃어대다 눈물까지 찔끔거릴 때 쯤, 어머니는 돌아왔다. 그러나 그냥 돌아오신 게 아니었다. 얼굴과 팔에 유리컵만한 멍을 가지고 돌아오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피곤해하며 들어오는 어머니의 모습

에 경악을 했지만 정작 본인만은 아주 평온한 모습이었고, 곧장 안방으로 향하더니 커다란 여행용 백에 옷가지들을 싸기 시작했다. 따라 들어갔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함소리가 메아리처럼 거실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난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알아버린 임금님귀의 이발사처럼 어머니의 치부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안방문을 소리 나게 닫고 나오시더니 닦고 있던 낚싯대를 무시무시한 힘으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어머니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다. '날 용서하지 마라.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머니는 짐을 싸고 안방을 나오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처럼 멍하니 그 쇼를 다 지켜보았다. 그 후에 아버지는 소주를 놓고 나와 앉은 자리에서 연예계 뒷이야기를 하는 기자처럼 어머니의 행적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는 삼년 전 헬스클럽에 다니다가 그 남자를 만났다. 처음엔 서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술 한 잔씩 하러 다니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 때 외로움이 많던 시기였다. 아버지는 낚시터를 전전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나는 나대로 학점을 메우느라 바빴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바빴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비어가던 마음속으로 그 남자가 채워져 왔고 어머니는 그 남자와 함께 하는 일상에 점점 익숙해 졌던 것이다. 어머니가 유리컵만한 멍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던 날은 이십오년전 아버지와 함께 일생을 보내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 남자와 남은 일생을 함께 하기 위해 그 남자의 아내를 찾아갔던 것이고 영광의 상처를 입었지만 끝내 승리를 쟁취했던 것이다. '차마 간통으로 고소할 수도 그 남

자를 찾아 갈 수도 없었단다. 넌 이해하겠지'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끝맺었지만 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목사는 점점 놀라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그 놀라움의 표정은 목사의 평안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해 보였다.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형제님,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좀 심드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목사는 다시 예의 그 주름을 얼굴 가득 잡으며 말을 이어갔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도움이란 단어는 약자들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두 분께서는 다 의로운 오른손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셨네요. 어머님께서는 그 의로운 오른손을 다른 분에게서 찾으셨는데, 아버님은 아직 찾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뻗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심이 크셨지 않았을까요?"

목사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을 마쳤다. 난 뭔가로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나에게 의로운 오른손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창규는 ……. 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창규는 나에게 남선이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달라고 그날 애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선이도 나도 심지어는 애선이도 모

두다 죄인이었던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우린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일까? 목사는 가만히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기 시작했다. 난 왜 술집과 모텔들 사이에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나안의 의미도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의로운 오른손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나안. 아버지와 어머니와 창규에게 필요한 건 가나안이었던 것이다.

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궁극적 구원이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이 소설은 시작되었다. 난 그걸 사람과 사람이 만나 빚어내는 '관계' 안에서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성급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난 좀 더 고민해볼 생각이다. 관계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천천히 그러나 꽤 진지한 모습으로…….

다른 문門을 찾다

‘그럼 도대체 왜 다른 날도 아닌 오늘로 돌아온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뜬구름 잡는 기분이었다.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정호는 2호실로 들어가 문석이 옆에 앉았다.





광명 남초교 _ 김경수

다른 門을 찾다

정호는 어디선가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누구의 시계에서 나는 소린지는 몰랐지만 한참 울리는데도 알람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더 자려고 했지만 소리가 너무 컸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자신의 머리 위에서 울리고 있었다. 손을 뻗어 더듬어보자 뭔가 뭉툭한 물건이 잡혔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이 물건만 빛을 내뿜고 있었다. 눈이 부셨지만 찡그려가며 그 빛을 쳐다보았다. 빛나는 것은 액정이었고 그 물건은 휴대폰이었다. 정호는 벌떡 일어나 방 불을 켜고 휴대폰을 다시 봤다. 자신이 몇 년 전에 사용했던 휴대폰과 같은 모델이었다. 저장된 전화번호들을 확인해 봤다. 정호의 가족,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방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TV, 옷걸이 등이 그때 그대로였다. 정호는 방 창문을 열고 아침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얼굴을 세게 꼬집었다. 아팠다. 다시 방안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누가 방 안의 물건들을 옛날 물건으로 바꿔 놓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다른 물건들은 가능하다고 해도, 본인이 자는 방의 장판을 갈고 도배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과거로 온 거야?'

미칠 노릇이었다. 일단 현실이라고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지 알 수가 없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정호는 책상위에 펼쳐져 있는 책을 집어 들었다. '한국사 개설'이라는 강의 교재였다. 이 강의를 대학교 1학년 때 수강했던 기억이 났다.

'대학교 1학년이면, 음…… 2000년이다. 그럼 내가 8년 전으로 돌아온 거잖아.'

정호는 책상 옆에 놓인 가방을 열어봤다. 당연히 강의 교재도 있었지만 그 외에 세면도구, 반바지 그리고 비닐봉지에 쌀이 들어 있었다. 이상했다. 어떤 생각이 들어 휴대폰으로 날짜를 확인했다. 5월 12일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책상위에 놓인 탁상달력을 보았다. 12일에 '총MT – 남이섬'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메모를 본 정호는 비로소 자신이 왜 과거로 돌아 왔는지 알 것 같았다.

'최성희!…… 오늘 성희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총MT 날인 오늘로 돌아온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면 오늘 일 필요가 없으니까.'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다. 확실히 두 분은 조금 젊어 보였다. 정호를 본 어머니가 말했다.

"깨우려고 했는데 일어났네. 어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예, 먼저 씻고요."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있었다. 곧 여동생 영선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화장실에서 나왔다. 오래간만에 동생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자 감회가 새로웠다. 정호가 말없이 계속 쳐

다보자 영선이 말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아니, 그냥 예뻐서."

"오늘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냐?"

영선은 식탁으로 갔고 정호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화장실 거울을 보고 자신도 어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웃음이 났다. 잠시 후 식사가 준비되자 바쁘게 아침을 먹은 후, 어머니만 남고 아버지는 회사로, 정호와 영선은 학교로 출발했다.

정호는 오래간만에 버스, 전철 그리고 스쿨버스를 갈아타며 힘들게 수원에 있는 A대학교에 도착했다. 가방 앞주머니에 학생수첩이 들어 있었다. 강의 제목과 강의실 번호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표에 맞추어 적혀 있었다. 1교시 '서양사 개설' 강의가 있는 인문관 203호실로 갔다. 40~5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작은 강의실에 사학과 1학년 학생들이 북적거렸다. 정호는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그림을 보듯이 강의실 안의 모습을 잠깐 감상했다. 특히 성희를 보았다. 성희는 교실 중간쯤에 앉아서 옆에 앉은 선숙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심장이 또 요동치기 시작했다. 성희의 화장 안 한 풋풋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의지가 불타올랐다.

'성희야, 오늘 밤에 다시 한 번 부탁할게.'

정호는 곧 강의실로 들어가 창가 뒷자리에 앉은 문석과 인사하고 옆자리에 앉았다. 정호와 문석은 대학에 입학하고 곧 친해진 동기다. 이때 강의실 앞에서 1학년 과대표인 재훈이 소리쳤다.

"주목, 잠깐 주목해 주세요! 오늘 총 MT를 가는데 오후 강의까지 다 마치고 가면 목적지인 남이섬에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어제 우리

과 학생회장님과 각 학년 대표들이 모여 오후 수업을 빼 달라고 교수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교수님들이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교시 강의가 끝나면 곧 바로 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으로 모여주세요. 점심은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먹으려고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먹는다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버스 정류장으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대의 버스로 가게 됩니다. 우리 1학년들도 1조와 2조로 나뉘어져 탑니다. 지금부터 각 조에 배정된 이름을 부를 테니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재훈은 빠르게 이름들을 말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정호는 2조였다. 문석과 성희도 2조였다.

곧 교수님이 들어와 강의가 시작되었다. 오래간만에 강의를 듣는 기분이 좋았다. 정호는 교수님들과 친분을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졸업 후에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보는 교수님도 반가웠다. 강의 내용도 귀에 잘 들어왔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게 답답했는지, 강의가 시작할 때부터 수업 종료 벨을 기다리기도 했었다. 등록금 비싼 줄 모르는 철없던 때였다. 2교시는 '세계문화사' 시간이었다. 이 여교수님은 역시 열정적이었다. 듣는 학생들도 재미있지만 교수님 스스로도 신이 나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았다.

3교시에는 강의가 없었다. 그래서 정호는 성희에게 말을 한 번 걸어볼까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문석이 다가와 말했다.

"야, 빨리 가자!"

정호는 어디를 가자는 건지 몰랐다.

"가다니, 어딜?"

"어디긴 어디야, 당구장이지. 알면서 장난 치냐?"

정호와 문석, 그리고 같은 동기이자 당구멤버인 준영과 승배, 이렇게 넷이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당구장으로 뛰어갔다. 1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왕복시간을 줄여야 했다. 네 명의 당구 실력은 모두 '80'으로 초보 수준이었다. 하지만 막 재미가 붙은 상황이라 열정만은 대단했다. 이 멤버들은 나중에도 가끔 만났는데, 몇 년 후에는 '300'의 실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호는 친구들과 같이 '80'의 실력인 것처럼 봐주면서 당구를 쳐야 했다. 시간관계상 결승을 가지 못하고 단게임으로 끝내야했다. 승배가 당구 요금을 계산하면서 내일 MT 다녀오면 다시 한 번 붙자고 씩씩거렸다. 그리고 4교시 영어수업을 들었다.

4교시 강의가 끝난 후 과대표 재훈이 앞장서서 1학년 모두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2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주변은 굉장히 붐볐다. 사학과 전체 인원은 학년 당 40명으로 총 160명이었는데, 이 중 총 MT에 가는 인원은 82명이었다. 갑자기 '삐익!'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크게 들렸다. 3학년 남학생인 사학과 전체 회장이 손을 흔들며 시선을 모았다. 그 옆에는 2학년 여학생인 부회장이 서있었다. 회장이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 밖에 서 있으면 인원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단 모두 버스에 올라타 주시기 바랍니다. 1조는 앞차, 2조는 뒤차에 타주세요. 앞 차에는 부회장이 타고 뒤차에는 제가 타서 인원수를 확인할 겁니다. 빨리 출발해야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모두 버스에 탔고 곧 출발했다. 출발하자마자 학생들은 같이 앉은 앞, 뒤, 옆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3·6·9 게임을 포함한 각종 오락을 즐기며 왁자지껄 소란을 피웠다. 점심으로 1인당 1줄씩 김밥이 나누어졌다. 학생들은 지치지도 않았다. 2시간 넘게 가는 동안 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마 자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잘

수 없었을 것이다. 뒷자리에 앉은 정호도 이 분위기에 곧 적응하고 새내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재미있게 게임하며 놀았다. 성희도 앞에 앉아서 그 무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회장은 남이섬 선착장에 거의 다 온 것을 확인하고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잠깐 저를 주목해주세요. 이제 한 10분쯤 후에 남이섬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버스는 그 곳에 주차할 겁니다. 차가 도착하면 모두 한 줄로 내려서 옆 공터에 모일 텐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 지시를 잘 따라주시고, 절대 개인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터에 전 인원이 모이면 차례로 배를 타고 남이섬으로 들어갑니다."

버스 안의 학생들은 장난을 치면서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학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곳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섬의 이름이 왜 남이섬인지 아십니까?"

앞 쪽에 앉은 2학년 학생이 소리쳤다.

"남이장군요!"

"그렇습니다. 여진족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한 남이장군묘가 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남이장군은 세조 때의 장군으로 17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26세에 병조판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왕인 예종 때 유자광에 의해 역모를 꾀한다는 모함을 받고 28세의 나이에 억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나중에 복직이 되었습니다만, 그 복직된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350년 후인 순조 때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섬에 대해 더 말씀드리면 남이섬은 1967년부터 종합유원지로 개발되었는데, 1980년대에 최인호 소설 「겨울 나그네」를 영화로 촬영한 후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미리 조사해 온 것임에 틀림없는 내용들을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얘기했다.

버스 두 대가 남이섬 선착장에 주차했고 학생들은 그 앞 공터에 회장과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금은 어수선했지만 잘 모였다. 주변에는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고, 직장인들도 많이 와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많아서 배를 세 번에 걸쳐 나누어 타고 모두 남이섬으로 들어갔다. 남이섬 입구의 '남이섬'현판 아래서 단체사진을 찍고 길게 뻗은 잣나무 길을 지나자 예약한 숙소가 나타났다. 숙소 앞은 넓었고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일행들은 방에 짐을 내려놓고 숙소 앞마당에 모였다. 저녁을 먹기 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준비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일찍 식사준비에 들어갔다. 저녁 당번으로 정해진 학생들이 음식재료들을 씻고 썰고 하느라 바쁜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앞마당에서 2학년 오락부장 앞에 모였다. 식사당번들과 회장을 포함한 할 일이 있는 임원들은 모이지 않았고 복학생 선배들은 애들처럼 무슨 게임이냐며 공터 한 쪽으로 몰려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오락부장이 모인 사람들을 임의로 A와 B 두 팀으로 나누었다. 빠질 사람 빠지고 40명 정도가 모여서 20명씩 나누었다. 그리고 오락부장이 말했다.

"자, 지금부터 '꼬리잡기 게임'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팀이 서로 마주보고 길게 일렬로 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같은 팀원의 허리를 잡습니다. 그럼 두 개의 긴 인간 줄이 만들어 집니다. 각 줄의 맨 마지막 사람은 준비된 모자를 씁니다. 그 사람이 그 팀의 꼬리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선 사람이 상대팀 꼬리의 모자를 뺏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단순하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냥 게임만 하면 맨송맨송하니까

진 팀은 내일 아침 식사당번이 되겠습니다. 당번하기 싫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 마세요, 이기면 되니까요!"

게임이 시작되었다. 두 팀의 긴 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A팀 중간에 선 정호도 앞사람 허리를 잡고 같이 움직였다. 처음엔 느리던 움직임이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조금씩 빨라졌다. 두 줄이 서로 상대팀의 꼬리 쪽으로 향했다. 쫓고 쫓기는 상태로 원모양을 이루며 돌기 시작했다. B팀 머리가 A팀 꼬리를 거의 잡으려고 하자 A팀줄의 뒤쪽에 선 여학생들은 자신이 꼬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 여학생들은 앞 남자의 허리를 잡기가 조금 쑥스러워서 살짝 잡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앞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늘어졌다. 정호의 뒷사람도 3학년 여자선배였는데, 정호의 티셔츠 등 부분이 많이 구겨져 있었다. 정호는 B팀에 있는 성희를 보았다. 성희도 앞 사람의 옷을 마구 짓이기고 있었다. 모두 신이 났다. 공터 한 쪽에 모여 있던 복학생들도 게임하는 모습이 재미있게 보였는지 낄낄거리며 줄담배를 피워댔다. 첫 게임은 B팀의 승리로 끝났다. 과연 진 팀이 아침식사 당번이 된다는 말은 효과가 있었다. B팀은 환호했고, A팀은 두 번째 게임은 이기자고 결의를 다졌다. 두 번째 게임은 B팀이 방심한 사이 A팀이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시작되었다. 결승답게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꼬리들은 달아나기 바빴고, 머리들은 꼬리를 잡으려고 무리하게 전진했다. 그 덕분에 게임이 끝날 즈음엔 많은 남자들의 옷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정도까지 늘어져있었다. 정호는 이 게임을 의류회사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임은 A팀의 승리로 끝났다. 반바지만 준비해 온 정호는 걸레가 된 티셔츠를 그냥 입어야 했다.

저녁이 마련되었다. 넓은 방 두 곳과 앞마당에 음식을 차렸다. 모두들

배가 고팠다. 밥은 살살 녹았고, 각종 재료가 들어간 정체불명의 찌개들은 맛이 최고였다. 식사 후 배가 부른 학생들은 몇 명씩 모여 수다를 떨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회장이 앞마당에서 방에서도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식사 다 하셨죠!"

"예~!"

"지금이 7시입니다. 설거지 당번들은 서둘러서 정리해 주시고, 당번 아닌 분들은 좀 쉬다가 7시 30분까지 방으로 모두 모여 주세요! 다들 들으셨죠!?"

"예!"

방은 1호실과 2호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굉장히 넓어서 두 방에 전 인원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방과 방 사이의 벽에 넓은 미닫이문이 있어서 문을 열면 거의 한 방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잠시 후 학생들이 거의 다 모이자, 회장이 열린 문 가운데로 가서 섰고, 부회장은 위에 구멍이 뚫린 작은 종이상자 두 개를 들고 회장 옆으로 가서 상자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여러분, 모두 저를 봐주세요. 지금부터 '1대1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두 개의 상자 안에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한 쪽에는 남자들 이름이, 다른 쪽에는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한 장씩 꺼내서 이름을 부르면 그 둘이 짝이 되는 겁니다. 저희 임원들이 회의할 때, 주로 남자들이, 같은 남자하고 짝이 되면 차라리 안하겠다고 해서 남녀가 짝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남자가 더 많아서 마지막에 남은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짝이 정해지면 둘이 밖으로 나가서 서로에 대

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시간 드립니다. 9시까지 이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한 커플이 늦게까지 안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뭘 하느라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되니까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모두 짝이 정해져서 밖으로 나갔다. 여학생이 부족해서 짝을 정할 수 없는 남자 다섯 명이 남았다. 이 중에는 정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한 시간 동안 임원들을 도와 한 시간 후에 있을 뒤풀이 준비를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준비하는 사람들 절반은 방 안의 가방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기로 했고 나머지 반은 준비해온 술과 안주를 방 안에 적당한 간격으로 깔아놓기로 했다. 정호는 접시에 안주 담는 일을 했다. 오징어와 땅콩은 기본이었고, 여러 가지 과자들을 조금씩 나누어 접시에 담았다. 일은 단순했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준비해야 할 접시가 많았다.

9시엔 이미 뒤풀이를 위한 술과 안주가 마련되어 있었다. 밖에 나갔던 학생들도 하나 둘 들어와 잠시 후엔 방 안에 모두 모였다. 회장이 가운데로 나가서 말했다.

"대화들 많이 나누셨어요? 아직 안 들어온 사람 없죠? 그럼 각자 앞에 있는 컵에 술을 채워 주세요. 채우셨으면 다 같이 건배합시다. A대 사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우렁차게 외쳤다.

"위하여!!!"

정호도 술잔을 들었다.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며 속으로 기원했다.

'나와 성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정호는 성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왜냐하면, 상황을 관찰하기에 더 좋았기 때문이다. 성희는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음료수만 홀짝거리며 동기, 선배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호가 빈 잔을 앞에 놓은 채 아무 말도 없이 멍하게 있자, 문석이 맥주를 따라주면서 말했다.

"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오늘 계속 그러던데, 무슨 일 있냐?"

"아니, 그냥 좀 생각할게 있어서……."

"뭔데, 말해봐. 비밀이야?"

정호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었다. 뭐라도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둘러댔다.

"비밀은 무슨……. 별거 아니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 자, 술이나 들자."

문석은 더 묻지 않기로 했는지 술을 마시며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둘이 당구 얘기와 친구들 얘기로 떠들고 있는데, 2학년인 윤미 선배가 둘 앞에 자신의 술잔을 들고 와서 앉았다. 윤미는 방금 전 '대화의 시간'에 문석이의 짝이었다. 윤미가 말했다.

"문석이 너, 아까 나랑 짝이 돼서 얘기할 때 그랬지? 뒤풀이 시간에 같이 한 잔 하자고. 남자가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니야. 하늘같은 선배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야겠어?"

문석이가 미안해하며 대답했다.

"누나, 금방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진짜에요."

"거짓말 마, 너 찍혔어."

윤미는 문석과 정호를 보고 계속 말했다.

"그나저나 너희 둘은 매일 붙어 다니면서 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냐?"

문석이가 대답했다.

"그냥 당구 얘기 했어요. 저희가 요즘 당구치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누나도 당구 칠 줄 아세요?"

"아니, 못 쳐. 치고 싶어도 누가 가르쳐 줘야 말이지. 난 포켓볼보다 남자들이 주로 치는 4구 당구를 배우고 싶은데. 말 나온 김에 너희들에게 부탁 좀 할까? 언제 시간 되면 당구 좀 가르쳐 줄래? 그 대신 그날 저녁 쏠게."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죠. 게다가 저녁까지 쏘신다면 언제든지 대 환영이죠. 정호야, 그렇지?"

줄곧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정호를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문석이 묻자 정호가 대답했다.

"어?…… 아…… 그럼요. 저희도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아는 만큼 가르쳐 드릴게요."

윤미가 신나서 말했다.

"좋아, 약속했다."

정호는 또 다시 생각에 빠져서 멍하게 앉아 있었다. 문석과 윤미는 정호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술잔을 부딪치기도 했지만 계속 다른 생각에 빠져 있자, 더 이상 정호에게 신경 쓰지 않고 둘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정호는 성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8년 전에도 성희가 저렇게 예뻤었나? 그 때 나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성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겠지. 아마 그때 난 문석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을 거야. 그리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벤치에 갔었나? 그런 것 같은데……'

정호는 그날의 일을 기억해 내려고 애썼다. 그러자 장면 장면들이 사

진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8년 전 뒤풀이 시간에 정호는 문석과 얘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너무 취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밖에 나갔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술을 좀 깨고 싶어서 숙소 앞 부근을 거닐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있을 때 숙소에서 좀 떨어진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다가가 보니 성희가 술에 취해 고통스러워하면서 앉아있는 것이었다. 정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성희에게 다가갔다.

"너 괜찮아?"

성희는 머리가 아픈지 계속 두 손을 머리에 대고 있었다. 정호가 다시 물어보려고 할 때 성희의 몸이 정호에게 기울어졌다. 본의 아니게 성희와 포옹 비슷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몸을 뺄 수도 없었고 그대로 있기도 민망했다. 하지만 성희를 안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서 민망한 마음이 야릇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성희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도 너무 좋았다. 평소에 성희가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냥 거기까지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자신의 품안에 안겨있는 것이다. 정호는 술기운에 대담해졌다. 힘없이 자신의 가슴에 묻힌 성희의 얼굴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올렸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갰다. 그런데 이때 성희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호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성희는 점점 적극적으로 정호에게 키스하기 시작했고 정호도 기꺼이 감사하며 그녀에게 응했다. 둘은 그렇게 긴 키스를 했다. 정호는 너무 황홀해서 이 키스가 멈추지 않기를 바랐다. 나중에는 입술에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성희가 입술을 정호에게서 급하게 떼었다. 정호가

눈을 뜨고 보니 성희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성희는 지금의 이 상황이 꿈인 줄 알았다. 꿈속에서 누군가와 기분 좋은 키스를 한 줄 알았는데, 이것은 꿈이 아니었고 상대는 다름 아닌 정호였던 것이다. 성희는 벌떡 일어나 뒤돌아서 숙소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우스꽝스럽게 뛰어갔다. 정호는 쫓아가지 않았다. 좋은 방법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성희는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어지럽고 속이 아파서 거의 점심때까지 누워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겨우 일어나 콩나물국 국물을 조금 마실 수 있었다. 정호는 성희가 누워 있는 동안 안절부절 못했다. 성희가 어제 일로 화를 낼까 걱정했고, 그 보다 어제 일을 아예 기억하지 못할까봐 더 걱정되었다. 하지만 성희가 점심때 일어나면서 기억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사라졌다. 성희가 정호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기 때문이다. 정호는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성희가 눈길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방 안에 있어야 했다. 어제 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람들은 계속 잠을 잤고 일어난 사람들은 어제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을 정리했다. 점심식사 후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모두 짐을 챙기고 선착장으로 향했다.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부분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비가 와서 그런지 정호의 마음은 더 착잡해졌다. 성희는 다른 두 명의 여학생들과 한 우산을 쓰고 걸어갔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즐거워 보였다. 모두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빠르게 버스에 올랐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성희는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정호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하고 게임하면서 왔지만 속은 계속 타들어갔다. 오후 5시쯤 버스 두 대가 A대 스쿨버스 정류장에 도착했

다. 회장이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마이크를 들고 얘기했다.

"지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지시에 잘 따라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비가 오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는 따로 모이지 않고 바로 헤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말을 마치자 버스 문이 열렸고, 학생들이 차례로 내렸다. 집에 갈 사람들은 정문 밖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그냥 가기 아쉬운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스쿨버스 정류장 천막 밑에 모였다. 성희는 정문 밖을 향해 걸어갔다. 정호는 성희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따라가려는데 문석이 정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야, 어디가? 시간도 있는데 당구 한 게임 치고 한 잔 마셔야지."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좀 가야겠다. 내가 상황 봐서 전화 할게. 먼저 치고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미안, 나중에 알려줄게."

정호가 정문 쪽으로 뛰어가자, 문석은 준영과 승배가 기다리고 있는 천막으로 갔다. 성희는 같은 동기인 선숙과 정문을 지나고 있었다. 정호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서, 크게 마음먹고 뒤에서 불렀다.

"성희야, 잠깐만."

둘 다 정호를 돌아보았다. 성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정호가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할래?"

정호가 성희에게 용건이 있다는 것을 알자, 선숙은 먼저 가겠다고 했다. 성희도 정호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숙을 잡지 않고 보냈다.

둘은 정문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콜라 두 잔을 시키고 마주 앉았다. 정호가 콜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이대로 집에 가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널 붙잡았어. 어제 일에 대해 너하고 얘기 싶어서."

성희는 정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들어보자는 생각이었다. 정호는 계속 말했다.

"어제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 핑계 같지만 나도 취했기 때문에 먼저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중간부터 너도 적극적이어서 내가……"

성희가 말을 끊었다.

"잠깐만, 내가 적극적이었다고?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 난 어제 기억이 거의 안나. 내가 기억하는 건……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네가 나에게…… 네가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였어. 그리고 난 너무 놀라서 다시 방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다른 기억은 없어. 아무튼 내가 적극적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정호가 말했다.

"내가 어제 일을 말해줄게. 시작은 내가 먼저 했어. 하지만 난 단순히 입을 대기만 했고, 진짜 키스를 시작한 건 너야. 너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면,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눈을 떴을 때 그렇게 놀랐겠지."

"그러니까, 어제 일이 너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정호가 답답해하며 급하게 대답했다.

"아냐! 그런 게 아니야. 넌 지금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제의 일을 그저 술 마시고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끝내고 싶

지 않다는 거야."

정호는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했다.

"난…… 너랑…… 친한 친구, 아니 아니, 친구는 절대 아니고, 네가…… 싫지만 않다면 나의…… 여자가……"

"킥킥."

성희는 정호의 말 더듬는 모습을 보고 웃고 말았다. 성희가 웃자 정호는 용기가 생겼다.

"나 너랑…… 사귀고 싶어. 그래 줄래?"

성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싫은 건 아니지만, 꼭 어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귀는 것 같아서 확실히 결정을 못하겠어.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정호는 거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대답했다.

"얼마든지!"

성희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둘은 이날부터 사귀게 되었다. 둘은 성격도 잘 맞아 얘기를 하면 즐거웠고, 주말이면 항상 테이트를 즐겼다.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그저 보통의 사랑싸움에 지나지 않았다. 2학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되면서 정호는 군대를 갔다. 이때까지도 둘은 한마음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둘이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정호와 성희 스스로도 결혼할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데, 성희는 오히려 정호에게 신경을 더 많이 써줬다. 편지도 자주 보내고, 면회도 시간만 허락하면 갔다. 그런데 이런 둘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습게도 성희가 아닌 정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부턴가 성희의 편지가 기다려지지 않았고, 성희의 면회가 달갑지 않았

다. 이런 무덤덤한 마음이 점점 지겨움으로 번져갔다. 급기야 정호는, 성희도 둘의 관계에 지겨움을 느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았다. 그런 모습이 정호를 더 고민에 빠지게 했다. 성희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다.

정호는 더욱 심해졌다. 아예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도 했다. 이미 정호의 마음은 성희를 떠난 것이었다. 단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런 말을 할 적당한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비록 아직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성희에 대한 마음을 접고나자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정호가 상병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같은 내무반에 있는 양은석 일병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명령 같은 부탁을 한 것이다. 양은석 일병이 정호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걸 안다고 말하자,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양은석 일병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대학교 동기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 여자는 정호보다 1살 어린 '유나리'라는 여자였다.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다가 서로 사진을 보여준 이후 전화통화도 하기 시작했다. 정호는 귀엽게 나온 나리의 사진을 보면서 흡족해 했다. 이 후 정호는 틈만 나면 나리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와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 하지만 성희에게는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군 생활에 적응해서 힘들지 않다며 면회도 오지 말라고 했다.

시간이 흘러 정호가 제대하고 3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성희는 졸업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성희는 '나리'라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호가 자신에게 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좀 무덤덤해 졌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권태기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성희는 사소한 일로 정호와 말다툼을 했다. 그런데 정호는 평소

와 다르게 필요 이상으로 날뛰며 화를 냈다. 이에 더 화가 난 성희도 이게 그렇게 까지 화낼 일이냐며 지지 않고 싸웠다. 결국 정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고, 성희도 흥분해서 그러자고 하고 각자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며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성희는 집에 오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호는 필요 이상의 말을 했고, 헤어지자는 말도 먼저 꺼냈다. 성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정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자 성희는 불안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겁이 났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해도 받지 않았다. 자신의 전화만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받았다. 성희가 말했다.

"나야, 왜 전화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너무하는 거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정호는 냉정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끝냈잖아.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전화해? 여기서 끝내자고. 나도 힘드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탁!"

정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성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날 다시 전화했을 때 정호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성희는 고통스러웠다. 이후로 상당히 오랜 시간 외롭게 고통을 이겨내야 했다.

성희와 헤어진 후 정호는 나리와 더욱 깊어 졌다. 정호는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고, 나리는 충남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며 그 옆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못 만났고, 주말에만 정호가 나리의 자취방으로 찾

아갔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둘은 서로의 육체에 깊이 빠져들었다. 주말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나리가 밖에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정호가 쓰레기통에 뭘 버리다가 그 안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발견했다. 꺼내서 들여다보니 짧고 굵은 수염이 조금 붙어 있었다. 정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 화도 났지만 성급해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했다.

'저건 분명히 남자가 며칠 안에 사용한 것이다. 물론 친구들이 방에 놀러올 수 있지만, 누가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쓸데없이 면도를 한단 말이야?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면도를 한다면 말이 된다. 그럼 누군가 남자가 이 방에서 자고 갔다는 얘기다.'

정호는 분노했지만 아직은 단지 심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면도기가 이 방 쓰레기통에 있을만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스스로를 자위했다. 하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좀체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정호는 주말에 나리의 자취방에 가게 되면, 그녀가 볼 일을 보는 동안 쓰레기통 뿐 아니라 방 전체를 뒤지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다 나리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통화기록에 정호 자신의 번호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일부러 지운 것이었다.

서울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잡념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전혀 공부가 되지 않았다. 정호는 나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가 볼 수 없도록 자신의 기록을 전화기에서 지운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남자의 기록도 정호가 볼 것을 우려해서 지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호는 이런 잡념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다. 평일에 나리의

집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기로 했다. 기차요금이 부담이 됐지만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은 최소한으로 들었다. 바로 월요일에 나리가 나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리의 자취방 입구에 그녀의 운동화와 남자의 운동화가 나란히 있었다. 정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더 지켜보았다. 자취방은 2층이었는데, 창문에 분명 나리와 어떤 남자가 한 번씩 모습을 나타내었다. 정호는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리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정호는 나리의 방전등이 꺼질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물론 그 남자는 가지 않았다. 정호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배신감 때문에 괴로웠다.

다음날 학교에 간 정호는 점심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나리에게 전화했다.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묻자, 친구들과 술 한 잔 했는데, 술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벨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나리의 거짓말을 들은 정호는 화를 냈다. 어제 자취방에 갔었다고 말하며 다그치자 잠시 말이 없다가 곧 다른 남자가 있음을 시인했다. 정호는 몇 가지 더 질문했고, 나리는 체념한 듯 질문에 순순히 답했다. 그 남자와는 정호를 알기 전부터 만나왔다고 했다. 나리는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리와 허무하게 헤어졌다. 헤어졌다기보다 정호가 떨궈져 나간 것이었다.

몇 달 뒤부터 정호는 이따금씩 소개팅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때로는 소개팅 상대 여자가 연락해 오기도 했지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된 후에 정호는 왜 그런지 알았다. 다른 여자들을 만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앞에 앉은 여자를 성희와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비로소 성희가 자

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알았다. 얼마나 고마운 여자였는지 깨달았다. 복을 스스로 걷어 차버린 것이다. 자신을 원망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성희가 너무 그리웠다. 딱 한번이라도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 안 나타나는 게 그녀를 도와주는 거란 생각이 정호를 더 괴롭혔다.

정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다. 학점도 좋지 않았고, 영어공부도 하지 않았으며,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2년 동안 때때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하지도 못하고 부모님 집에 계속 얹혀살았다. 바로 어제까지도 그랬다.

현실로 돌아온 정호는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한 모금 꿀꺽 마셨다. 그리고 더 이상은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다. 일을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성희가 앉아 있는 자리 쪽에서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났다. 성희는 손을 내젓고 있었고, 앞에 앉은 2학년 철민 선배가 맥주를 따라주려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결국 주변의 시선들이 자기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느낀 성희는 마지못해 술을 받았다. 철민은 MT에 와서 술 한 잔 안하면 무슨 재미냐며, 진작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며 웃었다. 성희가 술을 받는 것을 본 정호는 이제 그녀와 자신의 운명의 시간이 머지않았다고 판단하고, 문석에게 화장실 간다고 말한 후 방에서 나갔다. 정호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성희가 오게 될 그 벤치가 잘 보이는 굵은 나무 뒤에 숨어서 성희를 기다렸다. 성희는 앞으로 몇 잔 더 마실 것이고, 이 벤치까지 오는데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이었다.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낮에는 맑았는데 지금은 달도 가려져 있어서

많이 어두웠다.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이때 숙소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정호는 숨을 죽이고 몰래 그 곳을 응시했다. 조금 더 다가오자 얼굴이 보였는데 성희가 아니고 예비역 복학생인 정욱 선배였다. 정욱은 그 벤치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고 벤치 등받이에 등을 기댄 후 편한 자세로 연기를 내뿜었다. 정호는 불안해졌다. 성희가 오기 전에 정욱이 이 벤치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데 다행히 정욱은 담배만 한 대 피우고 다시 숙소로 향했다. 정호는 한 숨을 내쉬었다. 기다리는 것은 매우 초조한 일이었다. 시간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흘러갔다. 정호가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다. 30분 동안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좀이 쑤셨다. 성희의 상황이 궁금해진 정호는 숙소로 가보기로 하고 그 자리를 떴다. 마음이 급해서 달려갔다. 숙소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는데, 성희가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어디를 보아도 성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 나간거야, 젠장.'

정호는 다시 벤치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그 곳엔 아무도 없었다. 이 벤치로 오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었다. 혹시나 해서 화장실로 뛰어갔다. 여자화장실에서 여자선배 두 명이 나오고 있어서 물었다.

"혹시, 화장실 안에 성희 있어요?"

"아니, 우리 둘만 있다가 나오는 거야."

정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서 성희를 찾아야 했다. 다시 방으로 가서 성희가 앉아있던 주변 동기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다. 계속 윤미와 얘기를 나누던 문석이 정호를 보고 소리쳤다.

"야! 화장실 간다더니 어딜 갔던 거야? 빨리 와!"

정호는 대꾸 없이 방을 박차고 나와 숙소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숙소 바로 뒤편에 있는 벤치에서 성희를 찾았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해져 있었다. 성희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까 성희에게 술을 억지로 권했던 철민과 같이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예전처럼 성희는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호는 화가 치밀었다. 둘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때 철민이 성희의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그녀의 얼굴을 들어 입을 맞추려고 했다. 이 순간 정호는 와락 하고 달려들어 철민을 밀쳤다. 이 때문에 성희는 정신이 없는 채로 벤치위에 풀썩 쓰러졌고, 철민은 벤치 앞 땅바닥에 나둥그러졌다. 날벼락을 맞은 철민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정호는 성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보려 했지만 철민이 어느새 다가와 정호의 뒷덜미를 잡아 뒤로 잡아당겨서 정호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정호가 일어서려 하자, 철민이 먼저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치는 거야!"

밑에 깔린 정호가 말했다.

"성희는 내 여자야. 그냥 놔 둬."

철민은 기가 막혔다.

"뭐? 성희가 네 여자라고? 하하하! 정말 황당하구나. 성희는 남자친구가 없어. 어떻게 아냐고? 성희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찍었거든. 항상 지켜봐왔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지. 그런데 성희가 네 여자라고? 어디서 헛소리야. 그리고 너 지금 선배를 밀치고 건방지게 반말까지 하는 거야?"

정호는 철민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말했다.

"좋아, 네가 성희에게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겠어, 하

지만 저렇게 정신없이 취한 애한테 그러는 건 인정 못하겠다. 치한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

정호 자신도 그런 행동을 했고, 오늘 또 하려고 했지만, 이 순간 철민을 성희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철민은 정호에게 반박했다.

"잘 들어. 아까 방에서 술 마시다가 성희가 취한 것 같아서 바깥바람 좀 쐬어주려고 내가 잠깐 나가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여기에 데리고 나온 거야.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포옹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에게 안긴 상태에서 잠이 들었단 말이다. 이 정도면 성희도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아? 그래서 가볍게 입만 맞추려고 한건데, 이게 어떻게 치한 같은 짓이야!"

"오늘 그럴 작정으로 성희한테 술을 강제로 먹인 거냐? 아까 네 속셈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아냐?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그래 그랬다. 그래서 어쩔 거야.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너도 성희에게 관심이 많았던 모양인데, 평소에 아무 표현도 하지 않다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방해하고 지랄이야! 성희 앞에서 표현할 자신이 없으면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해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네가 한거야!"

"이 새끼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마지막 경고야, 한 번만 더 반말해봐, 아주 죽을 줄 알아!"

정호는 일이 꼬여서 심기가 뒤틀렸다. 그래서 막말이 나왔다.

"죽인다고? 죽여봐, 이 자식아!"

둘은 감정이 격해졌다.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다. 둘 다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맞아서 아프기보다 화가 더

났다. 한참을 둘이 부둥켜안고 바닥을 굴렀다. 그 때 갑자기 철민이 소리쳤다.

"앗! 성희가 없어!"

정호와 철민은 빈 벤치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소란스러운 틈에 정신이 조금 들어 자리를 떠난 것 같았다. 정호는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잘 못 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시 돌아온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도대체 왜 그 때랑 다른 거야?"

정호의 혼잣말에 철민이 화를 참으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넌 몰라도 돼!"

정호는 철민에게 버럭 소리치고, 숙소 쪽으로 달려갔다. 혼자 남은 철민은 정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거 완전히 미친놈 아냐?"

정호가 뒤풀이 장소로 들어갔을 땐 1호실과 2호실 중간 문이 닫혀있었다. 잠을 잘 사람들은 1호실에, 더 마실 사람들은 2호실에 나뉘어져 있었다. 시간이 아직 12시가 안돼서 자는 사람은 스무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2호실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했다. 정호는 1호실로 들어갔다. 방 안은 무척 어두웠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고 있었는데, 성희는 오른 쪽 구석에서 선숙과 같이 누워 있었다. 정호는 그 쪽으로 다가가 성희를 내려다보았다. 술기운에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린 상태로 힘들게 잠들어 있었다. 정호는 성희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키스를 하든, 얘기를 하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때 선숙이 뒤척이다가 눈을 떴다. 눈앞에 정호가 선 채로 자신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잠결에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며, "엄마야!" 하고 소리쳤다. 자고 있던 사람 몇이 일어났다.

"뭐, 뭐야?"

정호가 수습하려고 대답했다.

"아, 선배님, 죄송해요. 자러 들어왔다가 실수로 선숙이 발을 밟았어요."

"깜짝 놀랐잖아, 조심해야지."

"예, 주무세요."

사람들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자 선숙이 정호에게 물었다.

"너, 거기서서 진짜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실은 내가 성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깨우려고 했어."

"성희를? 성희는 못 일어나. 좀 전에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도,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걸 몇 명이 부축해서 여기 눕혔어. 눕자마자 완전히 뻗었다고."

"그래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러는데, 잠깐이라도 깨우면 안 될까?"

"나의 동의를 구하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 게다가 깨워도 전혀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선숙의 말이 옳았다. 성희는 깨운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완전히 틀렸어."

정호의 말에 선숙이 물었다.

"틀렸다니, 뭐가?"

정호는 또 대꾸 없이 밖으로 나왔다. 미칠 것만 같았다. 왜 성희가 다른 벤치로 갔는지, 왜 혼자가 아니었는지, 도대체 왜 그 전과 똑같이 되

풀이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호는 성희와 다시 시작해서 잘 해주고 싶었다. 잘못했던 것을 그 이상으로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전보다 더 잘 살고 싶었다. 하지만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이 총MT 날인 걸 알았을 땐, 성희와 다시 시작하라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왜 다른 날도 아닌 오늘로 돌아온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뜬구름 잡는 기분이었다.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정호는 2호실로 들어가 문석이 옆에 앉았다. 윤미도 아직 문석의 앞에 앉아 있었는데, 둘은 오늘 무슨 일을 낼 분위기였다. 정호는 옆의 둘이 취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하는 말을 들으며 혼자 술을 마셨다.

"문석이 너, 내 맘에 든다. 우리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갖자."

"그래요. 저도 좋아요."

"그리고 너 나한테 당구 가르쳐준다는 말 지켜라, 알았지?"

"걱정 마세요…… 꺼억…… 매일이라도 가르쳐드릴게요."

"매일?… 호호… 그럼 매일 만나자는 거야?"

"왜요, 싫어요?"

"아니, 좋아, 호호호."

둘은 많이 취해 있었다. 옆에서 정호가 듣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정호도 그렇게 취하고 싶었다. 그리고 취했고 기억이 끊어졌다.

다음날 이른 새벽 정호는 너무 갈증이 나서 잠에서 깼다.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켜 앉았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어두웠지만 서서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었다. 어제의 그 넓은 방도 아니었다. 자신

의 집이란 걸 확인하고 다시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온 걸 알았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 전등을 켰다. 4시였다. 아직 부모님과 여동생 영선은 자고 있었다. 세수를 하고 싶어서 화장실로 갔다. 찬 물로 얼굴을 문지르는데 얼굴이 따끔거렸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다. 얼굴 몇 군데가 긁혀 있었다. 철민과 싸울 때 생긴 상처였다. 그리고 지금의 얼굴이 원래의 얼굴이었지만 어제와 비교하면 확실히 피부가 거칠고 나이도 들어보였다. 정호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냉장고에서 꺼내 마셨다. 부엌 창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더 따라서 식탁에 앉았다. 물을 마시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창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정호는 한동안 멍하게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성희와 철민 선배가 생각났다. 둘 다 어제 만났는데, 매우 오래 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왜 방해하느냐고 물었던 철민 선배의 말이 생각났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았다. 과거가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과거에서는 철민 선배와 성희가 연인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는 정말로 자신이 방해꾼이었다. 그냥 놔두었으면 8년 전의 자신과 성희처럼, 그 두 사람은 키스를 했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과거에 돌아가서까지 성희에게 피해를 준 꼴이 되었다. 철민 선배에게 반말을 한 것도 가능하다면 사과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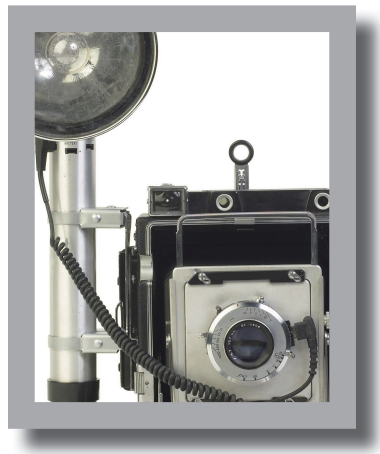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헬렌 켈러가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닫혀버린 행복의 문을 바라보느라고, 새롭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 정호 자신의 얘기였다. 8년 전으로 돌아갔던 일은, 과거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라는 뜻이 아님을 깨달았다. 실수는 반성하고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후회 속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호는 이제부터 자신에게 새로 열린 문을 찾기로 했다. 열린 문이 없다면 직접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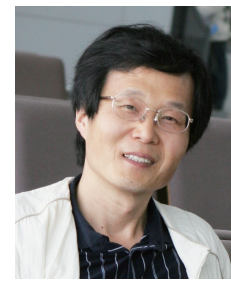
항상 실수 투성이의 삶을 살면서, 실수할 때 마다 후회하거나 절망한다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해지기 쉽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상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만큼 기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 안에서 생기가 넘쳐나는 것을 느꼈지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속에 비친 풍경



"형, 형은 알지?
얼마나 세상이 더러운 거라는 거.
렌즈에 비친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지."

그는 오랜만에 내게 형이란 말을 했다.



고양 일산동구 _ 김재헌

사진 속에 비친 세상풍경

"사진 기사도 알지."

그는 또 다시 내 팔을 잡고 떠들기 시작했다.

"운전기사나 하려고 이 길로 뛰어든 건 아니잖아. 그런데 말이야. 총무과에는 엉뚱한 녀석이 떡하니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가 자기 지시를 받아야 한다나."

그는 자동차 문을 열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잔뜩 찌푸린 하늘은 금방 비가 내릴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

산등성이에는 소나무, 도토리나무들이 뽑혀 있었고 산중턱에는 골프장이란 글자가 흉물스럽게 씌여 있었다.

"참아야지 왜 멱살은 잡고 흔들었어."

"총무국장 개새끼가 행사장에 빨리 좀 오면 안 되냐고 화를 내잖아, 어제도 만찬이 새벽 한시에 끝났어. 구청장이 피곤해서 늦게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거야."

화환하나 살 돈이 없어 남들이 쓰고 버리는 꽃들을 정리해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이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주말마다 이리저리 예식장을 향해 뛰어 다녔던 원석이었다.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이 구청장에 당선되면 무슨 큰 직책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도 운전기사로 보직을 받고는 담배만 뻑뻑 피워대

던 원석이었다.

"사진기사도 알지? 전기만 구청장이 야당 지구당위원장으로 있을 때 능곡동사무소 참석했던 사건 말이야 .그런 걸 생각하면 벌써 잘랐어야 하는데……."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그는 언제나 검은색 양복만 입고 있었다. 몸매는 운동선수를 연상시키듯 다부져서 마치 구청장 보디가드처럼 느껴졌다.

능곡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입주하는 날이었다.

김갑식 총무국장은 직원들에게 테이프 커팅용 가위를 전기만 지구당 위원장에게 주지 못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은 번번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얼굴을 내비쳤지만 총무국장 지시로 인사 소개도 받지 못했다.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이 가위를 받지 못해 원석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비상용 가위를 보관하고 있던 장소를 나는 눈짓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은 맨 끝에서 테이프를 커팅했다.

능곡동 개청식이 끝나고 총무국장은 노발대발했다.

"구 소식지와 홍보판에 크게 사진을 걸어야 하는데 그 사람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해. 자치과장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하며 직원들 보는 데서 과장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잔소리를 해댔던 것이다.

"제가 사진 트리밍해서 전기만 위원장 안 나오게 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나는 김갑식 총무국장에게 말했다.

"건방지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사진 못 찍게 할 거야."

비아냥거리는 내 말투가 맘에 안 들었는지 김갑식 총무국장은 버럭 화를 내더니 관용차를 타고 구청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뒤 교통편이 제일 나쁜 동사무소로 나를 포함한 몇 명을 발령을 낸다는 소문을 인사계 주임을 통해 들었다.

하지만 사진학과를 나오고 인물 사진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 찍는다며 좋아했던 미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변단체 회장들 때문에 나를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지 못했다.

나는 홍보판에 전기만 지구당위원장 얼굴이 나오지 않게 뽑아서 걸어야 했고, 총무국장은 내 사진들이 마음에 안 든다며 나만 보면 지겹도록 잔소리를 해댔다.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은 50대 후반의 나이로 얼굴이 거무튀튀했고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다. 나를 보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국회의원에 세 번 연속 떨어지면서 남은 것은 빚 밖에 없다고 직원들이 수군댔지만 그는 계속해서 무슨 행사 때마다 원석을 대동하고 얼굴을 비췄던 것이다.

그때마다 김갑식 총무국장은 그가 행사장 전면에 나서는 걸 차단했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늦여름이었다고 생각된다.

구민회관 행사장 앞에서 화가 난 원석이 총무국장 목덜미를 잡고 한마디 했다.

"여당 국회의원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하게하고 야당 지구당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해도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너 죽고 싶어 환장 했어."

"사진 찍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어넣게." 총무국장은 나를 향해 말했다.

나는 얼떨결에 사진을 찍었다.

원석은 나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뺏어서 바닥에 던지려고 했다.

"원석아 필름 빼서 줄 테니까 참아 "

나는 카메라에서 필름을 꺼내 주었다.

원석은 내게 윙크를 하고서는 말했다.

"사진기사 이런 거 함부로 찍지마." 허스키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필름을 휙 휙 뽑아 총무국장 앞에 내 팽겨 치고 원석은 돌아서서 행사장을 휑하니 빠져 나갔다.

다음날 공무 집행 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서까지 꾸미던 원석은 총무국장만 보면 이를 갈았다.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총무국장 너 각오해"

그러나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은 번번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했지만 인사 소개도 받지 못했다.

얼마 후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은 보궐선거에 구청장으로 출마했다.

선거 전만해도 야당 당선은 힘들 거라고, 특히 전기만 위원장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선거는 해봐야 하는지 야당 바람을 타고 그는 500표 차이로 당당하게 당선되었다.

전임 구청장이 떠나는 날 날씨는 화창했다. 철쭉이 광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전임 구청장이 정문 앞에 길게 도열해 있던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다음에 또 봅시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며 지나갈 때 그 옆에서

배웅하던 김갑식 총무국장은 눈물을 흘렸다.

'구청장니임' 하며 총무국장은 전임 구청장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놓지 않았다.

전임 구청장이 떠나고도 한동안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신 팔소매로 눈물을 훔치던 총무국장을 바라보며 직원들은 쑥덕거렸다.

이젠 총무국장도 끝났다고, 아마 명예퇴직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 길게 서 있던 직원들은 한가로이 담소를 하거나 신임으로 올 전기만 구청장 때문에 술렁대고 있었다.

취임식 날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구민회관 단상에서 구청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에는 관변 단체장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고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누구도 옆 사람과 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불안한 표정을 알 수 있었다.

설마 전기만 지구당위원장이 구청장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유총연맹, 녹색어머니회 등등 관변단체장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구청장이 단상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기만 구청장이 단상 위로 올라서자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구청장은 관변단체장들과 일일이 돌아가면서 악수를 했다.

벤츠를 타고 다니던 자유총연맹 회장은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기만! 전기만! 전기만!" 하며 구민회관에 가득 차 있던 주민들은 구청장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단상 중앙에 전기만 구청장과 그 오른쪽에 팔순의 노모가 단정하게 머리에 쪽 비녀를 꽂고 주황색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노모는 단상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모는 한참 만에 일어났는데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전기만 구청장이 노모의 손을 이끌고 자리에 앉았다.

취임식이 시작 되었다.

노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구청장은 노모의 손을 꼭 잡고 자기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원석이 뛰어와서 손수건을 구청장에게 건네었다.

그의 약력이 소개되자 다시금 사람들은 '전기만! 전기만! 전기만!'하며 환호했고 구청장은 노모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큰절을 올렸다.

나도 그를 십 몇 년간 지켜본 터라 온몸이 소름이 돋는 것처럼 감격해 버렸다.

나는 연속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숙원이던 주민건강센터를 짓겠다고 말하고 공무원들 인사발령은 한 달 뒤에 있겠다고 공표를 했다.

참석했던 직원들은 숙덕거렸고 모두들 손을 놓다시피 하였다.

나도 홍보판에 걸려 있던 기존 사진들을 전기만 구청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현관 1층부터 5층까지 설치된 홍보판 사진들을 전기만 구청장 사진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공식행사는 서너 군데 밖에 없는데 홍보판을 다 바꾸려면 몇 달이 걸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전기만 구청장 사진들을 년도 별로 찾아서 걸어 놓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연설하던 장면들과 틈틈이 시장사람들과 악수하던 사진들을 홍보판에 전시하자 전기만 구청장은 대단히 만족해했다.

"찍! 죽이는데"

원석도 엄지손가락을 펴 보였다.

총무국장은 2층 대회실에서 구청장 취임 축하예배를 드린다며 내게 사진기를 들고 대기하라고 초조한 기색으로 말했다.

총무국장은 신우회 직원들을 모두 집합시켜서 구청 광장부터 복도 앞까지 안내를 하게 했다.

저녁이 되자 대회의실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총무국장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그곳에 모여 있던 성도들은 '아멘' 하며 총무국장의 기도에 동참했다.

우리 구청장님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로 시작한 기도는 5분이 넘도록 끝날 줄 몰랐다.

일주일 뒤에는 조찬기도회가 호텔에서 있었다.

관내에 있던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전화를 직원들은 매일 해야만 했다.

목사들은 100여명이 넘게 참석을 했고 거기서도 총무국장은 대표기도

를 했다.

행사가 끝나고 구청장은 대단히 만족한 표정으로 '총무국장 수고했어.' 하며 어깨를 다독거려 주었다.

교회 성도수를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500표 차이로 승리했으므로 교회 표만 잡으면 다음번도 분명히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한 달 뒤에 인사발령이 났다.

그쪽 지방 출신으로 총무과, 감사실, 기획실 모두가 바뀌었고 기존의 세력들은 산업교통과 주차단속계나 환경청소과로 쫓겨 갔고 여당 성향의 과장 몇 명은 타구로 전출을 갔다.

총무국장은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리쳤다.

하지만 나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널 어쩌지?"

총무국장은 인사 발령장을 찍으러 대회의실로 들어온 나를 바라보더니 벌레 씹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행사장에 가기 위해 조수석에 힘없이 앉은 나를 보고 원석이 말했다.

"찍사도 전출 갈 뻔 했잖아. 내가 막았어."

"나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지. 그쪽이 편한데……."

"사진작가를 보낼 수 없잖아."

원석은 담배연기를 내 얼굴에 후 불며 말했다.

"나 그만둘까 봐."

"그만두면 뭐 먹고 살려고?"

원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왔다.

"웨딩 쪽으로 나가볼까 생각중이야."

"그쪽도 보증금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내가 힘써 줄게, 총무국장은 무시해."

총무국장과 서먹하게 앉아 가기 뭐해서 나는 버스를 타고 행사장으로 갔다.

민방위훈련 교육장이었다. 구청장은 민방위대원들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말을 하면서 자기 PR을 할 것이다. 나는 사진 몇 컷을 찍고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무실로 들어갔다.

구청장이 나오려면 1시간은 있어야만 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무실에서 사서인 미스 김이 타온 커피를 홀짝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민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힘들어서 그래요."

미스 김은 인물은 없었지만 붙임성이 좋아서 나는 그곳에서 편하게 쉬다 가곤 했다.

이렇게 시달리며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을 것만 같았다.

김갑식 총무국장은 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 것이다. 자기가 구청장에게 했던 일들을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미스 김은 내게 농담을 걸어왔다.

"올 줄 알았으면 화장 좀 하고 있을 걸 그랬나? 구청에서 정력이 제일 센 사람이 왜 그래? 나 한번 박아 아니 두 번 박아줘, 나 많이 굶주렸어."

그녀가 깔깔거리며 포즈를 취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그녀의 사진을 두 번 찍었다.

사서는 이혼녀였다. 남편이 술 먹고 때리고 바람까지 피워서 이혼했

다. 아들은 남편이 키우고 딸은 그녀가 키우고 있었다.

"여기서 뭐해 청장님 구청으로 들어가신대 빨리 차에 타." 원석이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이 구청장 전용차 조수석에 앉았다.

구청으로 들어가는 차안에서 총무국장은 귓속말로 구청장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청장님이 지시한 분으로 합격시켰구요. 그리고 구청장님 친척 분 기능직으로 뽑아서 동사무소에 배치시켰습니다."

"수고했어."

그는 구청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었다.

구청 앞에 도착하자 둘은 내렸다.

나도 5층 사무실로 가기 위해 카메라 가방을 들고 차 밖으로 나왔다.

"개새끼 짜응은?"

원석이 담배 한가치를 피워 물면서 말했다.

"총무국장은 왜 계속 앉히는 거야"

"구청장도 변했어. 옛날 생각하면 벌써 쫓아 버려야 하는데 씨팔."

어제 밤 나도 밤 아홉시까지 호텔 만찬장에 있었다.

국회의원,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모두 만찬장에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이 술잔을 건네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S구를 위하여 외칠 때마다 번들거리는 그들의 얼굴을 향해 플래시를 터트려 주었다.

만찬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 혼자 뿐이었다.

과장도 총무국장도 그 만찬장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눈치껏 구청

장의 눈짓에 밖으로 나가 총무국장을 불러오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사무국장을 데려 오라면 옆방에서 대기하는 사무국장을 모시고 오는 연락책 역할도 했다.

나는 그들 앞에서 플래시를 눈이 아프도록 펑펑 터트렸다 그 중에 술집회사 사장은 내가 하라는 대로 포즈를 취하며 사진에 찍히길 즐겼다. 그리고 자신이 나온 사진은 꼭 받고 싶어 했다.

"저번 사진 아주 맘에 들었어. 이번에도 챙겨줘, 한번 술집으로 꼭 찾아와."

나는 행사가 끝나갈 쯤 집에 결혼기념일이란 핑계를 대고 만찬장을 빠져 나왔다.

"오늘 아침은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새벽 6시에 나왔어."

원석은 담배를 깊게 빨아서 나를 향해 연기를 내 뿜었다.

"담배 좀 그만 펴라."

나는 담배 연기를 손으로 휘저으며 가방 속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았다.

나는 가방에서 어제 만찬장에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보여 주며 물었다.

"이 여자 누구야?"

"마담이야."

나는 다시 사진속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너무나 커서 누드사진 모델로 쓰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 여자는 전임 구청장과도 친한 여자였다.

구청장이 바뀌면 사람들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내 판단은 잘못 되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기 시작했다.

"요정 마담, 그 여자 때문에 새벽 한시까지 차 대기시키고 있었잖아. "

원석이 또 열 받아 나한테 하소연하고 있었다.

이때 핸드폰 벨이 길게 울렸다.

"정말 오늘 당적을 옮긴다고, 아니 왜 여당으로 들어가는데. 뭐 난 그냥 운전만 하면 된다고……"

원석은 핸드폰을 붙잡고 투덜거렸다.

"난 밖에 있을께." 나는 차에서 내렸다.

"찍, 내 얘기 더 듣고 가. "

나는 나무 심는 장소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여당 국회의원과 전기만 구청장이 담소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녹지과장과 관변단체장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사람들이 나무를 심기위해 산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직원들은 사람보다 큰 매화나무를 질질 끌며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 옆에 멀찍이 떨어져서 앞 산을 바라보았다.

구청장이 불법으로 허가를 내줬다가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진 산이었다.

골프장을 짓다가만 산에는 베어낸 나무들과 파헤쳐진 흙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자유총연맹 회장이 비서실장을 향해 큰소리로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비서실장님 제 가게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빵빵한 애들로 한번 쏘겠습니다. "

"네 좋은 일이 있어서 조만간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나는 못들은 척 카메라 렌즈를 닦기 시작했다.

언젠가 원석이 내방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었다.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온 원석은 헐떡거리며 말했다

"이 사진 크게 뽑아줄 수 있어?"

나는 렌즈를 닦다 말고 그가 건네준 사진을 바라보았다. 전기만 위원장과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글쎄 현상소에 맡겨 보지, 필름은 없어?"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급하면 지금 찍어 볼 게."

나는 접사렌즈로 사진을 찍었다.

"전망이 참 좋군. 광장이 한눈에 보이고."

그는 찍은 필름을 받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더니 돌아갔다.

그가 운전기사로 발령을 받고 통신실과 사진실 벽을 허물더니 가운데에 자기 책상을 만들어 놓았다.

책상 위에는 내가 찍어준 국회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같이 하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옛날엔 고생해도 좋았는데……."

원석은 가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칙칙한 사진 버리고 현재 사진으로 바꿔 "

"그런 소리 마."

원석은 왠지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원석은 전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한 결정적 제보자였다.

노인회 회장들을 모셔와 식사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을 전기만 위원장에게 말해 1년만에 다시 선거를 치룰 수가 있었다.

"어제 뉴스 보았지? 공무원들을 모두 도둑놈 취급을 한단 말이야, 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둑놈 취급을 받아야 돼? 너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겁먹고 직원들이 뇌물을 안 먹을 거 아니야. 다 낚은 고기를 못 잡다니, 너희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암행반 직원들은 구민회관 영사실까지 불려와서 욕을 먹고 있었다.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공무원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정화시켜야지 우리가!"

김갑식 총무국장은 한동안 분을 참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변해 있었다.

머리는 반 곱슬에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외로움에 찔어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목소리는 허스키한 음성으로 간혹 가다가 지방 사투리를 쓰곤 했다.

검찰에서 위생장부를 압수해 갔고 거기서 위생과 직원 이름으로 돈을 받았다는 장부가 발견되었다.

위생과 직원은 구속되었다. 나이트클럽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눈감아 준 혐의였다.

검찰에서는 압수한 위생장부에 알파벳으로 쓴 글자 앞에 오천만원이란 숫자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물었지만 사장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총무국장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아쉬워했다.

나는 구민회관 영사실에서 잔소리를 해대는 총무국장을 피해 이동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었다.

"총무국장이 찾아." 원석의 전화에 나는 영사실로 뛰어갔다.

"너 때문에 공무원 자정대회 선서를 못했잖아. 바쁜 직원들이 30분씩

기다리고 있어야해? 이동도서관 사무실에서 노닥거리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김갑식 총무국장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며 내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구청장 인사말씀만 있는 줄 알았지 선서가 있는 줄은 몰랐다.

나는 죄송하다며 구민회관 강당으로 뛰어 들어갔다.

다시 선서를 하겠다고 총무국장이 말했다.

"선서! 우리는 공무원 윤리강령에 맞춰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셔터 속도 60에 조리개 5,6을 놓고 사진을 찍었다.

"야. 빨리 가서 인화해서 신문사 넘겨줘."

나는 택시를 타고 사진관으로 갔다.

스물여덟 살 먹은 현상기사는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사진을 뽑고 있었다.

"야. 급해, 사진 좀 빨리 뽑아줘."

"아직 손님이 있어서 기다려야겠는 데요."

"급해, 두시까지 시청 기자실에 갔다 줘야해."

"알았어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 이층에 올라가 사진첩 보고 있을 테니까 다 되면 불러."

나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증명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로 만들어졌고 나는 사진첩을 꺼내서 보았다.

백일사진, 돌사진, 웨딩 촬영한 것들을 구경하며 나도 빨리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사진기사가 모아둔 사진수첩을 보았다.

그것은 모두 누드사진이었다.

하나같이 여자의 알몸이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모아두었던 것이다.

손님들이 장난삼아 자기 애인의 누드 사진을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에게 뽑아 달라고 맡기면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몇 장 더 뽑아 놓고는 맡긴 손님에게 그는 말한다.

"이런 사진 뽑아주면 저희 가게 문 닫습니다. 다음엔 그런 사진 가져오지 마세요."

나는 누드 사진 몇 장을 그에게 얻어서 원석과 함께 돌려보곤 했다.

"사진 나왔어요."

"알았어."

나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사진 잘 나왔니?"

"노출이 부족해요."

나는 선서한 사진 중에 괜찮은 사진 한 장을 골라 그에게 50장을 더 뽑게 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시청에 갖다 주고 왔다.

"야, 선서 하는 사진, 손이 크게 안 나왔잖아. 너 사진 그렇게 못 찍어? 나 참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네가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어. 내일 신문에 사진 안나와 봐! 또 홍보판 사진은 왜 그 모양이야? 마이크 잡은 것 말고 자연스러운 것 있잖아! 밖에서 어린이들과 악수하고 그러는 거 말이야."

김갑식 총무국장은 나를 불러놓고 잔소리를 해댔다.

"현장에 나가야 찍을 거 아닙니까? 매일 민원인들을 구민회관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에 구겨 넣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할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그럼 사진을 못 찍게 할 거야. 아무튼 구민회관 사진들 점검해 봐. 작년 사진이 그대로 있어."

나는 들은 척도 안하고 총무국장실을 나왔다.

구민회관에 걸어서 갔다. 보통 걸음으로 20분 걸렸다. 걸으면서 지난 일들이 반추되어 왔다.

정말 이동도서관 앞 벽면에 전임 구청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새마을지회 이동도서관은 전임구청장 조직국장이 운영하는 문고였다

난 새마을지회 이동도서관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말했다.

"사진 없애버려. 당분간"

"안돼. 국장님이 고집을 피우셔."

"구청 분위기가 험악해. 총무국장 성격 알지? 과잉 충성 어쩌면…… 아니야, 국장한테 사진 치우라고 꼭 말씀드려."

"총무국장이 설마…… " 미스 김이 말했다

나는 구민회관을 서둘러 나왔다.

원석도 몇 번 들어와 커피를 마시면서 나보고 그곳에 출입을 삼가라 하는 말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전화기 속에서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사무실로 빨리 좀 와줘."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구민회관 이동도서관 사무실로 갔다.

새마을지회 이동도서관 출입문에 청경들이 못질을 하고 있었다.

청경들과 공익들이 사서 2명과 조직국장을 밀어내기는 쉬운 일이었다.

"잠깐, 왜 그래?" 나는 청경반장한테 물었다. 그의 어머니 칠순잔치에 내가 사진을 찍어 줘서 그는 나를 보면 늘 고맙다는 인사를 했었다.

"총무국장이 지시했어, 오늘 못 박으라고…… 며칠 전에 지시했는데 미적거리자 과장이 혼났어, 오늘 일처리 못하면 사표 쓰라고 했대."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참 기분이 더러웠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상대편 조직원 우두머리 실세를 미리 잘라내 버린 것이다.

"야 나오시잖아 빨리 좀 와라, 동작이 굼떠!"

김갑식 총무국장은 나한테 잔소리를 해댔다.

나는 구청장이 가고 있는 산등성을 뛰어갔다.

"김기사 생동감 있는 거 말이야, 오늘은 작품이 되도록 한번 찍어 봐"

김갑식 총무국장은 구청장과 여당 국회의원이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했다.

나는 울컥 치밀어 오는 분을 참으며 '예'라고 대답한다.

김갑식 총무국장은 공석중인 부구청장으로 진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구청장이 바뀌면 제일 먼저 쫓겨날 거라는 예상은 취임식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빗나가고 말았다. 전기만 구청장이 당선이 확정된 새벽에 총무국장이 구청장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구청장님에게 충성을 바칠 거라며 혈서를 썼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를 원석은 내게 말했었다.

"나무가 좋으면 뭐 합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가 중요하지요 "

김갑식 총무국장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

"여긴 터가 정말 좋네요. 거목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갑식 총무국장은 나무뿌리에 비료를 휙휙 뿌리면서 말했다.

나는 나무심기 행사사진을 찍고 원석이 있는 차로 갔다.

우리는 차안에서 구청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석이 담배 한 가치를 피워 물면서 말했다.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면 빚이 얼만지 알아? 난 다시 중고차 판매장으로 가서 일을 했고, 손님이 일요일 날 제일 많잖아. 하지만 난 구청장을 내 봉고차에 모시고 예식장을 돌아 다녔어.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주례를 일주일에 네 번 이상씩 서면 주례비용을 주잖아? 그걸로 경리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기름값 내면 적자야. 그래도 말이야, 그땐 구청장은 정직했어. 그런데 씨발, 구청장 일년하고 나니까 배에 기름기가 꼈는지 매일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시장 사람들에겐 안가고 기업가들, 관내 유지들하고만 만나러 다니니 원…… 권모술수에 능한 총무국장에 끌려 다니지 않나, 비서는 큰 행사 때만 얼굴을 내밀면서 똥 폼을 잡고 옛날 생각은 전혀 못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술 냄새가 풀풀 났다.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도 구청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석은 김갑식 총무국장이 나오자 반말을 했다.

"구청장님은 언제 나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빨리 나오라고 해야지. 다음 행사 스케줄에 10분 만에 가라는 거야. 막히는데 빨리 올라갔다 와요."

김갑식 총무국장은 뛰어갔다.

"너 막 반말해도 되는 거야."

"뭐 어때? 기분 나쁘면 내가 그만 두던가, 저 새끼를 갈아 치우면 되지 뭐."

원석이 말할 때면 나는 당황한다. 총무국장은 유난히 원석에게 쩔쩔맸다.

나는 행사가 끝나고 가끔은 원석과 밥을 먹었다.

"안에서 식사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주세요." 원석이 말했다.

내 입맛도 고급이 되어 가고 있었다.

몇 만원 하는 식사를 하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비프스테이크를 먹고, 바다 가재를 먹곤 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구청장 전용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나는 말없이 차안에서 음악을 듣는다.

구청장은 가끔 총무국장에게 물어본다.

"내 연설 어땠어?"

"명연설이죠, 언제 들어봐도 말입니다."

김갑식 총무국장은 이야기한다.

그들은 내가 앞자리에 탄 것에 대해 약간은 부담을 느끼는지 귓속말로 속닥거린다.

나는 그 이야기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 클래식 음악의 볼륨을 크게 한다.

원석은 그들이 차에서 내리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곤 말한다.

"난 구청장이 언젠가는 큰 거목이 될 거라는 환상에 청춘을 받쳤는데 구청장이 되고부터 생각 자체가 변했어."

"난 그냥 이 정치집단의 종말을 지켜봐야지. 내가 찍은 사진들을 잘 보관해서 '그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갔다'하는 사진집을 만드는

게 내 꿈이야."

10월이 되면서 구민 체육의 날 행사가 있었다.

나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핫셀브러드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

자랑스러운 구민의 날 표창장 사진을 찍을 때 직업 사진사 세 명이 달라붙었던 것이다.

나는 말했다.

"아저씨들, 표창장 사진 찍을 때 달라붙지 마세요. 저 사람은 구 소식지 표지 모델이니까 제가 찍어야 해요. 저 사진 못 찍으면 욕 엄청 먹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동안 같이 일해 온 직업 사진사들은 뒤로 한걸음씩 뺐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구청장 사진 찍어서 구청장실로 앨범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겠어요. 동사무소 사람들 것만 찍으세요. 방해하면 동사무소에 사진 그냥 뽑아 줄 겁니다."

그들은 내 말에 수긍을 한다. 내가 유일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청장을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기념 촬영을 하고는 그들에게 비싼 값에 사진을 팔아먹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쾌히 사진 값을 지불한다.

구청장과 같이 찍는 사람들은 관변단체장들과 지역 유지들이다.

나는 시민의 날 사진을 찍는 직업 사진사에게 물었다.

"여기서 찍어서 어떻게 사진 값을 받아요?"

"간단해요. 주제는 돈 줄 사람이 주제가 되고 부제는 돈 줄 사람과 같

이 찍어야 할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진 값을 내는 사람을 구청장 옆에 세우고 찍으면 되죠. 될 수 있는 한 다정한 표정을 짓게 하구요."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시장이 오면 시장 옆에서, 도지사가 오면 도지사 옆에서, 장관이 오면 장관 옆에 서서 나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는 사인을 했다.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난 며칠 뒤 구청장은 긴급한 행사가 있다며 조수석에 나를 태우고 만찬장에 갔다. 저녁이었다.

만찬장은 마당이 넓은 한옥 집이었다. 마담은 나를 보더니 사진 잘 받았다며 따로 나와 원석에게 방을 잡아 주었다.

나는 음식을 먹다가 카메라를 들고 일어났다.

"위하여! 한 컷 찍고 올께."

나는 행사장 밖에서 그들이 잔을 들며 위하여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지루하다. 주책없이 행사장에 들어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경찰서장은 이 사건 아무도 모르게 없애 버리고 그 대신 구청장은 우리 당으로 오는 거야 ."

여당 국회의원 목소리였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목소리였다.

"자. 한잔 하자고." 국회의원이 말했다.

나는 사진을 찍으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원석을 바라보았다. 왠지 침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찍! 우리가 안지 몇 년이지?"

"글쎄, 십 몇 년 되었지."

"세월이 참 빨라, 난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왜 그래 또 ? "

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카메라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제사가 있어서 일어나야 돼."

원석은 그냥 말없이 술을 홀짝 거렸다.

"야 무슨 생각해? 기념식수 앞에서 기념 촬영 있으니까 빨리 와."

총무국장은 내게 화를 내며 전화를 했다.

나는 사진기를 잡고 뛰어갔다.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총무국장이 또 잔소리를 해댈 걸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사람들은 기념식수 앞에서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총무국장도 입가에 웃음이 잔뜩 머물고 있었다.

어물쩍 서 있는 내게 총무국장은 '뭘 해 사진 찍어' 하며 홍보판에 크게 걸라는 지시를 내렸다.

난 사진기 셔터를 눌렀다. 기관총처럼 셔터가 눌러졌다. 탁 탁 탁 탁

"다 찍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차 쪽을 바라보았다.

원석이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 내가 그 앞에 다가가 말했다.

"몰라서 물어, 씨발."

핏발 선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원석이 말했다.

구청장은 지역구 라이벌이었고 여당 국회의원 때문에 세 번이나 고배를 마셨었다.

그런데 둘은 오랜 친구처럼 다정다감했던 것이다.

원석은 열 받아 있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원석은 씩씩거리고 있었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지, 야당이었다가 여당으로 가고 그게 뭐냐. 그러려고 내가 미친 짓을 했냐."

"참아, 너도 소문에 구의원 출마하게끔 해준다면서?"

"관둬!!"

나는 원석을 달래다가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들어왔다.

나는 행사장에 갈 때마다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다. 원석도 구청장이 여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부터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운전은 비서실장 후배가 대신하고 있었다.

'야. 너 앞으로 구청장 차타지 말고 버스타고 다녀.' 라고 말하던 총무국장이 어느 날 나를 국장실로 불렀다.

"고생 많았지, 그동안 수고 많았어. 너 차비로 써라."

그는 내게 흰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못이긴 척 받아들고 화장실에서 봉투속의 돈을 꺼내보았다. 이십만 원이 들어 있었다.

얼마 후 김갑식 총무국장은 부구청장으로 영전했다.

부구청장으로 발령장을 받은 날 그는 나를 보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김기사. 고생하는데 진급해야지? 내가 힘써 볼게, 대신 내 사진 잘 찍어."

까만 양복을 새로 사 입고 머리는 무스까지 발라서 번들거렸다.

"구청장님과 인사발령장 받을 때 고개 숙이지 말고 악수하면서 구청장님 눈을 보세요. 아니 눈싸움 하세요. 그래야 사진 잘 나옵니다."

"그럴게." 총무국장은 껄껄거리며 웃었다.

그는 정말 내말대로 발령장을 받는 날 구청장과 눈싸움을 했다.

총무국장이 부구청장으로 진급한 날 원석과 나는 구청 뒷골목 돼지부속 집에서 술을 마셨다.

"나 사표 썼어. 난 정치판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누나가 하는 해장국집 거들기로 했어. 썩었어. 침대 밑에 돈 뭉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씨발, 그거 사과상자로 두 박스가 넘을 거야. 아 씨발,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야. 옛날엔 말이야."

"옛날엔 필름 없인 사진 못 찍었어. 지금은 필름 없이도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가 온거야. 너도 좀 변해라." 나는 술 한 잔을 들이키고 다시 말했다.

"참아. 살아남으려면 그런 것 눈 감고 있어야지. 그래야 너도 구의원이라도 해 먹지. 나봐 난 언제나 한 눈 감고 살잖아."

나는 한 눈 감고 사진 찍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를 달랬지만 그는 이미 실망한 눈초리였다.

"형, 형은 알지? 얼마나 세상이 더러운 거라는 거. 렌즈에 비친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지."

그는 오랜만에 내게 형이란 말을 했다.

그는 떠났다.

주위에서 그는 쪼다 소리를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다고 했다.

"아까운 인물이 떠났어. 이름처럼 조금만 다듬었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 텐데 ”

비서실장은 말했다

나는 오늘도 청사 건물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날씨는 맑고 청명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었다.

정문 앞 담장을 허물고 심은 나무들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구청 광장 옆 건물에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선거 홍보 플래카드였다.

그래 또 선거철이 돌아온 것이다.

구청장은 국회의원을 밀어내고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고, 총무국장은 부시장으로 진급을 했다가 사표를 쓰고 여당 구청장으로 출마했다.

“김 기사. 사진 있으면 몇 장 뽑아봐. 그리고 선거홍보사진 좀 찍어줘.”

김갑식 부구청장이 사표를 쓰고 떠나기 며칠 전 5층까지 직접 찾아와 말했었다.

“김기사 사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찍는단 말이야. 최고야 최고.”

내가 건네준 사진을 보며 부구청장은 껄껄 웃었다.

“국회의원과 혹시 만나게 되면 눈싸움 하십시오. 그래야 당선 됩니다.”

“아직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나를 툭 치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기호1번 김갑식이란 플랜카드를 바라보던 나는 핸드폰을 꺼내 원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음식 배달을 나갔다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나중에 다시 전화

를 걸겠다며 핸드폰을 닫았다.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광장에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다.

그래 사진 속에 비친 세상은 다 그런 거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원석을 생각하며 두 눈을 뜨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찰칵 …….

얼마나 찍었을까? 갑자기 토할 것 같아 나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아직도 소설 쓰냐고 이젠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그렇게 나도 늙어가고 있었다. 아니 지쳐가고 있었다.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라도 한잔 사주면서 당당히 말해보고 싶다.
나 소설가야 !



회춘

"아버지 날고 싶으세요? 날아서 내 마누라 보다 더 예쁜 꽃 찾아 가세요. 어머니한테 가세요."

"……마누울."

돌아가실 즈음에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



울산 울주군 _ 이인호

回春

아버지가 병이 났다. 그 병은 시들시들 누워 천정의 별들만 세다 어느 순간에 훌쩍 저세상으로 가 버릴 그런 병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화르륵 붉은 꽃이 피는 열병임에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병이 들고부터 더욱 기운이 살아나 길게 침을 늘어뜨리며 곤한 잠에 빠지는 하오의 한 두 시간을 제외하고는 낮에 이불을 펴고 누워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를 두고 농지거리로 마음의 병이 났다며, 새어머니를 운운하기도 했다. 내 마음은 그렇다. 정말 새어머니 정도로 해결될 상사병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씀이다.

우리 아버지의 병은 아버지를 제외한 식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병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병이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아픈 병이 있느냐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있다고 말하겠다. 비칠 듯 안 비칠 듯 떨어지는 꽃잎보다 더 여리여리한 내 자식이 아플 때–병명을 막론하고 아니, 그 흔한 감기라도 상관없다–그보다 더 아픈 부모 마음이 그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우리 아버지의 병이다.

아버지의 발병으로 인해 우리 식구들은 지난 육 개월을 미친 놈 벌쐰 듯 하루라도 편할 날 없이 정신을 놓고 살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멀쩡한 대낮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가 겨우 일어서자마자 뺑소니차에 치이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덮치고,

그 위에 개가 오줌을 싸고 지나간 격이라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환한 대로변에 그날따라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어 구조조차 깜깜한,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만 생뚱한 상황이 바로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게 된 상황이다.

아니다.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까지 비관해서는 안 된다. 사실 나는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상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이 나는 아버지의 작은 올챙이였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무논에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고, 새파란 모가 쫑긋 귀를 세우며 앞집 옆집 울울이 푸른 이웃 담을 넘볼 때, 하늘의 달이 논바닥에 흥건히 젖던 보름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헤엄을 쳤던 것을. 부끄러우면서도 따뜻한 어머니의 입김이 나를 감싸고 사방에서 그 광경을 보는 수런거림이 숨죽여도 내 기억 깊은 곳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심연속으로 둥글게 나아갔던 것을 알고 있다. 내 아버지는 굳은 살 단단히 박힌 손을 펼쳐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인 양 나를 그 길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보내준 나를 달빛에 싸안아 고이 열 달을 키우셨다.

이렇게 나를 세상에 보낸 준 아버지에게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내 목숨 값 정도로 해결될 수 없음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니다. 그 아름다운 유영을 하던 올챙이가 아니다. 하지만 네 발로 세상을 펄쩍펄쩍 뛰는 지금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은 초록 울음인 것이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과연 아버지를 헤엄치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을 거슬러 그를 다시 그 달빛 아래 놓아줄 수 있을까?

"여보! 여봇!"

아내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린 것은 창밖으로 십이월 앙상한 은행나무 가지가 하릴 없이 하늘을 쿡쿡 쑤셔대던 어느 평범한 날이었다. 바로 어제 삼교대 오후반을 끝내고 유일한 취미인 인터넷 고스톱을 아주 잠시, 손맛만 볼 겸 앉았는데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려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이 되어버렸다. 나의 이러한 취미를 평소 중독으로 간주하던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컴퓨터에서는 '빽!입니당!'라는 소리와 함께 마우스에선 부르르 진동이 전해져 왔다. 나는 조건 반사적으로 컴퓨터 화면을 껐다.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 들킨 아이처럼 안방으로 마음은 날쌔게, 그러나 행동은 여유롭게 걸어 나갔다. 그때까지 아내의 새된 목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여보! 아~~~ 아~~~ 아아아"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그날 아침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안방 침대에서 헐렁한 티셔츠와 너덜너덜한 내 사각 팬티를 입고 아내는 침대 옆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세, 상, 에, 나, 맙, 소, 사!'

그리고 침대 위에서는 아버지가 세상 곤한, 아니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세상 모르게 곤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할 소리야. 아버님이 왜 우리 침대에 있어!"

아내는 새파랗게 질린 채 옷을 추슬러 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듯 했다.

"당신, 어제 밤에 들어와 잔거 아니었어. 자다가 어디 갔었어? 아버님은 도대체 언제 이 방에 들어온 거야?"

아내의 쏟아지는 질문을 나는 잠시 못 들은 척 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해 봐야 했다. 이 상황을 말이다. 아버지는 절대 이런 일을 벌일 분이 아니셨다.

"여보 잠깐만, 자 진정하고. 아마도, 응 내가 말할게."

순간 내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이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아버지가 어젯밤, 그래 화장실에 갔다가 방을 잘못 찾으셨나봐. 참나, 뭐 별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떨어."

"아버님 방에는 침대도 없잖아. 그리고 이게 헷갈릴 문제야?"

아내의 말이 맞지만 더 이상 뭐라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 연세가 있잖아. 아침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옷이나 입고 아침이나 줘."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대꾸를 했지만 내 자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순순히 옷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이런 소란의 와중에도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를 빨리 방에 모셔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무시는 동안 방에 모셔다 드리고 아내의 입만 단속시키면 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 와중에도 어린아이처럼 어젯밤 나의 잘못이 들통 나지 않았음에 안도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깨울까 생각해봤다. 하지만 깨셨을 때 자신이 아들 내외의 방에 그것도 침대에 그것도 며느리 옆에 누워 주무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얼마나 민망하시겠는가. 어쩌면 아까 아내가 소리를 지를 때부터 아버지는 일어나 계셨는지도 모르겠다. 이 상황이 본인도 너무나 놀라워 이제 이런 망신살 뻗칠 일을 버젓이 저지르는 나이가 되었음을 한탄하며 일부러 잠든 채 하시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아가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나이가 지나고 유혹에 혹하지 않는 나이를 지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나이. 다시 말해 벽에 똥칠 할 때가 되었다고 엄중히 깨달으시고 수치심에 혀를 깨물고 싶으실 지도…….

그럴 것을 생각하니 나는 갑자기 아버지가 한없이 애처로웠다. 젊을 땐 누구보다 깐깐하시고 총명하셨던 아버지였지 않은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버지는 가끔 교실 밖 창문으로 칠판을 보며 한글과 셈을 깨치실 정도로 영재였으며, 청년시절에는 나무 하러 가는 지게에 책을 끼고 가 햇볕 좋은 무덤가에서 책에 빠져 저녁이면 빈 지게만 끌고 내려온 자칭타칭 문학청년이었다면 더 말해 무엇하리. 사족을 붙이자면 빈 지게를 본 할머니가 욕을 하며 지겟작대기로 아버지가 메고 있던 지게를 때리면 사람이 죄지 지게가 죄냐며 지게를 벗어 놓고 자신의 등짝을 조용히 갖다 댔다던 아버지가 아닌가? 비록 그 총기가 나에게 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나 칠십 평생 단 한 번의 실수로 아버지 전 인생의 총기가 바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본인의 방으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 살색 내복 차림의 아버지를 두 팔로 곱게 들었다. 모든 죄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업었을 때,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눈시울을 붉힌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거웠다. 이제 마흔을 훌쩍 넘긴 내 허리 또한 세월의 풍파에 우두둑 호두알 깨지는 소리를 내고 말았던 것이다. 옛말 하나 그른 것 없다. 아, 뿔, 싸! 깨달음의 비명.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나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자식은 힘이 없다는 사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나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를 안았다. 나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간신히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를 방에 눕혀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료 위에 눕혀 드리는 순간, 나는 잠시 이상한 냄새

를 맡았다.

'이건 무슨 냄새지?'

아주 잠깐 내 코를 스치고 지나간 냄새를 나는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아기 젖비린내였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몸 냄새가 고약해진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집 주소 하나 없이 저승사자들이 잘만 다니러 오신다고도 하니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나는 알만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든의 아버지 몸에서 나는 냄새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지독한 냄새와도 달랐다. 오물과 각종 체액이 뒤범벅된 몸내가 아니라 이제 갓 세상의 빛과 정면 승부를 벌여 저 하늘 끝으로 태양을 밀어낸 아이 입술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다. 둥실 떠오른 해처럼 풍만한 가슴에서 쏟아지는 뽀얀 젖내. 세상 그 무엇보다 신선하면서도 그리움이 잔뜩 묻어나는 그 냄새를 나는 실로 오랜만에 아버지에게서 맡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한 번 그 냄새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의 몸에 코를 댔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내가 잘못 맡은 것일까?'

한 때 웬만한 잡종 개들의 후각에 비견될 개코의 소유자였던 나다. 젊은 시절 아내가 잃어버렸던 월급봉투를 돈 냄새 하나로 찾아냈던 내가 아닌가? 또한 아들놈의 손에서 나는 동전 냄새로 아이가 오락실에서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았었는지도 알아 낼 수 있었다. 이런 내게 아내는 돈 냄새만 귀신 같이 맡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나는 비린 피 냄새로 아내의 달거리를 피해 은밀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젖비린내였다.'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아내의 얼굴은 내내 어두웠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

는지 모르는 지 묵묵히 숟가락질을 하고 계셨다. 나는 애써 어색한 분위기를 묻으려 아들 민호와 시집 못간 막내 동생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민호야, 아빠가 용돈 좀 줄까? 오늘 밤 큰 판 한 번 벌여야지. 한 번 확 쓸면 너 임마 죽어라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빌딩 한 채 사주께. 그럼 넌 예쁜 여자랑 평생 놀고 먹는 거야. 좋지?"

"그러든지 말든지."

요즘 사춘기와 함께 공부의 압박 속에서 방향잡기에 열심인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시큰둥했다.

"오빠 나는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나 하나 차려주라. 평생 시집도 못갈 것 같고 그러니 당연히 애도 없을 테고. 원 없이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벌어먹고 살게. 응?"

역시 우리 막내다. 서른여섯, 결혼에 초연하면 세상사 모든 것이 초연하게 되는 법. 다들 내 동생 만숙이에게 노처녀라는 말을 땡감에 돌팔매질 하듯 시도 때도 없이 던져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동생다웠다.

"여보, 어제 잠 안 잤어요?"

유쾌한 농담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려던 내게 아내가 이제 생각이라도 난 듯 따져 물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식탁 아래에서 스멀스멀 수위를 높이는 냉기류를 말이다. 나는 태연히 자백해버리기로 했다.

"응, 자다가 인터넷 고스톱 좀 쳤지. 딱 한 시간만 하려고. 인터넷 머니 좀 쌓이면 그거 팔아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던 체형보정 속옷도 하나 사주고. 나는 뭐 그런 거 안 입어도 불만 끄면 당신을 안을 수 있지만 말야."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나는 있는 힘껏 웃었다.

"아니, 내 말인즉슨 당신이 정말 예쁘다는 말이지."

'약발아 먹어라' 하는 것이 내 심정이었다. 동서고금 천지사방을 막론하고 여자들에게 예쁘다는 소리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진리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오늘 만큼은 아니, 내 아내에게 만큼은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본인도 자신이 저 서양으로 가서 클레오파트라 뺨치고 중국의 양귀비 다리 걸고 간 김에 서시까지 이단발차기로 넘어뜨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와 황진이와 대적 할 수 있는 미모가 아님을 아는 것이 분명하다.

"당신이 애야. 만날 그 고스톱. 내가 평생 마우스질 못하도록 저놈의 손을 잘라놓던지 해야지."

그건 안 될 말이다. 남자에게 오른손은 마우스질 말고도 할 일이 하나 더 있음이다. 사춘기 민호가 가끔 자기 방에서 하는 그 짓을 나는 아직까지도 고스톱과 함께 병행하고 있다. 끔찍한 생각을 하는 나를 향해 막 아내가 다음 폭언을 내뱉으려할 때 묵묵히 북엇국을 떠드시던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다.

"마누라, 나 국 좀 더 줘."

그것은 귓불을 간지를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마누라' 라니 도대체 누구보고 하는 말인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의 어머니 즉 아버지의 마누라, 아내, 여편네, 만복에미, 영천댁은 이미 이십년 전에 돌아가셨다. 뒤에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에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고 하지 않던가. 안타깝고 통곡할 일이나 목욕탕에 가셨다가 이웃의 제사음식을 나눠먹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때 내 절친한 친구 영석의 어머니, 다시 말해 우리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주머니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집에 돌아와 잠을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것으로 봐서 게다가 그 날 똑같은 음식을 드신 두 분이 함께 돌아가신지라 사람들은 필경 제사음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은 문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기가 그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목욕탕을 망하게 하려는 어떤 불한당의 소행이라고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죽일 놈의 집구석이 제사 하나 정성으로 지내지 못해 동티가 나서 그렇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셨다. 그 전날 제사를 지낸 집 꼬락서니를 보면 그럴 만도 했다. 큰 아들은 사기혐의로 감옥에 있었고 작은 아들은 바람이 나 온 집안을 뒤져 백동전 하나까지 챙겨 밀월 잠행을 떠난 뒤 그 어머니와 며느리, 딸 하나가 모여 지낸 제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망자를 두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잘못을 탓할 수 없는 처지였다. 결국 우리 가족은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니 다만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목욕도 깨끗이 하시고 밥도 배불리 드시고 집에 돌아와 달큰한 잠을 주무시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았다.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가 찾으시니 아버지는 노망이 났음에 틀림없다.

오늘 아침 사건과 함께 나와 아내는 한순간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만숙은 피식 웃고 말았다.

"아버지 또 왜 그래요? 오늘 아침 상이 좀 소홀하기는 해도 메뚜기 뛰놀고 풀여치 우는 밥상은 아니잖수. 괜히 언니 겁주고 있어."

"뭐해, 어여. 국 좀 더 줘!"

아버지 국그릇을 들이밀며 띄엄띄엄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이상하리만큼 또박또박 울려 퍼졌다.

"아버지, 민호도 있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이리 줘요. 제가 퍼 드릴게."

만숙이 국을 한 그릇 가득 떠 주자 아버지는 다시 침묵을 유지하며 식사를 하셨다.

그제야 식구들은 꽉 찬 연기를 창문 밖으로 내뱉듯 큰 숨을 토해냈다. 나는 그렇게 심호흡을 했는데도 왠지 가슴이 시원하지 못하고 마치 저 청동기 시대 내 조상의 고인돌이 내게 덮친 듯한 묵중한 무게를 떨칠 수 없었다.

"마누라, 나 돈 좀 줘. 문제집 사게."

민호가 식탁에서 일어서며 아내를 향해 아버지 흉내 내며 말했다.

"야, 장난치지 마!"

아내는 날카롭게 한마디 하고는 안방에서 지갑을 찾아 민호에게 돈을 들려 학교에 보냈다. 민호가 학교에 가버린 것이 나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양 대하고는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워야 할 부름을 며느리에게 하고만 것이다.

"어이, 마누라. 어딨어. 옷 줘? 논에 물대러 가야해. 빨리"

나는 이 세상에서 하극상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어린 놈이 어른 무시하는 거.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잘 나든 못 나든 하루 삼시 세끼 꼬박 먹어야 하는 법이다. 그 밥그릇 숫자의 지엄한 이치를 모르는 자. 함부로 밥그릇 차는 놈들은 제 밥그릇, 숟가락 심지어는 손모가지까지 분질러놓고 싶다. '세상이 그러니까' 라는 말로 하수상한 시대를 탓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걸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종종 밥그릇 수에

는 이겨도 완력에는 당해내지 못할 아이들을 훈계하다 망신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나는 번번이 그러한 하극상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성미인 것을 어떡하겠는가. 교복입고 담배 피는 놈, 여관 앞에서 어정거리는 여중생, 전철에서 자리 양보 안하는 주제에 몸에 쫙 달라붙는 티 입고 설치는 근육맨, 늙은 사람 무시하는 새파랗게 젊은 남녀, 지 부모 버리는 개자식 등. 세상천지 자비롭다는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는 고해성사와 십일조의 도움을 받아 그들 위에 살포시 내릴 쬘 수 있으나, 내 용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의 이러한 정의로움은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종종 망신살로 뻗쳐 우리 동네 껌 좀 씹는다는 아이들은 나를 '웃기는 포청천'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나의 신념이 사회 정의를 발현할 수 있으리라 믿고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상극하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나? 아니 아버지가 내 아내를 넘보다니, 이건 내가 알아온 어떤 하극상보다 위험한 상극하가 아닌가. 내가 어제 너무 오래 고스톱을 친 것이 틀림없다. 이건 모두 꿈이 아닐까? 수면 부족이 인간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어느 의학프로그램에서 본 적도 있는 것 같다. 아니 이건 현대판 엽기 일장춘몽이다.

내가 나비의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버지가 나의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부르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의 마누라를 내 마누라라고 부르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누가 꾸는 꿈이든 빨리 깨어나라. 하지만 깨지 않는 꿈도 있다. 때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너무나 참담한 현실이 되기도 한다.

"여보, 아버님이 이상해. 아, 소름끼쳐. 당신이 가봐."

"오빠, 혹시 아버지 노망 난거 아냐? 아이고 울 아버지 노망났네!"

천박한 것이 유일한 매력인,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물론, 말하고 나서도 전혀 생각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장점인 만숙이년이 신이 난 듯 떠들었다.

"이년아,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이 나겠니? 북이랑 꽹과리도 갖다 주련?"

나는 애꿎은 만숙이에게 이 황당한 상황을 퍼부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식탁을 박차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옷장을 뒤지고 계셨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일단 앉아보세요."

"아버지."

'어! 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

'이런 제길!'

"예? 아버지 제가 누구예요?"

"누구긴 아버지지!"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졸지에 아버지의 아버지가 됐는데도 말투는 반말 그대로인 것이다. 소싯적 아버지의 권위를 쌈 싸먹고 젊음의 객기를 아버지에게 모두 풀던 때, 내가 아버지에게 반말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갔다.

"나, 이것 참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버지 내 이름이 뭐예요?"

"이 부자 자자."

"네? 그건 할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왜 이부자에요.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이부자, 아버지 이름은 이

춘보, 내 이름은 이만복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내 동생 이만숙, 여기는 내 마누라 정은아고요."

나는 아내와 만숙을 아버지 면전에 끌어다 보이며 통성명을 시켰다. 일이 터진 것이 틀림없다. 아내는 울상이 된 얼굴로 아버지에게 이것저것을 물으려고 했다. 오늘의 날짜, 요일부터 시작해서 연세, 생일, 손주 이름 등을 줄기차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에잇, 배고파 아버지 밥 줘!"

아버지는 이 모든 일에 관심도 없다는 듯 순간 역정을 내시며 자리에 누워 버리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련의 행동을 병으로 단정 지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나와 아내, 만숙은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노인정에 가서 바둑도 두시고, 텃밭에도 나가셨던 분이다. 물론 연세는 드셨지만 실수를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신 적도 거의 없는 양반이었다. 노망, 아니 치매라 해도 어떤 징후가 없었단 말이다. 아니면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아버지의 뇌에 침입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병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좋다고 나는 생각했다.

집 가까이 종합병원을 놔두고 아내가 굳이 대학병원을 가야 한다고 우겨 우리는 택시비 거금 삼만 이천원을 들여 서청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가지 않으려는 아버지는 내 옷을 입고, 밥 한 공기를 더 드시고, 아버지가 아버지로 생각하는 내 호통을 듣고 서야 겨우 대문을 나오셨다.

택시 안에서 아내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택시 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만이 우리 사이를 오락가락 했다. 라디오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댄스 가수의 노래가 시끄럽게 흘러나왔는데 내 머리 속에서는 뜬금없이 다른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아버지가 내 나이의 내 아버지로 살았던 팔십년대의 노래 한 자락이, 아무 연관 없는 노래 한 자락이 생각났다.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눈물은 꼭 울고 싶을 때는 잘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서 우리는 지루한 대기 시간을 거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그리고 기다림이 보람도 없이 아버지의 병명은 노인성 치매로 판정이 났다. 나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심지어 우리 집 만숙이까지 단번에 알아맞힌 그 병명을 얻자고 그 긴 검사를 했다는 사실에 불같이 화가 났다.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몰라도 의사와 대면한 순간 선처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은 물론 고개까지 숙여졌다.

의사는 어제까지도 멀쩡하셨다는 나의 간곡한 증언에 쉽게 말하면 겉은 멀쩡하고 속으로는 전혀 아니었다는 대답을 들려줬다. 노인성 치매가 서서히 속으로만 진행될 때는 깜박증 정도로만 넘기다가 이렇게 밖으로 크게 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속으로 병이 들었다고요? 아니요. 기력도 좋아 가끔 자리를 살피려 들어가 보면 아래쪽 이불이 불룩한 것이 새벽 발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다급한 나의 말에 의사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우, 리, 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떨리는 아내의 질문에 의사는 새끼의사에게 눈짓을 했다. 삼분 아니 이분 만에 대장의사 방을 나온 우리는 새끼의사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도 병아리 눈물 만큼이었지만 말이다.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리겠다. 무엇보다 가족 분들께서 치매가 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 환자분의 행동이나 말에 동요되면 안 된다. 감기나 몸살처럼 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행동이지 어떤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아내와 함께 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건만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버지를 간신히 떼어내 아버지 방에 모셔다 드렸다. 아버지와 한 여자를 가지고 다투게 될 줄이야……. 나는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케이블 채널의 격투기 프로그램을 틀어드리고 나왔다.

내 아내 정은아는 연애시절에는 그나마 볼만했지만 지금은 영 아니올시다다. 다행인 것은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 얼굴이 아니라 표정을 보게 되고 몸매가 아니라 몸에 그려진 상처를 먼저 살펴봐줄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아직도 아주 조금은 예쁘다. 이제 와서 아버지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우리 집은 병원을 다녀온 그날부터 전쟁이었다. 아버지는 내 아내에게 늘 마누라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다. 그리고 밤마다 아내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와 싸워야 했으며, 나로 인해 번번이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욕설을 퍼붓고 내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할 수 없이 아내와 나는 안방 문을 잠갔으나 아버지는 집요했다. 한밤중에 화단으로 나가

창문으로 우리 방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도 안 되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방문을 두드렸다. 얼마나 집요한 구애인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내 아내의 스토커로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미의 젖을 찾는 본능처럼 맹목적이었다.

나는 안방 창문과 아버지 방 창문에 쇠창살을 달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문을 밖에서 잠가야만 했다. 아버지의 방에 쇠창살을 달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창밖으로 옆 집 마당의 목련나무가 한 그루 보였다. 떨어지기 직전 검게 빼문 목련 꽃잎이 내게 메롱, 혀를 내밀며 놀리는 것 같았다. 문득 동백이 지고 목련이 피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하는 식의 자연의 시차가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생각났다. 조무래기 아이들이 겨울에 핀 개나리를 미친 개나리라고 부르듯 산책길에 깍듯이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는 아버지를 미친 할배라 불렀다. 그건 개나리 잘못도 아버지 잘못도 아니었다. 시간과 공간이 발이 꼬여 제 박자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환경오염이니 뭐니 하는 인간의 잘못이라고도 하지만 단언컨대 개나리 잘못도 우리 아버지 잘못도 아니다.

아버지의 이상 행동과 함께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화사한 봄기운과 함께 한 동안은 점점 젊어지셨다는 것이다. 내 마누라를 마누라라 부를 때는 볼도 항상 발그레해지고 가끔 검은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발견되기도 했다. 나는 겁이 났다. 아버지는 점점 젊어지는데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내가 늙어버려서 슬픈 것은 아니다. 단지 아버지와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노력했다. 아내는 온갖 좋다는 것들을 모아 날랐

고 만숙이는 아버지 생전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재취자리의 선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호도 틈틈이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다녔다. 물론 아버지에게 늘 깍듯한 존대를 듣는 것이 녀석에게는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람들은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며, 풍광 좋은 요양원에 보내면 가족들도 편하고 당신한테도 좋지 않겠냐고들 했지만, 돈도 없거니와 그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일지도 모를 아버지의 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폭풍과 고요는 늘 같은 공기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다. 약 기운에 취해 곤한 아버지를 보며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싶다가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곤 했다. 시간을 거스르는 아버지와 그 역행을 바로잡으려는 내가 대항하는 동안 아버지의 젊음은 봄날 짧은 만개처럼 화르르 시들어갔다. 대신 불같은 화만 아버지 가슴을 가득 채운 것 같았다. 집 밖에 못나가게 하려고 아버지의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다. 아버지가 장롱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신 것이다. 우리 식구들의 충격은 아버지의 병을 발견했을 때 그 이상이었다.

쿵! 쿵! 쿵!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지금 뭐하시는 거야? 오빠 빨리 방문 열어봐!"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의 이마에는 이미 피가 흥건했고, 욕설은 사방에서 난무했다. 나는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뒤엉켰다. 아버지의 저항에 우리는 방안을 누비며 사투를 벌여야 했다. 옷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부터 나는 이건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뼛살 훤히 내려다 뵈는 마른강을 내려다보며 정선 몰운대 절벽에 아슬아슬 매달린 느낌이었다. 병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 세상에 이 무슨 지랄 같은 병이 다 있단 말인가. 이건 병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주 고의적으로 우리 식구들을, 특히 나를 말려 죽이려고 벌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버지, 차라리 죽자. 나도 죽고 아버지도 죽자. 이제 살만큼 사셨잖아요. 뭐가 미련이 남아 이 생지옥을 만들어요!"

"딱 한 사람만 지목해봐. 아버지 인생에 죽일 놈 한 사람만. 나야? 공부하라는 아버지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교과서 태워 먹고 시시껄렁하게 인생 허비하다 공돌이로 평생 인생 말아먹은 나야? 시집올 때부터 이제까지 당신 아버지였지 한 번도 자기 아버지였던 적이 없던 싸가지 쌈 싸먹은 내 마누라 년이야, 아니면 마흔 가깝도록 시집도 못가 변변한 직장도 없이 반백수로 반백을 맞아 지 인생 조질 만숙이 년이야. 한 놈만 대봐. 내가 그 길로 확 찔러 버리고 끝내고 말게! 응!"

'우리 이제 끝내자! 아버지.'

죽어라 참고 있는 아내를 대신해서 그래도 아버지라 밤마다 머리맡에서 눈물 짜내는 만숙이 년을 대신해서 애쓰지 않는 척 속으로 애쓰고 있는 아들놈을 대신해서 나는 발광했다. 아주 짧은 동안 몸에서 불이 번쩍번쩍 일어날 정도로 발광을 하고 나는 사르르 흰 연기만 내 뿜고 사그라졌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밥도 내가 먹이고 얼굴도 내가 씻기고 밤에 잘 때도 내 다리와 아버지 다리를 묶어두고 나란히 누웠다. 한 밤중에도 몇 번씩 아버지는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나아질 거라는 내 얕은 꿈도 내 다리에 연결됐던 빨랫줄에 딸려 탱탱하게 당겨지면서 나를 생

활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

초록이 아버지 몸의 시퍼런 멍 자국과 함께 찾아왔을 때 아내가 우리 식구를 모두 모았다. 그리고 내가 먼저 전문요양원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즈음 우리 식구는 속으로는 물론 겉으로도 아버지를 한없이 원망하고 있었다. 우리 식구 누구 하나 제외 없이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효자도 싫었고 자식 된 도리도 모르겠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얘기를 막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내 마누라였다.

"그냥, 모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셔요 우리가."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나머지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질 것이 뻔한 전장에서 천천히 말을 몰아 선봉에 서는 사람처럼 결기가 묻어나진 않았지만, 그 결기보다도 더욱 우리를 압도한 그 조용한 한마디에 우린 그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전국에 치매 전문 요양기관은 턱없이 모자랐고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었으며, 사설 요양기관은 비싼 입원비를 요구했다. 결국은 아내의 결단이 필요했던 터였다. 그리고 '돈 때문이 아니라'는 아내의 말이 실은 돈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는 소리를 작게 틀어놓은 거실 텔레비전에 눈을 박고 있었다. 간간이 아버지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텔레비전 볼륨은 작고 가냘프게 집안에 울렸다.

우리는 멍하니 암환자들의 건강식품 피해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들여다봤다. 자막과 함께 마지막 장면이 나왔다. 내 나이 또래의 폐암 말기 어머니를 둔 아들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도 울지 않았다. 그 가족들은 아무도 울지 않았다. 나는 순간 왜?

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을 시작했다. 때어날 때 당신 몸을 열어 나를 세상에 내보내 한 번의 생명을 주시더니 이제는 불치의 투병으로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 이런 몹쓸 병이 있더라, 너는 이리 되지 마라' 몸소 보여주시며 두 번째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

'얼씨구!'

앞으로 어머니를 업고 우리나라를 돌아볼 생각이에요. 그 길에는 아들인 내가 앞장서서 먼저 구덩이에도 빠지고 진창도 걸으며, '어머니 돌아오세요, 거긴 위험해요.' 말하고 싶다며 말을 맺었다.

'절씨구!'

나는 눈물이 났다. 배부른 소리였다. 나는 순간 아버지가 차라리 암이었으면 힘없이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시한부 인생이었으면 하고 바랬다. 우리 식구는 그 밤 모두 소리 죽여 울었다. 우는 동안 차라리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낫다는 절망에서 시작된 내 울음은 이미 그 목적을 잃었다. 죄책감 때문도 아니고 사무치는 원망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울어야 했기에 그날 밤 우리는 울었다고 생각한다. 울지 않고는 보낼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울지 않고는 어쩔 도리가 없는 밤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는 동안이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시작된 일인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하다가 이내 포기해 버렸다. '마누라' 라는 소리 말고는 거의 제대로 발음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왕성하던 식욕도 사라져 갔다. 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가벼워졌다. 나는 아버지를 씻길 때마다 아버지가

점점 더 가벼워져 나비가 되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버지의 몸무게라면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날고 싶으세요? 날아서 내 마누라 보다 더 예쁜 꽃 찾아 가세요. 어머니한테 가세요."

"…… 마누울."

돌아가실 즈음에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

아버지의 옷장을 열자 청개구리 수 만 마리가 쏟아져 나왔다. 모두 개굴개굴 울고 있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은 울며불며 아내의 방으로 펄쩍펄쩍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곳에 물이 있었다. 찰랑찰랑 발목까지 차오르는 따뜻한 물이 달빛에 조용히 부풀고 있었다. 개구리들은 한 마리씩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첨벙첨벙 하는 소리가 둥글게 퍼져 나에게까지 전해왔다. 나는 그 개구리들을 아내의 방에서 쫓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바지를 걷고 물속에 들어가 첨벙거리며 개구리를 잡아 방 밖으로 던졌다. 하지만 어느새 초록 개구리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왔고 내 발목을 간질이며 길게 유영을 하고 있었다.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듯 물결은 내 사타구니 사이를 지나 사라졌다.

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의 방에는 달빛만 흥건했다. 나는 바지를 걷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웅덩이 속에서 한동안 첨벙거렸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내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염을 할 때였다. 아버지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다시 내 늙은 아버지가 되어 반듯하게 누워 계셨다. 지난 몇 달간의 소나기 같은 기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셨

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돌아서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 순간 발목이 아팠다. 그리고 이 정도면 잘 보내드렸다 싶은 내 알팍한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발목 때문이었다. 아버지 발목에는 시퍼렇게 멍이 살아있었다. 아버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아버지 발목에 내가 묶어 둔 빨랫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놀라 내 발목을 걷어보았다. 아버지 발목과 연결해둔 내 발목에는 그 멍 자국이 없었다.

삼일장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구석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잤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었다. 그리고 가끔 내 발목을 만져보곤 했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병이 났다. 아주 중병이 났다.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각설이처럼 죽어도 못 잊을 첫 정처럼 아버지가 병이 난 그 봄이 다시 왔다. 아버지는 병들어 내 아내를 사랑했고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론대로라면 다시 내 아버지가 되어야 할 내 아들 민호는 대학 새내기답게 요즘 엄청나게 바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놀고 있다. 술과 놀고 여자랑 놀고 하늘과 놀고 땅과 놀고 개판 세상과 어울려 나비처럼 가볍게 놀고 있다. 내 아버지와 함께 한 마지막 육 개월을 민호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선생들과 하는 야자타임쯤으로 기억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아니 벌써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 모든 자식들은 후레자식이다. 내 동생 만숙이가 아직도 시집을 안간 걸 보면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벌 받는 후레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것은 결코 벌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주 깊은 봄 밤, 무논에 달빛 받은 올챙이 한 마리가 자신을 보내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완벽한 유영이 실은 엄청난 몸부림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가르쳐주신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봄. 아버지의 이 봄이 꽤 오래갈 것 같다.

어둑한 밤이다. 이곳에선 밤이 유난히 빨리 찾아온다. 이제 막 이가 나기 시작한 아이는 칭얼대다 엄마와 함께 잠이 들었다. 고요한 내 가족의 밤에 나만 잠시 깨어 있다. 홀로 깬 나는 참 알 수 없는 밤이라고 생각한다. 그 알 수 없는 밤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
그 알 수 없는 밤을 고요히 지켜주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조용히 들여다본다. 세상의 모든 평화와 행복이 거기 나지막이 숨 쉬고 있다. 내 꿈도 거기서 아늑하다.

동시 부문

최우수상

할아버지의 발톱 _ 정성수

우수상

도라지꽃 _ 임동학

신나는 통통배 _ 박영식

장려상

깜깜한 밤 _ 서동숙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_ 심장근

멸치의 꿈 _ 권지현

비 오는 날 _ 문현식

시험지 _ 송명숙



할아버지의 발톱



할아버지께서 발톱을 깎으시겠다고
손톱깎이를 찾으신다.
얼른
엄마 화장대에서 갖다 드렸다.

할아버지의 발톱이
너무 두꺼워
손톱깎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할아버지 발톱에는
삼십 리 길을 뛰어 다녔다는
초등학교 시절이 새겨져 있고
월남전 정글에서 베트콩을 잡았다는
무용담도 들어있는
할아버지의 나이테다.

가위로도 깎아지지 않는
할아버지 발톱은 발톱도 할아버지다.



전주 송북초교 _ 정성수



동갑내기 사촌형과 함께 사랑채 할아버지 방에서 무릎을 꿇고 천자문을 배웠다. 할아버지께서 제시한 양을 외우지 못하면 여지없이 장죽으로 머리통을 얻어맞았다. 어느 때는 마루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든 채 울면서 천자문을 외우기도 했다. 내 유년의 할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추억이다. 내게 손자가 생긴다면 내 손자에게 나는 어떤 할아버지일까? 정말 가위로도 깎아지지 않는 발톱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할아버지라는 자리가 캄캄하게 다가온다.



포항 유강초교 _ 임동학

도라지꽃

할머니 무덤 위에
도라지꽃 피었다

뻐꾹새 울던
여름 한낮에도

들국화 피던
가을 어스름에도

외딴 산밭
혼자 김매시더니

할머니는
무덤 속에서도
도라지를 가꾸셨구나

슬그렁 슬그렁
호미소리 들린다

할머니 돌아가신지 참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 할머니의 세월 속으로 더듬어 길 떠납니다. 그 길은
언제나 뙤약볕이 따갑거나 쓸쓸한 어스름입니다.
지난해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남울산우체국 _ 박영식

신나는 통통배

물안개가 다녀간
아침바다

장난감 같은 통통배가
넓다란 바닷밭을
쟁기질 한다

너울너울
일어나는
바다 밭이랑

통통통
싱싱한 돌미역도 베 나르고
소라 멍게도 캐 나르고

밭 끄트머리
복숭아처럼 빨갛게 매달린
아침해도 따 담은
신나는 통통배

색동 깃발을
바람개비로 돌리며
기분 좋게 달려온다

바다 사람들의 부지런한 삶을 보며...

두 해전 한 문학 세미나에 참가하며 여수 돌산에 갔었다. 그림처럼 운치가 그만인 절벽 위에 깃을 접은 향일암에서 저 아래로 내려다본 바닷가 양식장은 말 그대로 바다 사람들의 밭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통통배가 쉴 새 없이 오가며 만들어 내는 물굽이는 분명 쟁기질로 갈아엎는 밭이랑 이었다. 조그마한 통통배와 부지런한 사람들도 동화적으로 다가왔었다.

깜깜한 밤

깜깜한 밤
불까지 꺼져서 더 깜깜한 밤

창문에 기대선 달빛
달빛에 눕는 나무 그림자
그 그림자 흔드는 바람소리

깜깜해서 안보일 줄 알았는데
낮보다도 더 또렷하게 보여요

깜깜한 밤
깜깜해서 더 조용한 밤

갇혀 있던
용기 없는 말들

머리 속에서 웅웅 울던
후회 섞인 한숨들

조용해서 다들 자는 줄만 알았는데
낮보다도 더 또렷하게 속삭여요



고령초교 _ 서동숙

어둡고 조용해서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일상의 사소함들...
밤은 부끄럼 많은 사소함을 되살리고 정제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나 봅니다.
자만감이 부끄러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열등감이 자부심으로 바뀌기도 하는 묘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
오늘은 더욱 많은 되돌아보기를 배워야 할 듯 합니다.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내가 손잡이를 꼭 잡은 것만큼
너도 내 허리를 꼭 잡고

이제는 내리막길이다
몸이 더 가까이 붙는다.

내가 잡은 자전거 손잡이는
너의 따스한 허리가 되고

네가 잡은 내 허리는
너의 따스한 손잡이가 되고.



온양 권곡초교 _ 심장근

좋은 동시는 아이들의 가슴 높이를 맞출 때 가능하다.
그 가슴 높이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멸치의 꿈

먼 바다를 돌아왔는데
어째 너는 그리 몸집이 작으냐

부신 비늘이 은결로 돋아나는 아침
잠시 꿈을 꾸고 있던 것처럼
햇살 아래 누워 은빛 비늘 차곡차곡
마른 살에 저며 넣는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맑은 장국 속에서
김치찌개 속에서
버섯국 속에서
깊이깊이 헤엄치던 시간
지금 풀어내는 중인지 몰라

책갈피에 오래 파묻힌
네잎클로버 꺼내보는 순간처럼
호르륵 첫숟갈 마시는 국물,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물이 되고
웃음이 되려고
작은 몸집이 끌어당긴 바다
풀어놓고 있는 거야



서울 백산초교 _ 권지현

임신하면서 태어날 아기에게 들려줄 말들을 가만가만 발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심히 발해오던 단어를, 문장을, 그 안에 담긴 생동감과 의미들을 다시금 짚어보았습니다. 연둣빛 잎새 나날이 짙어지는 초여름, 돌 막 지나 걸어다니기 한창 좋아하는 규연이에게 언젠가 들려주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봄날 아침,
창밖에 비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운동장은 봄비에 푹 젖었습니다.
화단에 노루귀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창문까지 올라온 개나리가
오늘 아침 더 노랗게 보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가만히 책을 읽습니다.
선생님도 책을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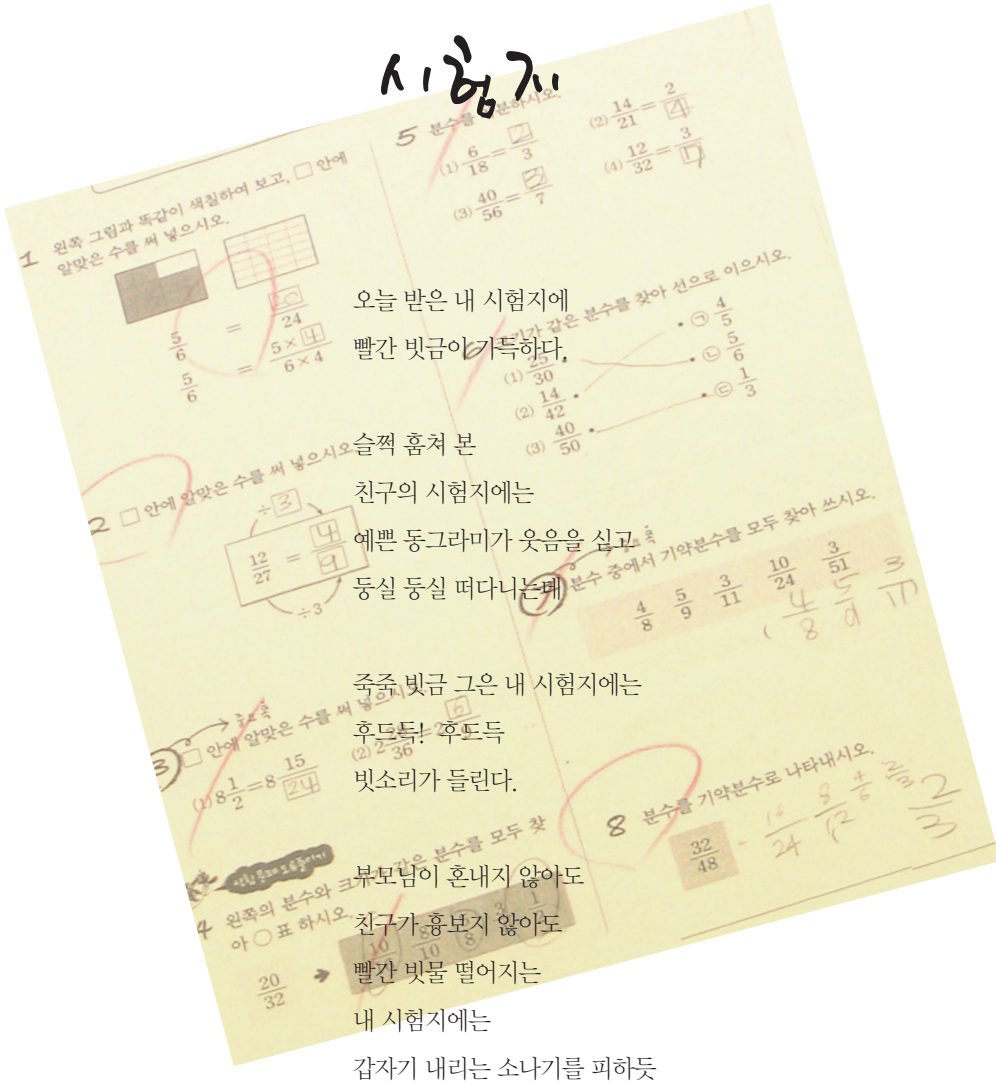
비가 오는 학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참 조용한 아침입니다.



고양 고봉초교 _ 문현식

봄날 아침, 학교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날따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그건 자기의 일을 가만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는 가만히 내렸고, 꽃은 가만히 피어 있었고, 학교는 가만히 비를 맞았고, 우리는 가만히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하게 할 일을 하는 모습은 아름다움과 닮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험지



오늘 받은 내 시험지에
빨간 빗금이 가득하다.

슬쩍 훔쳐 본
친구의 시험지에는
예쁜 동그라미가 웃음을 싣고
둥실 둥실 떠다니는데

죽죽 빗금 그은 내 시험지에는
후드득! 후드득
빗소리가 들린다.

부모님이 혼내지 않아도
친구가 흉보지 않아도
빨간 빗물 떨어지는
내 시험지에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듯

어딘가 숨고 싶은
내 마음이
빗금으로 누워 있다.



울산 동백초교 _ 송명숙

시험을 치고 나서 죽죽 긋는 시험지를 매길 때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꾸중을 먼저 한다. 나쁜 점수를 받아도 잠시 다시 고무공처럼 자신의 기분을 회복하는 아이들 틈에서 눈빛이 흔들리는 아이가 있다.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다친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시 한편 깃고 싶었지만 이미 아이들 마음에서 많이 떠나와 있는 나를 보게 된다.

동화 부문

최우수상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_ 서향숙

우수상

점박이 _ 최만호

장려상

꼬마화분 _ 장흥진

새치 뽑던 날 _ 임동학

은빛 날개 비늘 _ 서동숙

학교 종 _ 이종욱

할머니의 금메달 _ 이윤정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말 못하던 똥초가 그렇게
말을 잘 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 똥초는 생글거리며
신나게 떠들고 있지 않은가?
헬리콥터는 파란 뱀처럼 구불구불한
강물 위를 지나고 있었다.



광주 계수초교 _ 서향숙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쨍그랑–"

빨강 장미꽃이 아파트 꽃밭에서 눈을 크게 떴다. 옆에 있던 백일홍 나무도 목을 움츠리며 토끼눈 모양을 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보려고 했지만 고개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로등이 혀를 끌끌 차며 측은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파트 보도블록에 내던져져 있는 자신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개구쟁이 형제들이 알미웠다. 메가레인저는 찬 기운이 느껴져 이리저리 몸을 뒤척여 보았다. 몸이 쑤시고 아팠다.

'이젠 난 끝이야. 단지 쓰레기일 뿐이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이 미웠다.

"이런, 개구쟁이들이 또 일을 저질렀군."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말이 들려왔다. 아저씨는 장난감로봇인 메가레인저를 집어서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넣었다. 다치지 않은 팔로 더듬더듬 다리를 만져보니 덜렁거렸다. 그래서 그토록 다리가 아팠던 모양이었다. 부서진 몸으로 쓰레기통에 내팽개쳐진 게 서럽기만 했다.

밤이 되었다. 사방은 조용했다. 장난감 가게에서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일이 생각났다. 새벽이 되도록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던 때가 그리웠다. 서러운 생각이 들어서 조그맣게 콧노

래를 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끌벅적해서 눈을 떠보니 쓰레기차가 와 있었다. 사방이 환해진 걸 보니 아침이 된 모양이었다. 차 속에는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깡통 등이 가득 실려 있었다. 메가레인저는 답답한 쓰레기 속에 쳐 박혀 있었다. 쓰레기차는 어디론가 계속 달려갔다. 궁금했다. 어깨도 움직일 수 없이 병과 깡통이 가득 찬 차 속은 후덥지근했다. 바로 옆에서 유리병과 깡통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더 짜증이 났다.

"조용히 하지 못해?"

유리병과 깡통은 삐쭉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한참 달리던 차가 드디어 멈추었다. 메가레인저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더미에 휙 던져졌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더미 속에 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참는 수밖에 없었다. 생각할수록 자기를 이렇게 만든 개구쟁이 형제가 얄미웠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 때 마음씨 착해 보이는 아저씨가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쯧쯧, 아직은 쓸 만한데 누가 함부로 버렸지?"

아저씨는 메가레인저를 얼른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서 가방 속에 넣었다.

"아이, 답답해."

가방 속은 어둡고 비좁았지만 꾹 참고 있었다. 아저씨가 잰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메가레인저를 방 한쪽에 꺼내어 놓았다. 혼자서 저녁 식사를 마친 아저씨는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정성껏 고치기 시작하였다. 아저씨가 고칠 때 많이 아팠지만 꾹 참았다. 아저씨는 다 고친 다음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었다. 고맙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저씨는 메가레인저를 작은 상자에 담더니 조심

히 들고 나갔다. 한참 걸어서 어느 조그만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동초야!"

"……"

방안에는 몸이 아주 약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동초야, 옜다. 선물이다."

"……"

아저씨는 동초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한 후 일터로 나갔다.

메가레인저는 말없이 큰 눈으로 웃기만 하는 동초가 이상했다. 더 이상한 것은 방 한 쪽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손짓만 하였다. 할머니가 간신히 움직여 아저씨가 갖다 준 빵을 동초와 함께 먹는 걸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었다. 동초와 할머니는 옆집 아주머니가 갖다 준 밥과 국을 반찬도 없이 먹었다. 동초가 손짓, 눈짓, 고갯짓을 하는 게 할머니께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얼마나 답답할까?'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든 동초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부터 동초는 하루 종일 말없이 골방 문 앞에서 메가레인저만 갖고 놀았다. 골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한 편으로 골방 속에 요술방망이가 들어있어서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초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게 기뻤다. 동초는 하루 종일 메가레인저만 가지고 놀았다. 작은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뺨에 대고 부비며 깔깔 웃기도 했다. 오래오래 동초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

다. 비록 동초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메가레인저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초가 메가레인저를 얼굴에 대고 웃으며 편안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었다. 사랑스러운 동초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느님, 동초 할머니 병을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또 동초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메가레인저는 날마다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오늘따라 동초의 마음이 더 예쁘게 느껴지네. 어떻게 하면 동초가 말을 할 수 있지?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을까?'

간절한 바램으로 동초의 순한 눈을 얼마 동안 빤히 바라보았다. 배시시 웃는 동초의 맑은 눈동자가 갑자기 커다래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빙긋이 웃음을 띤 동초는 메가레인저의 손을 잡고 요술방망이가 있을 법한 작은 골방 문으로 황급히 들어가고 있었다.

순간 메가레인저는 헬리콥터처럼 푸른 하늘을 멋지게 날기 시작했다. 햇볕에 반짝거리는 두 날개를 잽싸게 움직이며 가슴을 쭉 펴고 신나게 날았다. 바로 옆으로 구름 떼들이 재잘거리며 지나갔다. 하늘 한 켠에서 쉬고 있던 여름 바람도 큰소리로 떠들며 헬리콥터 속을 들여다보고 갔다. 저 아래 내려다보이는 발밑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씽씽 지나갔다. 초록담요 위에서 갖가지 예쁜 꽃들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조종사도 없는데 어떻게 날아가지? 동초는 어디 갔지?'

메가레인저는 골방 문으로 함께 들어간 동초가 생각났다.

그 때 뒤쪽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메가레인저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만 깜짝 놀랐다.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 놀라서 한 동안 머리가 어지럽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다보았다. 동초가 틀림없었다.

"동초야!"

"넌 누군데 내 이름을 아니?"

"나야, 메가레인저야."

동초는 헬리콥터가 된 메가레인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말 못하던 동초가 그렇게 말을 잘 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 동초는 생글거리며 신나게 떠들고 있지 않은가?

헬리콥터는 파란 뱀처럼 구불구불한 강물 위를 지나고 있었다. 진초록 옷을 입은 높고 낮은 산들이 손을 흔들어 주며 인사를 했다.

"동초야, 언제부터 말을 한 거니?"

궁금하여 동초에게 말했다.

"헬리콥터를 탄 뒤부터야."

신이 난 메가레인저는 어깨춤까지 덩실덩실 추며 날아가는 것이었다. 춤추는 새가 아니고 춤추는 헬리콥터가 아닌가? 이번엔 동초가 휘파람새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휘파람새가 세상에서 가장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와! 집이 장난감 같아!"

정말 신기했다. 세상 구경을 처음 하는 동초는 하마 입이 되었다. 눈을 반짝거리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크고 높은 집들은 아파트인가 봐."

메가레인저는 장난감 가게 친구들이 해 준 얘기를 동초에게 했다.

"개미떼처럼 길에 늘어 서 있는 것은 자동차들이야."

동초는 손뼉까지 치며 즐거워했다.

"와……."

잠시 후에 헬리콥터는 넓고 편편한 지붕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순식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헬리콥터가 쑥쑥 작아지더니 남자아이로 변해 버렸다. 메가레인저는 동초만한 아이로 변한 자신이 너무나 놀라웠다.

"얘, 동초야!"

"넌 이제 사람이야!"

동초가 큰소리로 말했다.

둘은 부둥켜안고 그 자리에서 팔딱팔딱 뛰었다. 꿈을 꾸는 듯 자꾸만 다가오는 신기한 일들이 놀라울 뿐이었다.

"언젠가 아저씨가 말하던 놀이동산인 것 같아."

"우리 놀이 기구를 타 보자."

"신난다!"

메가레인저와 동초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놀이동산 입장권을 가지고 붕붕카 앞에서 줄을 섰다.

차례가 되자 둘은 빨강, 노랑 붕붕카를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다. 재미있었다. 그 다음에는 청룡열차를 탔다. 빙빙 돌아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무서웠지만 손잡이를 움켜잡고 눈을 감으니까 괜찮았다. 계속해서 바이킹,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열기구 등을 재미있게 탔다. 둘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배여 나왔다. 동초와 메가레인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처럼 즐거운 때는 없었다. 기뻐서 몸이 사르르 떨려 옴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가 걱정을 하실 텐데…….'

메가레인저는 집에서 누워 계신 할머니한테 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

각이 들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마지막으로 '귀신의 집' 만 구경하고 돌아가자."

메가레인저가 벙글거리며 말했다.

"무섭지 않을까?"

'귀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초를 안심시켰다.

"용감한 우리가 무서울 게 뭐니?"

"그럼, 우리 빨리 보고 나와야 해."

메가레인저의 말에 동초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손을 붙잡고 어두컴컴한 '귀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잘 보이지 않는 방으로 조심조심 걸어 들어갔다. 갑자기 천장에서 도깨비귀신이 떨어졌다. 얼마나 놀랐던지 둘은 뒤로 벌렁 넘어졌다. 간신히 일어나서 도깨비귀신을 피해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씨잉 찬바람이 불어왔다. 귀를 찢는 듯한 귀신 웃음소리가 이 곳 저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울긋불긋한 안개가 앞을 가렸다. 무섭게 생긴 귀신이 나타나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며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메가레인저와 동초는 잡은 손을 놓쳐 버렸다.

"동초야! 어디 있니?"

큰소리로 불렀다. 그런데 소리는 얼어붙은 듯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속에서 밖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동초가 걱정되었다. 무서움에 벌벌 떨었다.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달렸다. 온몸에선 땀이 비 오듯 흘러 내렸다. 귀신에게 쫓겨 계속 달렸다. 앞쪽에 희미한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죽을힘을 다해 달렸다.

앞에 붉은 빛으로 된 문이 있었다. 급히 그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동초네 작은 골방에서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확 덮쳤다.

"동초야, 어디 있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동초가 자기 집 골방에서 까만 눈동자를 똑바로 뜨고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동초야, 살아 있었구나!"

그 순간이었다. 메가레인저의 눈에서 강렬하고 붉은 빛이 선명한 두 줄기 빛이 나왔다. 그리고 동초의 눈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동초를 부둥켜안았다. 따스한 기운을 서로가 느낄 수 있었다. 훈훈한 기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동초의 희노란 얼굴이 불그레하니 물들고 있었다.

"우리 할머니!"

"내 손주가 말을 하다니!"

그 순간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동초를 껴안고 울었다.

"이 할미도 이젠 나은 것 같이 가뿐하구나!"

동초는 상기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두리둥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메가레인저는 건강을 되찾은 동초와 할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

밤마다 동화의 나라에 빠져 비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줄 수 있는 따스하고 정이 넘치는 동화를 써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아동문학가의 책임을 느끼며 더 조심스럽게 작품 집필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 문예대전의 주최 측과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점박이

"말 몬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하면 못써.
내일이면 팔려갈 텐데 불쌍허지도 않냐?"

점박이가 팔려간다는 말에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청주교도소 _ 최만호

점박이

"니네 엄마, 점박이처럼 이마에 점 있다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수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래?"

"동네 아줌마들 얘기 다 들었어."

"아니야, 우리 엄마 이마에 점 같은 거 없어. 한번만 더 그런 말하문 너 죽을 줄 알아."

나는 길수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니문 말지 왜 화는 내냐?"

길수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자식이, 내가 니네 엄마 얘기하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길수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길수의 코에선 코피가 주르르 흘렀습니다. 길수는 코피를 보자 금세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집에 오니 점박이가 반갑다는 듯이 좁은 외양간 안을 마구 뜁니다.

"이놈의 소 새끼, 조용히 못해!"

나는 빗자루를 들어 점박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점박이는 어미 소 뒤로 숨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화가 풀리지 않아 빗자루로 어미 소를 마

구 때렸습니다.

"말 몬하는 소를 왜 때리냐?"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들은 체도 않고 세숫대야를 들어 외양간 안으로 확! 물을 뿌렸습니다. 점박이가 놀라 '음매' 하고 소리쳤습니다.

"말 몬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하면 못써. 내일이면 팔려갈 텐데 불쌍허지도 않냐?"

점박이가 팔려간다는 말에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니 애비가 점박이 팔기로 혔댄다."

"정말이에요?"

"내가 어린 것 붙잡고 거짓부렁 할까?"

"근데 왜 하필 점박이에요?"

나는 할머니가 점박이를 팔기라도 하는 것처럼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낸들 니 애비 하는 일을 어찌 안댜. 오늘 소장수 왔다 갔다."

텃밭으로 가시며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점박이를 파는 건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데 그렇다고 어미 소를 파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녁노을이 뒷산 능선에 걸리고도 한참이 있어야 아빠는 돌아오셨습니다. 아빠는 가을걷이가 끝나고부터 이웃마을 농수로 공사장에 나가셨습니다. 올해는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었습니다.

"아빠! 점박이 정말 팔 거예요?"

"그래."

"아직 어린대두……"

"아빠도 어쩔 수 없어. 은행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구나."

나는 제발 팔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간 후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습니다.

"왜, 섭섭하냐?"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려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애비야, 송아지 꼭 팔아야 혀냐?"

뜰에 앉아 파를 다듬던 할머니가 내 마음을 아시는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작년 겨울에 비닐하우스가 폭설에 무너지지만 않았어도……."

아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언덕 위에 커다란 소나무도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시설 하우스가 거의 다 무너져 내려 동네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웃음을 잃었었습니다.

나는 짚단을 외양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점박이는 먹을 생각도 않고 앞다리와 혀로 끌어다 장난을 쳤습니다. 지푸라기는 외양간 곳곳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무 야단도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할머니도 점박이의 장난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 놈의 송아지!' 하면서 빗자루를 들어 때리는 시늉이라도 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미 소를 팔려고 했더니 쇠끔이 워낙 안 좋아서 제 값을 쳐 줘야 말이죠. 송아지 값은 그래도 나아요."

"그랴도 아직 어린 것을……."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놈의 빚만 아니면 그냥 먹이려고 했더니……."

아빠도 서운한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골의 겨울밤은 길었습니다. 마을 군데군데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둠이 찾아오는지 가로등 둥근 원을 남기고 온통 검정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법사처럼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굣길에 길수 녀석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니네 엄마, 점박이처럼 이마에 점 있다며? 점 있다며, 점 있다며…….

눈을 굳게 감을수록 더 크게 들려옵니다.

'나쁜 자식! 가만 안둘 거야.'

그런데 정말 엄마 이마에 점이 있었나, 엄마 얼굴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우리 집 가족사진 속에는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가 집 나가고 찍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얼굴들이 울상입니다.

점박이는 작년 겨울에 태어난 송아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도 점박이처럼 엄마가 있었다면 길수 녀석이 이렇게 깔보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길수 말대로 엄마 이마에도 점박

이처럼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윗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은 것도 같습니다. 나는 길수 녀석과 같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다른 날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길수랑은 같은 동네에 딸랑 둘 뿐이어서 늘 어깨동무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리 길을 걸어가려니 심심했습니다. 늘 길수와 장난치며 다니던 길이 오늘따라 새롭습니다. 우리 걸음에 맞춰 따라오던 참새소리도 오늘은 들리지 않습니다. 가로수도 낮게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나쁜 녀석!'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학교에 오니 가까이 사는 친구들만 몇 명 와 있었습니다. 길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길수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모른 체 했습니다. 길수도 나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업시간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청소시간입니다. 다른 땐 가까이 사는 엄마들이 청소를 해 주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 학교에 손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청소구역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 끝나는 순서대로 집에 가는 거야. 반장에게 검사받고……."

선생님은 같은 방향의 아이들끼리 청소 짝꿍을 맺어주셨습니다. 당연 길수와 청소 짝꿍이 되었습니다. 나는 길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길수와 나는 복도 쪽 유리창 청소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은 짝꿍끼리 합심해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집에 빨리 돌아가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길수와 내가 맡은 유리창

은 모두 열장입니다. 위쪽에 다섯 장, 아래쪽에 다섯 장입니다. 나는 그 중에 아래쪽 유리창 다섯 장만 닦고 반장에게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반장은 열 장 모두를 닦아야 검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김길수, 너 때문에 늦잖아."

"흥, 너는 아래쪽 유리창만 닦았잖아."

길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길수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길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니네 엄마도 점박이처럼 이마에 점 있대. 우리 형이 그랬어."

"뭐야 이 자식! 내가 다시는 우리 엄마 얘기 하지 말랬지."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래도 이 자식이."

그 때였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선생님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인석들이 청소를 하랬지 싸움을 하랬어. 둘 다 앞으로 나와."

길수와 나는 앞에 나와서도 씩씩거리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싸웠어?"

"중구가 아래쪽 유리창만 닦고 가려고 했어요."

"니가 먼저 우리 엄마 얘기 했잖아."

"내가 틀린 말 했냐. 니네 엄마 점박이처럼 이마에 점 있잖아."

"그래도 이자식이."

"둘 다 조용!"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길수가 먼저 사과해. 누가 네 엄마 얘기하면 기분 좋겠니?"

"아니요."

길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중구야. 내가 잘못했어."

머뭇머뭇하다 길수가 말했습니다.

"중구도 어서 사과 받아들이고……."

나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다시는 니네 엄마 얘기 안 할게. 정말이야."

"……."

나는 못들은 척 앞서 걸었습니다.

"참, 중구야 너네 점박이 팔기로 했다며?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아차!'

나는 그제야 점박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길수도 미안하다며 내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도 그렇고, 윗집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엄마 이마엔 점박이처럼 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뛰어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작년 겨울 무너진 비닐하우스 앞에서 우시던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째 내리는 눈 때문에 결국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호박을 하나도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진 빚만 아니라면 점박이를 팔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자 조금씩 날리는 눈발도 밉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맞으며 트럭에 실려 가는 점박이의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오지 마."

나는 길수를 향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일, 학교 꼭 같이 가자. 미안해."

길수는 힘들었던지 뛰기를 멈췄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양간 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외양간 안에서는 당연히 팔려간 줄만 알았던 점박이가 입에 지푸라기를 물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틀림없이 점박입니다.

"할머니, 아직 소장수 아저씨 안 왔어요?"

"안 팔기로 혔다. 아직 어린디 어찌 팔겠누?"

"정말요?"

"그렇다니까. 어젯밤 꿈에 네 엄마가 보이더라. 네 엄마 베트남에서 시집와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말도 다르지, 음식도 다르지, 친구도 없지……. 네 엄마도 점박이처럼 이마에 점 있단다.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사실 네 엄마 집 나간 거, 할미 잘못이 크다.

점박이를 보고 있으면 니 어미 생각이 더 간절하다. 점박이를 팔고 나면 영영 네 엄마 안 돌아올 것 같더구나. 그래서 네 엄마 주려고 푼푼 모아 둔 돈을 니 아빠한테 주었다. 그걸로 빚은 다 못 갚지만 보태라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나는 짚단을 들어 외양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미 소의 발밑까지 힘차게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를 향해…….

다음날 아침, 길수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나를 부릅니다.

"중구야! 학교가자."

나는 못 이기는 척 길수를 따라 나섭니다. 참새 소리가 우리 발걸음에 맞춰 따라옵니다.

본가가 시골인데, 늦도록 결혼 못한 형들이 있어요. 그 중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형도 있고요. 외국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외국 처녀들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도 없지, 말도 틀리지, 음식도 다르지.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썼습니다. 이제 그들도 엄연한 우리의 가족이니까요.

꼬마화분



"이 할미가 쓸쓸할까봐
네가 여기에 왔구나.
꼬마화분 착하기도 하지.
너를 보니까 어릴 적에 같이
놀던 동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구나."



안양 삼봉초교 _ 장흥진

꼬마화분

병아리의 부리처럼 조그맣고 여린 새순이 쫑긋쫑긋 돋아난 나뭇가지 사이로 감실감실 아지랑이가 흐르는 봄날이었어요.

학교 공부가 끝난 뒤, 비단이는 집에 곧장 가지 않고 꽃밭 옆에서 놀았어요. 비단이네 학교는 야생화 꽃밭이 양지쪽을 따라가며 건물을 에워싸듯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1학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 간 오후, 비단이 담임선생님은 양복 대신 일하기 편리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꽃밭 가꾸는 일을 하시곤 했어요. 겨울을 나면서 이름표를 잃어버린 꽃나무 앞에 산뜻한 꽃 이름이 적힌 팻말을 세우고, 꽃모종을 옮기고, 잡초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집이 학교 교문 바로 앞인 비단이는 신발주머니를 들고 책가방을 멘 채 선생님을 따라 다니며 구경을 했어요.

"비단이 이제 집에 가야지."

'패랭이꽃' 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는 풀포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비단이에게 선생님께서 조그만 화분을 하나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비단아, 이거 집에 가져가서 키워 볼래?"

"네."

"며칠 뒤에 보라색 꽃이 필 테니 많이 예뻐해 주렴. 꼬마화분이지만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고맙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꼬마화분을 들고 가는 비단이의 분홍빛 책가방과 분홍빛 치마에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은 조심조심 걷는 비단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비단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꼬마화분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비단이네 베란다에는 키가 큰 화초들이 빽빽이 자라고 있었어요. 비단이는 처음에 꼬마화분을 키 큰 화초들 사이에 놓았다가 잘 보이지 않자 화분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 때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께서 안방을 청소하시다가 베란다로 나오셨어요.

"비단아, 그게 뭐니?"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거예요."

비단이는 꼬마화분을 잠시 거실의 소파 앞에 있는 탁자에 두고 베란다의 중앙에 놓인 난초 화분을 구석 자리로 옮겼어요.

"어디 보자. 에이 이건 풀이잖아."

비단이가 꼬마화분을 탁자 위에서 집어 들자 아주머니께서 얼굴을 쭈그러진 공처럼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비단아, 이건 밖에 나가면 널려 있는 흔한 잡초야."

"아녜요. 우리 선생님께서 며칠 뒤에 꽃이 핀댔어요."

비단이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꼬마화분을 여왕의 의자처럼 아름답게 장식된 흰색 화분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일그러진 표정으로 비단이와 꼬마화분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비단이는 못 본 척 화장실로 손을 씻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비단이의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자 꼬마화분은 현관의 구석자리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퇴근하시는 아주머니 손에 들려 아예 집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는 귀찮다는

듯이 꼬마화분을 비단이네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통 옆에 털썩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셨어요.

낮에는 봄기운이 가득한 다사로운 날씨였지만 해가 지자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꼬마화분은 몸을 움츠리고 퀴퀴한 쓰레기 냄새를 맡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비단이가 보고 싶었어요. 비단이에게 작별 인사도 못 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또 이대로 있다가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지게 될 것 같아 두렵기도 했어요.

어느새 아침이 되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인지 비단이 또래의 아이들이 재잘대며 지나가자 꼬마화분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나절이 지났어요. 꼬마화분은 이제 목도 마르고 졸리기도 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아직도 있네!"

눈을 떠보니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남자 아이였어요. 키는 비단이보다 조금 작았어요.

아이는 손에 쥐었던 신발주머니를 오른쪽 팔에 끼고 꼬마화분을 안아 올렸어요.

"이렇게 예쁜 화분을 누가 버렸을까?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아이는 꼬마화분을 안고 한참동안 걸어갔어요. 아파트단지를 지나 큰 길을 하나 건너니 작은 골목이 나타났어요. 꼬마화분은 목을 빼고 처음 보는 동네를 구경했어요. 이윽고 아이는 골목 길 맨 끝에 있는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철로 된 녹슨 대문을 열고 안으로 쓰윽 들어섰어요.

"산하 오니?"

아이가 컴컴한 계단으로 내려서자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어둑한 곳인데도 익숙한 듯 문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이는 창 맞은편에 누워계신 할머니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할머니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꼬마화분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웬 거냐?"

"예쁘죠? 오다가 주웠어요. "

"줍다니?"

나무라는 듯 할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아침에 학교에 갈 때부터 쓰레기통 옆에 있었어요. "

"저런."

그제야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고 꼬마화분을 바라보셨어요. 할머니의 퀭한 눈에 잠시 다사로운 빛이 스쳤어요.

"봄이 오긴 왔나 보구나. 벌써 이렇게 파릇하게 자라나다니……. "

"할머니 이거 책상 위에 놓을까요? "

"우선 물을 좀 줘야겠구나."

아이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 작은 컵에 물을 담아왔어요. 그리고 정성스레 물을 주었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모습을 미소를 띠고 바라보셨어요.

"저기 볕이 들어오는 창틀 위에 두어라. 며칠 뒤면 꽃이 피겠구나."

"꽃이 펴요? "

"그럼."

"무슨 꽃인데요?"

"반지꽃이지."

"꽃이 반지 모양이에요?"

"꽃대를 둥글게 구부리면 반지 모양이 되지. 꽃은 보석 같단다."

아이는 신기한 듯 꼬마 화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산하네 집은 햇빛이 오후에만 잠깐씩 비쳐드는 반 지하 방이었어요. 창문 틈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창가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꼬마 화분은 처음에 그 방에 혼자 있게 될까봐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산하의 할머니가 하루 종일 곁에 계셨기 마음이 든든했어요.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았어요. 산하가 학교에 가고 나면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하셨는데 손자를 대하듯 가끔씩 창턱을 올려다보시며 꼬마화분에게 말을 걸어 주시기도 했어요.

"이 할미가 쓸쓸할까봐 네가 여기에 왔구나. 착하기도 하지. 너를 보니까 어릴 적에 같이 놀던 동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구나."

할머니가 주무시면 꼬마화분은 학교에 간 산하를 기다렸어요. 산하는 늘 씩씩하고 명랑했어요. 어떤 날은 할머니를 위해 샛노란 풍선을 들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선생님께 칭찬 받았다는 소식을 안고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 마다 할머니와 꼬마화분은 무척 행복했어요.

하루는 '비단이'라는 같은 반 친구도 데려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꼬마화분을 발견하고 눈이 동그래진 비단이는 얼른 달려와 꼬마화분을 쓰다듬으며 조그만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꼬마화분은 다시 비단이를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어요.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꽃샘바람이 창을 흔들어댔어요. 할머니는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산하가 학교에 간 뒤 부터 할머니는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꼬마화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외출을 하려던 위층 아저씨가 문을 벌컥 열고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좀체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꼬마화분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구급차를 타고 온 몇몇 사람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떠난 뒤, 산하가 학교에서 돌아 왔어요. 산하는 우두커니 서서 꼬마화분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산하의 먼 친척이라는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산하를 데려가서 돌봐 준다고 했어요. 산하는 작은 여행 가방에 가져갈 물건을 챙겼어요. 책과 학용품과 겉옷 한 벌, 장난감 자동차 한 개, 산하의 짐은 참 간단했어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려던 산하가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꼬마화분은 가슴이 조마조마 했어요. 산하는 꼬마화분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른 달려와서 꼬마화분을 품에 안았어요.

"그것도 가져가려고?"

문밖에서 서있던 아주머니가 나무라듯이 말했어요.

"예.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것이라서……."

"안 돼."

"왜요?"

"네가 갈 곳은 시골이야. 그런 화분이 아니어도 풀들이 귀찮을 만큼 널려 있는 곳이야."

"할머니께서 곧 꽃이 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도 줘야 해요."

산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글쎄 안 된다니까."

산하는 고집스럽게 꼬마화분을 안은 두 팔에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문지방 옆에 놓아 둔 산하의 짐 가방을 홱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산하의 눈물이 꼬마화분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 때 낮에 오셨던 위층 아저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자, 산하야. 아주머니 말씀대로 해라."

"……."

"이 화분은 네 대신 아저씨가 잘 키워줄게, 응?"

아저씨는 산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자 산하는 아저씨께 꼬마화분을 건네주었어요. 꼬마화분은 아저씨의 손에 들린 채 계단을 올라가 산하가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산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번 다시 꼬마화분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꼬마화분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왔어요. 할머니와 산하가 없는 방은 참 쓸쓸했어요. 아저씨는 방안을 둘러본 뒤 조심스레 문을 닫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어요.

아저씨의 방은 넓고 밝았어요. 꼬마화분은 아저씨의 커다란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이 피로하거나 글이 잘 이어지지 않으면 턱을 고인 채 꼬마화분을 오래 바라보곤 했어요. 꼬마화분은 처음에 할머니와 산하에 대한 걱정으로 아저씨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아저씨가 좋아졌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아저씨는 창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창턱에 꼬마화분을 내어놓았어요. 보드랍게 온몸을 간질이듯 내리는 봄비가 꼬마화분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어요. 그 이후로 잎사귀들은 초록빛이 짙어지며 싱싱해졌어요. 길쭉한 잎사귀들 사이로 연초록 빛깔의 실 같은 꽃대도 쑥쑥 자라났어요. 꼭대기에 보랏빛 조그만 꽃망울을 매단 채 말이에요. 며칠 뒤 아침 일찍 창가에 서서 화분을 바라보던 아저씨가 외쳤어요.

"어? 꽃이 피었네!"

아저씨의 목소리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난 그동안 제비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저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급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는 꼬마화분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아저씨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탔어요. 꼬마화분을 들고 아저씨가 차에 오를 때 마다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와 꼬마화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꼬마화분은 수줍어서 몸 둘 바를 몰랐지만 아저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아저씨는 한참을 걸어 큰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그 곳은 산하의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설 때 꼬마화분은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저씨는 할머니 머리맡에 있는 갈색 상자 위에 꼬마화분을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무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자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저씨는 할머니께서 잘 보이도록 꼬마화분을 번쩍 들어보였어요.

"고마워요, 총각. 저 고운 꽃을 우리 산하가 보면 참 좋아할 텐데……."

"걱정 마세요, 할머니. 이따가 산하도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주름이 가득한 손으로 꼬마화분을 자꾸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아 꼬마화분은 고개를 들고 오래오래 천정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였나 봅니다.
동생처럼 예뻐하던 강아지를 잃고 시무룩해진 모습이 안쓰러워 강아지를 소재로 동화를 써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지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글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이 글이 맑고 고운 눈을 지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닿도록 나를 높이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치 뽑던 날



"팔백 원……구백 원……천원!
누나, 누나는 몇 개 뽑았어?"

"몰 라!"

하영이는 점점 더 화가 납니다.

대충 헤아려보니 하영이가 뽑은 새치도

벌써 스무 올이 넘었습니다.



포항 유강초교 _ 임동학

새치 뽑던 날

"하영아, 엄마 머리에 새치 좀 뽑아라."

일요일 오후, 목욕탕에 갔다 오면 늘 그랬듯이 오늘도 엄마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뒤집어보며 하영이를 부릅니다.

이럴 때는 하영이가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거실로 나와 하영이 앞에 눕습니다. 하영이는 족집게를 받아들고 엄마 머리 밑으로 다리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햇살 드는 쪽을 비켜 돌아앉습니다.

하영이는 손가락을 빗살처럼 벌려서 엄마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봅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뽑았는데 그새 또 군데군데 새치가 보입니다.

"엄마, 새치는 왜 뽑아도 뽑아도 자꾸 생겨?"

"자꾸 자꾸 늙어가니까 그렇지……. "

"엄마 늙었어?"

"그럼, 늙었지!"

엄마의 가느다란 한숨소리에 하영이 이맛살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엄마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나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어."

"왜?"

"내가 피아노를 잘 치면 좋잖아!"

"뭐가 좋은데?"

"내가 피아노를 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상우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좋잖아!"

"좋지!"

"그럼 다시 피아노 배울까?"

"그래, 좋겠다. 넌 뭐든 마음먹은 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엄마는 눈을 살짝 흘기며 말합니다.

"왜? 엄마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엄만 피아노 쳐 봤어?"

"응, 나도 너 만할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녔지. 엄마도 한때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

"정말!"

하영이는 뜻밖의 얘기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가 피아니스트를 꿈꾸기도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피아노 잘 쳤어?"

"아니, 조금."

"얼마만큼?"

"2년도 못 배웠는데……?"

하영이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영이는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2년도 못 배웠다는 엄마의 수준을 짐작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배운 거도 아니야. 난 4년 동안 배웠는데도 아직 자신이 없는걸. 지난번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서 반주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조금 하다가 퇴짜 맞았지."

사실, 하영이가 느닷없이 피아노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니 말대로 그건 배운 거도 아니다. 나도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만 이제는 다 헛방이다."

하영이는 헛방이라는 엄마 말이 또 거슬립니다. 괜히 피아노 얘기를 꺼냈다 싶어집니다.

하영이는 족집게에 힘을 모아 새치를 잡아당깁니다. 새치 한 올이 톡, 뽑혀져 나옵니다. 새치를 뽑아내는 만큼 엄마가 젊어졌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하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잇습니다.

"왜 헛방이야? 배우면 되지?"

"그것도 이젠 늙어서 안 된다."

"엄마는? 왜 자꾸 늙었다 그래?"

"늙었으니까 늙었다고 하지."

"아니야, 내 친구 영은이 있잖아, 걔네 엄마는 엄마보다 나이가 많을 걸. 그래도 기타를 배우신데.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공연도 했다던데. 엄마도 피아노 배워봐."

"아이고, 그런 팔자 좋은 소리 말고 머리나 뽑아라."

하영이는 다시 엄마 머리카락을 고르며 족집게를 들이댑니다.

엄마가 자꾸 한숨지으며 얘기하는 게 하영이는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영이는 엄마 머리를 조금 돌려 눕게 하고 다시 손가락을 벌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립니다. 귀 뒤쪽에 새치가 참 많이 보입니다.

'휴, 여긴 왜 이렇게도 새치가 많지?'

엄마는 하영이의 마음을 용하게도 알아챕니다.

"거기 새치 많이 있지?"

"아니, 조금……."

하영이는 일부러 조금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영이는 한 올 한 올 새치를 뽑으면서 자꾸 속이 상합니다.

너무 많이 뽑으면 엄마가 또 한숨지을 것 같아 족집게를 잡은 손에 힘을 빼면서 일부러 새치를 놓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새치를 살짝살짝 감추기도 합니다.

'요건, 다음에 뽑아야지. 여기 있는 건 잘 안 보일 거야.'

한가한 오후 햇살이 베란다 창을 살금살금 넘어 들어와 엄마 어깨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엄마는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살짝 코고는 소리도 냅니다.

하영이는 엄마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눈가와 입가에 잔주름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아빠와 동생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엄마가 눈을 떴다 다시 감습니다.

"새치 뽑니? 상우야, 너도 아빠 새치 좀 뽑아라."

"알았어요. 한 개 백 원?"

목욕하고 오는 길에 서점에 들른다더니 뭘 샀는지 묵직한 비닐봉지를 소파 위에 던지며 상우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아빠는 엄마 옆에 나란히 눕습니다.

아빠 머리에는 새치가 많습니다.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뽑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빠는 그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집게를 건네받은 상우는 신이 났습니다.

'한 개에 백원이면 저게 다 얼마야?'

하영이는 혹시 상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우는 한 올 한 올 뽑아내면서 계속 중얼거립니다.

"백 원…… 이백 원…… 삼백 원……."

하영이는 상우가 하는 말에 슬그머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상우에게 눈총을 줍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뭘! 이게 시끄러운 거야?"

하영이는 상우의 말이 살짝 잠이 든 엄마에게도 들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우는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듯이 계속 말합니다.

"팔백 원…… 구백 원…… 천 원! 누나, 누나는 몇 개 뽑았어?"

"몰라!"

하영이는 점점 더 화가 납니다. 대충 헤아려보니 하영이가 뽑은 새치도 벌써 스무 올이 넘었습니다. 아직 반도 안 뽑았는데도 말입니다.

"천오백 원…… 천육백 원……. "

'바보같이……. 넌 아빠 머리에 새치가 많은 게 그렇게도 좋니?'

하영이는 새치 뽑기에 신이 난 동생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야! 말하지 말고 해"

상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누나를 빤히 올려보며 말합니다.

"누나, 왜 그래? 왜 자꾸 시비야? 누나 정말 이상해."

"시끄럽단 말야! 좀 조용히 해!"

하영이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상우를 노려봅니다.

상우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따지듯이 목청을 높입니다.

"그게 뭐 시끄러워? 말도 못하게 하네."

엄마가 눈을 뜹니다.

"하영아, 너 동생한테 왜 그러니? 이유 없이 짜증내고. "

엄마는 하영이를 나무랍니다.

'이유 없이 짜증내다니!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하영이는 점점 더 속이 상합니다.

여태 못들은 척 하던 아빠가 마침 좋은 생각이 들었다는 듯이 점잖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한 개에 백 원씩 계산해 줘요."

하영이는 숨이 턱 막힙니다. 하영이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온 족집게가 거실바닥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날 밤, 결국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상우가 아빠에게 받은 삼천 원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누나,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안 먹어!"

"왜?"

"먹기 싫으니까!"

"내가 사 줄게."

"싫어, 너나 실컷 사 먹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바보? 내가 왜 바보야?"

"바보니까 바보지, 저리 가! 너 같이 멍청한 녀석은 꼴도 보기 싫어."

상우는 누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기만 하던 누나가 오늘따라 왜 짜증만 내고 말상대도 안 하려는지…….

친구들 말처럼 혹시, 혹시 누나가 사춘기가 되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반짝 떠올랐습니다.

"누나, 사춘기야? 사춘기가 되면 이유 없이 막 짜증낸다던데?"

하영이는 상우의 말이 어이없어 헛웃음이 나옵니다.

허리춤에 양손을 끼고 노려보는 누나가 무서운지 상우는 거실에서 책을 보고 계시는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아빠, 누나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괜히 시비야. 아빠도 보았잖아. 아까부터 계속 그래."

"글쎄, 누나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보다."

"아빠, 누나 사춘기 아니야?"

"사춘기? 벌써 그렇게 되나? 하기야 요즘 애들은 사춘기도 빨리 온대더라. 하영이도 벌써 5학년이니까 사춘기일지도 모르지."

아빠가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상우는 아빠의 말에 대단한 비밀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더 신이 났습니다.

상우가 다시 하영이에게 쪼르르 다가갑니다.

"누나, 사춘기 맞대. 아빠가 그랬어."

'으이그, 바보 같은 녀석…….'

하영이는 문턱을 막 들어서는 상우를 밀쳐내고 방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상우가 엉덩방아를 찧고 거실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으앙!"

상우의 울음이 터지기 무섭게 아빠와 엄마가 하영이 방으로 달려옵니다.

"하영아! 너, 무슨 짓이야?"

"애가 정말……. 너 오늘 참 이상하다. 이유가 뭐니? 왜 하루 종일 심

술을 부리고 그러니?"

하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은 하기 싫었습니다.

"사춘기는 무슨 사춘기!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동생이네 장난감이니? 말해 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엄마를 빤히 쳐다보던 하영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엄마, 엄마 새치를 뽑을 때 너무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녀석은 내 마음도 모르고……. '

다음날, 하영이는 엄마와 함께 피아노 학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피아노 선생님과 상담하는 동안 내내 얼굴이 빨갰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나오면서 엄마는 쑥스러운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피아노 가방을 하영이에게 맡깁니다. 하영이는 한 손에 피아노 가방 두 개를 들고 한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하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새치를 뽑으면서 이리저리 얽어본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자리에 서서 '동화 같은 세상'을 꿈꾸는 일은 중년에 발견한 새로운 기쁨입니다.
게으른 탓에 아직 몇 발짝 내딛지도 못했지만 나는 이 길을 무척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은빛 날개 비늘

"너 아직 모르는구나?

나비의 날개보다 네 꽃잎이 더 눈부시고 아름답다는 걸."

개미는 땅을 파기 위해 굴속으로 들어가요.

'내 꽃잎이 더 눈부시고 아름답다고?'



고령초교 _ 서동숙

은빛 날개 비늘

하얀 나비가 팔락거리며 잎사귀를 간지럽혀요. 나비의 날개가 움직일 때마다 작은 바람이 불어요.

한참을 나풀거리며 날다 아름다운 날개를 살포시 접고 내 작은 꽃잎 위에 내려앉아요. 그리곤 동그랗게 말린 긴 입을 쭈욱 뻗어 달콤한 꿀을 빨아요.

가까이에서 보니 나비의 날개는 더 눈이 부시네요. 은빛 가루들이 비늘처럼 겹쳐 있어 햇살을 받아 빛이 나는가 봐요. 나비가 꿀을 빠는 내내 나는 잠시도 나비의 날개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나는 그 아름다운 날개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꿀을 만들어요.

어느새 나비의 대롱같은 입에 내 꽃가루들이 듬뿍 묻어 있어요. 즐겁게 간식을 먹고 난 어린아이의 입처럼…….

내가 넋을 잃고 눈부신 날개를 보고 있는 사이 한참동안 꿀을 빨던 나비가 긴 입을 다시 얼굴 밑으로 말아 넣어요. 아마 다시 날아가려나 봐요. 아쉽네요. 저 아름다운 날개를 좀 더 보고 싶은데……. 나비는 어느새 파란 하늘 위로 사뿐히 날아올랐어요.

나비의 은빛 날개에서 작은 날개비늘 하나가 반짝 빛을 내며 떨어져 내려요. 나는 놓칠세라 꽃잎으로 비늘을 살포시 받았어요.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비늘이 내 꽃잎 위에 떨어지다니……. 비늘이 바람에 날릴

까봐 꽃잎을 살짝 오므려요. 그렇게 받쳐들듯 꽃잎을 모으고 지붕 아래로 멀어져 가는 나비의 뒷모습을 쳐다봐요.

나비가 사라진 지붕 아래의 마당을 내려다봐요. 화단가득 꽃이 피어있네요. 울타리 둘레에도, 맑은 물이 흐르는 샘가에도, 장독대의 깨진 항아리에까지도 풀들과 꽃들이 무성해서 마당은 풀내음과 꽃향기로 가득해요. 향기를 따라 나비와 벌들이 끊이지 않고 북적거리는 마당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나비는 다시 내게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화단가득 꽃이 피어 있고 마당에서 먼 이곳 지붕을 날아오르기엔 나비의 날개가 너무 작고 여린 걸요.

화단 옆으로 길고 굵은 뿌리를 내린 호두나무가 지붕 위까지 성큼 자라 하늘을 보고 있네요. 파란 하늘에서 맑은 바람이 살랑 불어요. 호두나무 잎들이 사라락 소리를 내며 흔들리네요. 호두나무는 찌그러진 기와 지붕 사이에 작은 제비꽃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붕기와 두개를 사이에 두고 개미들이 줄을 지어 먹이를 나르고 있네요. 대부분의 개미들이 과자 부스러기나 달콤한 설탕즙을 입안 가득 물고 있어요. 바쁜 걸음으로 낑낑대며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물고 가는 모습이 한가로운 마당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네요.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재워 놓고도 양식을 더 구하러 다니느라 개미의 몸은 깡말라 있어요. 아마 내가 여기에 있는 걸 알면 내 꿀물을 얻어가려고 까맣게 줄을 설지도 모를 일이죠. 아님 내 몸 여기저기에 진딧물을 얹어 놓고 줄기 사이로 분주하게 왔다갔다 거릴지도 모르죠.

진딧물이 여기저기에 붙어 내 줄기의 즙을 빠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온 몸에 소름이 돋는군요.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서있지 않으려면 개미떼들의 눈에 절대 띄지 말아야 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용히…….

개미들의 긴 행렬이 사라지고 난 한참 뒤에야 나는 '휴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내게 꿀을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내 긴 한숨 끝에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한참을 두리번거린 뒤에야 겨우 소리가 들려온 줄기 끝을 봐요.

"너, 너는?"

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그건 바로 개미였거든요.

온통 까맣기만 한 깡마른 몸에 눈까지 까만 볼품없는 개미가 몹시 지친 얼굴로 날 올려다보고 있네요.

"네 친구들은 모두 저 곳으로 갔어."

나는 지붕 끝을 가리키며 빨리 가라고 손짓을 보냈어요. 몸에 진딧물을 얹고 살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개미를 보내야 했거든요.

"내가 살던 곳은 저기인걸."

개미는 푸우 한숨을 쉬며 지붕 아래의 언덕을 가리켜요.

나는 나비의 은빛 날개 비늘을 꽃잎 사이로 숨기고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개미를 봐요.

"내게 꿀을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개미가 힘없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묻네요.

"안돼!" 너무 큰 목소리에 나는 내가 말하고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진딧물이 내 몸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상상을 하자 다시 몸이 부르르 떨려요.

"안돼, 네겐 꿀을 줄 수 없어."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검은 눈의 개미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네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너, 내가 꿀을 주면……."

마른 침을 꼴깍 삼킨 뒤에야 나는 개미의 검은 눈을 보며 물어요.

"꿀을 잔뜩 물고 가서 네 친구들을 불러 내 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 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내 몸에 진딧물을 데려다 놓고……."

"아니, 난 친구들을 부르지 않아. 난 내 무리를 떠났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개미는 힘없는 목소리로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해요.

난 개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개미가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걸요.

"거짓말, 너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알아. 나도…….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야."

개미는 힘겹게 말을 끝내고는 그 자리에 푹 쓰러져 버려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그제서야 난 개미의 한 쪽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디서 다친 걸까요?

나는 서둘러 잎사귀를 아래로 굽혀 개미의 몸을 감쌌어요. 그리곤 고개를 숙여 꽃술 속에 숨겨둔 꿀물을 개미의 다리 위에 조금 떨어뜨렸지요. 은빛 날개 비늘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느라 힘이 좀 들기는 했지만 꿀물은 무사히 개미의 다리 위에 떨어졌어요.

"괜찮아? 정신이 드니?"

잠시 후 개미는 내 줄기 옆의 기와에 살며시 기대 앉아 "휴우" 긴 숨을 내쉬어요. 식은땀이 아직도 이마에 송글 송글 맺혀 있네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결 나아졌어. 정말 네 꿀은 대단한 힘을 가졌구나."

개미의 말에 안도의 숨을 길게 내 쉬고는 꿀물을 먹을 수 있게 꽃잎을 개미에게 숙여요.

"정말 먹어도 돼?"

내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제서야 개미는 밝은 얼굴로 꿀을 먹기 시작하네요.

"이제 힘이 좀 나니?"

얼굴 가득 꽃가루를 묻힌 개미에게 내가 빙그레 웃으며 물어요.

"정말 달콤하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제비꽃아!"

몸이 한결 나아진 개미를 보자 내 마음도 흐뭇하네요.

"그런데 다리는 왜……."

내가 다 묻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개미가 이마의 땀을 쓸어내리며 말을 해요.

"왜 다쳤냐고? 난 병정개미니까. 싸우는 게 내 일인걸.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싸워. 우리 무리의 개미를 위해서 다른 무리의 개미떼들과 혹은 다른 침략자들과도……."

그러고 보니 다른 개미보다 유난히 입이 크고 튼튼해 보이네요.

"며칠 전에 큰 싸움이 있었어. 죽어서 물 위에 떠 있는 잠자리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개미들이 뺏으려는 거야. 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어. 그러다가 다리를 물려 버렸지 뭐야."

"그런데 왜 무리를 벗어난 거니?"

개미의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네요.

"다친 몸으로는 더 이상 무리를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젠 더 이상

병정개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거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개미는 언젠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무리에서 쫓겨나게 돼."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난 그 일이 마치 내 일인양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해도 그건 마찬가지야. 그렇게 무리에서 쫓겨난 친구들을 수없이 봐 왔는걸."

오히려 개미는 남의 일인양 담담하네요.

"우리에겐 친구가 없어. 단지 살아남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살 뿐이야."

개미는 혼잣말처럼 되뇌이며 언덕 너머를 봐요. 개미의 검은 눈 위로 푸른 언덕이 가득차요.

나도 개미가 살았다는 언덕을 봐요. 파릇한 풀들만이 가득해 보이는 저 언덕에 그런 무시무시한 삶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호두나무 너머 산등성이로 햇님이 남은 햇살을 거두어들이고 있네요. 나비의 날개 위에 내려앉았던 햇살들이 구름에 부딪혀 붉게 물들어요. 저 붉게 물든 노을에 빛나고 있을 나비의 은빛 날개가 그립네요. 나비도 저 아름다운 언덕 어디에선가 힘든 하루를 살고 있을까요?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개미를 돌아보며 말해요.

"네가 괜찮다면……. 이렇게 한 자리만 지키고 있는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네 친구가 되어 줄게."

"친구?"

개미는 멍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보네요.

개미는 내 뿌리에서 조금 떨어진 땅 속에 굴을 파고 그 속으로 쏘옥 들어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바쁘게 살던 생활 습관이 몸에

베여 있어서인지 늘 분주하네요. 가까운 곳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주위에 위험한 것이 없나 정찰을 나가기도 해요. 돌아와선 늘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아마 지금쯤 기와 밑에 닿은 대들보를 타고 내려가 마루에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줍고 있겠죠? 잠시 후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과자를 물고 와서는 봇물이 터지듯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을 거예요. 벌써 개미가 기다려지는 걸요.

몸을 숙여 기와 아래의 마루에 귀를 기울여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걸 보니 아직도 마루에 있나 봐요.

"아악!"

마루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찢어지는 통증에 깜짝 놀라 잎사귀를 쭈뼛 세워요. 고개를 들어 보니 어느새 나타났는지 여치 한 마리가 내 잎사귀를 갉아 먹고 있네요. 잎을 마구 흔들어 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나는 잎사귀가 찢어지는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며 더 이상 비명도 지르지 못해요.

그때였어요.

"안돼! 내 친구를 놔 줘!"

언제 돌아왔는지 병정개미가 기와를 밟고 여치를 노려보며 서 있네요.

"꽝!"

여치가 몸을 돌릴 겨를도 없이 개미가 머리로 여치를 떠밀어요. 그리고는 큰 입으로 우지끈 여치의 배를 물어요. 갑작스런 개미의 공격에 커다란 몸집의 여치가 뒤로 주춤 물러나요. 그러더니 기다란 앞발로 개미를 내리 누르네요. 개미가 여치의 발에 깔려 고통스런 신음을 해요. 저러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안돼!"

나도 모르게 소리쳐요. 그리곤 바람의 도움도 없이 여치를 향해 잎사귀를 힘껏 쳐요. 여치의 길쭉한 머리에 잎사귀가 부딪혀 찢어져 버렸어요. 여치가 기우뚱하네요. 개미를 눌렀던 발에 힘이 빠지고 개미가 벌떡 몸을 일으켜요. 절룩이는 다리로 여치에게 냅다 다가가서 엉덩이로 개미 산을 내뿜는군요. 여치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요. 지붕 끝자락에서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개미를 번갈아 보고는 몸을 획 돌려 공중으로 날아오르네요. 그리고는 멀리로 가 버려요.

"휴!"

개미와 나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쉬어요. 개미의 살갗이 찢어져 버렸어요. 나는 잎사귀로 개미를 감싸 안고 개미의 찢어진 살갗 위로 꿀물을 떨어뜨려요.

꿀물을 떨어뜨리려는데 눈물이 같이 떨어지네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운 건 나인데 오히려 개미가 내게 고맙다고 하네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네요. 이제 상처도 다 아물어 가요. 개미도 다시 땅속 보금자리로 들어가네요. 보금자리에 포근하게 앉아 있는 개미에게 내가 말해요.

"네가 아픈 다리로 여치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나도 네가 바람의 도움 없이 그렇게 세차게 잎사귀를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걸."

개미가 나를 보고 빙긋 웃어요. 그러고 보니 개미의 웃는 모습은 처음이네요.

"난 병정개미잖아. 하루에도 수없이 싸웠는걸."

다시 개미는 슬픈 얼굴이 되어 먼 언덕을 봐요.

"그런데 넌 왜 이곳으로 온 거니? 저 먼 언덕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나비도 잘 오지 않는 이곳까지……."

잠시 나비의 눈부신 날개를 생각하며 개미에게 물어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올라앉아서 내가 살던 언덕을 내려다보고 싶었거든. 야,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넋을 잃고 보고 있던 저 아름다운 언덕 아래에서 개미는 매일 힘겹게 싸웠던 거네요.

바람을 따라 고개를 까닥거리며 마당아래를 봐요. 나비들이 한가롭게 화단 주위를 날아다니네요. 나는 다시 나비의 날개를 황홀한 듯 봐요. 나비의 날개는 언제 봐도 아름다운걸요.

"뭘 그렇게 보는 거니?"

개미가 내게 묻네요.

나는 여전히 나비를 보는 채로 말해요.

"날개……. 나비 날개……. 나비의 날개는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나비는 어쩜 저렇게 눈부신 날개를 가졌을까?"

그리고는 꽃잎 사이에 끼워 두었던 나비의 은빛 날개 비늘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보여 줘요.

"나비의 날개에서 떨어진 날개 비늘이야. 정말 아름답지?"

내가 작은 비늘을 홀린 듯 바라보며 말하자 개미는 다시 한번 빙그레 웃네요.

"너 아직 모르는구나? 나비의 날개보다 네 꽃잎이 더 눈부시고 아름답다는 걸."

개미는 땅을 파기 위해 굴속으로 들어가요.

'내 꽃잎이 더 눈부시고 아름답다고?'

나는 개미가 들어간 땅 속을 보며 한참이나 개미의 말을 되뇌었지요. 그러자 나도 모르게 개미처럼 빙긋 웃음이 번져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네요. 꽃잎 위에 올려놓은 비늘이 가볍게 하늘 위로 날아오르네요. 하지만 애써 잡지 않았죠. 내겐 나비의 은빛 날개 비늘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은빛 날개 비늘은 파란 하늘 위에서 반짝 빛을 내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봄 햇살이 들판을 눈부시게 비추네요. 바람이 언덕 위를 지나자 물결치듯 푸른 풀들이 춤을 춰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개미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핀 들풀에도 다른 어떤 것들과 견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만을 부러워하며 좇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찾고 가꿀 줄 아는 현명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없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종

“전깃줄이 벼락 맞아 끊겼단다.
오랜만에 네 소릴 듣겠구나.

뗑 에 엥
하는 울림이
세상을 깨우지!

들을 때마다 소리가 틀리지.
어떻게 차임벨 소리에다가 비교를 해.....”



대전 도마초교 _ 이종욱

학교 종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려서 흘러가는 물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창고에 처박혀 있는 학교 종은 밖에 나가 보지 않아도 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학교 현관 처마 밑에서 오랫동안 매달려 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종은 자신이 창고 밖으로 나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체육 시간이라고 뜀틀을 들고 나갔습니다.

"학교 종 안됐다. 너는 언제 바깥 구경하냐? 작년에도 못했잖아."

뜀틀이 창고 밖 세상으로 나가면서 학교 종의 아픈 맘을 건드렸습니다.

"……."

학교 종은 자신의 노래 소리를 들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학교 종은 창고 안 친구들과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너무 오랫동안 창고 안에 있다 보니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종은 뜀틀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다시 창고 문이 닫히자 깜깜해졌습니다.

생쥐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다가 학교 종에 머리를 부딪치자 불평을 했습니다.

"학교 종! 네가 여기 매달려 있어 내가 맘대로 드나들 수도 없잖아. 저리 비켜."

"……."

학교 종은 생쥐하고 실컷 말다툼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교 종은 자신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 학교 종! 너 말 못하지?"

"……."

생쥐가 물었지만 학교 종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 종은 생쥐에게 받혀서 자신의 몸이 흔들리는 바람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좀더 세게 흔들렸다면 자신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종은 창고 뒤 창문 입구에 매달려 있습니다. 닫혔던 창고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는 창고 안을 정리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훌라후프도 구석에 쌓아 놓고, 운동회 때 쓰는 장대를 창고 벽에 기대어 세웁니다. 아저씨는 마당비로 창고 바닥을 씁니다. 벽에 기대어 세웠던 장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학교 종을 때렸습니다.

"땡에엥."

학교 종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종 치면서 아이들과 어울릴 때가 좋았지. 암! 사람들 인심도 좋았고. 내가 종을 치면 아이들이 모여들고, 공부가 시작되고 끝나고……."

아저씨가 학교 종 칭찬을 합니다. 학교 종도 아저씨를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 종을 친 아저씨입니다. 학교 종은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아저씨가 창고 안을 나가자, 창고는 다시 어두컴컴해졌습니다. 학교 종이 달려 있는 조그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너 땜에 겨울잠에서 깼어. 고마워. 너 아니면 계속 잘 뻔했구나."

창고 밖 땅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린 개구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개구리 말을 들으니, 학교 종은 옛날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면 개나리, 살구꽃, 진달래, 싸리 꽃이 피었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점심 먹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던 아이들이 교실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조용해진 운동장에는 강물 흘러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난. 종소릴 들으면 춤이 절로 나와!"

개나리가 가냘픈 꽃잎을 포르르 떨면서 외쳤습니다.

"나도! 나도!"

학교 울타리에 핀 꽃들이 종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방울새가 떼 지어 납니다. 지나가던 노랑나비는 운동장 하늘 한 바퀴를 사분사분 날았습니다. 나비 날개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비는 날아서 학교 종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종 할아버지! 노랠 잘 하세요. 전 할아버지 노랠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겨요."

"그래. 고맙다."

"고맙기는요. 저 나무들도 벌레들도 새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이랍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학교 종 할아버진 앞으로도 노래와 이야길 들려주세요."

"그럼. 그럼 다 알지!"

살구꽃 잎은 종소리에 맞춰 바람 타고 강물에 빠져 먼 바다로 갔었습니다. 싸리 꽃은 종소릴 들으며 바람을 타면서 꿀벌을 끌어 들여 불렀습

니다. 학교 종소린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때를 알려 주었습니다.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을 모이며 종소리에 맞춰 합창을 했습니다.

'운동장 모여라. 운동장 모여라.'

아이들이 운동장에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 눈길은 한곳으로 모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엄청나게 큰 팽나무 위를 쳐다봤습니다. 까치집이 보입니다. 까치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새끼에게 줍니다. 아이들은 까치소릴 들으며 엄마 젖 먹던 때를 생각합니다. 어미 까치가 운동장 하늘을 열심히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조회대에 올라가신 선생님도 까치를 바라봤습니다. '까아깍. 까아깍'

뜨거웠던 여름도 가고, 파란 팽나무 잎이 크레파스 색으로 변했습니다. 운동장 울타리에 핀 억새꽃이 강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밤나무 밑에 굴을 파고 사는 다람쥐가 열심히 밤을 주워 굴속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종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처음 세워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팽나무한테는 학교 종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팽나무는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종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막 달려 왔습니다. 학교 종 앞으로 오신 아저씬 학교 종을 막 때렸습니다. 학교 종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학교 종도 까치도 다람쥐도 아이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불났다! 불났어! 저 새까만 연기 좀 봐! 불 끄러 가자! 범골에 불났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손에 손에 그릇을 들고 냇가로 샘물로 달려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양동이에 세숫대야에, 바가지에 물을 퍼서 연기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 물을 끄고 있었습니다.

"학교 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사람들은 학교 종을 칭찬했었습니다. 학교 종이 오래 전 있었던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는 예전처럼 자기 노랫소리를 들려줄 날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학교 종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창고 밖은 활짝 웃는 해님이 환한 햇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고 안으로 아저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낀 풍금을 들고 나갑니다. 학교 종은 창고 밖으로 나가는 풍금이 부러워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종은 자신도 언젠가는 밖으로 나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젠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학교 종아! 내 노랫소리 들려줄게. 너도 용기를 내. 언젠가는 네 노랫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야."

풍금이 밖으로 나가면서 학교 종을 달랩니다. 학교 종은 듣기만 합니다. 아저씨가 풍금을 창고 문 앞에 내놓고 걸레로 먼지를 닦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풍금은 아이들과 아저씨가 들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교 종은 실망을 했다가, 자신의 노래가 나오자 힘이 솟았습니다. 방금 창고 밖으로 나간 풍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버들피리로 부는 노래 소리 같이 들려옵니다. 학교 종은 자신의 노래가 나오자, 세상을 마음껏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꿍짝꿍작. 꿍짝궁작. 꿍짝꿍작.'

다섯 시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차임벨이 울렸습니다. 학교 종은 차임벨소리를 듣자, 다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저 차임벨 소리만 아니더라도 자신의 노래 소리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가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깃줄이 걸리더니 학교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사람 소리마다 훨씬 큰 마이크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교 종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오더니 현관에 걸린 학교 종을 떼어 창고 안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학교 종은 창고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종은 창고 안에 갇혀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학교 종은 너무 슬퍼져 혼잣말을 합니다.

'난! 이 창고 안에서만 살아야 하나. 아! 언제 저 바깥세상을 구경하면서 내 노래를 들려주나!'

학교 종은 더 슬퍼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고 안이 아주 더워졌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 된 것입니다. 번쩍 하고 번개가 치더니 천둥소리가 세상을 울렸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다가 그쳤습니다. 소나기가 그치자 창고 안은 더 후덥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울려야 할 차임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종은 왜, 안 들릴까? 창고 밖에서 사는 개구리도, 나무도, 까치도, 운동장 가

운데의 팽나무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서도 소리칩니다.

'차임벨 소리 안 들으니 살 것 같애. 맞아. 너도 그렇지. 맨 날 똑같은 쟁쟁거리는 기계 소릴 들으니 귀가 아팠잖아! 이럴 때는 학교 종 노랠 들어야 힘이 생기는데…….'

차임벨 소리가 없으니 학교는 너무 조용합니다. 개구리도, 나무도, 까치도, 팽나무도 바람소리를 들으며 낮잠에 빠졌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환한 햇살이 비췄습니다. 아저씨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사다리를 두 손으로 번쩍 들었습니다. 사다리를 손에 든 아저씨는 창고 밖으로 나가질 않고, 학교 종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학교 종은 그저 바라만 볼뿐입니다.

"전깃줄이 벼락 맞아 끊겼단다. 오랜만에 네 소릴 듣겠구나. 뗑에엥 하는 울림이 세상을 깨우지! 들을 때마다 소리가 틀리지. 어떻게 차임벨 소리에다가 비교를 해……"

창고 밖으로 나간 학교 종은 다시 현관에 걸렸습니다. 아저씨는 두 손에 힘을 주고 종을 치는 채로 학교 종을 쳤습니다.

'뗑에엥. 뗑에엥. 뗑에엥 '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신기하다. 지금까지 듣던 소리가 아니잖아?"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종소릴 듣고 모여들면서 떠들자,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학교 종소리다. 종소리다. 종소리!"

날아가던 호랑나비가 날개를 포르르 떨면서 외쳤습니다.

"난. 이 소릴 들으니 춤이 절로 나와!"

학교 울타리에 핀 꽃도, 나무 잎사귀들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나도!"

그러자 이번에는 학교 안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종! 할아버지는 노랠 잘 하시네요. 학교 종 할아버지 노래를 들으니 용기가 생겨요."

까치도, 개구리도, 꿀벌도, 아이들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만들기 전부터 살고 있던 팽나무가 외쳤습니다.

"학교 종 너하고 나하고는 이 학교의 모든 것을 알지! 네 소린 아침저녁으로도 소리가 틀리고, 비가 올 때 안 올 때도 다르게 들리지!"

학교 종소리는 햇빛에 실려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짝사랑 때문인가? 아이들 떠들음이 상쾌한 음악으로 들려온다니까요. 아이들만의 세계가 보여요. 그 이야길 쓰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영원히 읽히는 동화 한 편 남기는 꿈을 날마다 꾼다니까요. 반딧불이 수놓던 여름밤에, 할머니가 해주던 이야기가 들려요. 그 할머닌 북두칠성에서 사세요. 오늘 밤도 할머니별이 보이네요! 별빛 같은 아이들 눈빛도 보이네요.



할머니의 **금메달**

"달님도 뭐 잘 해서 금메달 받았나?"

"응? 달님이야..... 사람들 소원을
다 들어주는 일을 잘 하지."
"그래? 그렇구나."



성남 대원여중 _ 이윤정

할머니의 금메달

"하영아! 하영아!"

허위적… 허위적…

펄럭 착… 펄럭 착…

급하게 옮기는 걸음마다, 춥다고 다시 꺼내 입은 겨울 치마가 다리에 휘감기고, 대충 걸쳐 신고 나온 슬리퍼가 헐떡거려서, 걷기가 여간 사나운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다쳤던 허리까지 시큰거려 오는 것이…… 날씨 탓인지, 급한 마음 탓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어딜 간 거야?"

골목 어디 숨어서 장난질이라도 치는 건지, 벌써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건 아닌지……. 이런 저런 생각에 자꾸 발목언저리엔 힘만 들어가는데, 발놀림은 저 혼자 따로 놉니다.

"하영아! 하영아!"

당연히 놀고 있으려니 하고 갔던 범구네서는 하영이를 하루 종일 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또 혹시나 하고 갔던 염소 할매네서도 못 봤다고 하니……. 날은 어두워오는데, 갑자기 이 쪼끄만 녀석이 어딜 돌아다니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시골구석에서 까지야 무슨 일이 있을까마는,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사나우니, 애 키우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별스런 생각

들이 꼬리를 뭅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오는 날이지?"

아까 하영이가 놀이방 차에서 내리면서 할머니를 보자마자 한, 첫마디였습니다. 아침에 갈 때도 물어보아서 대꾸해 주었는데도, 다시 묻고, 또 묻더니, 역시나 또…….

하영이에게 한 달에 한 번 보는 엄마는,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샘물입니다.

엄마가 가는 그 시간부터 매일 기다려왔는데, 못 온다니……. 이런 억울한 사정이 또 있겠습니까. 하영이에게 엄마가 오지 못한다는 소식은, 잘못 전해졌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서글픔입니다. 바빠서 못 온다는 소식을 아무리 전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묻고 또 묻고…….

"아니라니까……. 이번 주는 바빠서 못 온대. 다음 주말이나 온다니까 기다리지 말래도 그런다?"

"아니야, 저번에도 한 번 그랬을 때, 하영이 보고 싶다고 엄마가 밤에 온 적 있잖아."

용케도 몇 달 전 우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내려온다던 엄마가 갑작스럽게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려 왔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도 꽁지 빠진 새처럼 풀이 죽어 있다가, 엄마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활기를 띠던 하영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 한 구석 싸해지던 느낌을 할머니도 기억해 냅니다.

혹시?

엄마가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엄마 마중을 나간 건가? 해 떨어

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건가? 큰길가라 차들도 쌩쌩 달리고 인적도 드문 곳인데……. 마을 입구까지 가는 발걸음에 걱정과, 짜증과,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자꾸 헛놀림이 끼어듭니다.

"하영아, 하영아!"

아이구 어쩌나! 여기도 없나 보네. 이 녀석이 어딜 간 건가? 이제 동네서는 더 찾아볼 데도 없는데……. 나쁜 생각이 마구 달려듭니다.

"할머니…… 할머니……"

버스 정류장 안쪽 구석에서 하영이가 쭈그려 앉아 울며 할머니를 부릅니다. 얼른 달려가 보니, 덜 풀린 날씨에 몸이 차갑게 얼어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여움도 잠시, 화가 납니다.

"하영이, 너! 누가 혼자서 여기 나와 있으라고 했어? 할머니가 말 했잖아. 오늘 엄마 못 온다고. 네가 여기 나와 있으면 안 온다던 엄마가 온다니? 왜, 할머니 말을 안 들어? 응?"

"할머니……"

"할머니는 왜 자꾸 불러?"

"할머니, 엄마가 꼭 올 거만 같아서……. 그래서 기다리러 왔는데, 안 오네……."

아이고, 이 가여운 것!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할머니는 아픈 허리도 잊고 하영이를 등에 업고 동네로 들어오는 길로 접어듭니다.

"하영아!"

"응?"

"오늘은 엄마가 정말 못 온대. 엄마 일하는 공장이 갑자기 수출할 물건이 밀려서 밤새 일해야 한 대."

"어떻게 밤새워서 일을 해? 잠도 안 자고?"

"바빠서 잠 잘 시간도 없대."

"피… 그런게 어딨어?"

하영이가 잠시 잠잠해서 자는가 했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말문을 엽니다.

"할머니, 근데…… 수출이 뭐야?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뭐가 좋은 건대?"

"어?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지.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사는 거고."

"엄마가 밤새서 일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게 된다구? 그럼, 이제 나도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뭐……?"

"할머니가 전에 그랬잖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 안나?"

"어…… 생각나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게 됐으니까, 엄마랑 같이 살게 되겠네?"

할머니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하영이에게 말을 해 주다보니 할머니도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데, 우리는 아직 가난한지……. 그래도 하영이에게 말을 해줘야하니까 할머니도 이해는 잘 안가지만, 말을 해 봅니다. 또 모르죠? 하영이에게 말을 하다보면 할머니도 이해가 갈 런지…….

"하영아, 엄마가 밤새워서 하루 일 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되

는 건 아니야."

"좀 전에 할머니가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게 된다면서?"

"그래,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하루 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엄마가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해."

"얼마나 오래?"

"어? 그러니까……. 하영이가 학교 갈 때까지."

하영이에게 말을 하다 보니, 할머니도 왠지 하영이가 학교 갈 때쯤이면 하영이가 엄마랑 살 수 있는 형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앞으로 한 3년만 고생하면 이 어린 것이 그렇게나 바라는, 엄마와 사는 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헹…… 그렇게나 오래? 뭐가 그래?"

"뭐가 오래야? 이제 3년만 있으면 되는 건데?"

"3년이면 길지! 내가 생일을 3번이나 지나야 하잖아. 생일은 엄청 안오던데……. 내 생일 지나간 지 한참이나 됐는데, 또 한참이나 기다려야 한다며?"

"그래……. 너한테는 긴 세월이겠구나."

할머니는 하영이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닌 혼잣말을 하시며 생각에 잠깁니다.

하영이가 할머니에게 온지 벌써 2년입니다.

하영이 아빠…… 내 새끼. 멀쩡하던 자식을 사고로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 먹고 있던 때에, 이 어린 것 먹이느라 움직이고 같이 먹고 하면서, 살아지게 된 겁니다.

하영이 엄마가 돈벌이 하겠다고 당분간만 봐달라고 맡기고 갈 때는

속으로 독한년이라고 야속한 마음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따져 봐도 그만한 며느리가 없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하나 있는 거 잘 키우려면 기반 잡아야 한다고, 저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마음이 아립니다.

또, 이 어린 것이 엄마 올 때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내는 걸 볼 때면, 남들처럼 젊어서 벌어 논 재산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있으면, 하영 엄마가 살림 피는데 보태줄 수 있을 건데……. 늘그막에 며느리 신세나 안지면 다행이라…….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또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 돌려 갈 겸, 안쓰러운 손녀 딸 과자라도 사줄 겸 해서 마을 어귀의 구멍가게에 들어섭니다. 과자를 고르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하영이를 보면서 잠시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 또 심란해졌다가 하는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과자를 고르던 하영이의 눈이 가겟집 윤씨가 보는 텔레비전으로 향합니다.

"할머니, 저기 봐."

"응? 뭐?"

"저기. 텔레비전에서 축구한다."

하영이가 유난히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살아서 하영이 아빠가 축구를 그렇게나 좋아하더니, 하영이도 별나게 축구를 좋아합니다. 공 가지고 노는 것도 또래 여자애들보다 잘 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서 축구 중계가 있는 날은 밤늦게까지 보고는 합니다.

이제 막 텔레비전에서는 축구 경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기인지 우리나라 사람들 응원이 한참입니다. 이기고 끝나

가는 경기인지 응원하는 사람들의 흥도 무르익었습니다.

하영이도 축구 경기에 빠져서, 이제는 제 문제들도 잠시 치워둡니다. 경기에 이기고, 사람들이 환호하자 제 일인양 하영이도 기뻐합니다. 할머니 주위를 돌며, 응원단의 소리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합니다.

경기에 이어 시상식을 위해 선수들이 다시 입장하니까, 경기를 더 하는 줄 알고 흥분합니다. 집에 가자는 할머니의 소리에 텔레비전 쪽으로 더 나가 앉으며, 윤씨를 밀어냅니다.

"할머니, 안 끝났어. 빨리 와봐."

"뭐가?"

"다시 시작한다니까?"

"뭘 다시 시작해?"

할머니가 보니 시상식을 위해 선수들이 다시 입장해서 시상대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영아, 저건 축구 차는 게 아니고. 상 타는 거야."

"상? 상이 뭔데?"

"상? 어…… 그건 잘하면 주는 거야. 이만큼이나 잘 했으니까 그 증표로 이걸 준다 그러면서 주는 거지. 하영이도 놀이방에서 착한 일 했다고 선생님이 상장 주셨잖아."

"그럼, 저 선수들이 잘해서 상 받는 거야?"

"그렇지."

"근데 왜 목에 걸어줘?"

"응. 저건 메달이라고 하는 거야. 운동선수들은 잘하면 종이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저런 메달을 줘."

"근데 색깔이 다르네? 우리나라 사람은 노란색, 딴 나라 사람은 흰색."

"응…… 제일 잘 한 사람이 금메달, 그 다음이 은메달, 그 다음이 동메달이야."

"제일 잘 한 사람은 금메달을 준다고? 저 노란색?"

"응."

아이고…… 노닥거리다 보니 어느새 7시가 넘어 8시가 다 되 가고 있습니다.

"하영아, 이제 그만 가자. 축구도 끝났잖아. 가서 저녁도 먹어야지. 과자 먹었다고 밥 안 먹으면 다시는 안 사줘. 저녁밥도 많이 먹어야 돼?"

"응."

하영이를 다시 업고 길로 나섭니다.

하늘에 달이 밝아 집에 가는 길이 어둡지 않습니다. 집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하영아, 저기 저 달도 금메달처럼 밝고 환한 것이 곱다."

"정말 금메달처럼 반짝반짝 노란색이네?"

"달님도 뭐 잘 해서 금메달 받았나?"

"응? 달님이야……. 사람들 소원을 다 들어주는 일을 잘 하지."

"그래? 그렇구나."

한참동안 할머니 등 뒤에서 꼼지락거리던 하영이가 할머니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아 당겨 자세히 살펴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언젠가 소를 팔아서 이 목걸이를 사왔길래, 대판 싸웠던 물건입니다. 돈 쓸 일이 널렸는데, 정신이 나갔는지 소 팔러 간 사람이 돈은 안 가져오고, 이 쓸데도 없는 목걸이를 들고 나타나서, 할아버지에게 제정신이냐고 대들며 싸웠던 기억이 또 새롭게 나네

요, 그래도 그때 이 목걸이를 사다줘서, 할아버지 가고 나서도 남은 건 이제 이거 하납니다.

"할머니!"

"응? 왜?"

"그럼…… 할머니는 나 잘 키웠다고 이 금메달 받았어?"

"어? 하하하…… 하하"

할머니의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잘 한다고 상주는 곳이 있다면야, 혹시 늙어 고생한다고 줄지도 모를 일이지만은, 하영이의 생각이 재미있고 귀여워서 웃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하하…… 그래, 하영이 잘 키우고 있다고 금메달 받았다."

"정말?"

"그래."

"누가 줬는데?"

"응? 그건 또 왜?"

"엄마 목에도 금메달 달아주게. 엄마도 하영이 키우느라고 고생하잖아."

저 하늘에 달님도 금메달 받고 기쁜지, 하영이 소원을 들어주려는 지 반짝반짝 노란색으로 밝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저희 애들을 친정어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어느날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회에서 우승해서 목에 메달을 거는 모습을 보고 딸애가 묻더라고요. 왜 저런 걸 걸어 주느냐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걸어주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대답해 주었더니, 옆에 있던 외할머니를 보고는 또 묻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자기를 잘 키워줘서 금메달 딴 거냐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동그란 메달이 달린 금 목걸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발상이 재미있어서 한참을 웃다가, 작품으로 써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된 작품입니다.

희곡·시나리오 부문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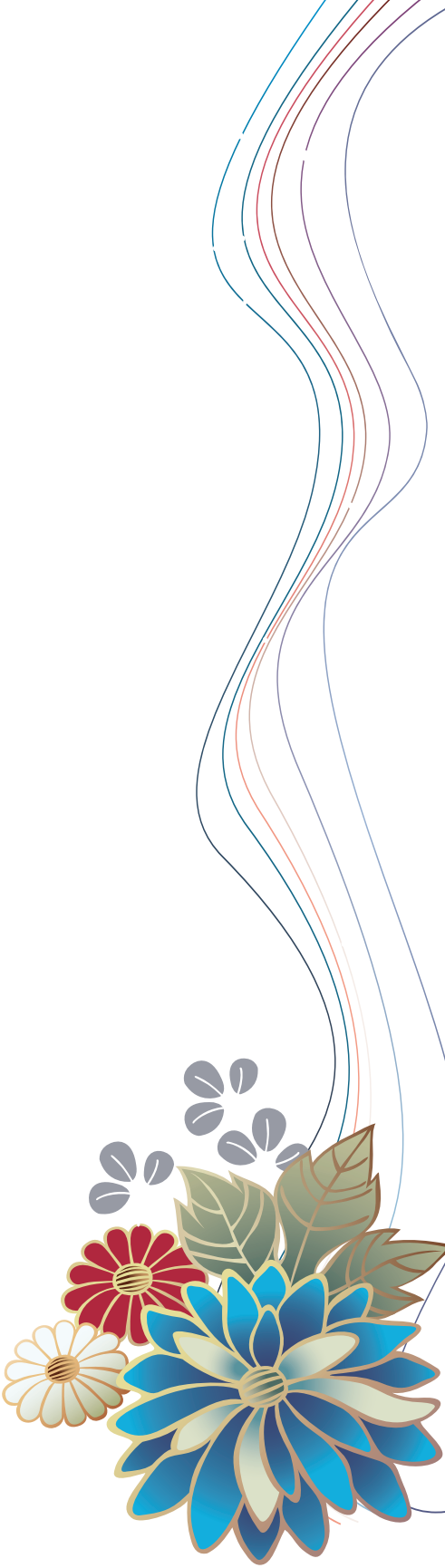
열아홉의 꿈 _ 이춘영

우수상

이방인 _ 선미애

장려상

황톳길 _ 김성민



열아홉의 꿈



그 애 보조개보다 더 깊게 파여 버린
그 가슴의 상처를 우린 보지 못했어.
속으로 속으로 점점 타 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작은 숨을 할딱거리는 사람에게,
우린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면서
연못에 돌을 던지고 있었던 거야.



김해 삼문고 _ 이춘영

열 아홉의 꿈

때 : 올림픽이 열리는 해 고교 3학년 시기

곳 : 김참별의 집 거실

등장인물 : 김참별. 재영(코러스)

무대 왼쪽에 의자, 가운데엔 소파와 탁자. 탁자 위엔 전화기가 놓여 있다. 오른쪽 벌서는 공간으로 설정.
모노드라마로 구성된 것으로 재영의 벌 서는 장면은 상황상 재영이 등장 안해도 되고 소리로만 진행할 수도 있으나 코러스로 등장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임.

어둠 속에서 9시 뉴스 음악이 흐르고 뉴스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 :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모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이를 비관, 투신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9시경 김해시 모아파트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화단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학생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는데 학생의 일기장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려 죽고 싶다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오늘도 여의도에서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모 지역의원들이 한밤중에 후레쉬를 들고 살짝 모여서, 또 다른 지역에서는 멀쩡한 의사당 놔놓고 버스 안에서 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후레쉬와 버스를 생산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과, 그러지 말자는 쪽이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다가, 기자들이 철수하고 나자 다정히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싸우다가도 화합하는 그 정신이 바로 선진정치로 가는 힘이겠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은 작년에 비해 난이도를 조금 높일 것이라고 교육 평가원에서는 밝혔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변별력 획득에 실패한 요인이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변별력을 놓이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군요. 영재고등학교에서 수능모의고사 1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학생이 부모님께 심한 꾸중을 듣고 음독해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과 독일이 결승전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축구황제 펠레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붉은 도깨비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한국의 결승행을 점쳤다고 합니다. 한국의 우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참별이 TV를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날씹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황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번 주말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가족들 나들이하기 좋은 날씹니다.

참별이 리모콘으로 TV를 끈다.

참별 : (독백하듯이) 그래, 그런거야. 우리들 이야기는 항상 묻어서만 나오지. 시험 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어른들은 몰라. 그냥 성적이 몇 점 올랐느냐 내렸느냐만 따지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맞아 우리 반엔 중간고사 때만 되면 설사 때문에 내내 반쯤 죽다가 마지막 시험 끝나고 나면 깨끗이 낫는 애도 있어. 나도 시험 때만 되면 (아랫배를 짚으며) 갑자기 행사하는 것 있지. 그런데 선생님들은 배 아프다고 하면 (빈정거리듯) 아침에 뭐 먹었니, 어제 저녁에 혹시 만두 먹은 거 아냐, 떡볶이는? 하면서 우리의 뱃속을 자꾸 들여다 보려 하지.

(일어나며) 그래, 공부 못하는 놈은 고민도 없는 줄 안다니까?

한 번호만 찍는 애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는 걸 몰라. 챙피해서 답지 엎어놓고 엎드려 있을라면 꼬옥 옆에 와요. (앞으로 나서며) 그리고 친절하시게도 답안지를 훑어 보시지.

(흉내내듯 들여다보는 시늉을 하고) 흐흠, 그래도 반 번호 이름은 마킹을 했군. 그런데 자네는 고속도로 추월선을 왜 답지에 그어 놓았나. (나무라듯이) 정부에서 이런 짓 하라고 돈 들여서 시험치는 줄 아나 . 쯧쯧 (뒤통수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야 이놈아! 인생이 불쌍하다 인생이. 니 부모가 니 이러는 줄 아시니?

(제 목소리로) 인생이 불쌍하다고 나무라면서도 실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애들인지는 관심이 없어. 집에서 치이고 학교에서 치이고……. (원망하듯이) 왜 우리 머리는 새라든가 돌이라든가 무쇠라든가 다이아몬드로 불려야 하지. 그리고 부모는 또 왜 들먹여 기분 나쁘게…….

우리 딴엔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걸 어떡해. 그런데도 시험만 치고 나면 앞으로 불러내지. “우째 니는 말이다. 성적이 그리 꾸준하노. 매번 평균이 30점에서 35점 사이에 딱 고정되어 있다니까. 에라이 반평균이나 갉아먹는 버러지 같은 자석아.” (흉내내듯) ‘니가 잘하는 기 뭐 있노. 아 있다 잠자기 또자기 아예 뒤비져 자기’ “자꾸 그리 엎어져 자니까 얼굴이 그리 커진 기라. 얼굴 크면 뭐하노 든 기 하나도 없는데…… 빈깡통 아이가. 빈깡통. 공부는 죽자고 안하면서 밥 먹고 자고, 과자 먹고 자고, 빵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이 살은 또 교복 밖으로 나갈려고 아우성을 치지, 당최 단추 터질까 싶어,

보는 내가슴이 조마조마 하다 카이.” 그러면서 응큼하게 눈으로 가슴 어림을 쓱 훑어 내려가는 걸 보노라면 소름이 쫙 돋는다니까. 그리고 꼭 한마디 더 붙이지. (소파 쪽으로 이동하며) “인간이 인간 모양만 갖고 있다고 인간인줄 아나 사람 새끼 구실을 해야 인간인기라. 내는 오래 살끼다 니 인간되는 거 보고 죽을라카모.” (대꾸하듯이) 우리가 곰이가, 호랑이가? 사람이 안되었으면 쑥이라도 먹으란 말이가?

(인형을 툭툭 치며) 그래, 그건 아니라고 봐
우리는 시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뾰루지가 막 돋아나고 화장실에서도 핏대만 세우다 아쉬움과 허탈감을 안고 나오는데 (빈정대듯이)새싹이 돋는 아름다운 계절에 가족끼리 나들이하기 좋다고?
누구 엿 먹이려는 건지…… 불 지르자는 거겠지. 하여간 어른들은 불 지르는 것 하난 좋아 한다니까. 심심하다고 산에 불 지르고 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 불 지르고 그것도 재미없다고 우리 가슴에 염장 지르고…….

솔직히 이야기 해 보자. 고등학교, 아니지 중학교 올라온 이후부터 가족끼리 놀러간 기억 있나? 물론 없지. 아 놀토면 뭐해.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 해야 되는데. 그래 그건 참아준다 치자. 설이나 추석은 나라에서 달력에 빨간 색깔로 (날짜를 가리키듯이) 딱 찍어놓고 (길게 빈정대듯). ‘놀아라~’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이 놀 시간이 어디있어’ (길게 빈정대듯) ‘나와 –’ 하고 안나오면 집에 전화 걸고 시험이 내일 모렌데 정신이 해이해 졌다느니 이럴 때일수록 내신 관리에 힘써야 한다느니…….

(따지듯이)아니, 설날 추석날에 학교 가서 책 펴 놓고 멍청히 앉아 있는

것 하고 내신 관리하고 대관절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힘주듯이) 우리가 집에 있어야 언니 형부한테 용돈이라도 받을 건데, 학교에 나와 버리니 이 약삭빠른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다 가버리지.

수금 전선에 이상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 피해가 막심한데 이건 누가 보상해 주지? 학교에서 불러냈으면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들도 모두 가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을 위해 명절까지 반납했다. 그러니 군소리 말고 공부하도록'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그래, 그래 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반문하듯) 맞는 것 같아? 같아? 우리는 눈치 보는데 왜 이리 익숙해 있을까? (포즈) 맞다. 맞지 않다. 옳다, 옳지 않다 이런 의사 표시 하나도 당당히 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것이 우습지 않니? 우린 우리 생각보다 '이 말에 대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린 것들이 시건방지다고 하면 어쩌지', '당돌하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나봐.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대답을 하고 얼버무리곤 하지. 도대체 어른들은 자기들은 더러운 짓거리 다해 가면서 왜 뻔뻔스럽게 항상 우리에겐 요구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너희만할 때는 말이야', '적어도 고등학생이라면', '쯧쯧 학생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겐 '하지마라 하지마라'. '지켜라 지켜라' 강요하면서…… 자기들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적당히 포장하거나 세월 가기만 기다리면서 부끄럼의 먼지를 털어내 버리지.

그래 , 엉뚱한 쪽으로 빠져버렸네. 되돌아가면 되지.

(인형의 머리를 자기 쪽으로 돌리며) 이제 되돌아 왔어.

(흥분하며) 하필이면 우리 시험칠 때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올해에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건 또 뭐야. 내년부터 높인다면 물론 난 반대 안 해. 그리고 시험문제 어렵게 내면서 그 설명하는 말이 더 어렵더라. 아무튼 높은 사람들은 말도 어렵게 잘한다니까.
그 사람들은(전화기를 들고 기자회견 하듯이) '변별력 강화를 위해 난이도를 높입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지만, 전국의 수십만의 고3들 가슴은 덜컥덜컥 무너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허탈감에 몸부림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한다는 걸 알기나 할까?

아 물론 학원들은 살 판 나겠지. 학생들이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학원에 나가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착각' 아니니. (전화기를 들고 기자회견 하듯이) '영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처사에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중 고등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해 이미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는데 뒤늦게나마 이를 깨달은 정부 당국자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등등 난리 불루스를 치겠지.

(한숨 쉬듯이) 울 엄마 또 등골 빠지게 생겼네.
저번에 내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 화장실에 가서 완전히 비우고 자느냐, 아니면 귀찮은데 대충 참고 자 버리느냐 ? 물론 난 뒤엣 걸 택했지.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얼마나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 자다가 잠이 깨어 버린 거야. 저녁 먹고 나서 반찬이 짜다며 물을 많이

마신 걸 잠시 까먹었던 거지. 화장실 쪽으로 가다 보니 뭐가 시커먼 게 거실에 보이더라. 물론 엄마였어. (낮은 목소리로) 불도 안 켜고 엄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조명이 꺼지면서
재영 쪽 조명이 켜진다.
재영,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다.

소리 :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가 어디서 담배를 빡빡 빨고 있나?'
'하여튼 요새 아덜은 겁대가리가 없어요. 야이 새끼야 화장실은 싸는데다. 싸는데. 똥싸고 오줌싸고.. 빠는 데가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뭐시라꼬. '선생님, 고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 아들이 무신 고민이 있단 말이고. 그리고 지가 영화배우가. 담배 피우고 나면 고민이 싹 사라지고로. '지도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암만해도 안됩니다?' 이십년을 피운 내도 끊었는데 지가 피웠으면 몇 년을 피웠다고 그걸 못 끊는단 말이고.
사내새끼가 그것 하나 몬하고 나중에 무신 큰 인물이 될끼라고 (빈정거리듯) 아이고 아이고 니도 앞날이 훤하다 훤해. 너거 엄마가 니 놓고 미역국 묵었다 하더나 안 묵었다 하더나? 허기사 부모가 무신 죄고. 니가 이런 놈이 될 줄 꿈에라도 생각했겄나?
(큰 소리로) 아, 똑 바로 몬 꿇어앉나?
인수 화들짝 놀라며 똑 바로 꿇어앉고 손을 든다.
(조명 아웃)

다시 참별 소파에 드러누워 책을 보고 있다. 물론 만화책이다. 코를 후비기도 하고 때론 낄낄대기도 한다.

전화벨 소리. 참별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를 받는다.

참별 : 엄마예? 엄마 알바하러 가셨는데 무슨 일로. 무슨 일요일에 일나가느냐고. 그리 됐습니다. 제가 학원을 한군데 더 다니기로 해서. 물론 저는 안갈려고 했는데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엄마가 자꾸 가라고 해서. 남보다 더해줄 수는 없어도 뒤떨어지면 안된다고……. 예 엄마 늦게 올건데 그래도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끊으며) 또 옷이나 핸드백 하나 샀겠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전활 했겠어. 우리 엄마 세워 놓고 패션 쇼 요란하게 하고 싶어 미치겠나 보네.

(흉내내듯이) 오호호 어서와 어서. 오랜만이다 그지. 우린 동창들 중에서도 제일 친한데 어찌 이리 만나기도 힘들다니? 너도 이제 삶의 여유를 좀 찾아보라니까? 봐라봐라 이거 어떻노? 내가 오늘 우연히(강조하듯이) 백화점에 들렀는데 이기 딱 낼로 보고 있는기라. 지도 주인을 알아본거지. 가격도 적당한 것 같고. 저번 거는 이백 주고 사가지고 촌시러버서 어디 챙피해서 몬들고 다니겠더마는 이거는 가격은 저번 거 두 배밖에 안하는데 품위는 또 얼마나 있어 보이노. 이제 내도 좀 우아해 보이재.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게 안 살모 궁상맞게 보인다니까? (우아하게 걷는 걸음거리, 거울에 비춰보는 동작을 하며) 인자 사람 같아 보이네. 신랑이 어떻게나 촌닭 취급 하던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데…….

그런데 저건 어쩌지. 버리자니 찜찜하고 그만 버리는 셈치고 너 줄테니 쓰고 싶으면 가지고 가라. 아 자존심 그기 밥먹여주나? 눈 딱 감고 가지고 가면 니 성격에 십년은 쓸기다. 아 어서 챙기라니까?

휴대폰 소리(아버지는 말하셨지……) (따라 부른다)

참별 : 아 물론 공부하고 있었지. 내가 책 없으면 못사는 줄 알면서 왜 그래…… 오죽해야 베개도 책이겠어? 우아하게 독서하고 있었지. 물론 수행평가는 아직…… 이번엔 니가 해온다고 했잖아. 요즘 다운 안받는 사람 누가 있어. 저번에 지현이 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글자 하나 안 바꿨는데도 "역시 요즘은 이쁜 녀석들이 숙제도 열심히 해요. 이것 봐 내용도 내용이지만 깨끗하게 정리한 거 좀 봐". 역시 역시 하면서 침 막 튀기는 것 봤지. 내참 더러워서…… 저번에 준 디스켓 거기다 해 오면 학교 가서 내가 옮기면 되지. 지는 독수리 타법으로 시험 문제 겨우 내는데 우리가 그러는 줄은 꿈에도 모를걸. 혹 몰라, 우리가 지현이만큼 예쁘지 않아서 걱정되긴 해. 괜찮겠지, 아 괜찮다니까! 그래 내일 봐용 (끊는다)

(일어나며 독백하듯) '에이 씨 티비만 켜면 월드컵 이야긴데 우린 처량하게 수행평가가 뭐야, 수행평가가'. '어찌 그리 분위기 파악을 못해? 오필승 코리아 말고 응원가도 새로 나왔고 꼭짓점 댄스 모르면 완전 왕따라던데 그거 연습할 틈도 없잖아'. (그댄 나의 챔피언을 흥얼거리다 흥겨운 듯 꼭지점 댄스를 춘다. 애국가 락버젼을 부르면서 흥겹게 응원하다가 머쓱한 듯 멈춘다. 응원 수건을 집어 던진다)

‘대한민국 고딩은 사람도 아닌기라. 사람따로 학생 따로……’ ‘허기사 우리가 뭔 사람이고. 맨날 성적 갖고 줄이나 세우고…… 죄수도 아닌데 번호만 불리고…….’ 수능 등급이 우리 등급이 되는 세상아이가? 우리가 돼지가? 등급을 매기게.

(점점 흥분하여 사투리가 막 튀어 나온다)
그리고 급훈도 그기 뭐꼬. 엄마가 보고 있다– 협박이가? 하루에 한시간씩만 더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두시간 더 공부하면 뭐가 바뀌는데? 지하철 2호선을 타자– 좋은 대학이 거기에 다 있다꼬? 택시 타면 안되겠니?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돌릴래? – 요즘 대학가서 미팅하는 것들이 어딧노. 초딩때 다 하는데. 우주정복 – 우리는 주말이면 정석을 복습한다? 주말에 공부할 시간이 어딧노 일주일동안 밀린 싸이질 해야지. 숙녀니까 목욕도 다녀 와야지. 머리도 우아하게 말아야지. 잘 놀고 있네. 지들은 고딩 시절이 없었는 거 같재. 저번에 스카이가 뭐냐고 해서 휴대폰 이름이라니까 뭐? 니 수험생 맞나, 에스대 케이대 와이대도 모린단 말이가? 망신을 콱 주는데 내 참 눈물이 꼴깍 나올라 카더라니까?

그리고 펠렌가 글마는 또 와 그리 재수없는 소리 하노. 우리 나라가 결승에 올라간다꼬? 글마 찍어모 꼭 예선탈락 한다던데 설령 글마 말대로 결승전에 올라간다 해도 우리 학교에서는 안 보여줄 거 아이가.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너거 정말 고3맞나?’ 일카면서. 우린 못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 보는 거 배아프다 아이가.
또 붉은 도깨비 여론조사? 내에나 축구에 미친 사람들한테 누가 이길

건가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편이 이긴다 하제. 바보가? 빙신이가? 그것도 질문이라고 했을까? 에라이(힙합조로)돌대가리들아, 돌대가리, 돌대가리, 새대가리, 새대가리, 무쇠대가리, 다이아몬드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조명 아웃)

재영 반성문을 들고 서 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소리 : 니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던 그놈이가? 야 임마 스승의 날이 지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선생님한테 달라드노. 그래도 니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양심도 없는기라 니는.
선생님이 니 인격을 무시했다고? 학급 아아덜 다 보는데서 쪽 팔리고로 니를 뭐라캤다고? 아아덜 있는데서 망신당한 선생님 인격은 생각 몬하나?

세상 참 좋아졌재. 저런 새끼는 옛날 같으면 예배당 종치듯이 빠마대기 다다다다 패고 나서 바로 짤라 버리는 긴데. 암마 니는 반성문 쓰는기 취미가? 허구 헌날 사고치고 반성문 쓰고, 사고치고 반성문 쓰고…… 문장력 많이 늘었겄다 자석아. 벌점이 오백 점 넘으면 니는 이 학교 못 다니는 거 알제? 니는 한 백점 될 걸. 야 임마 공부를 백점을 먹어뵈라. 공부를.
그리고 대가리는 그기 뭐꼬? 우리 학교 규칙 모리나? (읽듯이) '귀가 완전히 드러나야 하고 앞머리가 이마를 덮으면 안 되고, 뒷머리는 칼라에 닿으면 안되고 여학생은 머리가 어깨를 덮으면 안 되고 단정하게 묶어야 하며 무스 스프레이 염색 탈색 파마는 절대 금한다.' "하여튼 대가리에 신경쓰는 놈 치고 공부 잘하는 놈 못봤다니까……."

(재영 슬며시 고개를 들자)
“이기 어디서 째리보노 얌마 눈 안깔아!”
(재영 황급히 고갤 숙인다)

어둠 속
소란 스럽다. ‘에이 씨 왜 빨리 종례 안하지, 선생님 오신다’ 등 우당탕 자리에 앉는 소리.
열중 쉬어 차려. 경례
일제히 :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참별 : (지친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순간 정적

참별 천천히 소파로 가서 인형을 꼭 끌어안는다.
오늘 내 짝지가 먼 나라로 가 버렸단다. 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먼 다른 나라의 일이거나 내 옆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딴 세상 이야긴 줄만 알았어. 그런데 내 학교 바로 내 짝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인형같이 예쁘고, 웃을 때 보조개가 깊게 패던 그 애를 이젠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 그 애 보조개보다 더 깊게 파여 버린 그 가슴의 상처를 우린 보지 못했어. 속으로 속으로 점점 타 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작은 숨을 할딱거리는 사람에게, 우린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면서 연못에 돌을 던지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외로웠으면…… 어쩌면 내가 모르는 새에 내게 몇 번을 손을

내밀었는지도 몰라. 어른들은 물론 몰랐겠지. 아니 일부러 외면했는지도 몰라.

(천천히 일어선다) 학생이 투신 자살을 해도 몇층에서 떨어졌고, 누가 발견을 했고 뭐가 남았고에만 관심이 있잖아. 단지 화젯거리일 뿐이야. 심지어 떨어져 숨진 자세를 하얀 그림으로 그리거나 기자가 재연까지 하지. 이렇게 엎어져 있었다고…… (인형을 던진다)
어디에 멍이 들고 어떻게 상처가 났다느니 하지만 막상 그 가슴에 맺힌 멍이나 상처는 덮어버리지. 학교 측에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나면 또 그만이고.

(독백하듯) 꽃다운 목숨을 끊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까마득한 땅을 내려다보며,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그 눈망울, 그 콩닥거리는 가슴, 공중으로 박차고 나가기 전 그 머뭇거림 속에 짧지만 긴 삶의 조각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몇 번이고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를 되풀이 했을 그 한숨 소리를 아무도 듣질 못한 거야 우리는…… 나는, 나는 그 애가 하얀 꽃잎처럼 떨어져내린 그 시간에 수학 정석을 풀고 있었어.(무너지듯 주저 앉는다)

진실로, 진실로 가슴 아픈 건 그 애가 영영 우리 곁을 떠나버렸어도,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났는데도 학교는 여전히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그 애가 사라져버린 학교에 변한 것은 책상위에 국화꽃 한송이 놓여있다는 것뿐이라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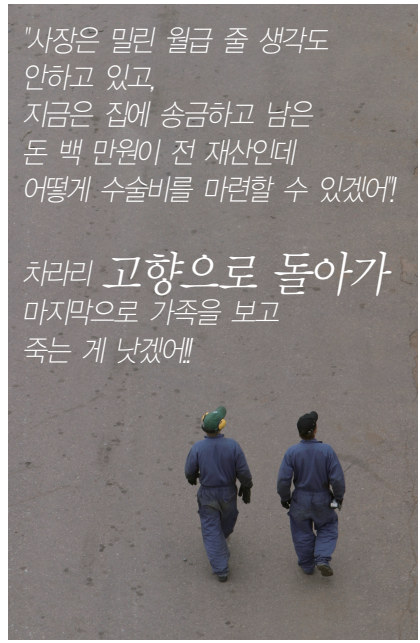
그래, 아무도 없어. 우리 곁엔…… 어떤 때는 무릎에 기대어 펑펑 울고 싶은데…… 어떤 때는 품에 안겨 자장자장 소릴 들으며 잠들고 싶은데…… 우린 왜 이렇게 이 작은 꿈도 꾸질 못하지? 때론 재잘거리고, 다리를 까불거리면서 깔깔 웃고 싶고, 수학여행 갔을 때처럼 이불 당기기도 하고 싶고, 깃털이 휘날릴 때까지 저녁 내내 베개 싸움도 하고 싶고, 무지갯빛 꿈도 꾸고 싶은데……

큰 꿈은 아니잖아. 어른들은 우릴 경마장의 말처럼 옆을 못 보게 가리곤 앞만 보고 뛰라고 하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지.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고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슴 아프고 미치고 싶을 때 마주 앉아 묵묵히 들어주고 안아주는 이는 너뿐이라는 거지. 하지만 넌 들어주기만 할 뿐이야.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고맙지. 그러나 때론 가슴을 채우고 싶을 때도 기대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어?

이젠 니가 나한테 이야기 해주지 않을래? 아니 이야기 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만 줘. 오늘만이라도 모든 것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그야말로 꿈나라로, 열아홉 소녀의 아름다운 꿈나라로 나를 데려가 줘. 재워 주란 말이야 이렇게(인형을 재우는 시늉을 한다). 자장자장자장자장……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암전

심사위원님께서 끝까지 읽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앞으로 청소년 연극을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으라는 소명을 주신 것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인





화성 동화초교 _ 선미애

이방인

#1. 프롤로그

F. I 과 함께 누렇게 빛이 바래고 귀퉁이가 구겨진 낡은 일기장이 보인다. 초라한 방구석에 놓여있는 일기장을 여자의 손이 다가와 천천히 들어 펼치자 한때는 행복했었음을 보여주는 풍경의 사진이 클로즈업 된다. 라쥬가 방글라데시에서 살던 시절의 단란했던 가족사진이다. 사진속의 라쥬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띠고 옆에 앉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다. 그의 아내도 딸(2세정도)을 안고 활짝 웃고 있다. F. O 과 함께 메인타이틀 뜬다.

/ 이방인 /

#2. 서하의 집 전경 (아침) – F. I

단독주택 – 일산의 고급주택 같은 느낌이 드는 외장.
고급스럽고 완고한 품격이 느껴지는 건물 전경.

#3. 서하의 방 안 (아침)

방안에 놓여있는 대형 TV 화면이 보인다. 아침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화면 안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 항공권과 선박권의 환불을 대행해주는 인력소개 업체에 몰려들어 먼저 환불받기 위해 자신의 여권 등을 앞 다투어 내밀며 달려드는 모습이 강력하게 비춰진다. 그런 화면 위로 기자의 멘트가 들려오고 있다. 카메라 뒤로 천천히 빠지면서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꾸며진 서하의 방안을 샅샅이 훑고 지나간다. 카메라 다시 뒤로 빠지면 프레임 안으로 벽에 걸린 서하의 단란한 가족사진이 클로즈업된다. 고급 사진관에서 찍은 듯 한 가족사진으로, 딱 보아도 좋은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귀하게만 자란 아가씨임을 알게 해준다. 그 안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서하의 모습.
(이런 화면들 위로 여기자의 멘트가 계속 흐른다.)

기자(E): 여기는 서울 명동의 한 중국인력 소개업체 사무실 앞입니다. 중국동포 수십 명이 몰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2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진 신고 때 '앞으로 1년간만 출국을 유예해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3년 3월 출국에 맞춰 항공권이나 배표를 구입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미만 체류자에 한해 2004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해준다.'는 법무부 방침이 나오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혼선이 심각해지고 그때그때 임시 대책만 내놓다보니 이제는 문제가 풀 수 없을 정도로 꼬인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강제출국 시기와 고용방식 등을 놓고 법무부와 노동부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자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서하의 “너무 예쁘다~” 하는 목소리가 O.L 되며 자막 뜬다.

#4. 스카이라운지 (밤) – (자막 : 1년 전)

아름다운 서울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창가자리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서하와 건우의 모습. 상자 속에 놓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클로즈업 된다.

서하(E): (상자 안에서 반지를 꺼내며) 너무 예쁘다~
건 우 : (다정하게) 맘에 들어?
서 하 : (끄덕) 응. (하다가 문득 복잡한 심정으로 쳐다보는)
건 우 : (진지한 표정) 결혼하자.
서 하 : (조금은 갑작스럽다는 표정) 오빠, 난 아직…….
건 우 : (말 막으며) 결혼해 줄 꺼지? 최서하, 나하고 결혼해줘.
서 하 : (고민되는 표정에서)

#5. 가구공장 전경 (낮)

허름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공장건물. 공장 주변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 공터가 있다.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메말라가는 저수지가 비춰진다.

#6. 공장 안 (낮)

인부들이 페인트 도색 작업 중이다. 인부들 20여명 가운데 섞여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10명 정도) 그들 중 라쥬와 민혁, 철화, 바텐, 리얀, 비뿌의 모습이 각각 클로즈업 된다. 바텐은 성의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으나 라쥬는 대조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다.
한편 마사장은 작업현장을 둘려보러 나와서는 슬그머니 리얀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한다. 리얀, 놀라지만 반항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아무도 그들의 모습을 눈치 채지 못한다. 곧 징그러운 미소를 띠며 사장 떠나고, 공장장이 90도로 인사하며 굽실거린다. 사장이 나가자 공장장이 뒷짐을 쥔 채 목에 힘을 주고 돌아선다.

공장장 : (시계를 보더니 손뼉을 치며) 자, 자! 이제 고만 스톱들 하드라고~ 흠흠… 앞으루 십분간 휴식이니께, 푹 쉬고 십분 뒤에 제자리로들 오드라고. 시간엄수는 말 안 해두 알것재? (외국인들 쪽을 보며) 오케바리? 흠흠… (거드름을 피우며 나간다.)

공장장 밖으로 나가면, 기계처럼 쉴 틈 없이 일하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 돌리며 기지개를 켜는 등 몸을 푼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라쥬의 모습위로

바 텐 : (E) 쉬엄쉬엄하시지.
라 쥬 : (그제야 손을 놓으며 장갑을 벗는다.)
바 텐 : (비꼬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상 주나? 월급이나 제때 주면 다행이지…….
라 쥬 : (순박한 미소) 그래도 우리가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곳이잖

아. 감사하지…….

바 텐 : (비아냥거리는) 감사할 데가 그렇게 없나. (하고 투덜대며 밖으로 나가는)

#7. 공장 외부 공터 (낮)

삭막한 공터이지만 하늘만큼은 맑고 푸르르다. 따스한 햇살아래 모여 앉은 라쥬와 민혁, 철화, 바텐, 리얀, 비뿌의 모습이 멀리서 비춰진다. 힘든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휴식을 즐기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들이다. 남자들은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데, 민혁과 라쥬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비 뿌 : (아직은 서툰 한국말투로) 민혁은 왜 담배 안 피워요?

민 혁 : (상냥한 말투로) 어머니와 약속했거든. 평생 담배는 입에 대지 않겠다고.

비 뿌 : 왜요?

민 혁 : 아버지가 지금 폐암으로 투병중이시거든…….

비 뿌 : (순간 숙연해지는) 아…… (금세 표정 바뀌며 라쥬에게) 아저씨는요?

라 쥬 : (대답 없이 미소만 띄는)

비 뿌 : (담배를 가리키며) 아저씨도 건강 때문에요?

바 텐 : (픽 웃으며) 건강 때문이 아니라 담배 살 돈이 아까워서겠지. 안 그래요?(하며 담배연기를 라쥬의 얼굴에 뿜는다)

라 쥬 : (그대로 연기를 맞으며) 그런 거…… 같아?

비 뿌 :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내꺼 피워요. (주섬주섬 담배를 꺼내 건네는)

라 쥬 : (미소) 아냐, 됐어. 담배 끊은지 오래야……. (라고 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다.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민혁 말대로 피워서 좋을 것 두 없고…….

바 텐 : (눈치 못 채고) 좋을 게 없긴. 세상에서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다고.

리 얀 : (바텐을 꾹꾹 찌르며 그만하라는 듯 얼굴을 찡그린다)

철 화 : (삐딱하게 나가는 바텐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비벼 끄는)

라 쥬 : (멋쩍은 듯 일어서며)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슬슬 들어가지.

민 혁 : (따라 일어선다)

비 뿌 : (일어서며 바텐에게) 안가?

바 텐 : (마저 피우고 간다는 듯 담배를 흔들더니 다시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리 얀 : (수화로) ('같이 들어가요') (하더니 바텐의 옷을 잡아끄는)

바 텐 :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는) 신경 끄고 너나 들어가.

리 얀 : (수화한다) ('얼른 들어가요. 안 그럼 또 야단맞아요.') (하더니 잡아끈다)

바 텐 : 에이씨. 귀찮아 죽겠네, 정말.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끈 후 사람들을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선다.)

리 얀 : (그런 바텐을 보며 픽 웃더니 뒤 따라 들어서는)

비 뿌 : (그런 리얀을 안타깝게 보는 모습에서)

#8. 방송국 국장실 (낮)

청혼 반지를 끼고 있는 서하의 손이 클로즈업된다. 그 위로 들리는 서하의 목소리.

서 하 : (소리) 네?! (카메라 서하를 비치면 황당한 표정이다)
국 장 : (의자에 앉은 채 태연하게) 뭘 그렇게 놀래?
서 하 :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관한 기사를 쓰라구요?
국 장 : (고개만 끄덕)
서 하 :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아직……
국 장 : (말을 자르며) 그건 김기자가 맡기로 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
서 하 : (벙찐, 그러다가) 갑자기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점을 파해치라니요?
국 장 : 갑자기라니?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가 점점 대두되는 분위기인거 몰라?
서 하 : (잠시 쳐다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죠.

#9. 거리전경 (낮)

고층 빌딩들이 즐비해 있는 대도시의 거리모습.
도로위엔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인도 위를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다.
그 거리의 한 높은 회사빌딩이 비춰진다.

#10. 사무실 (오후)

사무실 책상 위에 "대표이사 김건우"란 명패가 보인다.
잠시 후 전화를 하며 사무실을 들어서는 건우의 모습이 보인다. 서하와 통화하는 중.

건 우 : (양복상의를 벗어 걸며) 그래서, 오늘 저녁약속 취소한다 그거야? (사이) 그러게 내일부터 취재한다고 하지. (사이) 아무튼 너는 너무 의욕이 넘쳐서 탈이야. (사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는)

일 때문에 지친 듯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더니 조금 뒤 수화기를 들고 인터폰을 누른다.

건 우 : (비서에게) 회의하는 동안 별다른 연락은 없었지? (사이) 회장님께서? 무슨 일로? (사이) 알았어. 지금 간다고 연락드려. (수화기를 놓더니 상의를 다시 걸치고 사무실을 나선다.)

#11. 회장실 (오후)

건우, 소파에 앉아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건 우 : 그러니까 두 기업들을 인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회 장 : 이번에도 수고해봐. 물론 저번처럼 쉽지는 않을 게다. 밑에 딸린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심할 테니까.

건　우 : (진지한 표정)

회　장 : 기업대표들의 요구도 수용해주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게야. 물론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이야. 이번에도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믿는다. 한번 멋지게 처리해봐.

건　우 : (바른 자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네, 아버지. (의욕에 찬 표정에서)

#12. 골목길 (밤)

희미한 가로등만이 눈길을 겨우 비치고 있고, 골목길은 밤이 깊어 인적이 없다. 고요한 적막을 깨며, 라쥬가 눈길을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13. 라쥬의 집 전경 (밤)

거의 쓰러져가는 허름하고 낡은 판잣집. 매서운 겨울바람이 겨우 붙어있는 낡은 문을 세게 여닫고 있다. 어슬렁대는 도둑고양이의 모습과 함께 바람소리가 들리며 고독함을 더해주고 있다.

#14. 방 안 (밤)

조그만 램프를 켜고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는 라쥬의 모습. 그의 옆에서 철화가 잠을 이루려 뒤척이고 있다.

라 쥬 : (소리) 여보…… 오랫동안 편지를 보내지 못해 미안해요. 이곳에 온지도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사이)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공장사람들 모두…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참, 결혼식은 잘 치렀나요? 막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떠나올 때만 해도 어린 꼬마였었는데 어느덧 숙녀가 되어 결혼을 하다니……. 다시 한 번 축하한다고 전해줘요. 그리고…… 지참금을 많이 마련하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전해주세요. (#1에 나왔던 가족사진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미소 짓는다.)

철 화 : (졸린 눈을 뜨며) 또 일기 쓰는 거야?

라 쥬 : 아니…… 오랜만에 아내에게 편지 좀 썼어.

철 화 : (하품하며) 그만 자야지. 내일 또 일찍 공장 나가야 하는데 피곤하잖아.

라 쥬 : (미안한) 나 땜에 신경 쓰였지?

철 화 : (졸린 목소리로) 그게 아니라…….

라 쥬 : 이제 다 썼어. 그만 자자구. (불을 끈다)

#15. 공장 (아침)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라쥬의 모습, 잔뜩 화난 공장장에게 구박받고 있는 모습위로 라쥬의 일기가 깔린다.

라 쥬 : (소리) "2002년 1월 5일 맑음. 여보,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과 딸 생각에 잠이 안와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16. 공장 (밤)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주변의 몇몇 노동자들은 공장장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다. 그들 틈에서 묵묵히 자기 할일을 하고 있는 라쥬의 모습.

라 쥬 : (소리) 아버지의 병환은 어떠한지? 당장 전화카드 살 돈이 없어 한 달 후에나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혼자 중얼거릴 뿐…….

#17. 도로 위 (밤)

도로 위를 달리는 차의 모습.

#18. 건우의 차 안 (밤)

운전을 하는 건우와 그 옆 자리에 앉아 창 밖 거리를 보고 응시하고 있는 서하. 분위기 있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건 우 : (운전하며) 취재는 잘 돼? 진전이 좀 있어?
서 하 : (고개를 저으며) 생각보다 까다로워. 그 사람들 신분이 불법체류자이다 보니까 고용주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취재에 응하기를 거부하거든.
건 우 : (냉소적으로) 하긴, 어디든 자유롭게 나설 수 있는 부류들이

아니니까.

서 하 : (다시 창밖을 응시하는)

건 우 : 불법체류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악이야. 빨리 추방시켜서 사회를 깨끗이 정화시켜야 한다니까.

서 하 : (쳐다보며) 사회악이라고 할 것 까지 없지 않아? (건우의 말투가 맘에 안 드는)

건 우 : (태연하게) 사실이니까.

서 하 : 불법으로 있긴 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피해자들인데…….

건 우 : (말을 자르며) 열심히 사는 방법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산업 연수생으로 들어왔으면 월급이 좀 적어도 만족하고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돈 좀 더 받겠다고 다른 회사로 도망쳐서 숨어사는 거 아니야. 제대로 정신이 박힌 인간들이라면 불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히 살 생각들을 해야지.

서 하 : 그래도…….

건 우 : (서하의 손을 잡으며) 넌 너무 맘이 착해서 탈이야. 그런 인간들은 동정할 가치도 없어. 하긴…… 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니까 우리 같은 기업주들에게는 좋지만. (웃는)

서 하 : (씁쓸한 미소)

#19. 페인트 도색실 안 (새벽)

야간근무를 마친 라쥬가 집에 갈 차비를 하고 있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

치는 세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 그 중 한명이 갑자기 라쥬를 주먹으로 친다. 뒤이어 다른 놈들의 발길질도 날아온다. 라쥬는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사내들은 쓰러진 라쥬를 마구 짓밟는다.

라 쥬 :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가리며)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남 자1 : (발로 마구 차며) 야 이 새끼야, 니네 나라로 빨리 꺼지란 말이야!

남 자2 : 사장 새끼가 니들 때문에 우리까지 싼 맛에 마구 부려먹으려 드는 거 아니야!

남 자1 : 사실 예전부터 너 맘에 안 들었어. 넌 눈치도 없어? 왜 그렇게 혼자 열심인 척 지랄이야! 니가 실적을 많이 올리니까 우리까지 배당 분량이 늘어나잖아! 눈치껏 대강 할 것이지 왜 미련하게 일할 분량이 늘어나게 만드냔 말이야! 어?!

라 쥬 : (손을 모아 빌면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남 자3 : (계속 때리며) 미안하다면 다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빨리 한국을 뜨란 말이야! 꼴도 보기 싫다구!! 빨리 그만두겠다고 말해! 말 안 해?

라 쥬 : (그만두느니 차라리 맞겠다는 듯 저항을 멈춘다)

남 자1 : (기막힌) 어…? 이 자식 봐라? 곧 죽어도 그만두겠다는 말은 안하네?

라 쥬 : (죽어가는 목소리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아직은 돈 벌어야 해요…….

남 자2 : ! (열 받는다) 그건 니 사정이지! (더욱 세게 때리는)

라 쥬 : (이를 악물고 매를 맞고 있다.)

남 자3 : (독하게 견디는 모습에 질리는) 어유! 이걸 그냥…… (하더니 손을 털며 협박조로) 오늘은 이쯤 하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빨리 여길 뜨는 게 신상에 좋을 꺼야.

남 자1 : (으름장 놓으며) 니가 아무리 질겨도 오래 버티긴 힘들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사장이 널 좋아한다 해도 말이야. 울면서 쫓겨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떠나… 알겠어?! (침을 뱉고는 돌아선다)

남 자3 :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길질하더니 따라 나간다.)

라 쥬 : (너무 아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맞은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에서)

#20. 공장 외곽 (새벽)

철화가 공장 벽에 기대어 라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참이 지나도 라쥬가 나오지 않자 결국 라쥬를 찾아 다시 공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도색실에 다다르자 투덜대며 공장안에서 나오는 3명의 한국남자들이 보인다.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공장안으로 들어서는 철화.

#21. 페인트 도색실 안 (새벽)

라쥬가 일어서려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한다. 라쥬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피가 여기저기 묻어있다.

힘없이 쓰러져 눈을 감는 라쥬.
그때, 안으로 들어서는 철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라쥬를 발견하고 놀라 뛰어온다.

철 화 : (라쥬를 안고 흔들며) 이봐!!
라 쥬 : (철화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뜬다. 그가 반갑다.)
철 화 : (놀란 목소리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거야?! 왜?!
라 쥬 : (힘없이 미소 짓는)
철 화 : 누구야! 누가…… (하다가 아까 빠져나가던 3명의 남자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 자식들을...! (하며 뒤쫓아 가려 한다.)
라 쥬 : (가지 말라는 듯 철화의 옷을 붙잡는)
철 화 : (돌아보며) 잡지마!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 (분노에 찬 얼굴로) 가만 안 두겠어!!
라 쥬 :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그러지마… 그러면 우리 둘 다 쫓겨나.
철 화 : (소리치며) 그럼 이렇게 짐승처럼 맞으면서 살까야? 아니, 짐승한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아! 짐승만도 못한 대접 받느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구!
라 쥬 : (힘겹게) 어머니를 생각해… 고향에서 철화만 믿고 있는 어머니는 어떡하고… 응...?
철 화 : … (어머니란 말에 할 말을 잃는다. 스르르 자리에 주저앉는)
라 쥬 : 그래… 잘했어… 잘 한거야……. (슬프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22. 공장전경 (아침)

#23. 공장 안 (아침)

언제나처럼 열심히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라쥬의 모습. 얼굴은 피멍으로 물들어 있다. 그를 때린 남자 1,2,3이 멀리서 그를 주시하고 있다. 뭐라고 속닥대는 남자1,2,3.
라쥬는 그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지만 묵묵하게 맡은 일만 계속한다. 철화가 그 옆에서 겨우 화를 억누르며 일을 하고 있다.
그때, 느지막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공장으로 들어서는 바텐.
라쥬와 철화를 보더니 그들에게 건들대며 다가간다.

바 텐 : (능청스럽게) 아저씨는 역시나 일찍 출근… (그러다가 라쥬의 얼굴을 본다. 내심 놀란 듯 그러나 내색 않고) 얼굴이 왜 그래?
라 쥬 : (얼굴을 가리며 애써 태연하게) 그냥… 넘어졌어.
철 화 : (숨기는 것이 답답하다) 사실은 말야……. (하며 어제 일을 말하려 하는)
라 쥬 : (재빨리 말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흔든다.)
철 화 :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무는)
바 텐 : (뭐냐는 얼굴로) 뭐야. 둘만 아는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치사하게. (그러다가 알겠다는 듯이 씩 웃으며) 아~ 어제 둘이 싸웠구나? (낄낄대며) 그 나이에 싸움질은. 맨날 나보고 쌈질하고 다닌다고 구박하더니. 뭐야? 뭣 땜에 싸운 건데?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이 문제야? (키득대는)
라 쥬 : (아무것도 모르는 바텐을 보고 그저 빙그레 슬픈 미소를 짓는)
철 화 : (어이가 없다는 듯 바텐을 쳐다보는 얼굴에서)

#24. 공장식당 (낮)

지저분한 구내식당. 사람들이 점심배식을 받고 있다. 사람들 뒤에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라쥬와 철화. 배식순서가 되어 식판을 내미는데 순간 반찬을 보고 표정 굳는 라쥬.
제육복음이다.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김치와 된장국만 받아오는 라쥬와 제육볶음을 받고 쭈뼛쭈뼛 따라가는 철화의 모습.

철 화 : (의자에 앉으며 민망한 듯) 오랜만에 나온 고기반찬인데… 하필이면 돼지고기를…….
라 쥬 :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철 화 : (자기 식판위에 놓인 제육볶음을 본다. 참 맛있어 보인다. 먹고 싶지만 라쥬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차마 손대지 못하고 다른 반찬들만 깨작거린다.)
라 쥬 : (담담하게) 내 눈치 볼 것 없어. 내가 안 먹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먹는 것까지 비난할 생각은 없으니까.
철 화 : (라쥬를 보는)
라 쥬 : (미소 지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
철 화 : (그제야 제육볶음을 집으며) 맞아! 중국은 돼지고기 요리를 참 좋아하는 문화거든. (하더니 맛있게 먹는다.)
라 쥬 : (돼지고기 먹는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지만 이해하고 웃어준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는 남자1,2,3의 모습에서

#25. 공장 외부 공터 (낮)

점심을 먹고 조금 남은 시간동안 공터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철화와 라쥬. 풀 위에 몸을 눕히는 라쥬. 철화도 멀찌감치 떨어져 누우며 눈을 감는다. 조금 뒤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1,2,3. 라쥬와 철화는 그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한다.

남 자1 : (살금살금 라쥬에게 다가가며 남자3에게 눈짓을 한다.)
남 자3 :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 뒤로 숨기고 있던 봉지를 꺼내든다.)
남자1,2: (라쥬에게 다가가 라쥬를 붙잡는다)
라 쥬 : (갑작스런 인기척에 놀라 일어나 앉으며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는데 순식간에 라쥬의 입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남자3. 바로 제육볶음이다. 라쥬 놀라서 뱉어내려 하지만, 제지하며 억지로 넘기도록 입을 막는 남자들. 라쥬 경악하며 발버둥친다.)
철 화 : (이내 그 상황을 보고 놀라 제지하는)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남자1,2를 때어낸다.)
라 쥬 : (입안의 고기를 뱉어내는)
남 자1 : (교활한 미소를 띠며 라쥬에게) 우리가 그랬지? 니 발로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갈 때까지 괴롭힐 꺼라고.
라 쥬 : ! (곧 입안에 남은 돼지고기 냄새에 계속 구역질을 한다.)
남 자2 : (구역질을 하는 라쥬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꺼지는 게 좋을 거야. (으름장을 놓듯) 계속 우리말을 무시하면 다음엔 또 어떤 일을 벌일

지 우리도 장담 못해.

남 자3 : (킥킥대며) 아마 지금 보다는 훨씬 더 괴로운 일일 껄?

철 화 : (걱정스런 얼굴로 라쥬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 (하더니 일어나 남자1의 멱살을 잡으며) 이 나쁜 놈들! 너희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남 자1 : (거칠게 뿌리치며) 이거 안 놔?

철 화 : (손을 놓치는)

남 자1 : (무서운 기세로 철화의 멱살을 잡으며) 이 새끼, 너도 예외는 아니야. 너도 빨리 연변인지 어딘지 네 놈 살던 곳으로 꺼지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나라 사람들 살기도 버거운데 어디서 외국 것들까지 들어와서 설치고 지랄이야! (하며 철화를 발로 차는)

철 화 : (살기를 띤 눈으로 주먹을 다잡고 덤비려한다)

남 자1 : (무서운 기세에 순간 움찔하는)

철 화 : (주먹을 들어 한대 치려하나 그 순간 라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라 쥬 : (소리) 어머니를 생각해

철 화 : (그러자 차마 때리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남 자1 : (비웃으며) 뭐야, 별것도 아닌 게!! (하며 남자2,3과 함께 무자비하게 밟는)

철 화 : (자신들의 처지가 문득 서러워 저항도 않은 채 쓰러져 뭇매를 맞는)

라 쥬 :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달려와 철화를 막아주며 같이 맞는다.)

매를 맞는 라쥬의 모습위로 길게 F. O 되면서 라쥬의 편지가 겹쳐진다.

라 쥬 : (소리)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공장사람들 모두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26. 공장전경 (아침) F. I

#27. 공장 앞마당 (아침)

아침조회를 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공장장의 모습. 나란히 줄을 맞춰 조회를 하고 있는 공장노동자들의 사이에 서 있는 라쥬와 철화의 모습. 둘 다 얼굴이 멍투성이고 무표정하게 조회를 듣고 있다. 조회가 끝나고 일을 하러 들어가는 두 사람. 아무도 두 사람의 얼굴이 왜 그런지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쳐간다.

#28. 공장 화장실 (낮)

바텐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농땡이를 치고 있다. 그러다 배가 아픈지 다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선다.

#29. 공장 밖 (낮)

라쥬를 때렸던 남자1,2,3이 키득대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30. 화장실 안 (낮)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 바텐의 얼굴. 곧이어 남자1,2,3이 들어오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린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남자들의 목소리.

남 자2 : (E) 근데 그 새끼들 면상 봤어? 완죤히 멍으로 도배했던데?
남 자1 : (E) 그러게~ 가구 색칠할 생각 말고, 지 얼굴색이나 잘 관리하지. (하며 킥킥대는)

바텐, 그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 볼일을 못 보겠는지, 표정이 일그러진다.
남자1,2,3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른 채 라쥬의 이야기에 여념이 없다.

남 자3 :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며) 근데 사실 어제 그 자식들 패면서도 혹시 폭행죄로 신고하면 어쩌나 좀 걱정은 되더라.
남 자1 : (비웃듯이) 자식, 소심하기는…… 야! 그 새끼들 신분 잊었어? 그 이름도 유명한 불법체류자들 아냐~

바텐, 볼일을 다 보고 물을 내리려다가 불법체류자란 말에 멈칫한다.
그러고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인다.

남 자1 : (계속 우쭐대며 말하는) 불법체류자가 미쳤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냐? 그건 '나 잡아가슈..' 하면서 한국에서 추방당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진데…… 안 그래?
남 자3 : (안심하듯) 그건 그래. 걔네들은 돈에 환장한 놈들이니까 짐승

처럼 맞는 한이 있어도 쫓겨날까봐 신고 못할 꺼야. 그 중국 놈 봐. 감히 우리한테 덤벼들려고 했다가, 금세 쫄아서 주저앉는 거. (킥킥대며) 결국 주제 모르고 설쳤다가 죽도록 맞았지만 말야. 그 놈도 방글라 놈처럼 신고할 엄두도 못낼껄?(하면서 바지를 추스른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살기를 띄는 바텐의 얼굴.

남 자2 : (옷을 추스르며) 신고는 무슨…… 경찰은 당연히 우리 편일텐데…… (하는데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온 바텐에게 일격을 당한다.) 악! (맞은 얼굴을 감싸 안으며 쓰러진다)
바 텐 : (거의 이성을 잃은 무서운 얼굴로 남자2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남자1,3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서 있다가 곧이어 반격에 나선다.

남 자1 : (바텐을 남자2에게서 떼어내며) 너 뭐야?! 왜 이래?!
바 텐 : (남자1을 보더니 이번엔 그에게 발길질을 한다.)
남 자1 : (뒹굴며) 아이고…… 이놈이 사람 죽이네…….
바 텐 : (남자1을 무섭게 밟더니, 고개를 돌려 남자3을 본다.)
남 자3 : (겁먹은 얼굴로 뒤로 주춤거리며) 뭐… 뭐야……
바 텐 : (무서운 기세로 노려보며 남자3에게 다가서는 모습에서)

#31. 휴게실 (같은 시각)
리얀, 비뿌가 라쥬와 철화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대화하고 있다.

비 뿌 : 어디서 다쳤어요? 네?

라 쥬 : … (묵묵히 있는)

철 화 :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이를 앙다물고 있다.)

비 뿌 : (철화 등에 파스를 붙여주며) 참, 민혁 아버지 돌아가신 거 들었어요?

철 화 : (놀라며) 뭐?

라 쥬 : ! (그러다 예상했었다는 듯) 결국…….

리 얀 : (슬픈 표정을 지으며 라쥬의 등에 파스를 붙여주는)

철 화 : 이틀째 공장에 안 나오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 장례식에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째…….

비 뿌 : 오늘 저녁에라도 들리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께 말하면 일찍 보내줄지 모르잖아요.

철 화 : (어림도 없을 거라는 표정)

#32. 공장 안 사장실 (오후)

의연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바텐의 모습. 거의 상처가 없는 멀쩡한 모습이다.

카메라 멀어지면 남자1,2,3이 바텐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씩씩대고 있다. 그들 얼굴은 바텐에게 맞아 상처로 얼룩져 있다. 그리고 마사장은 남자1,2,3옆에서 그들을 달래고 있다.

남 자2 : (흥분해서) 말리지 말라구요! 지금 우리 꼴을 보고도 참으란 말이 나옵니까?

남 자1 : (바텐이 들으라는 듯이) 저놈을 당장 신고해서 콩밥을 먹게 만들꺼라구요!

마사장 : (쩔쩔매며) 여보게들… 우선 진정들 해… 진정들 하고 차분히 앉아서 얘기하자구. (소파로 이끌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단 이리들 와서 앉아. 응?

남 자3 :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저 놈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소름이 돋는다구요.. 사장님이 아까 저놈이 발악하는 모습을 봤어야 하는 건데… 꼭 짐승 같았다니깐요? 사람을 이렇게 패다니… 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파서 찡그리는)

바 텐 : (열 받아 벌떡 일어서며) 그럼 니들이 한 짓은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해?

마사장 : (바텐에게 고함을 지르며) 닥치지 못해! 싹싹 빌어도 모자랄 놈이 어디서 큰소리야?! (머리를 감싸며) 아이구… 저놈 일 안하고 빈둥댈 때 그냥 잘랐어야 하는 건데… 내가 사람이 좋아 모질지 못했던 게 탈이지… 저런 놈을 그냥 두었더니 이게 무슨 난리냐고…….

바 텐 : (더러워서 참는다는 얼굴로 다시 소파에 앉는다)

남 자1 : (순간 쫄았다가 다시 의기양양해서 바텐에게) 여하튼 긴 말 필요 없고, 일단 경찰서로 가자구! (사장에게) 우린 기필코 저놈 끌고 경찰서 가서 결판을 낼꺼라구요!

마사장 : (비굴하게 웃으며) 김반장, 이거 왜이래…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저놈 델꾸가서 신고해버리면, 난 어쩌라고… 불법 체류자 고용했다고 나까지 고발당할 텐데, 그럼 난 어떻게 되겠어……. 응?

남 자1 : (매정하게 고개 돌리며) 그건 사장님 사정이고요.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끝내요.

마사장 : (봉투를 찔러주며) 김반장,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대신 내가 피해보상은 섭섭지 않게 해줄께. 응? 좋은 게 좋은 건데, 우리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응?

남 자1 : (표정 풀리며) 흠흠,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흠흠, (하면서 봉투 속을 슬며시 들여다본다. 그러다가 액수가 맘에 안 드는지 봉투를 닫으며) 없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커서…….

마사장 : (얄미운 듯 찡그리다가 금세 비굴하게 웃으며 돈을 더 찔러 넣어준다) 내 사정 한번만 봐주게……. 응?

남 자1 : (돈을 확인해보더니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뭐,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부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흠흠, (바텐을 보며) 너 사장님 덕에 산 줄이나 알어! 알겠어? (하면서 나간다.)

남자2,3이 남자1을 따라 나간다. 한참 분을 삭이던 사장은 곧 바텐을 노려보며 다가선다.

마사장 : (이를 악물며) 내가… 지금 너 땜에 얼마를 손해 본 줄 알아?

바 텐 : (태연하게 묻는) 그래서 내가 어쩌길 바래요…? 나가줄까요?

마사장 : (속으로) '어휴… 저걸 그냥‥' (그러다 퍼뜩 떠오르는 생각) 흠흠, 맨날 니 옆에 붙어 다니는 그 여자… 왜… 말 못하는 기집애 있지? (하며 바텐을 힐끔 본다)

바 텐 : (보는)

마사장 : (괜히 딴청부리며) 둘이 찐한 사이야?

바 텐 : (눈치 못 채고 픽 웃으며) 찐한 사이는 무슨…….

마사장 : (순간 반색하며) 그렇지? 별 사이 아니지? (괜히 헛기침 하더니) 흠, 그럼 우리 협상할까? (징그러운 미소를 띠며) 오늘밤 그 기집애 소개해주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수…… (하는데)

바 텐 : (그 순간 벌떡 일어나 사장 멱살을 잡는다. 이제야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되었다.)

마사장 : (놀라 휘둥그레지는 눈) 이… 이봐! 지… 진정하라구…….

바 텐 : (한대 치려다가 때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는 노려보다 뒤돌아 나간다.)

마사장 : (그제야 소리치는) 이러면 너한테 좋을 게 없을 텐데!

바 텐 : (고개를 돌리더니) 더러운 새끼! 안 그래도 재미없어서 때려치려고 했었어! 다시 한 번 그 딴 더러운 소리 입에 올렸다간 넌 내 손에 죽어.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간다)

마사장 : (벙찐 얼굴 그러다 곧 으름장을 놓는) 다시는 이 근처엔 얼씬도 마! 얼쩡거렸다간 당장 신고해 버릴 꺼야! (하더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33. 공장 근처 공터 (오후)

비가 오려는 듯 어두워진 하늘. 라쥬와 철화, 비뿌, 리얀이 초조하게 바텐을 기다리고 있다. 조금 뒤 바텐의 모습이 보이자, 그에게 달려가는 세 사람.

철　화 : (바텐을 붙잡으며) 어떻게 됐어? 응?

라　쥬 : (매우 걱정스런 표정이다)

리　얀 : (수화한다) (어떻게 된 거냐구? 응?)

바　텐 : (아무 말 없이 땅만 쳐다보는)

비　뿌 : 잘 해결 된 거지? 그치?

바　텐 : … (이윽고 어깨를 으쓱하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철　화 : (역시…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내가 당했어야 할 일이었어.

리　얀 :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물을 흘리는. 곧 흐느끼며 운다.)

바　텐 : (짜증내며) 재수 없게 왜 울고 지랄이야!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을까봐?

라　쥬 : (괴로운 듯 중얼거리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

바　텐 : (버럭) 시끄러워요! 이게 왜 아저씨 때문이야! 내가 남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인간으로 보여?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저지른 일이라구! 에이씨… (공장 안으로 사라진다.)

리　얀 : (그 모습이 안쓰러워 어깨까지 들썩이며 흐느끼는)

비　뿌 : (리얀을 안쓰럽게 바라보다 조심스레 달래준다)

철　화 : (푸념하듯) 이런 때 민혁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든 해결해주었을 텐데…

라　쥬 : (멍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34. 사장실 안(오후)

사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며 애원하는 라쥬의 모습. 마사장은 고개를 저으

며 짜증을 낸다. 끈질기게 애원하자 참다못한 마사장은 라쥬를 거칠게 잡아끌어 문 밖으로 쫓아낸다. 그런 모습 위로

라 쥬 : (소리) 여보…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견뎌야 하겠죠…?

#35. 사장실 밖/복도 (오후)

문 밖으로 쫓겨나는 라쥬의 모습. 순간 가슴을 움켜잡는다. 가슴을 움켜쥔 채 창밖을 보는 라쥬. 검은 하늘에선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다.

라 쥬 : (소리)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친구들이 고통 받는 건…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가슴이 더 조여 옵니다.

#36. 공장전경 (밤)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다.

#37. 사장실 안 (밤)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듯 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서는 마사장의 모습

#38. 사무실 건물 앞 (밤)

계단을 내려와 우산을 펴고 건물 밖을 나서는 마사장. 순간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형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마사장 : (경계하며) 누, 누구야?

라 쥬 : (무릎을 꿇은 채 추위에 몸을 떨며) 사장님… 제발 바텐을 용서해 주세요…….

마사장 : (라쥬임을 확인하고는 곧 짜증을 내며) 누구 심장마비 걸리게 하려고 작정했어? 얼마나 놀랐는줄 알아? 으휴 이걸 그냥… (하더니 지나쳐 가려한다.)

라 쥬 : (황급히 마사장의 바지를 붙잡으며) 사장님, 제발… (간절하게 바라보는)

마사장 :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거칠게 발로 차내는) 이 자식이 정말 미쳤나, 왜이래!?

라 쥬 : (발길질에 나가떨어지는)

마사장 : (노려보며)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사람이 좋아서 이정도지, 다른 사장한테 이따위로 했다가는 넌 벌써 모가지야. 짤렸다고! (침을 뱉으며)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더니 차를 타고 떠난다.)

하늘에선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카메라 점점 멀어지면 빗속에 웅크려 흐느끼고 있는 라쥬의 모습에서 (F. O)

#39. 몽타주

F. I와 함께 취재를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뛰는 서하의 모습들이 비춰진다. 가는 공장마다 취재를 거절당하고 쫓겨나 막막해하는 서하의 모습. 결국 뭔가 굳은 결심을 하는 서하의 표정에서

#40. 공장전경 (아침)

#41. 공장 안 (아침)

구석에서 민혁, 비뿌, 리얀, 철화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 혁 : (놀라는) 그러니까 바텐이 여길 그만두고 떠났다는 건가요?

철 화 : (가라앉은 목소리로) 응.

민 혁 : 바텐이 사람들을 폭행한건 잘못이지만, 먼저 폭력을 시작한건 그쪽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불공정해요. 지금이라도 사장을 만나봐야겠어요. (일어서는)

철 화 : (붙잡으며) 소용없어. 라쥬가 비속에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애원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대. 우리가 건의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아니야.

민 혁 : (주변을 둘러보는데 라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라쥬 아저씨가 안보이네요?

철 화 : (한숨을 쉬더니) 밤새 빗속에서 떨어서 그런지 몸 상태가 말이 아니야. 안 그래도 맞은 뒤로 안색이 안 좋던데 어제일로 더

심해졌어. 그래도 기어이 공장 나오겠다는걸 내가 하루 푹 쉬라고 억지로 집에 떨쳐두고 오는 길이야.

그 말에 모두들 가슴이 아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비 뿌 : (정적을 깨며) 아저씨도 걱정이지만, 바텐은 안 그래도 불안한 친구였는데, 직장까지 잃었으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불안해요. (하면서 리얀을 바라본다.)

리 얀 : (며칠 새 많이 야윈 얼굴이다)

민 혁 : (걱정스런 얼굴로)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대요?

철 화 : (한숨을 쉬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리얀한테라도 연락 좀 할 것이지. 걱정하는 사람들 생각은 안하고…….

리 얀 : (눈물을 훔쳐내는)

민 혁 : (리얀을 안쓰럽게 보며) 너무 걱정 말아요. 한국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어요. 연락은 없어도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꺼예요.

비 뿌 : (리얀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표정)

그때, 공장장이 한 여자와 함께 들어선다.

공장장 : (손뼉치며) 자! 주목들 해보드라고~ 오늘부텀 같이 일하게 될 동료를 소개할텡께.

공장장의 말에 여자를 주목하는 사람들. 카메라 돌려 여자를 비추면 작

업복 차림의 서하가 서 있다.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는 서하의 모습에서.

#42. 보석가게 (저녁)

건우와 서하가 약혼반지를 고르고 있다.

건 우 : (놀라며) 뭐? 어딜 들어가?
서 하 : (진열장을 들여다보며 태연하게) 가구공장. (맘에 드는 반지를 발견하고는) 이게 괜찮겠다. (점원에게) 언니, 이 디자인 좀 꺼내주시겠어요?
점 원 : 네. (반지를 꺼내는)
건 우 : 나가서 얘기하자. (무작정 서하를 끌고 가는)
서 하 : (점원을 향해) 미안해요. 다음에 올게요. (건우의 손에 이끌려 나간다.)

#43. 고수부지 (밤)

서하가 공장에 위장 전입한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건우, 황당한 표정으로 서하를 쳐다보고 있다. 강가에 차를 세워두고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서 하 : (짐짓 웃으며) 계속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내 얼굴 다 닳겠다.
건 우 : (심각한 표정)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니가 뭘 하겠다고? 공장을 다녀? 니가…? 지금 농담하는 거지?

서 하 : 오빠, 난……

건 우 : (말을 자르며) 긴 말 할 필요도 없겠다. 당장 그만둬.

서 하 : (화가 난다) 오빠, 왜이래? 이건 내 일이야. 내 일에까지 간섭할 권리 없어.

건 우 : 그런 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인지 몰라서 그래?

서 하 : 알아… 안다구. (한숨) 정말이지 직접 가보니까 작업환경이 말이 아니더라…….

건 우 : 그걸 보고도 거기서 일을 하겠단 말이 나와?

서 하 : 나도 힘들게 결정한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위장 취직이라도 안하면 취재는커녕 문전박대만 당하다가 끝나게 생겼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얼마나 심란한지 알아? 이런 때일수록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건 우 : (단호하게) 그냥 이번 취재 못하겠다고 해. 말하기 힘들면 내가 직접 너희 방송국 국장 만나서 부탁할 테니까.

서 하 : (소리치는) 오빠!!

건 우 : 말해.

서 하 : (애써 진정하며) 지금한말 진심 아니지? (단호하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나 다신 오빠 안 봐. 이건 내 자존심 문제야. (목소리 점점 커지며) 이건 내가 맡은 내 일이구, 맡은 이상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고! 날 어린애 다루듯 하지 말아줘!

건 우 : (설득하는) 서하야… 이건 널 위해서야. 날 위해서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라도 네가 거기서 사고라도 생긴다면 난 못 견딜 거라구.

서 하 : 날 생각하는 맘 잘 알아. 근데, 나도 이번일은 힘들게 내린 결

정이야. 이미 난 맘 굳혔으니까 더 이상 이 일로 오빠랑 다투긴 싫어. 그냥 날 믿고 따라주면 안 돼?

건 우 : (서하를 한참 바라보다) 꼭 거길 들어가야겠니?

서 하 : (끄덕)

시간경과 (차 안에 들어와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

건 우 : (서하의 고집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래, 알겠어. 내가 졌다구. 최서하 고집을 무슨 수로 막겠어. 하여튼 최서하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서 하 : (미소) 고마워. 오빠 걱정 시키는 일 없도록 잘할게.

건 우 : (왠지 불안하다) 언제까지 다닐 생각인데...?

서 하 : 만족스런 정보를 얻을 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부모님 껜 비밀인거 알지?

#44. 공장 외경 (아침)

#45. 공장 안 (아침)

공장 일을 시작한 서하. 푸른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다. 아직은 일이 서툴러 실수를 연발하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결국 공장장에게 꾸지람을 듣는 서하,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공장장이 떠나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에 속상해 하는 서하.

그런 서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민혁.

민 혁 : (페인트 통을 들고 서하 옆을 지나가며)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려나.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 듯한데.

서 하 : (뜨끔, 그러나 이내 새침하게) 이런 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건데요?

민 혁 : (고개 돌려 서하를 쳐다보는 그러다가) 보아하니 곱게 자란 부잣집 따님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런 곳에 들어오셨을까...?

서 하 : (순간 당황하지만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띄며) 그게… 무슨 뜻이죠?

민 혁 : (의심스러운 눈빛)

서 하 : (시선 돌리며) 내가 지금 일을 못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 쪽은 뭐 처음부터 잘 했어요? 잘난 체하지 말아요. 얼마 뒤엔 내가 그 쪽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될 테니까.

민 혁 : (경계심가득한 눈으로 서하를 보다가 이내 돌아서며)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지. 내가 좀 과민한 걸 수도 있으니까.(하더니 가버린다)

서 하 : (들키지 않아 다행이다)

#46. 몽타주 (며칠 뒤, 공장)

일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서하를 지켜보던 민혁이 점차 경계를 풀고 말없이 일을 거들어준다. 조금 뒤 일하는 요령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민혁. 처음엔 새침한 표정의 서하도 점차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 무덤덤한 표정이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민혁의 모습

에 점차 고마움을 느끼는 서하. 공장 밖 공터에 앉아서 쉬고 있는 민혁. 민혁을 찾아 나온 서하가 그를 발견하곤 뒤에서 불쑥 캔 커피를 건넨다. 무표정하게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민혁. 민혁의 무뚝뚝함에 멋쩍은 듯한 표정으로 옆에 앉는 서하. 서먹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하. 대화를 나누며 민혁은 가끔 미소를 띠기도 한다. 그렇게 점점 친해져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F. O)

#47. 몽타주 (낮) – F. I

거리는 설날임을 암시해주는 새해맞이 행사들로 요란하다. 명절 분위기로 한창 들떠있는 모습이다. 거리는 한복을 입고 손에는 선물들을 많이 들고 집에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바텐의 모습. 더러워진 옷에 해진 신발 등 초췌해진 모습은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바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바닥만 보고 걸어가다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 사람들을 쳐다본다. 모두들 행복해 하는 표정이다.

서하의 집. 서하의 집도 명절분위기로 화기애애하다. 서하의 집에 인사온 건우의 모습.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다가 문득 옆에 있는 서하를 바라본다. 서하는 다른 생각에 빠져있어 건우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표정이다. 그런 서하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건우의 표정.
그런 모습들 위로 라쥬의 일기가 깔린다.

라 쥬 : (소리) 2002년 2월 12일 맑음. 여보… 지금 한국은 명절일이

예요. 내가 전에도 편지로 알려준 적 있었던 설날이라는… 지금 이 곳 사람들은 모두들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더욱 더 외로워집니다. 이때는 내가 이방인이라는 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해주니까요. 이 곳 사람들과 절대 동화될 수 없는… 이방인…….

#48. 공장 안 (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 노동자들 중 한국인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묵묵히 일에 몰두하고 있는 라쥬의 모습.

라 쥬 : (소리) 오늘은 모든 노동자들이 쉬는 명절이지만, 우린 일을 해야 해요. 밀린 주문을 채우려면 하루라도 공장을 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갈 곳 없이 거리를 떠도는 것보다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으니까요. 이곳에서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적어도 이곳에서의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요…….

#49. 거리 (밤)

초췌한 모습으로 밤거리를 방황하는 바텐. 갈 곳이 없다. 그러다 술 취한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고, 그 사람은 바텐에게 시비를 건다. 계속되는 시비에 참지 못하고 그를 때리는 바텐. 조금 뒤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 도망친다.

#50. 지하철 역 안 (밤)

역 안을 서성이며 잠잘 곳을 찾는 바텐의 모습.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구석진 자리에 쪼그려 앉는 바텐. 주위를 보면 노숙자 몇몇이 신문지를 덮고 자고 있다. 문득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진다.

#51. 라쥬의 집 전경 (밤)

#52. 라쥬의 방 (밤)

어두운 방안, 라쥬와 철화가 잠을 자고 있다. 갑자기 라쥬가 심하게 기침을 시작한다. 그러더니 가슴의 통증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철 화 : (기침소리에 깨더니 걱정스런 목소리로) 괜찮아?

라 쥬 : (힘겹게 끄덕) 괜찮아. 걱정 말고 자. 피곤할 텐데…….

철 화 : (일어나 불을 켜며) 안 되겠어. 병원에 가보자구. 이러다 정말 큰 병 생기겠어.

라 쥬 : (고개를 젓는)

철 화 : (화가 난다) 병원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선 살고 봐야 할 것 아니야!

라 쥬 : (짐짓 웃어 보이며) 이제 괜찮아.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철 화 :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병원비 생각보다 몇 푼 안 돼. 왜 그렇게 아픈지 알고 고쳐야 할 것 아니야. 비 맞은 날 뒤로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라 쥬 : 오늘은 어차피 휴일이라 병원도 닫았어. (중얼거리듯) 그리고

월급도 계속 못타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철 화 : (착잡한 표정)

#53. 병원 앞 (아침)

병원 앞에 서 있는 라쥬와 철화. 철화는 들어가자고 하고 라쥬는 안 간다고 버티고 있다.
한참 실랑이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

라 쥬 : 급하게 들려볼 곳이 있다고 하더니 여기였어...?

철 화 : 이렇게라도 데려오지 않으면 평생 병원 근처에도 안 갈 테니까.

라 쥬 : (철화를 바라본다) 그냥 기침하는 것뿐이야. 기침하니까 가슴이 좀 아픈 거고…….

철 화 : (제발 들어가 보자는 표정. 간절하기까지 하다.)

라 쥬 : (철화의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그래… 들어가자……. (병원 안으로 들어선다)

철 화 : (다행이다)

#54. 예술의 전당 (밤)

(몽타주)
공연장에 앉아 건우와 오페라를 관람하며 데이트하고 있는 서하의 모습. 오페라를 즐겁게 감상하는 건우와는 달리, 서하는 오페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건우, 문득 고개 돌려 서하를 보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서하의 모습. 순간 표정 굳는. 그런 건우를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만 하는 서하의 모습.

#55. 공장 (낮)

(몽타주)
즐거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며 일을 하고 있는 서하와 민혁의 모습. 서하, 건우와 있을 때와는 달리 민혁에게 말도 많이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56. 레스토랑 (밤)

(몽타주)
같이 저녁을 먹는 서하와 건우. 서하 묵묵히 고기를 써는데, 전화가 온다. 휴대폰의 발신자 번호를 보고 반갑게 전화를 받는 서하. 이내 건우의 눈치가 보이는지 건우에게 '잠깐만…'하고는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간다. 건우 뭔가 의심쩍고 불안한 표정에서.

#57. 병원 전경 (낮)

#58. 진료실 (낮)

담당의사가 라쥬의 진료사진을 걸어놓고 진료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 라쥬와 철화, 귀 기울여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 둘의 표정은 의사의 말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진다.

철 화 :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예요?

의 사 : (라쥬에게) 평소에 가슴통증을 많이 느꼈다고 하셨죠?

철 화 : (대신 대답하는) 네, 자다가도 가슴이 아파서 움켜쥐곤 하는 걸 자주 봤었어요.

의 사 : (꾸짖듯) 왜 진작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었죠?

라 쥬 :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천천히) 병명이… 뭔가요…?

의 사 :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구요.

철 화 : (다급하게) 어쨌든 생명엔 지장 없는 거죠?

의 사 : (안경을 올리며) 현재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이)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대로 둔다면 사망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라 쥬 : (쿵! 하는 표정)

철 화 : !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한)

의 사 : (라쥬의 심장사진을 짚어가며) 여기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 중 4군데가 막혀 있는 상태로 당장 수술이나 혈관 조영 시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쥬 :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듯) 수술비는 … 얼마나 드는 거죠?

의 사 : (잠시 라쥬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수술을 하게 되면 총 2천 5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3-4군데 혈관 조형 시술을 하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철　화 : (놀라는) 이천… 얼마요? (어마어마한 수술비에 더욱 참담하다.)
라　쥬 : (벌떡 일어나며) 그만 가지.
철　화 : (걱정되는) 어쩌려고? 선생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라　쥬 : (담담한) 더 들어보고 말 것도 없잖아. (하며 나간다.)
의　사 : ('역시나…'하는 표정 그러다가 라쥬가 들리도록) 절대 일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해요! (남아있는 철화에게) 이 상태로 그냥두면 언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최근 심장 수술이나 조형 술의 결과가 좋아 희망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수술하도록 친구 분을 설득해 보세요. 돈 때문에 생을 포기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라 안타깝군요.
철　화 : (참담한 표정에서)

#59. 달동네 벤치 (밤)

여기저기 불빛이 보이는 밤전경을 바라다보며 나란히 벤치에 앉아있는 철화와 라쥬.

라　쥬 :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늘따라 불빛들이 참 많다. 저 불빛들 아래서 모두들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겠지?
철　화 : (표정)
라　쥬 : (멍한) 아무래도 잘못했어…….
철　화 : (쳐다보며) 뭐가?
라　쥬 : 떠나지 말고 가족들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철　화 : (눈물이 고이는)

라 쥬 : (담담하게 말을 잇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다고 가족들을 버리면서까지 난 이곳에서 뭘 하며 살아온 걸까?

철 화 : (목이 메이는) 버리기는 누가 버려...?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라 쥬 : 난 딸아이한테 행복한 추억하나 만들어주지 못했어. (눈물고이는) 아이에게 아빠와 함께 한 추억하나 만들어 주지 못했다구.

철 화 : (눈물 훔치는)

라 쥬 : (애써 진정하며) 조금만 더 일해서 돈 모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막내 여동생 결혼시키고 이제부터 번 돈은 가족을 위해 저금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한 달도 안 되어 병으로 쓰러지고 말 것을… 다 소용없는 것을…….

철 화 : 너 답지 않게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수술만하면 나을 수도 있다잖아.

라 쥬 : (울컥하는) 수술? 수술은 누가 그냥해준데? 사장은 밀린 월급 줄 생각도 안하고 있고, 지금은 집에 송금하고 남은 돈 백 만원이 전 재산인데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겠어!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고 죽는 게 낫겠어!!

철 화 : (평소답지 않은 라쥬의 모습에 더욱 슬퍼진다)

#60. 방송국 전경 (아침)

#61. 국장실 (아침)

국장과 서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장 앞에 서 있는 서하.

국 장 : (책상을 탕탕 치며) 도대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취재도 못하고 뭐하는 거야!?

서 하 : (면목 없다는 얼굴이다)

국 장 : 위장 잠입까지 했다면서, 변변한 기사거리 하나 못 쓰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얼마나 더 기한을 늘려줘야겠어?

서 하 : (결심한 듯) 국장님… 저… 이번 일에서 손 떼고 싶습니다.

국 장 : 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서 하 : 그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기분에 기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국 장 : (황당한) 뭐라구?!

서 하 : 더 이상 그들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밝히고 공장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국 장 : (기막힌 표정)

#62. 도로 (밤)

도로 위를 달리는 건우의 차.

#63. 건우의 차 안 (밤)

건우, 운전을 하고 있고 서하는 의기소침한 표정이다.

건　우 : (반색하며) 뭐? 그래서 취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서　하 :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응.

건　우 : (짐짓 위로하듯) 잘 된 거야. 너에겐 너무 버거운 일이였어. 근데 좀 의외네? 넌 맡은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완벽하게 해내는 애잖아.

서　하 : (창밖을 보며 속으로) 쓸 수가 없었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기사를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 그러기엔 그 사람들의 눈이 너무 슬퍼보였으니까…….

건　우 :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서하를 슬쩍 보더니 은근슬쩍) 그럼 이제 그 공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

서　하 : (그만두는 게 못내 아쉬운) 아니, 작별인사라도 하고 나와야지.

건　우 : (공장에 또 간다는 게 맘에 들지 않는다)

#64. 공장전경 (아침)

#65. 공장 안 (아침)

기계가 돌아가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 노동자들의 모습.
카메라 점차 좁혀 들어가면 라쥬가 여느 때처럼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옆에서 걱정스런 얼굴로 라쥬를 보고 있는 철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라쥬가 아픈 것을 모르고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카메라 돌아가면 서하가 민혁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인다. 망설이다가 사실을 고백하려 다가가는데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서하,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

면 라쥬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다. 민혁, 장비를 던져두고 라쥬에게 달려가고, 철화는 라쥬를 들쳐 안으며 응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치고 일하던 사람들 몰려들어 라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위로 일기가 깔린다.

라 쥬 : (소리) 여보, 나… 사실은… 잘 지내지 못해요. 난… 죽어가고 있어요…….

#66. 중환자실 앞 (낮)

환자 보호자들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카메라 서서히 돌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비춰준다. 민혁은 서있고, 서하와 철화는 의자에 앉아있다.

민 혁 : (근심어린 표정이다.)

서 하 :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 착한분이 그런 큰 병을 앓게 되었다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왜 공장에 나오게 두셨어요.

철 화 : 그 친구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죄책감에) 그래도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민 혁 : (가라앉은 목소리) 그나저나 수술비가 걱정이네요. 빨리 돈을 구해봐야겠어요.

철 화 : (암담한) 무슨 수로 그 큰돈을 구하겠어. 더군다나 우리 같은 체류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

서 하 : 내가… (잠시 멈칫하더니) 내가 한번 구해 볼게요.

민 혁 : 서하가 무슨 수로… (옅은 미소) 같이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

만, 서하까지 부담 느낄 필요는 없어.

서 하 :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해 미안하다. 결심한 듯 사실을 밝히려는) 저기… (말하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린다. 건우다.) 잠시만요. (라고 말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서 조용히 전화를 받는) 나야.

건 우 : (F) 어디야?

서 하 :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가 좀 아파서 병원에 좀 와있어.

건 우 : (F) 친구 누구?

서 하 : (민혁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오빠가 모르는 사람이야.

#67. 건우의 차 안 (낮)

건우, 운전하며 핸즈프리를 통해 서하와 통화중이다.

건 우 : (뭔가 수상한) 그 친구라는 사람… 혹시 그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는 거야?

#68. 중환자실 앞 (낮)

서 하 : (놀란 표정 그러다가) 응.

#69. 건우의 차 안 (낮)

건 우 : (역시… 하는 표정. 경직된 목소리) 너 언제부터 그 사람들 일에 쫓아다닐 만큼 깊이 관여하게 된 거야? 친구라구? 그 사람

들은 너랑 어울리지 않는 부류들이야! 너 요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니 뭐니 하면서 여론운동하고 다닌다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뭘 어쩌려는 건데?

서 하 : (F)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짐승 같은 대접을 받는 거 더 이상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 없어!

건 우 : (기가 막힌) 갑자기 무슨 사회 운동가라도 될 생각이야? 제발 정신 차려!

서 하 : (F, 화났다) 정말 실망이다. 하긴, 오빤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던 아무 상관없겠지. 오빠도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경영주니까. (한숨) 이만 끊어. 지금 오빠랑 다툴 분위기 아니야. ('툭' 전화 끊어지는 소리)

건 우 : (신경질적으로 폴더를 닫는. 그러다 뭔가 결심한 듯 한 표정으로 다시 폴더를 열고 전화연결을 한다.) 박 비서? 누구 하나 조사 좀 해줘야겠어.(하는 표정에서)

#70. 공장전경 (아침)

#71. 사장실 (아침)

민혁,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장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고 민혁은 서 있는

민 혁 : (화나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동안 체불된 임금을 못주겠다

니요!?

사 장 : (태연하게) 그 동안 라쥬가 아프다고 빠진 날이 좀 많았어?

민 혁 : (화를 억누르며) 그럼 그 날을 제외한 일한 만큼의 수고비라도 주셔야죠!

사 장 : 그게 그런 법이 아니거든. 라쥬가 꼬박꼬박 일해주어야 납품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말야, 자꾸 그렇게 빠지는 바람에 우리 공장에 입힌 피해가 막심하단 말이지.

민 혁 : (어이가 없다.)

사 장 : (찡그리며) 너한테는 꼬박꼬박 월급 잘 주는데 뭐가 불만이라고 이리 야단인거야?

민 혁 :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인들이랑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라쥬는 누구보다 성실했던 거 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 장 : 그건 그랬지… (아쉬운) 왜 하필 병이 나가지고… 일하나는 잘했었는데…….

민 혁 : (말 자르며) 그런데, 그 일 잘하던 사람이 이제 아프게 되었다니까 헌신짝 버리듯이 해요? 그래요, 아파서 일을 못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불쌍한 사람 병원비라도 보태주는 샘 치면 안 되나요? 근데 정당한 월급까지도 떼어 먹겠다구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냐구요!!

사 장 : (끝까지 모른 척 딴청을 하며 시침 떼는 모습에서)

#72. 몽타주

라쥬의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민혁, 서하, 철화, 비뿌, 리얀. 공장에서 동료들의 후원을 구하며 성금을 모으는 철화, 비뿌, 리얀의 모습.
거리에서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민혁과 그 옆에 같이 붙어 다니며 모금운동을 하는 서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숨어 사진에 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건우의 사무실. 서하와 민혁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고 있는 건우.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서서히 구긴다. 그리고 뭔가 결심한 표정.
저녁이 되어 공장에서 모은 돈을 부어 세보고 있는 철화와 민혁, 비뿌의 모습.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고개 저으며 한숨짓는 그들의 모습에서.

#73. 병원전경 (밤)

#74. 중환자실 안 (밤)

라쥬를 면회하고 있는 철화와 민혁. 호스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라쥬의 모습은 더욱 야위어 있다.

라 쥬 : (누운 채 힘겹게) 이제 괜찮아… 빨리 퇴원시켜줘. 집에 가고 싶어…….
철 화 : (화내는) 이렇게 당하고도 고집이야? 우선 치료를 하고 봐야지.
라 쥬 :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철 화 : 그건 걱정 마. 우리가 어떻게든 구해보고 있으니까.

라 쥬 : (고개 저으며) 친구들한테 부담되는 건 더 싫어.(괴로운 듯 눈을 감는다)

민 혁 : (라쥬의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에서)

#75. 공장 대문 앞 (아침)

공장 앞을 서성이며 민혁을 기다리고 있는 서하의 모습.

서 하 : (멀리서 오고 있는 민혁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민혁씨!

민 혁 : (오랜만에 보는 서하의 모습이 반갑다.)

#76. 공장 공터 (아침)

나란히 앉아 있는 서하와 민혁.

서 하 :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참 맑다. 그죠?

민 혁 : (미소)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서 하 : (삐죽대듯) 일 그만뒀으니까 오지도 말아라…?

민 혁 : (웃는)

서 하 : (웃으며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준다.) 자요.

민 혁 : (? 하는 표정.) 이게 뭐야? (하더니 봉투 안의 것을 꺼내보고는 놀란다. 천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이다) 이건…

서 하 : (능청스레) 나 대단하죠?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민혁씨 칭찬

든고 싶어.

민 혁 : 어디서 이 많은 돈을…

서 하 : (웃으며) 그건 비밀이에요. 그냥 어느 사업가가 라쥬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 기부한 거라고만 알아둬요.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민 혁 : (너무 큰돈이라 믿기지 않는 표정)

서 하 : (조금 멈칫, 그러다가) 정말이에요.

민 혁 : (좀 이상하지만) 그 말 사실로 믿고 싶어. 아니 믿을께. 지금은 무엇보다 라쥬가 수술할 수 있게 된 사실이 가장 중요하니까.

서 하 : (믿는다는 말에 신분을 속인 게 걸린다.) 저… 사실은……

민 혁 : (본다)

서 하 : (자신을 믿는 민혁에게 배신감을 주게 될까 두렵다.) 만약… 믿었던 누군가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민혁씨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함에 고개 숙이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겠죠…?

민 혁 : (뜬금없다는 듯)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서 하 : (미소 짓는 민혁의 표정을 보더니 결국 얼버무리는) 아니에요.

민 혁 : (? 하더니 이내 봉투 만지며) 누군지 정말 고맙군. 라쥬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될거야.

서 하 : (슬프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77. 민혁의 집 앞 골목 (밤)

민혁이 기분 좋은 모습으로 골목길을 올라오고 있다. 민혁의 집 앞에 차

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그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건우의 모습. 민혁이 다가오자 차에서 내린다.

건　우 : (민혁을 막아서며) 강민혁씨?
민　혁 : (고개 들어 쳐다보며) 누구시죠?

#78. 까페 안 (밤)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탁자위엔 커피가 한 잔씩 놓여있다.

민　혁 : (믿기지 않는다) 지금 한말이… 다 사실인가요?
건　우 : (냉정한 표정) 전부 다 사실입니다. 서하는 그곳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 체류 노동자를 취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입했던 거죠. 그 곳에 있는 모두를 속인 채. 물론 강민혁 당신까지도.
민　혁 : ! (배신감이 든다)
건　우 : (회심의 미소)
민　혁 : (천천히)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 그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뭐죠?
건　우 : (당당하게) 서하는 나랑 약혼할 사이거든.
민　혁 : !!
건　우 : 자기 약혼녀가 다른 남자랑 자주 만나고 다니는 걸 좋아할 남자가 있을까? 더군다나 당신 같은 사람을. (비열한 미소) 물론

동정심과 호기심에 만나고 다니는 거겠지만.

민 혁 : (주먹을 꽉 쥐는, 그러나 곧 참는다)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먼저 일어나죠. (나간다)

건 우 : (그 자리에 앉아 조소하듯 민혁을 노려보는 표정에서)

#79. 병원 앞 (낮)

라쥬의 문병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 민혁의 모습. 멍한 얼굴이다. 서하, 문병하러 왔다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 민혁을 본다.

서 하 : (반가운) 민혁씨~

민 혁 : (돌아보면 서하가 서 있다.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민혁)

서 하 : (달라진 민혁의 모습에 당황스럽다. 이내 그를 따라잡아 세우는) 민혁씨!

민 혁 : (차가운 눈으로 돌아보는)

서 하 : (민혁의 눈빛이 너무 무섭다) 왜 그래요...?

민 혁 : (아무 말 않고 계속 서하를 본다. 그러다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서 하 : (당황스런) 네? 무슨……

민 혁 : (기대한 게 우습다) 됐어. 당신이란 여자… 끝까지 날 실망시키는군.

서 하 : (답답하다) 도대체 나한테 왜이래요? 설명을 해줘야 오해를 풀 것 아니에요!

민 혁 : (분노로 서하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오해? 언제까지 날… 우릴

농락하려고 한거야!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속는 공장 식구들을 보며… (사이) 그리고 날 보며… 얼마나 비웃었던 거야? (소리치는) 얼마나 재밌었냐구!!

서 하 : ! (눈치 챘구나! 눈물고인 채 민혁을 바라보는)

민 혁 : (배신감에 가슴이 아픈) 당신을 믿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 날… 우릴 속였다는 걸 듣는 순간 당신이 준 더러운 돈, 당장 던져주고 싶었어.

서 하 :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 돌리며 눈 감는… 그런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른다.)

민 혁 : 근데 왜 당장 돌려주지 않았냐고? 마음에선 그러라고 소리를 치는데, 죽어가는 라쥬를 생각하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구. 내 자존심 보다는 라쥬의 생명이 더 소중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젠 필요 없어졌어. (하고는 봉투를 서하에게 주는)

서 하 : (간절하게) 라쥬를 생각해서라도 이 돈은 받아줘요.

민 혁 : (소리치는) 이젠 필요없다구! (사이) 라쥬가 어젯밤 편지 한통만 남긴 채 사라졌으니까… (하고는 허탈한 듯 돌아서서 간다)

서 하 : ! (하는 표정에서)

#80. 몽타주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라쥬의 모습.

친구들, 라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 아무리 찾아 헤매도 그를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라쥬, 공원벤치에 앉아 사진을 꺼내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내

사진 위로 떨어지는 눈물.
라쥬,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고통에 괴로워하는 모습. 그러다가 쓰러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며 그 주위로 둥글게 몰려든다.
이런 모습들 위로 라쥬의 편지가 흐른다.

라 쥬 : (소리) '철화에게…' 많이 생각해봤지만 결국 이 방법밖에 없었어. 더 이상 친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바보 같은 날 이해해줘… 아니, 이해하지도 말고 그냥 날 잊어줘… (사이)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내 가족에겐 내 병… 죽음… 알리지 말아줘… 그리고 아내에게… (감정이 복받치는) 아내에게 편지해서… 난 다른 여자만나서 그 곳의 가족들은 모두 잊었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놈 잊고 새 삶을 살라고… 그렇게 전해줘… 이건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러니 꼭 그대로 전해줘… 마지막까지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야… 그동안 모두들 정말 고마웠어… 안녕…….

#81. 병원 안 (몽타주)

수술실 안. 수술대 위에 올라 수술을 받고 있는 라쥬의 얼굴. 평온한 모습이다.
수술실 밖.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철화와 민혁, 비뿌, 리얀,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텐의 모습도 보인다.
수술실 안. 다급해 보이는 상황. 맥박수가 점차 떨어져가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결국 일직선이 되는 심장박동곡선. 그런 모습들 위로 라쥬의 과거 모습들이 인서트 된다. (#열심히 페인트칠을 하는 모습, 공장 동료들에게 맞는 모습,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던 모습 등…)
수술실 밖. 고개를 저으며 라쥬의 죽음을 알리는 의사. 친구들, 믿기지 않는다. 곧 침대위에 누워 흰 천이 덮인 채 수술실 밖으로 나오는 라쥬. 간호사들 침대를 끌고 가는데, 친구들 침대를 따라가며 우는 모습.
길게 F. O되는 위로 라쥬의 목소리가 깔린다.

라 쥬 : (소리) 여보…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요. 당신만 남기고 이렇게 또 떠나게 되서 미안해요.

#82. 공항 전경 (낮)

F. I 되면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인다.

#83. 공항 출국장 (낮)

출국장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선다. 라쥬의 아내 샤미르다.

#84. 병원 외경 (오후)
어두운 하늘. 비가 내려 더욱 암울한 분위기.

#85, 영안실 안

침대위에 놓여있는 라쥬의 시신. 그 위엔 흰 천이 덮여있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는 샤미르와 친구들. 의사가 샤미르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의 사 : (민혁에게) 라쥬의 아내라구요?
민 혁 : 그렇습니다.
의 사 : (샤미르에게) 남편의 시신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바 텐 : (방글라데시 언어로 샤미르에게 통역해주는) 〈남편인지 확인을 해 보라는군요.〉
의 사 : (이윽고 천을 내리려는)
샤미르 : (순간 소리치는(샤미르의 말은 자막처리)) 〈내리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 못하겠어요. 난 못해요…〉
의 사 : (내리려다가 샤미르의 외침에 멈칫하며 민혁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바 텐 : (침통한) 확인을…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의 사 : 그건 곤란합니다. 직계가족의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해주시죠.

바텐 방글라데시 언어로 샤미르와 대화한다. 열심히 설득하는 바텐. 그의 말에 결국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샤미르.

바 텐 : (의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의 사 : (천천히 천을 내린다.)
샤미르 : (라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절규하며 무너져 내리는) 〈말도 안

돼… 아니야… 이럴 순 없어…〉 (고개 저으며 애써 부정하는)
〈내 남편 아니야! 내 남편이 아니라구요!〉

바 텐 : (안타까운 얼굴로 무너지는 샤미르를 붙들어 준다)

다른 사람들도 울부짖는 샤미르가 안타까운 표정을 한다.
고개 돌려 눈물을 흘리는 리얀과 철화의 모습.

샤미르 : (거의 정신을 잃을 듯 중얼거리는)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쁜사람… 나쁜사람… 이렇게 죽으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먼 나라에서 고생한 결과가 결국 이런 거였어…? 결국… 이렇게 가려고 그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면서…〉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샤미르 주변에 달려오며 놀라 정신없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위로…

철 화 : (소리) 네 마지막 소원…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날 용서해 줄꺼지…? 내가 널 용서해 준 것 처럼… 너도 날 용서해 줄꺼지…?

#86. 장례식 장 안 (오후)

조문객이 거의 없어 조용한 분위기.
철화의 멍한 표정과 라쥬의 영정 앞에 힘없이 서 있는 비뿌와 리얀, 바텐의 모습이 보인다. 너무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아직도 믿을 수 없

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모습의 샤미르. 그런 샤미르가 안쓰러워 가만히 어깨를 안아주는 민혁의 모습.
그때, 장례식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서하의 모습이 보인다. 샤미르를 위로하고 있는 민혁의 모습을 보고 잠시 주춤하는. 그러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들어선다.

민 혁 : (인기척에 돌아보다 서하를 보고는 표정 굳는)
리 얀 : (서하를 발견하고는 반가워 다가와 손을 꼭 잡는다.)
서 하 :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생각하며 민혁을 보는)
민 혁 : (눈이 마주치자 외면하는 모습에서)
서 하 : (라쥬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제 편안히 쉬세요…'

#87. 병원외각 (늦은 오후)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는 민혁과 서하. 서먹한 분위기.

서 하 : (앞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라쥬 아저씨가 한국에서 당한 일을 들었을 땐… 한국인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라쥬를 속인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민 혁 : (시선을 멀리 향한 채 표정 없는 얼굴로 듣고 있다.)
서 하 : 그래요. 난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아저씨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려고 했었어요. 하마터면 라쥬 아저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뻔했죠.
민 혁 : (묵묵히 듣는)

서 하 : (힘겹게) 공장식구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더군요.

민 혁 : (본다)

서 하 : (목이 메이는) 나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민 혁 : … (이내 일어선다)

서 하 : (자기도 모르게 떠나려는 민혁의 손을 붙잡는다)

민 혁 : (손을 잡은 서하를 돌아본다.)

서 하 : (곧 자신의 행동에 놀라며 손을 놓는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서며) 고마워요.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라쥬 아저씨에게 변명할 기회는 놓쳤지만… (사이)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먼저 고백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한 거… 무엇보다 날 믿었던 당신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정말 미안해요. 이런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당신에게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하고는 돌아서 간다.)

민 혁 : (멀어져가는 서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벤치에 주저앉아 눈감는 표정에서)

#88. 라쥬의 집 전경 (밤)

#89. 라쥬의 방 안 (밤)

철화와 샤미르가 라쥬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철화, 감정이 복받치는지 눈물이 고이며 천장을 응시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간다. 방안에 혼자 남게 된 샤미르. 무표정한 모습으로 라

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라쥬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다.
#1의 프롤로그와 같은 상황.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겨 읽어보는 샤미르. 괴로운 생활상들을 담은 라쥬의 일기장을 읽어가던 샤미르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한줄기 흘러내린다.

인서트〉 1. 공장 직원들에게 구타당하는 라쥬의 모습,
2. 비를 맞으며 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3. 가슴에 통증을 느껴 쓰러지는 모습 등…

샤미르 :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괴로움에 고개를 젖힌 채 오열하는) 〈잘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나 어떡해. 여보… 보고싶어… 너무 보고싶어.〉

그렇게 홀로남아 흐느끼는 샤미르의 모습에서 F. O 되며 자막 뜬다.

(자막 : 1년 후)

#3과 같은 상황. 여기자의 멘트가 들려온다.

기 자 : (#3과 같은 E)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혼선이 심각해지고 그때 그때 임시 대책만 내놓다보니 이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꼬인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강제출국 시기와 고용방식 등을 놓고 법무부와 노동부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카메라 서서히 TV안으로 다가가면 여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하고 있다. 여기자의 모습은 바로 서하다. 카메라 TV속으로 빠져들면, 취재 현장속의 서하의 모습.

〈사무실 앞〉

서 하 : (계속되는 멘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 30만 명을 포함, 약 35만~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한(恨)'을 안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희망을 잃고 한국의 거리를 떠도는 외국인 노숙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들은 대다수 이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갈 데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겨울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배척하는 사회가 아닌, 넓은 가슴으로 포용할 수 있는 여유롭고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리안 드림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MBS 뉴스 최서하입니다.

카메라 점점 빠져들면 서하, 다시 TV속에서 비춰지는 모습. 카메라 멀어지면, TV를 통해 서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민혁의 모습이 비춰진다. 그런 서하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미소를 띠는 민혁의 모습. 민혁 지갑을 열면 서하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소중히 껴 있어 애인사이가 되었음

을 보여준다. 사진속의 서하의 모습을 사랑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민혁의 모습.

#90. 공항(낮)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멀리서 비춰진다.

#91. 방글라데시 공항 출국장(낮)

문이 열리고 서하와 민혁이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

#92. 방글라데시의 시골 거리(낮)

먼지 나는 시골길을 나란히 걸어가는 서하와 민혁의 모습. 평화로운 느낌이다.

#93. 샤미르의 집(오후)

소박한 샤미르의 집. 민혁이 라쥬의 딸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는 모습. 그들의 옆에서 빨래를 널며 미소 짓고 있는 서하와 샤미르의 모습. 평온한 분위기다. 그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그 위로

서 하 : (소리) 당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당신이 죽었어도 당신을 위해 해 줄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

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그 곳에서 편안히… 편안히 쉬세요…

서서히 F. O되며 자막으로 올라오는 시와 함께 엔딩.

〈이곳에 자유는 없다〉

이곳에 자유는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어둠은 온 세상을 감싸며
하늘을 덮고 있다
자유를 얻으려 했던 그들,
나처럼 어리석게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했다.
그들에게 아무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 중략–

자유는 없었다. 자유는 없었다. 자유는 없었다.
붉은 피가 흩뿌려졌다. 자유로 향한 그 길에는
사장님들이 고용한 깡패들과 만중의 지팡이 경찰에 의해 피만 흩뿌려졌다.

이곳에 자유는 없다.
무지한 이 세상에서
나는 자유를 원했다.
가난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조국을 등졌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XXX라는 욕을 들으며 우리는 노동을 했다.

보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가.
없다 결코 없다
무서운 메아리가 고동친다.
심장에서 손끝까지 뻗은 실핏줄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출입국관리국 사람들
본능적으로 고동치는 메아리를 느끼며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우리는 산으로 숨는다.

이곳에 자유는 없다
이곳에 자유는 없다
이곳에 자유는 없다.
가난하고, 슬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자유는 없다. 자유는 없다. 자유는 없다.

아니, 이곳에 자유가 있다.

여기 어두운 이 세상에.
이곳에 자유가 있다. 무지한 경찰들에게
이곳에 자유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장님들에게
이곳에 자유가 있다. 가진 자들에게

오직 나만이 자유가 없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자유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 어느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시 中에서 –



〈이방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룬 작품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더 이상 심연에 방치되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저의 부족한 글을 통해서나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앞으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소재로 문제의식을 담은 글을 더 많이 창작해보고 싶습니다. 이 글이 그런 글들을 쓸 수 있는 원동력과 발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어린 시절부터 글쓰는 즐거움을 자연스레 익히도록 이끌어준 하나뿐인 언니, 그리고 매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정헌순 교장선생님과 이규역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화성 동화초등학교 모든 식구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황톳길

거 알아요?
우리 같은 하빠리 인생은





경남 함안군 _ 김성민

황 톳 길

(15분, Short Scenario)

등장인물

상태(30대 중반) : 자신이 일하던 공장의 사장을 폭행한 피의자

박형사(30대 후반) : 거칠지만 인간미가 있다

노모(70대) : 상태의 어머니. 치매에 중풍을 앓고 있다

노파(70대) : 동네노인. 간간히 노모를 돌봐주고 있다

S#1. 산길

(F.I)

울창한 숲 사이로 내리쬐는 태양.

두 남자가 길을 오르고 있다.

말쑥한 가죽점퍼차림의 박형사와 군데군데 떼가 묻은 흰 반팔티셔츠 차림의 상태.

숨을 몰아쉬며 지친 듯 길섶 그루터기에 주저앉는 박형사,

박형사 쪽으로 오른팔이 딸려가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혀지는 상태.

두 사람의 손목은 수갑으로 서로 묶여 있다.

박형사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낸 담배에 불을 붙여다가 상태에게 건넨다.

상　태 : (고개를 숙인 채) 됐수다.

박형사 : (가볍게 상태의 머릴 쥐어박으며) 마, 피라면 펴.

상　태 : (고개를 들어 박형사를 노려본다)

박형사 : 쌔꺄, 뭘 째려봐

상　태 : (기에 눌린 듯 말없이 담배를 받아든다)

박형사 :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길게 빤다) …….
모친 수발은 누가 들어주고 있나?

상　태 : 없수다.

박형사 : 풍으로 쓰러져 계시다며?

상　태 :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비벼 끄고 그 위에다 침을 뱉는)

박형사 : 위에 형 하나 있지 않나? 열 살… 위였던가?

상　태 : (표정 일그러지는) 씨발… 형은 무슨 놈의… 땅뙈기라고 조금 있던 거 도박질에 오입질에 제다 까먹고 어디서 뒈졌는지 소식도 없는……. (가래침을 뱉는다)

박형사 : … 러시아산(産) 형수는? 제 고향으로 날라버린 거야?

상　태 : (귀찮은 듯)이제 그만 일어납시다.(벌떡 일어선다)

박형사 : (수갑을 찬 왼손목이 딸려가며 아픈) 아~아~!!

S#2. 산 중턱

상태가 앞서고 뒤따라 박형사 끌려오듯 올라오고 있다.

박형사 : (헐떡이며) 니미럴, 초여름치고 날 한번 더럽게 덥네.
야, 아직 멀었냐?

상　태 : (담담히) 여기만 넘으면 되요.

박형사 : 무슨 놈의 동네가 이렇게 깊숙이 처박혀있냐?

상　태 : (걸음을 멈추고 박형사를 돌아보며) 형사나 되는 분이 체력이 어찌 그 모양이유? 날 때려눕힌 게 용하다, 용해.

박형사 : (허리숙여 숨고르다 수갑을 찬 손을 들어보이며) 쌔꺄, 지금 상황을 봐라, 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상　태 : (돌아서 걸음 옮기며) 거의 다 왔으니 힘내슈.

박형사 : 니미럴, 내가 미친놈이지, 대체 이 뭐하는 짓이야.

상　태 : (소리 낮춰) 이 더운 날에 가죽 하나 더 대고 있으니 미칠 수밖에…

박형사 : 뭐? (상태의 머리를 후려치며) 얌마, 이게 다 너 하나 땜에 잠복하느라 몇날 며칠을 입고 다닌 거 아냐!

상　태 : 쳇, 형사라 귀는 드럽게 밝네

(몸을 확 돌려 빨리 걸음을 옮긴다)

박형사 : (끌려가며, 신경질적으로) 야, 천천히 좀 가!!

S#3. 산마루

상태, 걸음을 멈추고 산 아래를 바라보고,

박형사 허리를 숙여 숨을 몰아쉬다가 산 아래를 굽어본다.

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단출한 마을 전경.

박형사 : (허리를 펴며) 저기냐?

상　태 : …….

박형사 : 좀 쉬었다 가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상　태 : (박형사의 힘에 이끌려 주저앉는다) …….

박형사 :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마을을 바라보는) 마을은 조용허니 좋아 보이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상　태 : (말없이 마을을 응시하고) …….

박형사 :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여긴 세월이 비켜갔나. 꼭 내 어릴 적 고향 같네… 나도 깡촌 출신이거든

상　태 :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살만 했는데… 땅이 제법 기름졌었거든요. 그땐 뭘 심어놔도 다 풍작이다고 했을 정도니까

박형사 : (상태를 보면)

상　태 : 근데 십오년 전쯤이던가… (건너편 산을 가리키며) 저기 넘어 생수공장이 생긴 이후, 서서히 샘이 마르는 것 같더니, 오년정도 넘어서서는 땅도 가물어져서 불모지처럼 돼버렸어요. 평생 땅만 판 촌사람들이 뭘 아나? 처음엔 대책회의라는 것도 하고 몰려가 항의도 해보고 나중에는 법원까지 가네 마네 하다가 끝내 변변한 보상금 하나 못 받고 다들 도시로 뿔뿔히 흩어졌죠… (분노에 찬) 니기미 엿같은!! 없는 놈은 어딜가나 바닥이나 핥고 살아야지. (가래침을 뱉는) 지금은 오늘내일 하는 노친네들만 몇 마을에 남아 있을 거유.

박형사 :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고 비벼 끈다) …….

이때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E) :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박형사, 바지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어 얼른 받는다.

박형사 : 여보세요? … 어, 그래… 아빠? 아빠는 지금 출장 와있지… 응? … 그래, 미안하다, 약속 못 지켜서. 대신 이번 주말에 진

짜 멋진 데 가보자, 응? … 울지 말고 사내자식이……. 그래, 오늘은 아빠 꼭 들어갈게. 그래 알았다… 글쎄 알았다니까, 엄마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 (전화끊고 한숨) …

S#4. 마을 어귀

상 태 : (수갑을 가리키며) 이제, 이것 좀 풀어주면 안돼요?

박형사 : 미쳤냐? 어디로 튈 줄 알고… 잔말 말고 계속 가.

상 태 : (고개 돌리며 작게) 씨발-.

박형사 : (상태의 머리를 후려치며) 마, 너 방금 뭐랬냐?

상 태 : (버럭) 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딜 가요? 동네 눈도 있는데…….

박형사 : 사람을 늦은 봄볕에 보리타작하듯 패대겨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동네 눈은 무서운 모양이지? 마, 그러게 누가 멀쩡한 사람 그렇게 피곤죽으로 만들어 놓으래?

상 태 : (뭔가를 말하려다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문다)

박형사 : (사이) 좋아, (상태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는) 대신 내게서 한 발짝이라도 떨어지지마. 조금이라도 딴 짓거리 했다간 동네 너른 마당에서 니가 보리타작 당할 줄 알아.(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자기 수갑만 푼다)

상 태 : (뻥해 박형사 쳐다보면)

박형사 : 임마, 주머니에 잘 쑤셔 넣어봐. 그 이상은 나도 못 봐줘. (기지개를 키며) 으이~ 좋다, 으이 좋아, 인제 좀 살 것 같네.

상태, 수갑이 채워진 손을 억지로 바지 주머니에 넣고 툴툴거리며 앞서 걷는다.

박형사 : (상태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가) 어이, 잠깐
상　태 : (돌아보는)?
박형사 : (상태에게 다가가며 가죽점퍼를 벗어 건네주는) 이거라도 걸쳐라, 그래도 몇 년 만에 찾은 고향인데 옷차림이 그래서야 되겠냐? 양복이라도 대충 한 벌 챙겨올 걸 그랬네, 쯧…
상　태 : (말없이 점퍼를 받아 입고 매무새를 고치는)
박형사 : 그래도 없는 딴에는 좀 낫네 (피식 웃으며) 야, 니가 더 잘어울린다. (상태의 어깨를 툭 치며) 짜식… 그러고 보니 옷걸이도 괜찮네.

상태 앞서 걸어가기 시작한다.

S#5. 마을 안

빈 집들이 곳곳에 있고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마을은 괴괴하고 흉물스럽다. 상태가 앞서가고 그 뒤를 박형사가 바싹 붙어 따라가고 있다.
맞은편에서 허리가 잔뜩 굽은 노파가 빈 유모차를 끌며 거기에 몸을 의지 한 채 힘겹게 걸어온다. 노파 다가오면 상태, 노파를 보고 두 손 모아 공손히 절하려하나 수갑을 찬 손이 신경 쓰인다.

상　태 : (오른 손은 주머니에 찌른 채 허리숙여) 아… 안녕하세요.
노　파 : (애써 고개를 들어) 누구… (호물거리는 입으로 반기는) 아이

구, 이게 누구야? (상태의 손을 덥석 잡으며) 상태잖어?

상 태 : 네, 저 상탭니다. 아유, 어르신은 아직 정정하시네요.

노 파 : 아이고 뭐 이제 더 볼 것도 없이 그저 죽을 날만 받아 기다리고 있는 게지… 아유, 어쨌든 잘왔다, 잘 왔어… 인제 네가 왔으니 안심이다. 내 안그래도 방금 너그 어미 들여다보고 오는 길이여. 요즘 부쩍 몸이 더 말이 아니라,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니… 가끔 어디 면사무서나 단체에서 나와 청소도 해주고 찬거리도 두고 간다지만… 그게 어디 제 식구 손만 할까… 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저 곱게 늙어 곱게 가는 것두 큰 복인 게지, 암… (한숨, 사이, 상태의 주머니 속 손을 보고는) 근데 손은… 어데 다친 게야?

상 태 : (한발 물러서며, 난감한) 아… 아녜요, 아무것도…….

노 파 : ? … (뒤에 서있는 박형사를 보며) 저 분은 뉘시냐?

상 태 : 아…, 저… 제가 다니는 공장, 공장… 주임, 주임님이에요. (박형사를 돌아보면)

박형사 : (얼떨결에 넙죽 허리 숙여) 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노 파 : 아… 근데 이 먼 곳까지 어쩐 일루다…?

박형사 : 아… 저기, 이 친구… 이 친구가 우리 공장에서는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직원인데… 저희 사는 게 그렇다 보니 그 동안 고향도 몇 번 못 가 봤다 하고… 그래, 요즘 이 친구 모친께서 몸이 많이 불편타해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공장장에게 얘기해서 같이 병문안 겸… (어색한 웃음)

노 파 : 에… 그려… (박형사를 아래위 훑어보다가) 근데 우찌 병문안 왔담서 빈 손인가?

박형사 : (당황스런) 예? 아… 그게… 에…

상　태 : (말자르고 어정쩡하게 허리 굽히며) 저희가 급히 또 볼 일도 있고 해서 저… 죄송하지만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어르신.

노　파 : 어이, 그려, 그려. 어미가 니 얼굴보면 벌떡하고 일어날라나… 얼른 가봐. 얼른.

박형사 : 예, 그럼…

노　파 : (손짓하며) 어이, 어이.

상태, 박형사를 끌다시피 데리고 간다.

노　파 : (멀어져가는 두 사람을 보다가) 싸가지 없는 놈들, 도시 물을 처먹어도 한참 썩어빠진 걸 처먹었나… 주머니에 손 넣고 절하는 놈이나 병문안을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는 놈이나… 참 오래 살 것 못되네, 으이… 쯔쯧.

S#6. 상태 집 마당

초라한 상태의 집과는 대조적으로 집 뒷산은 울창하다.

상　태 : (머뭇거리는)…

박형사 : 얼른 들어가봐. 난 여기 있을테니. (담배 하나 꺼내 문다)

상　태 : (잠시 머뭇거리다 들어가려는)…

박형사 : 어이, 잠깐.

상　태 : (돌아보면) ?

박형사 : (손짓하며) 이리와봐. (사이, 상태 오면) 손내.

상　태 : ?

박형사 : 어머니 앞에서 큰 절이라도 올려야지.

(주머니속의 상태 손을 꺼내 수갑을 풀어준다)

상　태 : (눈을 껌벅이며 박형사 바라보는)…

박형사 : 딱, 10분이야. 더는 안돼. 얼굴만 뵙고, 인사만 드리고 나와야 돼. 허튼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고…….

S#7. 방 안

상태, 방에 들어서면 좁고 지저분한 방에 노모 눈을 감은 채 누워있다.

상　태 : (무릎을 꿇고 노모의 손을 잡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저, 상태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눈물이 흐른다)

노　모 : (가늘게 눈을 떠 껌벅이는,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다)

상　태 : 어머니, 저 왔다구요. 막내, 상태가 왔다구요. (눈물을 훔친다)

노　모 : (눈만 계속 껌벅이는)…

상　태 : (노모의 머리칼과 이마를 쓰다듬으며 울음을 삼키는) 어머니, 어머니……

/시간경과/

상태, 마른 수건으로 노모의 몸 여기저기를 닦는다. 상태, 방을 걸레로 훔치며 정리하고 노모의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깔아준다.

밖에서 들리는 박형사의 헛기침소리.

상　태 :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 저 몇 년 동안 멀리가 있어야 해요. (큰절을 올린다) 돈 벌러요, 멀리, 오랫동안 멀리… (눈물 글썽이며)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눈물이 흐르는) 제가 꼭 돈 벌어서 어머니 병 고쳐드리고 편하게 모실게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눈물 훔치며 일어나 돌아선다)

노　모 : …….

상　태 : (노모를 잠깐 돌아보고 나간다)

노　모 : (껌벅이는 눈에 눈물이 흐른다)

S#8. 상태 집 마당

상태, 말없이 나와 신을 신고 나서다 계속 뒤돌아본다.

박형사 : (상태에게 다가와 헛기침을 하며) 이제 그만 가지.

상　태 : (몸을 돌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긴다) …….

S#9. 상태 집 앞

박형사 : (상태의 어깨를 다독거리는)…

상　태 : …… (돌연 고개를 들고 뭔가 결심한 듯) 난 받아내야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박형사 : (상태를 보면)

상　태 : (주먹으로 박형사의 명치에 일격을 가한다)

박형사 : 욱!! (허리가 굽혀지고)

상　태 : (재빨리 땅에 뒹구는 나무장대를 들고 박형사의 무릎을 가격한다)

박형사 : 악!! (고통스런 얼굴로 쓰러지고)
상 태 : (장대를 버리고 집 뒷산으로 달아난다)
박형사 : (겨우 몸을 일으키는) 이런 젠장! (다리를 절며 쫓는다)

S#10. 산 속
상태, 숲을 헤치며 앞만 보고 달리고 그 뒤를 박형사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쫓고 있다.

박형사 : 야이 쌔꺄! 거기 안 서!!
상 태 : (이를 악물고) ……

계곡 쪽 비탈길로 내려가는 상태, 그 뒤를 바짝 쫓던 박형사가 몸을 날려 상태를 덮치고, 같이 한 몸이 되어 비탈 아래로 구른다.

S#11. 계곡
상태와 박형사 계곡물에 처박히고, 박형사 재빨리 몸을 일으켜 상태의 머리를 잡고 들었다가 물에 처박는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상태가 기진맥진하자 상태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근처 잔 나무에 수갑을 채운다.
쓰러져 누워버리는 상태.
그 옆에 같이 드러누워 버리는 박형사,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시간경과/

숨을 고른 박형사, 상태를 사납게 노려보며 몸을 일으킨다.

따라 몸을 일으키는 상태.

박형사 : (상태의 멱살을 움켜쥐고) 야이, 개새끼야, 이게 널 믿어준 대가냐, 응? 주둥이 좀 열어봐, 쌔꺄.

상 태 : (고개를 숙인 채) …….

박형사 : (상태의 양쪽 볼을 두 손가락으로 잡아 들어올리며) 쌔꺄, 아가리가 있음 말해봐라니까!

상 태 : (매섭게 박형사를 노려보며) 난 내가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박형사 : 오~그래? 그래서 멀쩡한 사람 반병신으로 만들어놨냐?

상 태 : 난 그저 체불된 임금만 받으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 입원이나 시켜드리려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데… 그런데… 씨발,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놈 구두에 혓바닥이 닿아라하고 사정을 했는데… 그 잘난 법대로 하래요, 이미 회사는 자기 손에서 떠났다며, 잘난 놈들 맨날 써 먹어대는 그 법대로 하래요, 그러면서 자기 딸만한 년하고 시시덕대며, 지 구두만큼이나 번쩍거리는 차에 올라타는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유– 씨팔!!!

박형사 : … (한숨을 내쉬며 먼 산을 바라다보는, 씁쓸한 표정)

S#12. 황톳길 (황혼)

흙바람이 자욱이 부는 황톳길을 말없이 걷고 있는 박형사와 상태.

상 태 : 거 알아요? 우리 같은 하빠리 인생은 어딜 가나 비 한 방울 오

지 않아. 가물고 가물어 흙먼지만 자욱한 이 황톳길이란 걸.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러봐도 흙먼지만 자욱한 이놈의 황톳길 이란 걸…….

박형사 : …….

이는 흙바람 속으로 말없이 사라져가는 박형사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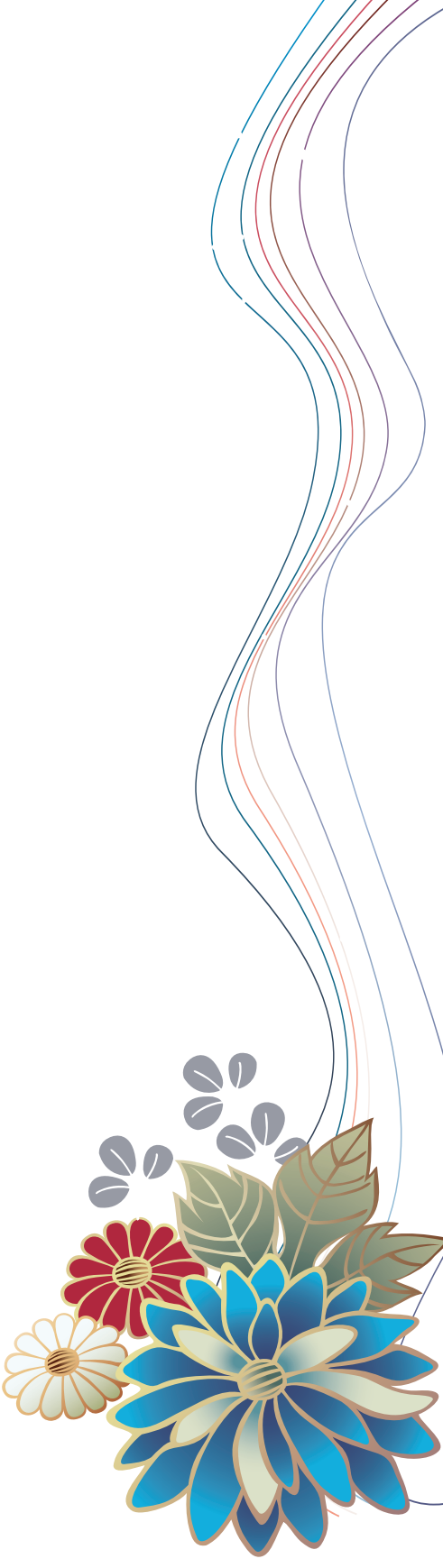
멀리서 들리는 휴대전화 벨소리(E) :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박형사(E): 여보세요. 그래,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 왜? … 뭐? 토막난 팔? … 손가락은? … 이런… 씨발…… 뭐? 기자들? …… 니미럴!!! 그래서? …… (소리 점점 작아지며 F.O)



'문학'이란 것을 얼핏 알게 된 지난 20대 때나 설핏 알고 있는 지금 30대 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진대, 늘 마음 한 귀퉁이에 새겨져 있는 바람은 '아, 참으로 좋은 글을 쓰고 싶어라'였다. 허나 심신의 게으름을 천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탓에 심심찮게 그 바람은 잠깐 불어대는 바람으로 끝나곤 했다. 이런 까닭에 부족하고 헐거운 글을 후하게 대하여 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엎뎌 감사의 말씀을 거듭 거듭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한편, 그만큼 마음 한구석에 드는 부끄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끝으로 풍류를 핑계 삼아 각종 주류(酒類)를 벗으로 삼은 채, 아직도 사춘기를 앓고 있는 삶에 모자랄 데 없이 튼실한 바지랑대가 되어주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그럴싸한 기회를 빌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을 표해본다.

심사평



공직자들을 위한 문학의 축제

올해의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한 작품들은 각 장르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문학은 '마음을 기르는 밭'이라고 한다. 문학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아직 이루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작업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좀더 이상적인 세계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길로 안내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학이 인간의 심성을 기르는 토양이라는 점에서, 문학은 공무원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문학의 '정서'를 통해 흩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며, 문학의 '창의력'을 통해 한층 더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의 본심에는 시, 시조, 소설, 수필, 동시, 동화, 희곡 및 시나리오 등 7개 분야에 14명의 중진 및 원로문인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윤독, 그리고 투표로 이어지는 각축을 벌인 끝에 단편소설 「맹인과 등불」을 대상(대통령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대상과 마지막까지 겨룬 작품은 동화부문의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였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 오른 작품과 심사위원들의 소회는 다음과 같다.

〈시〉 부문의 최우수상 「화첩기행」은 3편으로 된 연작시다. 화첩의 세계에 몰입, 이를 통한 무한한 감성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과 기교가 뛰어나고, 연작시에서 빠지기 쉬운 단순기술을 탈피하여, 상상과 이미지의 연결이 생동감을 자아냈다.

〈시조〉 부문의 최우수상은 「겨울 담채」를 뽑았다. 시조가 지닌 미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훌륭한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단편소설〉 부문은 대상(대통령상)을 차지할 만큼 작품 수준이 높았다. 대상 수상작에 오른 「맹인과 등불」은 주제 처리, 구성, 문장 등이 단단하게 다져졌으며, 적절한 비유, 주제의식 노출의 절제, 문장미 등이 뛰어났다.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수필〉 부문의 최우수상 「비누거품」은 '마음 달래기'를 주제로 삼아 섬세하게 묘사했는데,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면서도 심각한 주제를 깔끔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

〈동시〉 부문의 수상작 「할아버지의 발톱」은 문학적 소양과 경력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으로서, 다른 작품들과는 구분이 확실해 보였다.

〈동화〉 부문의 최우수상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는 대상 수상작과 최후까지 겨룬 수작이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최신형 자동로봇 장난감을 소재로 삼았는데, 버려진 아픔 속에서도 자기 개발의 기적을 창출한 판타지형 동화였다.

〈희곡〉 부문 최우수상 「열아홉 살의 꿈」은 오늘날 고3 학생들이 겪는 일상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작품이다.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가 가슴에 와 닿는다.

끝으로, 〈공무원문예대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경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선된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낙선한 분들에게도 위로와 함께 재도전을 위한 분발이 있기를 기원한다.

시 부문 심사평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입상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금년도 시부문 총 응모 편수가 3,105편이라는데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많은 업무 수행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닌 분들이 많다는 것은 생각의 깊이를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심을 거쳐 본심으로 넘겨 온 작품을 읽으면서 오늘이라는 시대에 살면서 시가 찾아 갈 수 있는 무한한 세계에 우선 놀라웠고, 응모하신 분들이 추구하는 시의 세계와 감성이 무척 다양하고 폭 넓다는 데 놀라웠습니다. 그 뿐 아니라 언어 표현의 기법이나 기술 방법의 새로운 시도성도 돋보이는 또 다른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대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찾아가듯이 문학예술 역시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응모된 작품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상황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소재와 접촉하였을 때의 영감은 그 영감 자체에 몰입하기보다 현재라는 담론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성도 엿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라는 영역에서 예술적 감성으로 이행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응모자들의 작품 중에서 「화첩기행」(김종훈) 연작시에서 새로운 발상과 풍부한 상상의 이미지로 이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첩

속으로 몰입하는 무한한 세계가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가운데서 무언가 찾으려는 시인의 응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우리 시 작품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문학적 측면을 기다려도 될 것 같아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화첩기행」 _ 김종훈

화첩의 세계에 몰입하여 이를 통한 무한한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시인의 감성이 무난하다. 연작시로 쓰여 진 작품으로 자칫 범하기 쉬운 단순 기술을 탈피하여 상상과 이미지의 연결이 생동감을 나타낸다.

「산정」 _ 정승윤

산정의 깃 폭에서 한 점의 작은 표적으로 응시되는 심정적 감각을 잘 표현하였다. 산정이라는 일정한 영역에서 시인이 얻어진 강한 열정과도 같은 인상은 작품의 끝 행에서 보여 진다.

「비올리스트 용재오닐의 비올라섬」 _ 박순덕

한국전쟁의 비극 속에서 정신지체 1급의 미혼모를 둔 에버리 피쳐상을 수상한 용재오닐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대상에 대한 강한 인상을 충격과 잔잔한 감성으로 현실감 짙게 나타낸 작품이다.

「매미」 _ 이순미

아파트라는 도심 속의 세계를 통한 인간의 삶의 형상과 그 속에서 매미라는 대상을 표적으로 또 다른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한 단면을 그려주고 있다.

「낙원공원」 _ 김동선

서울의 도심 속에서 바라 본 한편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역사의 질곡이 있는 공원의 풍정은 오늘 날 노령 인구와 관련되는 현실적인 현상을 담았다.

「풀잎으로」 _ 김지은

풀잎으로 돌아가 볼 일을 "음모가 있고 칼부림이 있고 덧칠한 신문"이 있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심적 현상을 풀잎이라는 소재로 풀어 보이고 있다.

「출항일지」 _ 이종만

출항이라는 선창의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현장감 짙게 그려줌으로 강한 인상을 풍겨 주고 있다.

「별과 그물」 _ 강연복

별과 그물을 대상으로 하여 한편의 서정성을 짙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역시 살아가는 현실 위에서 하늘의 별과 땅의 그물의 대칭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숲 세탁소」 _ 권기덕

숲은 오늘날 인간의 마지막 보금자리다. 대칭으로 그려나간 이 작품에서 숲의 이미지와 고갈된 자연의 생동감을 산문시로 그려내고 있다. 대칭 현상을 원만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회 도서관」 _ 설창훈

이번 응모작품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와 관련되는 작품이 어떤 것일까도 생각해 보았다. 국회도서관이라는 실제적인 대상에 대한 내면의 강한 터치가 하나의 대상을 건축하고 있다.

「덕유산」 _ 서형택

덕유산을 한 폭의 화폭과 언어의 감성으로 그려주고 있다. 서정성의 일면을 역사적 안목으로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교사의 자리」 _ 김미화

이번 응모작에서 보기 드물게 공무의 현실을 그려준 작품이다. 교사라는 위치와 그 자리에 대한 깊은 연민과 통찰이 내면해 있는 작품이다.

「수업시간」 _ 유영길

위의 작품과 같이 교사라는 위치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단순한 기법을 좀 더 높였으면 한다.

김년균 (시인)

조병무 (문학평론가)

시조 부문 심사평

총 275편의 작품이 심사대상이 되었다. 시조는 형식이 있는 문학 장르로 형식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응모 작품들에서 우선 시조의 형식을 지키지 않은 작품은 선외로 하고, 시조가 지녀야 할 미학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작품을 고르느라 고심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총 7편의 작품은 우선적으로 형식미를 구현하고 있었고, 시조가 가진 미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장점들을 갖고 있었다.

이 점에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겨울담채」 _ 정영화

형식을 부리고, 형식미를 살리는 방법을 익히고 있고, 비유와 상징의 기법을 통해 겨울의 계절적 의미와 삶의 의미를 연결시켜 형상화 시킨 수작이다.

「모둠발 서는 나무」 _ 전세중

제목부터 상징적으로 처리하여 봄의 이미지를 잘 살려내고 있다. 더욱 시적 주제를 희망에 견주고 있는 미덕이 있었다.

「태안반도에서」 _ 노희석

시사적 상황이 시조의 형식 속에 잘 녹여진 작품이다. 민족시의 형식이 시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서라벌 눈 오는 날」 _ 서관호

자연현상과 역사성을 결부시켜 시조의 형식에 갈무리 했다.

「삶의 수채화」 _ 신기용

어려운 삶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

「모과나무」 _ 원정호

4수의 연시조로 끌고 가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곧 시조의 형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유의 꽃」 _ 김영기

시적 오브제를 통해서 삶의 아픔과 진실을 그리는 마음을 시조의 형식 속에 잘 담아두었다.

박영교, 문무학

수필 부문 심사평

예선을 거쳐 온 작품들 중에서 「비누거품」을 최우수상으로 하고 「작두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지게」를 우수상으로 선했다.

「비누거품」은 (마음달래기)를 주제로 삼아 섬세하게 이끌어가면서 다양한 변주(變奏)를 시도하면서도 심각한 주제를 깔끔하게 다듬어 갔다. 최우수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두 편의 우수상은 수필이 짓는 서정(抒情)이 얼마나 은근한가를 맛보게 한다. 그러나 추억을 주마등처럼 나열할 것이 아니라 추억을 변주(變奏)하여 새로운 호소력을 끌어내지 못한 점들 때문에 아쉬웠다. 그러나 우수상 두 편 역시 훌륭한 작품이라고 본다.

「이별준비」 _ 강기석

수필은 소재를 맴돌면서 이야기를 덧붙이는 시도가 되풀이되면 수필의 갖추어야 할 표현이 긴장감을 잃고 만다. 그러나 좋은 수필 작품이다.

「선별(選別)」 _ 최옥순

문장력을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수필은 사연(事緣)들을 묶어 열거하는 쪽을 피하고 깔끔하게 엮어내야 호소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유의

해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좋은 수필 작품이다.

「아차도」 _ 김관철

뒷부분에 가서 긴장감이 처지면서 진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버린 점이 아쉬웠다. 앞에서처럼 긴장감이 유지됐으면 좋은 수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다지오」 _ 최계순

수필은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變奏)해 가야지 이것저것 섞어서 끌어가는 이야기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이점을 유념하면서 창작해주기 바란다.

「청소」 _ 하상만

주제를 극적으로 다루었으면 형제 사이의 연민이 더욱 뭉클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너무나 평면적으로 나열한 점이 아쉬웠다.

「봄기운」 _ 김화숙

수필은 일상을 서술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된다. 일상(日常)에서 미처 몰랐던 삶의 뜻을 캐는 근기(根氣)가 있어야 좋은 수필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었으면 한다.

「화해」 _ 김화숙

문장력은 참 좋았다. 그러나 너무나 낯익게 이야기들을 나열해 수필의 호소력을 증폭(增幅)시키지 못해 하소연으로 치닫고 말아 아쉬웠다.

「반짇고리」 _ 심금섭

문장력은 참 좋았다. 회상(回想)들로 많은 부분이 할애돼 수필이 추억의 진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말았다. 수필은 진술이 아님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윤재근, 김시원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근래에 와서 공무원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공무원 개개인의 우수한 자질 때문일 게다. 그래서인지 이번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한 작품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투고된 작품 중 몇 편은 본업인 공무 틈새에 쓴 아마추어들의 작품으로 볼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다.

대통령상을 받는 「맹인과 등불」은 주제처리, 구성, 문장 등이 단단히 다져진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실명한 남자다. 그는 매일 집에서 일 나간 아내가 귀가할 시간만 기다린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늦은 시간에 향기가 집의 것과 다른 비누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다. 아내에게는 때로는 밤꽃향기도 나고 머리칼이 젖어 있는 상태로도 귀가한다. 시력을 잃은 후 후각이 아주 발달한 이 남자는 아내의 그런 변화를 그때 그때 감지한다. 결국 이 남자는 아내가 사다 준 효험이 신통한 약을 모두 버린다. 아내의 때밀이 직업을 오해하고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서사로만 보면 이 소설은 범속하다. 그러나 이 소설은 적절한 비유, 주제의식 노출의 절제, 문장미로 이런 통속성을 뛰어 넘는다. '백김치 같은 목소리', '깨어 봐도 세상은 여전히 붕대에 감겨있었다' 이런 적절한 묘사가 곳곳에서 독자의 오감을 자극한다. 독자의 상상에

맡겨 버리는 결말의 '애매함' 역시 구성을 돋보이게 한다. 때밀이도 되고 노래방 도우미도 되는 아내, 그런 아내를 오해한 남편, 이런 대중취향의 주제, 그러니까 신파 같은 내용을 이 작가는 전혀 통속하지 않은 사건설정과 묘사로 그런 한계를 벗어 버린다. 그리고 애정이 상실된 소멸 직전의 부부관계를 재탄생시키는 긍정의 서사로 주제를 구축해 낸다. 결말의 테크닉이 이것을 수행한다. 이런 점은 소설 기술자로서 이 작가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보훈가족」, 「미다시로 지은 집」을 우수상으로 뽑는다.

「보훈가족」은 당연히 보훈 유가족이 되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법조항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전쟁의 이면사와 함께 다루고 있다. 힘 있는 문장, 시원한 결말이 돋보인다.

「미다시로 지은 집」은 무산자와 자본가의 대립되는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밀도 있게 재생해 내고 있다. 아마추어 작가의 한계를 넘는 소설적 성취로 판단되었다.

「가나안」, 「회춘」, 「사진 속에 비친 세상 풍경」, 「다른 문을 찾다」를 장려상으로 올린다.

아직은 설익은 듯 한 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가 곧 걷힐 것으로 판단된다. 작품마다 상당한 잠재력이 내장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양호, 김진희

동시 부문 심사평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동시부문의 응모작은 총 386편이었다. 응모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응모자들의 동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이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다. 동시는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씌어진다는 생각에서인지 어린이스러운 사고와 언어로 단순하게 써도 된다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주문을 먼저 말하고 싶다.

동시는 쉬운 시 일지는 몰라도 쉽게 쓸 수 있는 시가 아니다. 시적인 감성이 동시라서 얕아도 되거나 말장난으로 흘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위험하다.

이번 응모작품에서도 누군가가 이미 사용한 주제여서 신선함이 부족하고 덜 다듬어져 시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동시가 눈에 많이 띄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작품은 있기 마련이다. 전체의 작품 중에서 뽑힌 동시는 상당한 수준을 가진 기본과 경력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어서 다른 동시와의 구분이 확실해 보였다. 뽑힌 분에게 축하를 드린다. 장려상 중에도 우수상에 들어갈 작품도 있지만 제한 편수 때문에 빠지신 분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할아버지의 발톱」 _ 정성수

응모작품 대부분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있다. 시를 끌고 가는 능력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한다. '가위로도 깎아지지 않는/할아버지 발톱은

발톱도 할아버지다' 말을 만지는 솜씨가 자연스럽다. 특히 마지막 연이 이 시를 끌어 올렸다.

「도라지꽃」 _ 임동학

무리없는 상상력과 특히 사물을 보는 관점이 어린이의 마음에 다가간 눈높이가 돋보인다. 구체적이고 따뜻한 시각이 장점이다. 할머니 무덤에 핀 도라지꽃을 보고 무덤 속에서 할머니가 가꾸신 꽃으로 마무리한 끝맺음이 간결하다.

「신나는 통통배」 _ 박영식

생활주변에서 놓치기 쉬운 소재를 글감으로 택하는 능력이 훌륭하다. 응모작 모두 고른 수준이다. 그중에서 '신나는 통통배'가 뽑힌 이유는 함축적인 표현이 다른 작품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다.

「캄캄한 밤」 _ 서동숙

응모작 중에서 '캄캄한 밤'이 가장 나았다. 우선 시의 전개가 독특하다. 그 독특함이 자칫 어린이 독자와의 간격을 염려하게 되었으나 다른 작품으로 보아 뒤를 믿게 되었다.

「비오는 날」 _ 문현식

깔끔한 수채화를 보는 느낌이다. '비가 오는 학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참 조용한 아침입니다' 자칫 설명적인 소묘에 그칠 뻔한 작품을 살아나게 한 마지막 연이다.

「시험지」 _ 송명숙

이 작품은 어린이의 감성에 맞아 떨어진다. 어린이들이 읽는다면 "내 얘기"라고 고개 끄덕일 것이다. 다른 작품은 발상이나 표현에서 새로운 면이 부족하였다.

「둘이서 자전거 타고」 _ 심장근

자전거 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자연스러울 수 없는 표현으로 잘 나타난다. 다른 작품을 보아도 시적인 기교는 충분해 보인다. 기교보다 더 중요한 시의 요소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

「멸치의 꿈」 _ 권지현

발상에서 시로 옮겨가는 과정이 탄탄하다. 그러나 대체로 작품에서 요설이 길다. 네 번째 연에서 '책갈피에 오래 파묻힌~' 라고 표현한 것은 어색하고 걸린다. 그 행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김철민, 정두리

동화 부문 심사평

동화의 심사 기준은 참신한 패기, 작품의 완성도, 치밀한 구성력, 탄탄한 문장력에 두었다.

눈길을 끈 작품은 「베트남에서 온 엄마」, 「점박이」,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은빛 날개」, 「꼬마 화분」, 「학교종」, 「할머니의 금메달」, 「새치 뽑던 날」, 「해바라기의 꿈」이었다.

동화의 본령은 환상적 상상력의 소산물이다. 판타지형 동화를 만난 기쁨이 컸다. 아동문학은 꿈의 문학이요, 해 돋는 아침의 문학이다. 재밌고 교훈성이 형상화되어 스며있고, 개연성 있게 반전의 효과를 극대화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마지막 선을 통과하였다.

「베트남에서 온 엄마」는 다문화 가정이 겪는 애환을 다룬 이야기가 쇼킹했고, 시의성이 높았다. 남쪽 하늘 작은개자리의 고메이사란 울보별의 이야기와 버림받은 떠돌이 개를 대칭시킨 치밀한 구성력이 돋보였으나 원고량이 20매 이상 초과되어서 부득이 선에서 제외되어 아쉬웠다.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신형 자동로봇 장난감이지만 버려진 아픔에서도 자기개발의 기적을 창출한 판타지형 동화로 70매의 단편소설과 대통령상을 겨눈 수작이었다.

「점박이」는 「베트남에서 온 엄마」와 엇비슷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집에서 기르는 점박이 송아지와 얼굴에 점이 있었다는 엄마를 대칭시킨 화해의 메시지가 시의력을 지녔다.

선에서 밀린 작품들은 훈화적인 이야기, 미담적 이야기, 도식적 이야기와 동화적 측면보다는 소설적 측면에 치우쳤거나 다른 장르의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이었다.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_ 서향숙

언제부턴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산다. 뿐만 아니라 멀쩡한 장난감도 싫증이 나면 버리고 마는 현실 문제를 소재로 버려진 장난감마저도 꿈을 잃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주제를 치밀한 구성으로 의인화시킨 판타지형 동화다. 판타지형 동화는 우선 재밌다. 현실과 꿈의 세계를 넘나드는 동화의 세계는 환상적 상상의 소산이다.

「점박이」 _ 최만호

점박이는 어미 소가 낳은 송아지다. 얼굴에 점이 있었다는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의 애환을 다룬 소재의 시의적 대화가 생동감 있고, 작품의 구성력과 완성도가 돋보인 생활동화다. 탄탄한 스토리와 소망과 화해의 어필로그 역시 작가의 저력이다.

「은빛 날개의 비늘」 _ 서동숙

미세한 서정성이 높은 은빛 날개 비늘은 문체의 아름다움과 심리 묘사가 돋보인 의인화 동화다.

남의 것만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현상에서 내 것이 더 귀함을 깨닫는 에필로그가 아름답다.

「학교종」 _ 이종욱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학교종에 대한 동경에 잠기게 하는 문장력이 끝까지 읽게 하는 생활동화다.

「꼬마 화분」 _ 장흥진

화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인정이 피어나는 구성이 아름답고 재밌다. 의인화된 꼬마 화분의 인정미가 그늘진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 잔잔한 기쁨이다.

「할머니의 금메달」 _ 이윤정

편모 가정의 아이가 할머니와 살며 멀리 일하러 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이가 메달의 가치를 깨닫고 어머니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심성이 반짝반짝 빛난다.

「새치 뽑던 날」 _ 임동학

남매가 부모님 새치를 뽑다가 누나는 부모님이 늙어 가시는 게 안타까워서 짜증이 났는데 동생은 누나가 사춘기라고 놀린다. 오해를 받은 누나는 어머니가 늙지 않으시게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한다. 효도하는 마음이 따스하다.

조대현, 김재용

희곡 · 시나리오 부문 심사평

희곡은 삼일치의 법칙이라 하여 시간, 공간, 등장인물에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한 편의 희곡을 쓰기란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작업이다.

이번에 응모해온 작품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쓰기 어려운 희곡은 피하고 비교적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드라마나 시나리오 쪽에 작품들이 쏠려있는 것을 보고 선자들도 은근히 놀랬다. 허나 장르가 어느 쪽이든 모든 작품은 독자나 관객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더구나 전문적인 작가들이 아닌 응모자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선자들은 우선 자신의 목소리를 비교적 선명하게 표현한 작품들에 중점을 두었다.

지하철을 무대로 한 「레일 위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다. 또 무대의 형상화도 어려워 보였다. 젊은 연인들의 애정과 애환을 그린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마지막까지 눈에 띄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얘기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읽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사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 중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쓴 「福壽草」는 그 노력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작위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어 아쉽게 뒤로 미루었다.

이 분들은 앞으로 정진 여부에 따라 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엿보였다. 분발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까지 남은 「황톳길」은 불과 몇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를 아주 실감 있게 그려냈다. 피의자와 형사라는 희곡의 갈등 구조도 훌륭했고 두 사람의 성격형성도 뛰어났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너무 단편적이고 아직 작품을 다루는 솜씨가 미숙하였기에 장려상으로 뽑았다.

불법체류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방인」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늘진 면을 설득력 있게 잘 그렸다. 다만 얘기가 너무 평범하고 통속적이라는 흠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재능이 뛰어나 우수상으로 뽑았다.

「열아홉의 꿈」은 오늘의 고3 학생들이 겪는 일상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작품이다. 흔히 알고 있는 주변의 얘기이면서도, 우리가 알고도 놓치고 있는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들을 가슴에 와 닿게 그려 보인다. 쉽게 읽히면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시종 목소리만 으로 처리한 일인극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극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등장인물들을 무대에 올려놓고서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한 이야기를 목소리만으로 처리한 부분이 아쉬웠다. 그러나 이렇게 주변의 생활에 밀착해서 살아있는 대사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드물었다. 선자들은 오랜 망설임 끝에 이 작품을 최우수상으로 올려놓았다.

「열아홉의 꿈」 _ 이춘영

오늘의 고3 학생들이 겪는 일상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작품이다.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얘기들을 생활에 밀착하여 실감있게 그렸다.

「이방인」 _ 선미애

불법체류자의 얘기를 설득력 있게 다루었다. 다만 얘기가 평범하고 통속적인 면이 보여 우수상으로 뽑았다.

「황톳길」 _ 김성민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그렸다.

피의자와 형사 사이의 갈등 구조도 뛰어났다. 그러나 작품이 너무 단편적이고 조금은 솜씨가 미숙해 보여 장려상으로 뽑았다.

김흥우, 성준기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 심사평

맹인과 등불 _ 서울 서대문구 김성기
주제 처리, 구성, 문장 등이 단단하게 다져졌으며, 적절한 비유, 주제의식 노출의 절제, 문장미 등이 뛰어났다.

화첩기행 _ 울산 범서초교 김종훈
화첩의 세계에 몰입, 이를 통한 무한한 감성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과 기교가 뛰어나고, 연작시에서 빠지기 쉬운 단순기술을 탈피하여, 상상과 이미지의 연결이 생동감을 자아냈다.

겨울담채 _ 경상북도 정영화
시조가 지닌 미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훌륭한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비누거품 _ 인천광역시 김외순
마음 달래기를 주제로 삼아 섬세하게 묘사했는데,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면서도 심각한 주제를 깔끔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

할아버지의 발톱 _ 전주 송북초교 정성수
문학적 소양과 경력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으로서, 다른 작품들과는 구분이 확실해 보였다.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_ 광주 계수초교 서향숙
대상 수상작과 최후까지 겨룬 수작이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최신형 자동로봇 장난감을 소재로 삼았는데, 버려진 아픔 속에서도 자기 개발의 기적을 창출한 판타지형 동화였다.

열아홉의 꿈 _ 김해 삼문고 이춘영
오늘날 고3 학생들이 겪는 일상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작품이다.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가 가슴에 와 닿는다.

한때 다른 남자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혹은 다른 삶, 동반자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배반이다.

서럽고 억울하지만 맞닥뜨린 것들에게 항거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일도 청바지를 입고 씩씩하게 집을 나설 것이다

